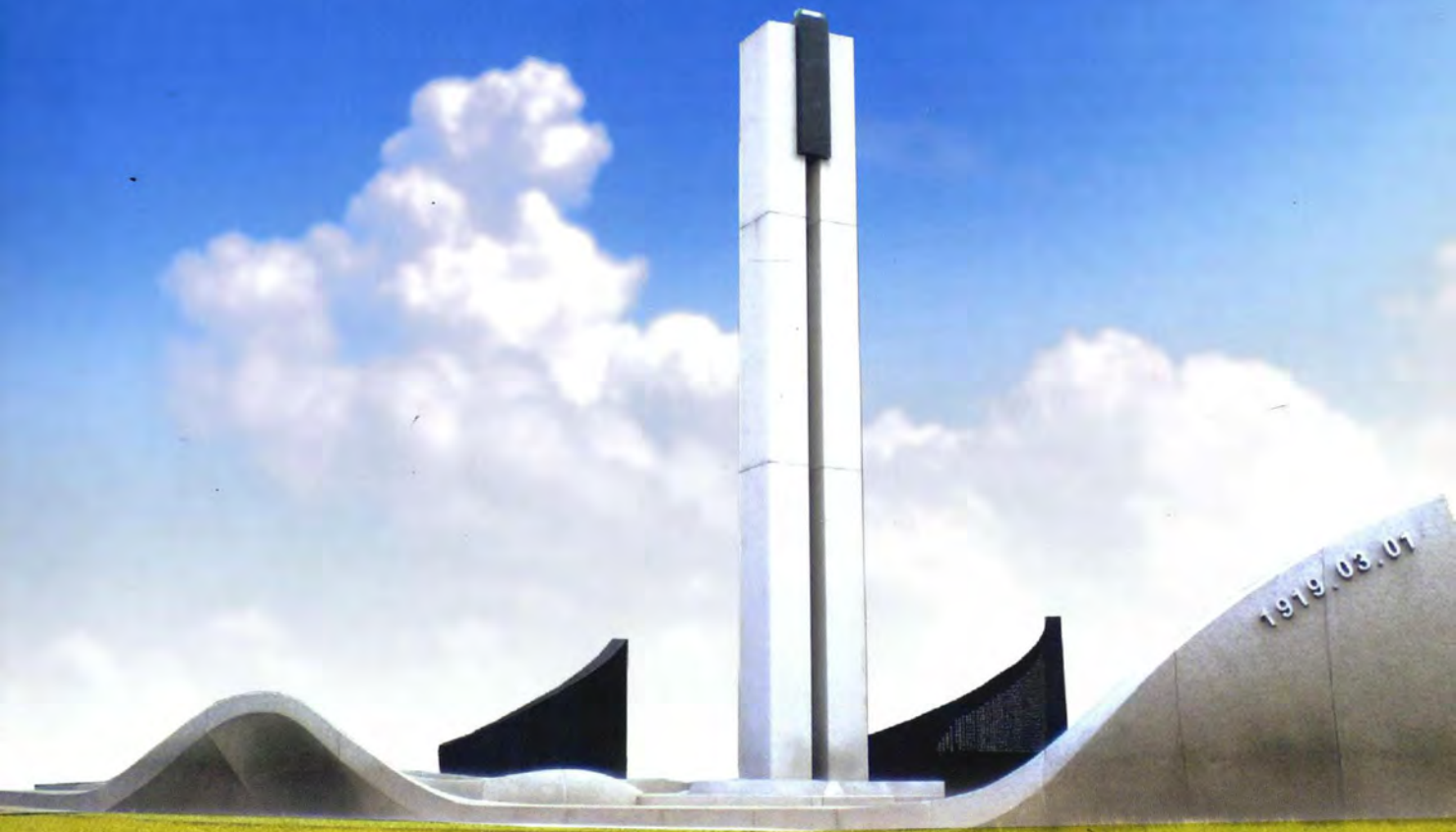




# 성남지역 3·1운동 연구 자료집



성남지역 3·1운동 연구 자료집

성 남 문 화 원

[발간사]

## 독립 정신의 계승을 통한 성남 사랑



한 춘 섭  
(성남문화원장)

1919년 3월,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거룩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정신이 일시에 용솨음 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이 반만년 누려온 이 나라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고, 우리의 말을 빼앗았으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뿌리인 성과 이름까지도 말살하려 했습니다.

한 겨레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이에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연하게 떨쳐 일어나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한 값진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병들이 일제를 몰아내려고 목숨을 던졌고, 1919년에는 파고다 공원을 시작으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총칼로 위협하는 일본의 서슬 퍼런 무력 앞에서 당당하게 대한의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사정에 힘을 얻은 우리 고장 성남에서도 의병과 만세운동의 지도자가 연이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남시가 전국 10위권 안에 드는 잘 사는 도시로 우뚝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우리 선조들이 기초를 다져온 튼튼한 <나라사랑>과 <향토사랑의 정신>이 곳곳에 스며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율동 공원 일대에서 한백봉, 한순회의 주도하에 시작된 만세운동과 전 낙생면장 남태희의 주도하에 일어난 낙생면민들의 시위는 연합세력을 이루어 목이 터지도록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단대리와 탄리, 수진리의 주민들 역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 쫓기 하였던 민족적 쾌거입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한백봉 선생과 같이 모진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른 이들과 이름도 없이 희생되어간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성남지역의 3·1운동 기념사업을 시작 한지도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본인과 현 시의회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전 남선우 원장님과 3·1운동기념사업회 한동역 상임부회장과 더불어 맨 손으로 시작했던 기념사업이 어느덧 해마다 성대하게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고, 울동공원 내에 만세운동 기념공원과 기념탑을 건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빛내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피 흘려 되찾은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번영된 나라로 가꾸어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조들의 그토록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찾고자 했던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선양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지역 3·1운동 연구 자료집>의 발간은 그러한 정체성 찾기의 작은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세운동 당시의 일본제국주의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자행하였던 상황에서 당시의 자료들은 거의 남지 않고 소멸해 버렸습니다. 당시의 작은 신문기사 한 조각 찾아내기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일제가 우리의 애국선열들을 탄압했던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 단서를 얻어야만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애국선열들의 독립투쟁의 흔적을 찾아 나가고 이를 기록해 두며, 나아가서 잊지 않고 기억해 나가면서 새로운 번영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문화원은 향후에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념관의 건립과 애국정신 체험학습 학습장의 조성 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 작은 자료가 기념사업 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성남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 성남지역 3·1운동 연구 자료집

## - 목 차 -

- 발간사 : 한 춘 섭 (성남문화원장) ..... 3
- 제1편 성남 3·1운동 자료 ..... 11
  - 1. 3·1운동 근거자료 ..... 13
    - 이병헌 편저, 『3·1운동 비사(三一運動秘史)』
    - 국학자료원, 『삼일운동편』 1, 2권
    - 김승학, 『한국독립사』
    - 율동 봉화 만세 터 위치도
  - 2. 만세운동 인물자료 ..... 17
    - 가. 한백봉 선생 관련자료 -(17)
      - 공적조서
      - 판결문 원문 (경성지방법원판결문, 경성북심법원판결문, 고등법원 판결문)
      - 판결문 (번역문)
      - 수형 기록카드
      - 청주한씨 유사보감 (하권)
      - 족보상의 기록
      -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 독립유공자 평생이력서
      - 수석시
      - 물산장려운동시 만든 멜빵끈
      - 사진 (존영, 훈장, 훈장증)
    - 나. 한순회 선생 관련자료 -(34)
      - 공적조서
      - 독립유공자 공훈록
      - 한순회 신문조서 (일본어 원문)
      - 한순회 신문조서 (번역문)
      - 김광준 신문조서
      - 신간회 지회 설치에 관한 일본측 조사 서류

-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에 관한 기사  
    <동아일보>, <중외일보> 1927년 8월 27일 신간회 광주지회 창립
  - 한순회의 독립운동 관련기사  
    <동아일보> 1938년 5월 1일
  - 청주한씨 유사보감 하권
  - 사진 (존영, 표창장, 묘소와 묘비, 제암일지)
  - 신간회 광주지회 임원
- 다. 이시중 / 이재순 2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 -(50)  
    이시중 / 이재순 재판기록 (번역문)  
    이시중 수형기록카드
- 라. 김교상 판결문 원문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62)  
    김교상 판결문 (번역문)
- 마. 이종훈 판결문 (원문) -(72)
- 바. 성남지역 내 독립유공자 유적지 -(75)

## 제2편 성남 3·1운동 문헌자료 . . . . . 77

-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79)
- 『한민족독립운동사』 (3권-경기도편) -(80)
-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2편-성남시편) (81)
- 『광주군지』 「역사편」 <삼일운동> -(83)
- 『성남지역의 역사』 (근, 현대 성남지역 요약)<3·1운동사> -(84)
-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낙생면의 만세시위운동」 -(86)
-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독립운동가」 -(86)
-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돌마면의 시위운동」 -(90)
-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돌마·낙생면의 연합시위운동」 -(91)
-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대왕면의 만세시위운동」 -(92)
- 『성남시사』, 2004년 -(93)
- 『돌마마을지』 (하), 2008년 -(99)
- 『경기남부 독립운동 사적지』 -(103)

제3편 성남 3·1운동 연구 논문 ..... 107

1.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기념, 제1회 학술발표회 ..... 109

- 발표논문 1. 백남옥,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 발표논문 2. 한동역, 울동의 3·1만세운동 경위

2.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문화교실 개강식 특강, 제2회 학술발표회 ..... 127

- 인사말씀 (한춘섭 회장)
- 발표논문 1. 서승갑,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특성
- 발표논문 2. 현종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3. 성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 세미나 자료집 ..... 152

- 발표논문 1. 한동역, 울동 3·1독립만세운동의 실태
- 발표논문 2. 사업회, 성남 3·1운동 기념사업 제안

4. 2008년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학술토론회 ..... 171

- 기념시 “만세 터에 서서” (한춘섭 원장)
- 개회사 (김대진 회장)
- 발표논문 1.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서승갑)
- 발표논문 2. 성남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 (한동역)

5. 2009년 「성남지역 독립운동 학술토론회」 ..... 204

- 개회사
- 인사말씀
- 일정표

제4편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자료 ..... 209

1.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211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정관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연혁

2. 성남3·1운동 기념식 . . . . .	217
○ 1999년 - 80주년 3·1절 기념식 행사	
○ 2000년 - 81주년 3·1절 기념식 행사	
○ 2001년 - 82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 2002년 - 83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추념식	
○ 2003년 - 84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추념식	
○ 2004년 - 85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 2005년 - 86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 2006년 - 87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 2007년 - 88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 2008년 - 89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 2009년 - 90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3. 기념관 건립 청원서 . . . . .	260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제한서	
3·1 기념관 소위원회	
'가칭' 성남 3·1운동 기념탑 계획안	
4. 회장 이·취임식 자료 . . . . .	301

**제5편 언론보도자료 . . . . . 307**

1. 신문기사 보도 자료 . . . . .	309
청주한씨보 (1999. 3. 1)	
리빙타임즈 (2000. 2. 15/ 2. 22 / 3.3)	
리빙타임즈 (2001. 2. 13/ 2002. 1. 22/ 2. 19)	
시티타임즈 (2002. 3. 5)	
"어떠한 역사도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이죠" (남선우 원장)	
율동공원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한춘섭 회장)	
님, 사랑, 침묵의 예술혼 (전보삼 교수)	
광복절 애국선열 묘소 참배 추념사 (한춘섭 초대 회장)	
2. 성남 3·1운동에 관한 논설, 제안 . . . . .	321
소중한 문화유산 재창조돼야 (남선우/ 발언대)	
율동공원에 3·1독립만세 기념탑을 세우자 (조병로)	
3·1운동 기념사 사업회 창립기사	
1919. 3·1<주체, 문화, 기억>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토론회	

3·1독립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 천도교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 동북아역사재단

**제6편 부록** . . . . . 345

1. 타 지역 만세운동 기념사업 자료 . . . . . 347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안성 만세운동 기념관
- 화성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 국사편찬위원회 건국기념관

2. 자료편 . . . . . 349

- 선언서 (원문-복사본)
- 조선 소요사건 일람표

여 백

제 1 편  
성남 3·1운동 자료

여 백

# 1. 3·1운동 근거자료

## 이병헌 편저, 『3·1운동비사(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출판국 발행, 1959년, 서울

광주(廣州)

○ 3월 26일 송파 시장에 300여명이 집합하여 헌병분견소를 습격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행렬을 하였다.

○ 3월 27일 경안에서는 천변에 수천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으며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는 봉화를 올리는 한편 판교(板橋)에서는 수백 명이 돌마·낙생(突馬·樂生) 양면민과 합세하여 낙생면장 남태희(樂生面長 南台熙) 선두로 만세를 부르면서 천도교구로 갈 때 일본인 헌병 송도(松島)도 같이 만세를 부르고 그 부인도 동정하였다. 언주면 내곡리(彦州面 內谷里)에서 천도교 전교실에 수백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다. 강만 건너면 서울이라 날마다 밤이면 산에 불을 놓고 만세를 불렀는데 낮이면 서울시내로 들어오고 하여서 경찰이 엄중히 수사하였으나 매일 계속하므로 경찰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였었다.

○ 광주는 지리로 보아 산이 많고 또 각처로 통행하는 도로가 많아서 경찰과 헌병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경계에 치중하였다. 천도교장 한순회(韓順會)씨는 이천, 여주, 원주, 충북에 연락하는 책임을 지고 때때로 서울을 왕래하는 한편 독립운동비를 수집하여 수감된 유가족과 기타 비용에 쓰라고 중앙으로 보냈다.

○ 3월 28일 2000여명이 경안(京安)으로 가서 군청에 들어가 군수를 보고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자고 요구할 때 일본인 청산(靑山 ; 군청직원)이 엽총으로 쏘아 이재복(李載福)씨가 맞고 쓰러졌다.

○ 3월 27일 중대면(中垔面)은 윤도길(尹道吉)씨가 지휘하여 시위를 하였다.



## 국학자료원, 『3·1운동편(三一運動編)』 (1)

- 3월 26일 경기도 뜻섬 : 1,500명이 투석, 곤봉 등으로 폭행하므로 발포해산. 일본헌병3명, 조선인 3명 부상.(p.152)
- 3월 27일 광주군 송파리 : 300명이 면사무소 습격(p.152)
- 3월 28일 광주군 상일리 : 헌병주재소를 1,000명의 군중이 습격, 부상자 2명 (p.153)
- 3월 28일 산성리 : 약 300명이 집합하여 폭행 공포를 쏘아서 해산.(p.153)
- 3월 27일 광주군 서부면사무소 : 군중 1,000여명이 투석을 하며 시위를 벌여 헌병 발포해산. 사망1, 부상자 2명 발생. (p.154)
- 3월 27일 광주군 중부면에서 시위군중이 면장을 구타 폭행하므로 헌병이 발포하여 해산 (p.154)
- 3월 28일 광주군 주막리 : 약 1,000명의 군중이 봉기함. 79연대 병력이 진압. 시위 군중에서 약간의 사상자 발생(p.155)
- 3월 30일 풍덕천 부근 : 시위군중 2,000명이 소요. 출장중인 헌병을 폭행하므로 발포 해산. 사망자 2명.(p.157)
- 3월 28일 경안면 경안리 군청 앞 ; 군중 2,000여명이 군청 문앞에서 만세를 높이 부르며 군수에게 만세에 앞장설 것을 요구. 발포 해산. 우편소 유리창 등이 파괴되고 사망자5, 부상자 10여명.(p.335)

## 국학자료원, 『3·1운동편(三一運動編)』 (2)

- 3월 27일 오후 1시 : 광주읍 34세의 농부 구전면(具銓冕)이 5~600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헌병이 발포하여 사망.(p.368)
- 1919년 5월 12일에 조선총독부에 보고된 만세운동 피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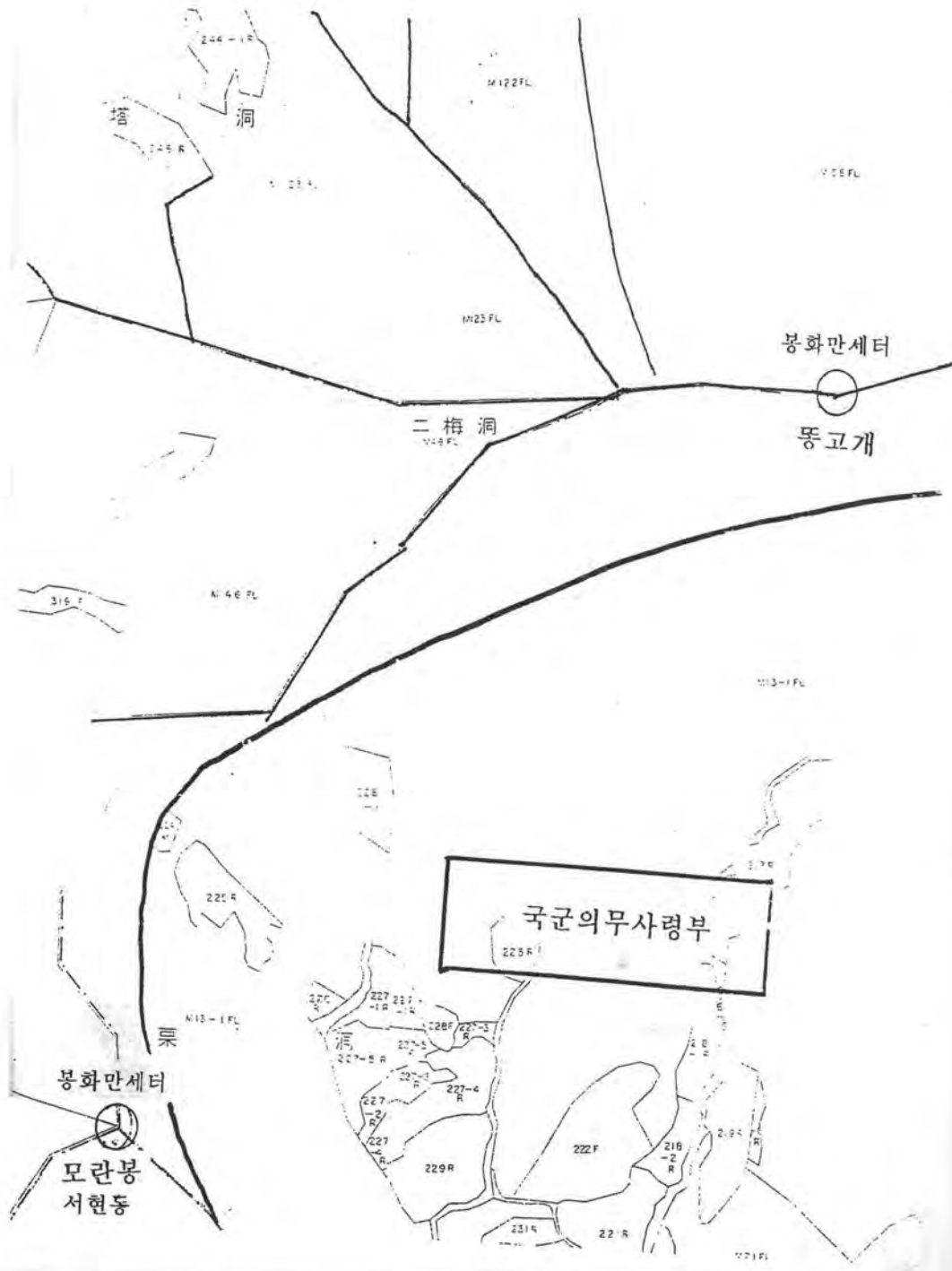
군청 : 양평, 광주, 괴산, 함안, 남해군 등 5개소 중 경기도 2곳  
면사무소 : 전국 47개소 중 경기도 19면  
경찰관서 : 전국 45개소 중 경기도 6곳  
우편국소 : 3곳

## 김승학, 『한국독립사』, 1967. 서울

- 만세운동 진행 일람표 : 3월 26일 광주, 군중 300명이 만세 시위(p.184)
- 독립운동일람표 : 광주, 21회에 걸쳐 총 7,500명이 만세 참여(p.185)
- 이종훈 : 호 정암(正庵). 25세에 동학에 가입하였고 1894년 갑오 동학운동에 참여하였으며, 3·1운동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의 1인으로 독립을 선언 하고 2년형을 살았다. 4268년에 81세로 서거하였다. 4295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추서(復章)(p.677)

## 을동 봉화 만세 터 위치도

(모란봉과 뚝고개 2곳에서 밤새워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음)



## 2. 만세운동 인물자료

### 한백봉 선생 관련 자료

#### 한백봉 공적조서

- 유 공 자 명 ; 한 백 봉 (韓百鳳)
- 생 년 월 일 ; (양)1881년 08월 28일
- 사망 년월일 ; (양)1950년 10월 30일
- 본        적 ; 광주 突馬 栗
- 독립운동당시 주소 ; 京畿 廣州 突馬 栗
- 관 리 번 호 ; 6177
- 훈        격 ; 애족장
- 포 상 년 도 ; 1990
- 운동계열 ; 3·1운동
- 소속 및 지위 ; 主動者
- 독립운동기간 활동지역 ; 廣州
- 수 형 년 수 ; 징역 1년
- 복 역 년 수 ;
- 공 적 개 요 ; 1919. 3.28 ~ 29 양일에 걸쳐 광주군 돌마면 각 동리를 순회하면서 수백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주동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한백봉 판결문(판결법원 ; 경성지방법원)

사건개요 1919년 3월 경기 광주군 돌마면 독립만세운동 관련 판결문

판결문번호 미기재(19190502,한백봉)

판결일 1919/05/02

未決

三十九日

韓 石 鳳

朝鮮總督府裁判所

判決原本

大保慶及近右社告身件片於前  
 於時於身代程可居友似補是未及  
 於干無書供元下在如  
 主文  
 社告身是役一事、亦及  
 亦收物片之、保及  
 社告、張東進、於結獨立會言  
 社告、張東進、於結獨立會言

0567

未決

三十九日

韓 石 鳳

朝鮮總督府裁判所

判決原本

大保慶及近右社告身件片於前  
 於時於身代程可居友似補是未及  
 於干無書供元下在如  
 主文  
 社告身是役一事、亦及  
 亦收物片之、保及  
 社告、張東進、於結獨立會言  
 社告、張東進、於結獨立會言

0568



한백봉 판결문(판결법원 ; 경성복심법원)

사건개요 1919년 3월 경기 광주군 돌마면 독립만세운동 관련 판결문

판결문번호 대정8형공제364호

판결일 1919/07/09

大正八年刑控第三六四號  
 京畿道廣州郡安馬面栗  
 里在籍右任農  
 韓百鳳  
 右對スル保安法違反被告事  
 仲ニ付大正八年五月二日京城  
 地方法院言渡シタル有罪判  
 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申  
 立リタルヲ以テ尚院ハ朝鮮經  
 督府檢事澁谷有享ヲ其審理  
 判決スルコト允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理由  
 被告ハ大正八年三月一日以降朝  
 鮮各地ニ於テ日韓國之旗ヲ  
 押立テ朝鮮獨立萬歲ヲ高  
 唱スル獨立示威運動ヲ行ハ

0571

右ルコトヲ知り其報ハニ贊  
 同シ之ト同行動ヲ執ルニ止ト  
 シ同月二十八日其居村ニ於テ  
 里民約五十名ヲ集合シタル  
 上他ヨリ其聲ヲ贊シ來集シ  
 タル群衆數百名ト合一團  
 ニナリ之ト共ニ同日午後八時  
 頃ヨリ翌二十九日夕刻ニ至ル  
 迄、同押收ニ係ル舊韓國  
 國旗ヲ押立テ朝鮮獨立  
 萬歲ト高唱シ、居面各  
 里ヲ也行シ獨立示威運動ヲ  
 為シ因テ治安ヲ妨害シタル  
 右、事實ハ尚法廷ニ於ケル被  
 告、利示犯罪事實ト同一振  
 舞、供述及押收領第一九五  
 號、日韓國之旗一旒、現在ヲ  
 綜合シ之ヲ觀ム  
 法ニ照スニ被告、所為ハ犯衆後  
 、法令ニ因リ刑、變更アリ夕

0572

此ノ以テ刑法第八條第六條ニ  
 ヲリ新舊二法ヲ比較シ其輕キ  
 者ヲ適用スヘキモノト又初シテ  
 新法ニ依リハ其所爲大正八年  
 制令第七號第一條第一項ニ  
 該法ニ依リテハ其所爲  
 保安法第七條朝鮮刑事令  
 四十二條ニ該法ニ依リテハ其所爲  
 十條ニ依リテハ其所爲  
 輕キヲ以テ保安法第七條  
 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ヲ適用  
 シ所定刑中二年以下懲役  
 刑ヲ選擇シ其刑範圍内ニ  
 於テ懲役一年ニ處スヘク押收  
 領第一九五號、日韓國之旗  
 一號ハ犯罪ノ用ニ供シタル犯  
 人以外、若シ屬也ナル物ナルヲ  
 以テ刑法第十九條第一項第  
 二號第二項ニ依リ沒收スヘ  
 キモノナリ

朝鮮總督府裁判所

0573

右ノ同 源山ニ出タル原判  
 決ハ相當ニシテ被告ノ控訴  
 ハ理由ナシトシテ刑事訴訟法  
 第二百六十一條第一項ニ則  
 テ王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七月九日  
 京城覆審法院刑事部  
 判事 堀原友太郎  
 山口均四郎  
 大塚才六郎  
 右曉事也  
 大正八年九月十九日  
 京城覆審法院  
 書記 倉山 徳兵衛  
 朝鮮總督府裁判所



0574

한백봉 판결문(판결법원 고등법원)

사건개요 1919년 3월 경기 광주군 돌마면 독립만세운동 관련 판결문

판결문번호 대정8년형상제730호

판결일 1919/09/13

大正八年刑上第七三〇号  
 判決  
 多羅道之廣州郊突馬面栗里  
 農  
 被告人 韓百鳳  
 百世至辛九年

右 高等法院 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七月九日多羅道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被告人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本件上告ハ上告ノ意ニ即チ  
 理由

0575

上 韓百鳳 刑上七三〇号ニ於テ  
 第一審及第二審ニ於テ及メ  
 不服ニシテ服從スル能ハ  
 存)

然レトモ本判決ニ判示セシ被告ノ行爲ハ刑上ノ適用セシ法律ニ依リテ當ラスル所ナリ其適用セシ法律ニ向テ罰金ニシテ處罰スルハ正當ナリ被告ノ所行ハ刑上ノ適用セシ法律ニ依リテ當ラスル所ナリ其適用セシ法律ニ向テ罰金ニシテ處罰スルハ正當ナリ被告ノ所行ハ刑上ノ適用セシ法律ニ依リテ當ラスル所ナリ其適用セシ法律ニ向テ罰金ニシテ處罰スルハ正當ナリ

— 高等法院 —

0576

右說明ノ如ク本件上告ハ理由ナキヲ以テ刑事訴訟法第二百八十五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九月十三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許 昌

朝鮮總督府判事

石 川

朝鮮總督府判事

松 田 俊 夫

朝鮮總督府判事

水 路 亨 吉

朝鮮總督府判事

石 井 正 一

高等法院

高等法院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石 見 正 一

右謄本也

大正

高等法院 十三日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李 國 新

## 한백봉 판결문(번역문) <독립운동사자료집 5 : 삼일운동 재판기록>

### 판결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율리(栗里)

농업 한백봉(韓白鳳) 39세

위 보안법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 시보 화촌미수(花村美樹)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주문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 이유

피고는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선언서의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독립시위운동을 하려고 기도, 대정 8년 3월 28일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에서 이민에게 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여 이민 약 50명을 모았는데, 다시 다른 곳에서 그 거사에 찬동하여 수 백 명의 군중이 와서 참가하매 이에 그 군중과 같이 동일 오후 8시 경부터 이튿날 29일 저녁 때까지 사이에 구 한국 국기를 떠받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높이 부르면서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내의 각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말한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과, 압수한 판시 국기에 부합되는 구 한국 국기의 존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죄 후에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을 비교 대조하면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경하므로 동 법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며, 압수물건은 본건 범죄의 공용물로서 범인 이외 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할 것으로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유택작치(有澤作治)

### [비고]

경성 북심 법원에 공소, 대정 8년 7월 9일 기각되고 (대정 8년 형공 제 364호),  
고등법원에 상고, 대정 8년 9월 13일 기각됨(대정 8년 형상 제 730호)

한백봉 수형기록카드<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9>

受刑事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渡裁判所	刑ノ始期	言渡年月日	刑名					
滿期免假出獄	壹九年九月八日	西大監獄	常任法院	壹八年九月二日	壹八年七月九日	禁錮 懲役	兩班	"	"	廣中郡 安馬面 梨峯 九八	
備考							職業	農			
前科							前犯				
4601-24641 490年8月9日生 5尺4寸2分 24641											

氏名	韓 百鳳	年齡	490年8月9日生	指紋番號	
		身長	5尺4寸2分	No. 4555	
		特徵		24641	



청주한씨 유사보감(하권) p. 267~270 <송헌공 한백봉>

### 송헌공 한백봉(1881~1950, 69세)

송헌공 한백봉(松軒公 韓白鳳 : 고종(高宗) 18년(1881~1950)

공은 독립운동가이다.

휘(諱)는 백봉(白鳳)이요 자(字)는 성의(盛儀), 호(號)는 송헌(松軒)이다. 영회(榮會)의 셋째 아들이고 필호(弼浩)의 손자이며 문정공 계희(文靖公 繼禧)의 15대 손이다.

어머니는 심해 김씨(金海 金氏)로 형식(亨植)의 따님이다.

공(公)은 고종(高宗) 18년(1881) 8월 28일 광주군 돌마면 율리에서 태어나 서진사 문하에서 수학하고 경술국치를 울분으로 지내던 중 기미년(1919) 3월 고종황제 인산시 상경하여 손병희(孫秉熙), 한용운(韓龍雲) 등의 삼일독립선언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고 독립선언 대표인 청암 권병덕(權秉憲)과 오화영(吳華英) 선생을 만나고 고향에 돌아와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율리 동민 50여명을 모아 뒷동산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고 봉화를 올려 돌마 낙생 오포면 주민들을 분당리 장터에 모이게 하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1000여명이 다음날 저녁까지 돌마, 낙생, 대왕을 오가며 시위를 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 남한산성 과견대 수원 재판소를 거쳐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으며 공은 법정에서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기인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함은 죄가 아니다.' 라고 강변하였다.

공은 출옥 후에도 동지들을 규합하여 1927년 신간회 광주 지회를 결성하여 농민운동을 독려하고 물산장려운동에 앞장서서 민족혼을 일깨워주었다.

항일운동에 진력을 하는 가운데 몇 년간 전국을 누비며 일가들을 찾아다니며 설파하고 일본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문정공 재실 건립을 위한 수단을 하여 정성어린 성금으로 문정공 재실을 1939년 준공하고 그 이름을 영모재라고 하였다. 이때에 공의 노력은 눈물겨운 지극정성의 극치였다.

갖은 고난 끝에 해방을 맞고 1950년 한국동란중인 9월 8일 70세로 졸하였다.

1990년 8월 15일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로 지정하고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아들은 인택(仁澤)이다.

공과 배위 평택 임씨의 합조묘이다.

배위는 1982년 4월 14일 96세로 졸하였다.



## 제11편 문화유적, 인물, 지명과 세거성씨

### 77. 한백봉(韓百鳳)

1881년(고종 18)~1950년 독립만세운동 주도자. 자는 성의(盛儀), 호는 송헌(松軒) 또는 벽송(벽송), 본관은 청주(淸州) 한영회(韓榮會)의 3남. 1980년 경부터 10여년간 분당리에서 진사 서상만(徐相晩)의 문하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1900년 부친이 사망하자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2월말 고종(高宗)의 장례식에 참석차 상경하였다가 3·1 운동에 참가, 향리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한순회(韓順會) 등 돌마면 내 유지들과 모의하였다.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 봉기하기로 계획하고 당일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피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1927년에는 한순회(韓順會)를 중심으로 이대헌(李大憲), 유인목(兪仁穆), 한백호(韓白蒿) 등과 함께 신간회(新幹會) 광주지회(廣州支會)를 조직하고 1930년까지 지회 임원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다.

### 한백봉 족보상의 기록

한백봉 족보상의 기록 <청주한씨 문정공파보> 9권 41쪽	
<p>子百鳳 字聖儀號松軒辛 巳八月二十八日 生 乙未三一氏族 運動時準牌內子 餘人士先頭高唱 獨立萬成境內震 物徒壹兵一隊襲 未遠遠徵苦數年 保內人士咸服其 義烈對今稱之庚 寅九月八日辛 基西川君基合麓 氏生</p>	<p>基下瑞南生三 兩南原丹氏私室女 甲子七月二十二 日辛○基合北 生 二月十三日辛 基 高堂下木溪 司</p>
<p>女姜泰煥 晉州人</p> <p>子仁澤 庚戌五月二十二 日生 配全州李氏範讚女 廣于大君后年亥 十一月九日生丙 辰九月二十二日 辛○基支靖公局 內西川君基下瑞 士生</p>	<p>女南光祐 宜寧人</p> <p>女崔芳雄 慶州人</p> <p>子東條 戊子五月十四日 生 配延日鄭氏仁和女 乙酉十一月八日 生</p>
<p>子東日 甲戌正月七日生 配坡平尹氏俊炳女 乙甲二月七日生</p> <p>子萬成 乙巳二月十九日 生</p>	<p>子萬聖 乙卯八月二日生</p> <p>子萬教 丙辰四月三十日 生</p> <p>子萬重 丙申五月四日生</p> <p>子萬英 乙巳九月十二日 生</p> <p>子萬雄 辛丑正月十四日 生</p>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

<제 1 호서식>

접수 번호	* 표에는 반드시 한자로, 독립운동당시 기준으로 기록							
유	* ①본 작 (원 적)	京畿 도	廣州 시·군	突馬 면	栗 가 리	九八 번지		
	* ②주 소 (독립운동당시)	京畿 도	廣州 시·군	突馬 면	栗 가 리	九八 번지		
	* ③성 명	韓 百 鳳	④생년 월일	1881. 3. 28	⑤사 망 년월일	1950. 10. 30		
	⑥호 적 명	韓 百 鳳	⑦성 별	男	⑧아호 또는 별호	松軒 鶴松	*이 칭	없 음
	⑩경 력	農 業, 儒 學 者, 志 士						
공 자	⑪과 거 포 상 기 록	1958年 3月 1日 廣州郡 郡守 表彰						
	⑫공 적 개 요	1. 1919年 3.1운동에 參加後 同月 28日과 29日 兩日에 걸쳐 京畿道 廣州郡 突馬面 一帶에서 獨立萬歲運動을 主導하고 소위 保安法 違反으로 投獄되어 懲役 1年을 言渡받고 服役 獄苦를 치름. 2. 1927年부터 京畿道 廣州郡內 有志들과 함께 新幹會 廣州支會를 結成하여 任員으로 活動하면서 抗日民族意識을 일깨우고, 3. 1930年以後는 隣近 龍仁 忠烈書院 (鄭圃憲配享) 및 廣州鄉校等 을 中心으로 儒林들의 抗日 獨立精神을 鼓吹하였음.						
신청 인	⑬주 소	서울시(도) 城東구(시·군) 馬場동(리) 797번지 52호(23동6반)						
	⑭성 명	韓 東 讚	⑮유 공 자 와 의 관 계	長孫	⑯직 업	公 務 員 (서울地方鐵道廳 洞溪院驛勤務)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1989 . 5 . 신청인 韓 東 讚 (인) ⑰연락전화번호 295-8870 국 가 보 훈 회 장 귀 하								

- 첨부 : 1. 공적서 매  
 2. 거증자료  
 3. 체적등본(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및 호적등본 1통  
 4. 독립운동당시 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  
 5. 정상의료서 매  
 6. 기타 매

제 3호 서식(을)

## 공 적 사 항

유공자명 : 韓 百 鳳 이명 : 없 음

1. 1919년 2월 高宗皇帝國喪때에 上京, 三一運動에 參與하고 歸都後에는 京畿道 廣州郡 突馬面 栗里에서 朝鮮獨立萬歲示威運動을 展開할것을, 突馬面內 12 個里와 五浦面一部 및 榮生面一部를 潛行하면서, 扇動하였고, 3月 28日 午後부터 里民 約 50 餘名을 動員, 烽火를 올리고, 翌日인 3월 29日 突馬面 盆唐里 장날, 장터에 數百名이 集結, 太極旗를 앞세우고, 面內各里를 巡廻하면서 朝鮮獨立萬歲示威를 主導하였으며, 日本官憲에 被逮되어 廣州郡 榮生面 板橋 및 南漢山城으로 連行되어 4日間 日本 官憲들의 酷毒한 고문을 받았고, 水原을 거쳐서 西大門監獄으로 移監되어 所謂, 保安法違反으로 懲役 1年을 言渡받고 獄苦를 치름.

( 1919. 5. 2 京城地方法院 刑事判決文

1919. 7. 9 京城覆審法院 刑事判決文

1919. 9. 13 高等法院 刑事判決文 確認)

2. 1927년부터 京畿道 廣州郡內 뜻있는 선비들과 新幹會廣州郡支會 發足에 參與, 1930년까지 任員으로 活動하면서, 朝鮮民族의 政治的, 經濟的 覺醒을 促進하고, 機會主義를 排擊하고, 團結을 鞏固히 하여 抗日 獨立精神을 鼓吹하는데 盡力함.

(別添: 新幹會 廣州支會 第二週年記念寫眞 確認)

3. 1930年以後는 隣近 龍仁 忠烈書院(鄭圃隱記亭) 및 廣州鄉校等을 中心으로 儒林들의 抗日 獨立精神을 鼓吹하였음.

독립유공자 평생이력서

獨立有功者平生履歷書

(광복전·후의 이력을 모두 기재)

(獨立有功者要實用)

有功者名	漢 字		한 글		姓 名	없 음	住民 登錄 番號
	韓 百 鳳		한 백 봉		號, 字	號: 松軒 字: 奎讓	
生 年 月 日	陽		死亡年月日		陽 1950. 10. 30		性 別
	陰 1881. 8. 28				陰 1950. 9. 20		
原 籍	京畿道 廣州郡 突馬面 栗里 九八番地						
① 本 籍	京畿道 廣州郡 突馬面 栗里 九八番地						
② 本 籍	京畿道 廣州郡 突馬面 栗里 四一九番地						
獨立運動 當時 의 主된 住所	京畿道 廣州郡 突馬面 栗里 九八番地						
부 터	가 지		活 動 地		學 歷, 經 歷, 獨 立 運 動 事 項		
年 月	年	月	( 居 住 地 )				
1881	8. 28		突馬面栗里		京畿道廣州郡突馬面栗里에서 父韓榮會斗 母金復柱의 參男으로 出生		
1890		1900	突馬面栗里		突馬面盆唐里 徐進士門下에서 漢文修學		
1900	1. 17				父 韓榮會 死亡後 農業에 從事		
1902	3				廣州郡 參里 林輔淳의 次女 林柱和와 結婚		
1907	2				突馬面栗里 98番地로 分家		
1907	5. 1				長女 有先 出生		
1908					漢城府 桂洞으로 上京 移居		
1909					廣州郡 突馬面 通路洞으로 移居 農業		
1910	5. 22				長男 仁澤 出生		
1910	11. 25				廣州郡 突馬面 栗里 296番地로 移居 農業		
1912	5. 25				母 金復柱 死亡		
1912	10. 29				長兄 韓百善 死亡		
1916	3. 10				本籍地 突馬面 栗里 98番地 移居 農業		
1919	3				高宗皇帝 因山時 上京 3.1운동의 趨동에 積極 呼應하고 韓契 韓瑞裡에 面民에 獨立 宣言의 正當性을 說次시켜 28, 29일		

부 터		까 지		活 動 地 ( 居 住 地 )	學 歷 , 經 歷 , 獨 立 運 動 事 項
年	月	年	月		
1919	3	1920	5	西大門監獄	高麗運動會 主導하고 被逮投獄됨.
1920	5				出 獄
1921	8.26			廣州郡突馬面	次女 順澤 出生
1927	9.12			栗里	長男 仁澤 廣州郡東部面倉隅里 李範讚 長女 李贊順과 結婚
1927		1931			廣州郡 突馬面 東部面 校山里 李大憲, 東部面 山谷里 俞仁穆, 廣州面 京安里 朴基煥, 突馬面 栗里 韓順會, 等과 新幹會 廣州郡支會를 創立하여 任員으로 活動함.
1931	4.7				廣州郡 突馬面 盆唐里 263番地로 移居
1931	6.17				四女 金澤 出生
1931	7.5				長孫 東讚 出生
1934	3.7				次孫 東日 出生
1934	9.10				突馬面 盆唐里 49番地로 移居
1939	10.10				參孫 東穆 出生
1930		1940			先賢들의 典籍들을 詳考하여 그 行蹟을 되새기고 隣近 龍仁 忠烈書院 및 廣州 鄉校 等の 行事에 參席, 儒林들과 物産獎勵運動에 同參을 勸誘하고, 손수 家用品 (뚝자리, 팡주리等) 들을 만들어 模範을 보임.
1937		1939			15代祖 文靖公 韓繼禧 (1423 ~ 1482) (世祖, 예종, 成宗朝)의 齋室(水蒸室), 重建 (1939年 8月 竣工) 突馬面 盆唐里 韓星會 等과 各地를 돌며 全國에 散居한 文靖公 孫들을 찾아 基金 收錄活動을 하던 燕先恩德과 抗日獨立精神을 鼓吹함.
1940	6.30				廣州郡 突馬面 栗里 419番地로 移居 (農業 및 儒林活動)
1943	5.1				五孫 東憲 出生
1946	4.8				" 死亡
1947	1.1				三孫 東憲 出生
1949	5.11				六孫 東悅 出生
1950	10.30				長孫 東讚 本人 死亡

上記 履歷事項이 事實과 相違없음을 이에 誓約합니다.

1989

5

提出人 住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동 797-52 23동 6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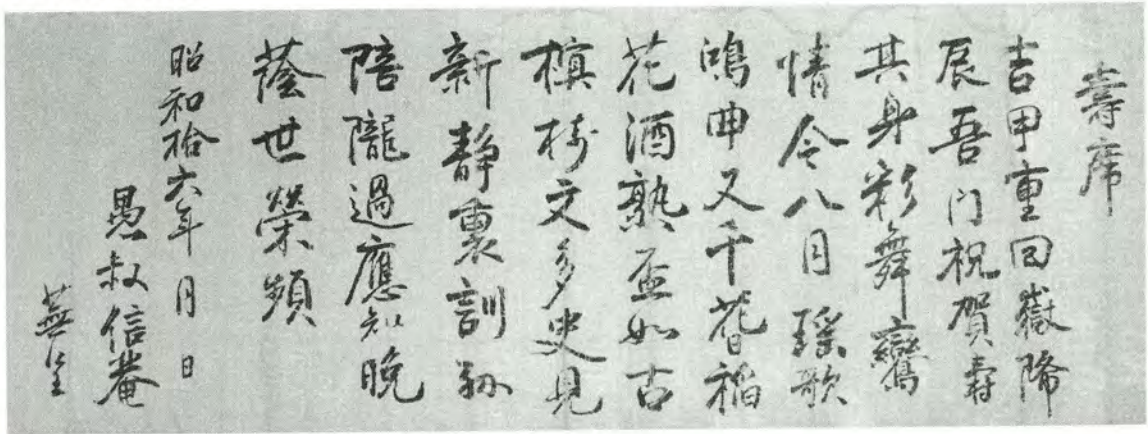
姓名 : 韓 東 讚

住民登錄番號 : 310705-1017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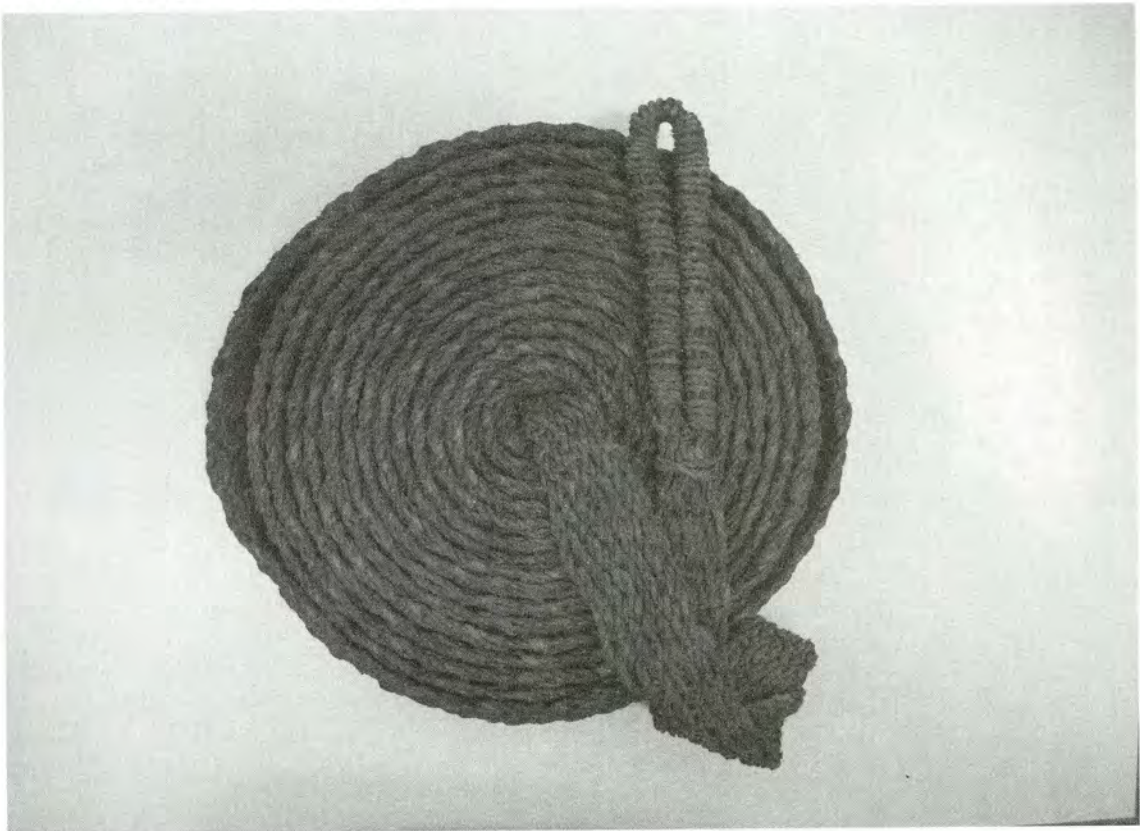
有功者와의 關係 長孫

連絡電話番號 (D.D.D局番) 295-8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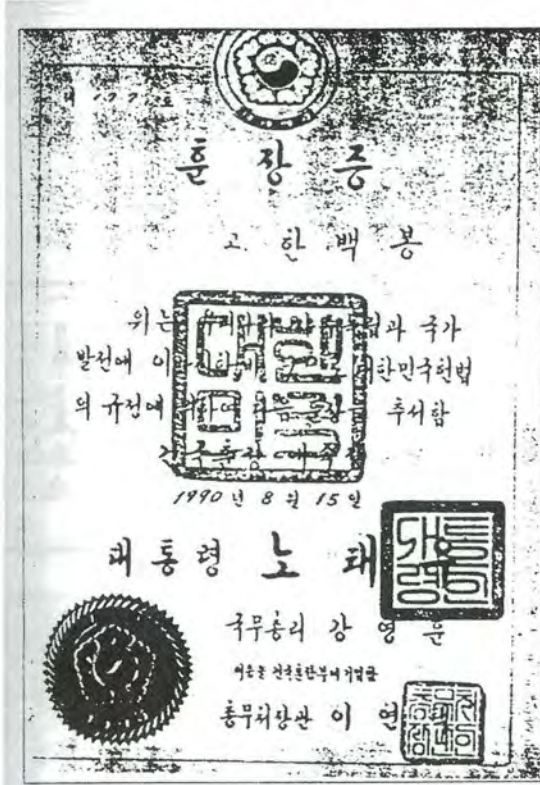
수석(壽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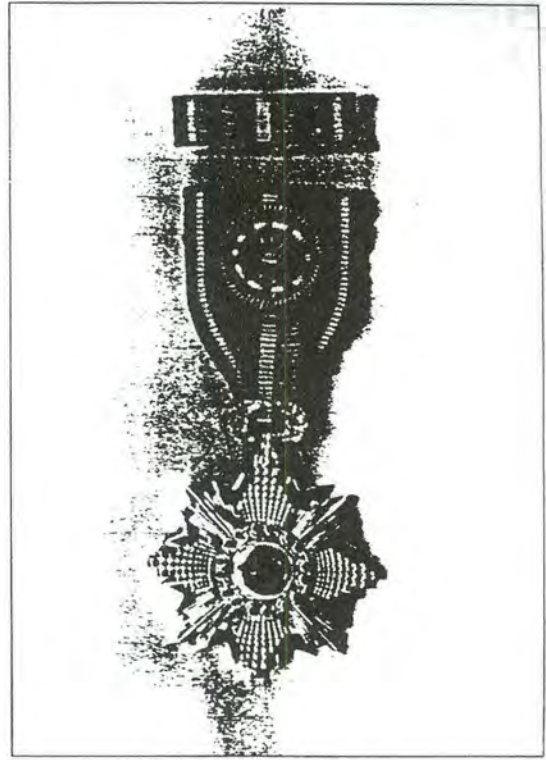
물산장려운동시 만든 멜방 끈



사진(존영, 훈장, 훈장증)



松軒公(諱 百鳳) 勳章證



松軒公(諱 百鳳) 勳章



## 한순회 선생 관련자료

### 한순회 공적조서

- 성 명 : 한 순 회(韓順會)
- 생 년 월 일 ; (양)1885년 12월 14일
- 사망 년월일 ; (양)1961년 01월 27일
- 본 적 ; 광주 突馬 栗 280
- 독립운동당시 주소 ; 서울 鐘路 仁義 117
- 관 리 번 호 ; 2206
- 훈 격 ; 대통령표창(포상년도 1993)
- 운동계열 ; 국내항일
- 소속 및 지위 ; 新幹會 廣州支會長, 天道教 奉道
- 독립운동기간 ; 1년 3월
- 활 동 지 역 ; 廣州
- 수 형 년 수 ; 기소유예
- 복 역 년 수 ; 0년 2개월 10일
- 공 적 개 요 ; 1927년 新幹會 廣州支會長으로 활동하였으며 1933년 이후에는 天道教 京城教區長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교도들로부터 특별회사금을 모금하다 피체되어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 관련자료 : 독립운동사 제8권 : 문화투쟁사. pp705~708  
독립운동사자료집 14 : 대중투쟁사자료집. pp.292~325

###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차) 1993년~1994년도 포상자. (pp.310~311)

한 순 회(韓順會) 1885. 12. 14~1961. 1. 27

경기도 광주 사람이다.

광주군 천도교구장이던 그는 1927년 8월 신간회(新幹會) 광주지회가 설립될 때에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지회 활동을 주도하였다. 아울러 천도교 중앙교회 봉도로서, 신간회가 해체된 후인 1933년 9월 이래로 김재계(金在桂)·최준모(崔俊模)와의 협의를 거쳐, 일제 구축과 조국독립을 기원하는 의미의 특별기도문을 만들어 신자들로 하여금 매일 식후마다 외우게 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8월 김재계·최준모 및 홍순의(洪順義)와 함께 중일전쟁의 발발은 조국독립의 호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 전망하여 장차의 활동자금으로 쓰기 위한 특별회사금 모집에 나섰다. 그리하여 전국을 4구역으로 나눈 후 각자 모금 담당구역을 정하여 유력하고, 독실한 천도교도들로부터 비밀리에 324원을 모금하였다.

이 사실이 일경에 포착되어 1938년 3월 4일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피체되었고, 동년 5월 12일 석방되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 한순희 신문조서

##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0권 (3·1운동과 천도교 성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0 일문  
三. 地方憲兵分隊 및 警察署(2)(日文)

#### 문서제목 證人 韓順會調書

證人 韓順會調書  
鄭廣朝被告事件ニ付キ訊問スルコト左ノ如シ.

問 住所, 身分, 職業, 氏名, 年齡ハ如何.

答 京畿道廣州郡突馬面栗里280番地  
兩班, 農 韓順會  
當35年

問 被告人鄭廣朝ト親族又ハ後見人, 被後見人, 雇人, 同居等ノ關係ハナキヤ.  
答 何ニモ關係ハアリマセン.

問 汝ハ廣州郡 天道教區長ナルヤ.  
答 左様デアリマス.

問 鄭廣朝ヨリ特別誠米ノ事ニ付キ何ニカ內命通達等ヲ受ケシ事ナキヤ.  
答 別ニ鄭廣朝ヨリハ內命通達ヲ受ケタ事ハアリマセン.

問 然ラバ汝ハ信徒ヨリ特別誠米トシテ醸出セシ金ヲ京城天道教中央總部ニ送金シタト云フガ事實ナルヤ。

答 事實送金シマシタ。

問 如何ナル理由ニテ信徒ヨリ醸出シタル金ヲ送金セシヤ。

答 私ハ別ニ何等理由ガ有リテ信徒等ガ醸出送金シタノデハ有リマセン。信徒ニ加入スレバ毎日曜日ニ約5合位ノ白米ヲ祈禱米トシテ取り置キ之レヲ醸出シ私ハ之レヲ集メテ京城中央總部ニ送金シマシテ天道教ノ費用ニスルノヲ例トシテ居リマスモノデ、1名之レヲ特別誠米トモ申シマスシ又祈禱米トモ申シ今ヨリ5年前ヨリ始メマシタガ、以前ハ私ノ區ノミハ毎月私ガ信徒ノ醸出シマスノヲ送金シテ居リマシタが大正6年度ヨリハ年2回ニ集メ送金スル事トナリマシテ1年ニ10月ト4月ニ於テ送金スル様ニナリマシタカラ、本年4月22日送金致シマシタノモ信徒等ガ任意以前ノ例ニ依リ祈禱米代トシテ醸出シマシタノヲ私ハ送金シマシタノデアリマス。

問 鄭廣朝ハ各教區長ニ對シ今回獨立運動ニ要スル資金不足故信徒ヨリ特別誠米ト稱シテ資金ヲ募集セヨト内命ヲ傳ヘタリト云フガ如何。

答 左様ナ内命ハ私ハ決シテ受ケタ事モナク通知モ受ケタ事ハアリマセズ不明デアリマス。

問 然ラバ鄭廣朝ノミナラズ他ノ者ヨリ受ケタルヤ。

答 左様ナ事ハ他ノ者ヨリモ決シテ受ケタ事實ハアリマセン。

問 汝ハ然ラバ信徒ヨリ何程醸出金ヲ受取りシヤ。

答 各信徒ヨリ總計金76圓18錢ヲ受取りマシタ。

問 其ノ醸出金如何ナル金ナルヤ。

答 自大正7年10月至大正8年4月迄デノ信徒等ガ毎日曜日ニ特別誠米トシテ任意醸出シマシタ金デアリマスガ、之レハ別ニ年2回ノ外醸出スル金デナク毎年2回例ニ依リ納ムル金デアリマス。

問 其ノ金ハ何月日信徒ヨリ受取りシヤ。

答 本年4月初頃受取りマシタ。

問 何處ノ者ヨリ受取りシヤ。

答 廣州郡樂生面石雲里金定奉ヨリ5圓50錢、同面金谷里韓致伯ヨリ11圓、大旺面梧野里 朴武浩ヨリ12圓50錢、彦州面內谷里洪淳敬ヨリ18圓38錢、都天面祥林里 崔龍雲ヨリ11圓、廣安面驛里 洪鍾秀ヨリ7圓80錢ヲ受取り、其ノ外私ガ10圓出金シテ居リマス。

問 汝ハ本年4月22日京城天道教中央總部ニ送金セシト云フガ何程送金セシヤ。

答 4月22日送金シマシタノハ65圓18錢ヲ送金致シマシタ。

問 送金スルノニハ如何セシヤ。

答 私ハ4月21日高陽郡へ行カナクテハナテム用事ガ有リマシタカラ同日家ヲ出發致シ4月22

日ニ京城天道教中央總部ニ參リ會計係ノ金義鳳ト云フ者ニ渡シテ參リ，又其ノ後殘金ノ11圓ヲ私ガ5月13日京城ニ參リマシテ直接中央總部ノ會計係ノ金玉斌ト云フ者ニ渡シテ參リマシタ。

問 以前ニモ特別誠米トシテ送金シタト云フガ事實ナルヤ。

答 左様デアリマス。昨年モ特別誠米トシテ送金ハ致シマセンガ祈禱米トシテ送金シテ受領證迄テ受取ツテ居リマス。

問 何故昨年ハ祈禱米トセシヤ。

答 祈禱米モ特別誠米モ名稱ハ同シデアリマス。

問 汝ノ元ニ送金セシモノハ信徒ナルヤ。

答 私ノ處ヘ今回ノ特別誠米トシテ送金シマシタ者モ皆天道教信徒ノ者デ，其ノ者ハ信徒ノ代表者トシテ信徒ノ醜金シマシタノヲ受取り私ノ處ニ持テ參リマシタモノデアリマス。

右通事ニ讀聞カセ且ツ通事ヲシテ本書ノ趣旨ヲ本人ニ告知セシメタル處何レモ相違ナキ旨申立署名捺印セリ。

大正8年5月16日

於板橋憲兵駐在所

證人 韓順會

通事 余道貫

陸軍憲兵上等兵 松島伊七

但シ駐在所ニ係ルヲ以テ所屬官署ノ印ヲ用フル能ハズ。

金警騷密第264號ノ2

大正8年5月17日

金堤警察署長

京城憲兵分隊長 殿

特別誠米金ノ納入竝天道教徒ニ關スル調査ノ件

本月6日附京分騷密第874號及ヒ同號ノ1ヲ以テ照會ニ係ル首題ノ件取調候處特別誠米金ノ納入ニ就テハ別紙池源才外4名ノ聽取書ノ通り秘密勸誘ニ基キタル納入ト認ムルヲ得ス隨テ罪證ナシ。又本年2月末教區室ヨリ中央總部ニ納入セル誠米金高モ金重華，池源才ノ供述通りト被認此ノ以外之等ノ者又ハ教徒ヨリ密送セル形跡ヲ認メス。教徒ハ不動産，動産，牛豚ヲ賣却シ送金セルコトモ形跡ナシ。猶ホ役員等カ總部ノ秘密命令ヲ受ケ金子募集ヲ爲シタル事實ナキヲ被認候條猶ホ精査中ニハ候モ(事實ヲ認メタル場合ハ特急可及通報候モ)一應及回報也。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0(三一運動과 天道教誠米)

三. 地方憲兵分隊 및 警察署(2)(國漢文)

한순회 신문조서(번역문)

문서제목 『증인 韓順會 조서』

증인 韓順會 조서

鄭廣朝 피고사건에 관해 신문하기를 다음과 같이하다.

문 주소·신분·직업·성명·연령은 어떠한가.

답 京畿道 廣州郡 突馬面 栗里 280번지.

양반, 농업, 韓順會

당35세

문 피고인 鄭廣朝와 친척 또는 후견인·피후견인·고용인·동거 등의 관계는 없는가.

답 아무 관계도 없다.

문 너는 廣州郡 天道教區長인가.

답 그렇다.

문 鄭廣朝로부터 特別誠米에 대해 무슨 內命이나 통달 등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특별히 鄭廣朝로부터는 내명·통달을 받은 일이 없다.

문 그렇다면 너는 신도들로부터 특별 성미로서 각출한 돈을 京城 天道教中央總部에 송금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답 사실 송금하였다.

문 무슨 이유로 신도들로부터 각출한 돈을 송금하였는가.

답 나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신도 등이 각출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신도로 가입하면 매 일요일마다 약 5슴씩의 백미를 祈禱米로서 떼어놓고 이것을 각출하여 내가 이를 모아 京城 中央總部에 송금하여 천도교의 비용으로 하는 것을 예로 하고 있는데, 일명 이것을 特別誠米라고도 하거나 또는 기도미라고도 하여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우리 교만은 매달 내가 신도들이 각출한 것을 송금하고 있었으나 大正 6년부터는 年 2회 모아 송금하기로 되어 1년에 10월과 4월에 송금하는 것이므로 금년 4월 22일에 송금한 것도 신도들이 임의로 이전의 예에 따라 기도미대로 각출하였으므로 내가 송금했던 것이다.

문 鄭廣朝는 각 教區長들에게 이번의 독립운동에 쓰일 자금이 부족하므로 신도들로부터 특별 성미라고 하여 자금을 모집하라고 內命을 전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답 그런 내명은 나는 결코 받은 일이 없으며, 통지도 받은 일이 없으니 모르겠다.

문 그렇다면 鄭廣朝뿐 아니라 다른 자로부터 받았는가.

답 그런 것은 다른 자로부터도 결코 받은 사실이 없다.

문 너는 그렇다면 신도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각출금을 받았는가.

답 각 신도로부터 총계 76원 18전을 받았다.

문 그 각출금은 무슨 돈이었는가.

답 大正 7년 10월부터 大正 8년 4월까지 신도들이 매 일요일마다 특별성미라고 하여 임의로 각출한 돈인데, 이것은 특별히 연 2회 외에 각출하는 돈이 아니라 매년 2회 예에 따라 내는 돈이다.

문 그 돈은 언제 신도로부터 받았는가.

답 금년 4월 초순경에 받았다.

문 어디의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답 廣州郡 樂生面 石雲里의 金定奉이 5원 50전, 樂生面 金谷里의 韓致伯이 11원, 大旺面 梧野里의 朴武浩가 12원 50전, 彦州面 內谷里의 洪淳敬이 18원 38전, 都天面 祥林里의 崔龍雲이 11원, 廣安面 驛里의 洪鍾秀가 7원 80전을 냈고 이 밖에 내가 10원을 냈다.

문 너는 금년 4월 22일 京城 天道教中央總部에 송금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송금했는가.

답 4월 22일에 송금한 것은 65원 18전을 송금하였다.

문 송금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가.

답 나는 4월 21일 高陽郡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으므로 그 날 집을 출발하여 4월 22일에 京城 天道教중앙총부에 가 會計係인 金羲鳳이란 자에게 건내주고 왔으며, 또 그 후 잔금인 11원을 내가 5월 13일 京城에 와서 직접 중앙총부의 회계계인 金玉斌이란 자에게 주고 왔다.

문 이전에도 특별 성미라 하여 송금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답 그렇다. 작년에도 특별 성미라면서 송금하지는 않았지만 祈禱米라고 송금하여 수령증까지 받았다.

문 어째서 작년에는 기도미라고 했는가.

답 기도미나 특별 성미나 그 명칭은 같은 것이다.

문 네 앞으로 송금한 것은 신도인가.

답 나에게 이번에 특별 성미라고 하여 송금한 자들도 모두 천도교 신도이며, 그 자들은 신도의 대표자로서 신도들이 각금한 것을 받아 나에게 가져 왔던 것이다.

위를 통사에게 읽어 들려주고 또 통사로 하여금 본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려주게 하였던

바, 모두 틀림없다는 뜻을 진술하므로 서명·날인하다.

大正 8년 5월 16일

板橋憲兵駐在所에서

증인 韓順會

통사 余道貫

육군헌병상등병 松島伊七

단, 주재소인 까닭으로 소속관서의 印을 찍지 못함.

金警騷密 제264호의 2

大正 8년 5월 17일

金堤警察署長

京城憲兵分隊長 귀하

特別誠米金 납입 및 天道教徒에 관한 조사의 件

이달 6일자 京分騷密 제874호 및 제874號의 1로써 조회한 首題의 件을 취조한 바, 성미금의 납입에 대해서는 별지 池源才 외 4명의 청취서와 같이 비밀 권유에 의한 납입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죄의 증거가 없음. 또 금년 2월 말 敎區室에서 中央總部에 납입한 성미금도 金重華·池源才의 공술과 같다고 인정되며, 이 밖에 이들이 또는 교도들이 비밀리에 보내온 형적을 인정할 수 없음. 교도는 부동산·동산·소·돼지 등을 팔아 송금했다는 형적도 없음. 또 役員 등이 총부의 비밀명령을 받아 금전모 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아직 정밀 조사 중이기는 하나[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特急으로 통보하겠으나] 일단 회보합니다.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0(三一運動과 天道教誠米)

三. 地方憲兵分隊 및 警察署(2)(國漢文)

문서제목 「증인 金光俊 조서」

증인 金光俊 조서

大正 8년 5월 15일 鄭廣朝 피고사건에 관하여 신문하기를 다음과 같이하다.

문 주소·신분·직업·성명·연령은 어떠한가.

답 平安南道 平原郡 順安面 蒲井里 67번지.

상민, 順安 天道教區長 金光俊

당54세

문 피고 鄭廣朝와 친척 또는 후견인·피후견인·고용인·동거 등의 관계는 없는가.

답 아무 관계도 없다.

이에 鄭廣朝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히다.

문 天道教 각 신도들로부터 특별성미금을 모집한 일이 없는가.

답 특별성미금이라 하여 모집한 것은 없으며, 각 신도들로부터 기도미 대금으로서 수금한 것을 전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다.

문 수령한 금액 및 연월일, 각 전교사의 주소·성명은 어떠한가.

답 大正 8년 4월 1일은 평원군 兩花面 내송리의 전교사 朴堯鎭으로부터 30원 52전, 같은 달 3일 평원군 순안면 성이리의 전교사 李俊模로부터 35원 36전, 같은 날 평원군 동두면 반송리의 전교사 吳贊洙로부터 93원 60전, 같은 날 평원군 자중면 량수리의 전교사 朴綱鎭으로부터 70원 72전, 같은 날 평원군 공평면 상이리의 전교사 蔡聖甫로부터 돈 39원 52전, 같은 날 평원군 공평면 신교리의 전교사 朴永薰으로부터 38원 76전, 같은 날 평원군 자중면 장재리의 전교사 韓養權으로부터 48원 62전, 같은 달 5일 평원군 동두면 율화리의 전교사 金鳳仁으로부터 48원, 같은 달 1일 평원군 순안면 포정리의 전교사 朴泰薰으로부터 117원, 합계 522원 10전을 수령하였다.

문 금년 2월 이후 前記한 외에 모집한 것은 없는가.

답 없다.

문 수령한 금액은 어떻게 하였는가.

답 京城 천도교중앙총부에 송금하였다.

문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송금하였는가.

답 금년 4월 중순[날짜 미상], 나의 동생 金泓俊에게 가지고 가게 해 보냈다.

문 동생은 그 돈을 어디의 누구에게 주었는가.

답 당연히 金融觀長에게 주어야 하지만 그때 金融觀長 盧憲容은 없었으므로 회계 金義鳳에게 중앙총부에서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문 그때 너는 상경해 있지 않았는가.

답 금년 1월 이래 상경한 일은 없다.

문 前記 기도미 대금은 매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가, 또는 납부 기일이 정해져 있는가.

답 상세한 것은 모르나, 大正 3년경부터 기도미 대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납부 기일은 전에 정해져 있었는데, 매년 4월 5일 및 10월 28일의 기념일에 各 教區長이 상경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져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문 그렇다면 금년에는 왜 일부러 사람을 보내 돈을 납부했는가.

답 금년은 소요 때문에 기념일 축하도 폐지한 까닭에 나도 상경을 중지하였고, 또 종래에는 돈을 우송한 일도 없었으므로 특별히 내 동생을 시켜 보냈던 것이다.

문 금년 2월 이후 중앙총부에 납부한 돈은 그 밖에는 없는가.

답 매달 한 번의 月誠米金 이외에는 없다.

문 月誠米金은 어떠한 방법으로 송금하고 있는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답 매월 5일에 그 전달분을 우편으로 송금하고 있다. 그 금액은 금년 1월분 78원 58전, 2월분 82원 74전, 3월분 82원 13전, 4월분 76원 48전을 송금하였다.

문 특별 기도미 납부 기일에 대해 鄭廣朝로부터 무슨 시달은 없었는가.

답 특별히 없었다.

문 鄭廣朝가 금년 3월 독립운동비에 충당하기 위해 각 교구장에게 특별성미금 모집을 내명한 것이 아닌가.

답 그러한 내명을 받은 일은 없다.

문 매년 특별 기도미 대금은 어떠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가.

답 중앙총부에서의 모든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다.

문 금년의 특별 기도 성미금 납부는 예년보다 일찍 납부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답 매년 4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도리어 늦었다.

문 특별 기도미를 납부하기 위해 각 신도 중 가재를 팔아 납부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너의 교관구에서는 어떠한가.

답 당 관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문 금년 2월경 孫秉熙 등으로부터 성미금 징수를 하는 데 대해 무슨 통지가 없었는가.

답 아무런 통지도 없었다.

문 본건에 관해 진술할 것은 없는가.

답 없다.

위를 읽어 들려주었던 바, 틀림없다는 뜻을 진술하므로 서명·날인케 하다. 大正 8년 5월 15일

증인 金光俊  
順安警察署에서  
경부 張啓澤

—○—

廣驛密 제895호의8

大正 8년 5월 15일

廣州憲兵分遣所長

京城憲兵分隊長 귀하

天道教徒에 대한 조사의 件

5월 6일 京分驛密 제874호로서 조회하신 首題의 件을 조사했던 바,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회답하는 바입니다.

下記

一. 당관내 廣州郡 突馬面 栗리에 사는 廣州郡 教區長 韓順會는 4월 22일 出京하여 中央總部 金進출남계 金義鳳에게 廣州郡教區 내의 신도로부터 각출한 돈 76원 18전 가운데 65원 18전을 납부한 일이 있으나, 해당 금액은 본교의 신도들이 일요일마다 신도 1戶당 약 5습씩을 기도미로서 적립해 둔 것을 年 2期로 나누어 신도들이 자유롭게 각출한 것을 教區長이 취합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中央總部에 송금하도록 2·3년 전부터 본교의 규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며, 오늘 송금한 위 금액은 大正 7년 10월부터 大正 8년 4월까지 6개월분을 자유롭게 각출한 것을 납부한 것으로서, 조회한 것 같은 사실은 발견할 수 없음.

二. 해당 사실을 聞知하지 못하였음. 더욱이 教區長이 中央總部로부터 받은 명령 등,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함. 또한 教區長이 모집 및 권유를 한 것이 전혀 없고 前記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각출한 것 같음.

三. 본항 조회와 같은 사실은 인정할 만한 것이 없음.

그 각출에 응한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재와 같으며, 그 각출에 응한 취지에 대해 任意恒例에 따른 것으로서, 相違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로 다음에 게시함.

금액(원)	주소	성명	적요
10,000	突馬面 栗里	韓順會	본인 등은 모두 신도 總代로서 각 신도들이 각출한 것을 수금·납부한 것이다.
11,000	樂生面 金面里	韓致伯	본인 등은 모두 신도 總代로서 각 신도들이 각출한 것을 수금·납부한 것이다.
5,500	樂生面 石雲里	金定奉	본인 등은 모두 신도 總代로서 각 신도들이 각출한 것을 수금·납부한 것이다.
12,500	大旺面 梧野里	朴武浩	본인 등은 모두 신도 總代로서 각 신도들이 각출한 것을 수금·납부한 것이다.
18,380	參城面 內南里	洪淳敬	본인 등은 모두 신도 總代로서 각 신도들이 각출한 것을 수금·납부한 것이다.
7,800	慶安面 驛里	洪鍾秀	본인 등은 모두 신도 總代로서 각 신도들이 각출한 것을 수금·납부한 것이다.
11,000	都尺面 祥林里	崔龍雲	본인 등은 모두 신도 總代로서 각 신도들이 각출한 것을 수금·납부한 것이다.

합계 76원 18전 整.  
이 가운데 65원 18전은 中央總部에 납입.  
殘金 11원은 韓順會가 소지하고 있는 듯함.

四. 제1항의 기재와 같음. 五. 해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六. 제1항의 기재와 같음.

七. 기타 참고 사항.

이상과 같은 상황이나 이미 과거에 속하며 특히 말로써 한 일이라 비록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이하게 자백하지 않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어 현재 엄밀히 內査중임.

—○—

淳憲騷密 제215호의 1

大正 8년 5월 15일

淳昌憲兵分遣所長

京城憲兵分隊長 귀하

天道教徒에 관한 조사의 件 회답

이달 6일 京分騷密 제874호 및 같은 달 8일 同號의 1로써 조회하신 首題의 件은 下記 및 별지 증인 신문조서와 같으므로 이에 회답하는 바입니다.

下記

一. 조회에 관한 제1항 내지 제6항은 모두 진상을 발견할 수 없고, 교구장은 본래부터 교도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을 감추고 있으며, 內査한 결과는 별지 교구장 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있었음. 그러나 이것은 예년 교도들의 의무로 납입한 기도미로서 하등 비밀이 아니고 공공연히 납입한 것으로서 특별성미금 모집으로서 太宗司長으로부터 함부로 內命 등이 없었다고 하며 敎區長의 말과 교도에 대한 內査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그 眞否를 판명하지 못함.

二. 이상 상황에 의해 貴分隊에서 확실한 사실이 있으면 다시 一報해 주시기 바람.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사하겠으며 일단 회답하는 바입니다.

### 신간회 지회 설치에 관한 일본측 조사 서류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문서제목

신간회지회 설치상황의 건 ■ 이미지자료

문서번호 京鍾警高秘 제11090호의 1

발송자 京城 종로경찰서장

발송일 1927년 10월 31일

수신자 京城지방법원 검사정

수신일 1927년 11월 01일

**이름** : 崔秉珍(신간회 서천지회장), 李起龍(신간회 영천지회장), 卞熙鎔(신간회 고령지회장), 柳靖鉉(신간회 공주지회장), 韓順會(신간회 광주지회장), 安燾俊(신간회 홍원지회장), 趙漢輝(신간회 함안지회장), 千斗上(신간회 고성지회장), 趙東浩(신간회 수원지회장)

**단체** : 신간회지회, 서천지회, 영천지회, 고령지회, 경성지회, 공주지회, 광주지회, 홍원지회, 진주지회, 주을지회, 선산지회, 거창지회, 재령지회, 함안지회, 대판지회, 한주지회, 고성지회, 협천지회, 창원지회, 광산지회, 하동지회, 수원지회, 함양지회, 광주지회, 원주지회

**사건** : 신간회지회 설치

**지명** : 함남 단천, 영천, 경북 고령, 함북 경성, 충남 공주, 경기 광주군 慶安面, 함남 홍원, 경남 진주군 飛鳳洞, 함북 경성군 朱乙溫湯, 경북 선산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함안청년회관, 大坂府 浪速區 稻荷町, 함북 경성군 漢朱面, 강원 고성읍 농민조합, 협천읍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에 관한 기사 ; 新幹會 廣州支會가 設立되었는 바**  
新幹會 廣州支會가 設立되었는 바 會長에는 韓順會, 副會長에 石蕙煥이 선임되다.  
(東亞日報 1927년 8월 27일)(중외일보 1927년 8월 27일)

**한순회의 독립운동 관련 기사 ; 金日 黃海道警察部로부터 送局된 天道教**  
金日 黃海道警察部로부터 送局된 天道教舊派의 獨立運動 개요는 다음과 같다.

本籍 全南 長興郡 大德面 新上里 205

住所 京城府 苑西町 4의 37

天道教中央教會金融觀長 金在桂(51)

本籍 京城府 八判町 25

住所 京城府 敦岩町 427

天道教中央教會長老 崔俊模(64)

本籍 京城府 慶雲町 88

住所 京城府 仁義町 117

天道教中央教會奉道 韓順會(54)

本籍 京城府 慶雲町 88

住所 京城府 明倫町 4의 117

天道教中央教會監查院長 金庚咸(53)

本籍 黃海道 殷栗郡 北面 家樂里 124

住所 黃海道 殷栗郡 北面 家樂里 124

天道教黃海道淵源代表 洪順義(49)

△ 不隱文關係

金在桂·崔俊模·韓順會 등은 일찍 천도교에 의한 조선의 주권회득을 몽상하고 조선을 일본제국의 통치하로부터 이탈, 독립시키려는 의사로 1933년 9월 이후 누누히 모의한 결과 조선에서 일본의 정권을 구축하고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의미의 불은문을 작성한 후에 이를 독신자에 교시하여 매일 식후 이를 읽게 하여서 교도의 독립사상을 찬동하고 그 정신적 결합을 도하고져 결의하였다. 그리고 각각 이를 실행하고 洪順義는 金在桂로부터 이를 받아 다시 이에 말을 붙여 황해도에 배부, 교도를 지도하고 비밀히 이를 실행하였다.

△ 特別喜捨金募集

1937년 7월 10일경 崔俊模·金庚咸·韓順會 등이 모의한 결과 이번 중국사변의 전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구과 천도교연내의 염원인 국권회복의 호기로 이르는지 모르나 이 경우의 활동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賜金이라는 명목아래 이를 모집하기로 하고 전조선을 4구로 나누어 전기 간부들이 각기 모집담당지역을 정하여 洪順義 등과 함께 유력한 독신교도로부터 비밀히 324圓을 모집하여 그 중 120圓은 간부들이 마음대로 생활비에 횡령 소비하였다.

## △ 特別祈禱關係

종래 천도교구과는 특별기도라 칭하고 조선을 일본의 통치하로부터 회복독립시키는 의미의 기도를 행하여왔는데 1937년 12월 20일 金在桂·崔俊模·韓順會 등은 1938년도 특별기도 실시에 대하여 협의함에 있어서 종전대로 한다면 관헌의 취체탄압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동양평화의 기초가 하루바삐 확립되기를 기원한다는 문구를 표면에 위장하기 위하여 이를 부가하고 한편 교도에 대하여서는 이는 관헌을 기만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소지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洪順義는 崔俊模의 지시를 받아 이를 황해도 교도에 교시 격려하였다.(東亞日報 1938년 5월 1일)

## 청주 한씨 유사보감 하권(PP. 276~278)

## 의사 한순회(1885~1961; 28세)

의사 한순회(義士 韓順會 : 高宗 22年(1885)~1961 28世)

공은 독립운동가이다.

생부는 진협(鎭協)이고 휘는 순회(順會)이며 호는 제암(霽菴)이다.

영우(永佑)의 아들이고 일용(一鏞)의 손자이며 문정공 계희(文靖公 繼禧)의 14대 손이다. 어머니는 덕수 이씨로 방(昉)의 따님이다.

공은 고종 22년(1885) 12월 14일 평택군 포승면 석정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족속인 영창(永彰)에게서 수학하고 한학철서에 통달하였으나 경술망국과 3·1만세운동을 체험하면서 독립운동에 전력하였다.

1919년 3·1만세운동은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에서도 대규모로 전개되었는데 당시 천도교 광주교구장인 공은 이천, 여주, 원주, 음성 등지에 연락책임을 맡고 크게 활약하였다. 때때로 서울을 왕래하면서 운동자금을 모금하여 독립운동에 긴요하게 쓰게 하였다. 3·1운동 후에는 1927년에 신간회의 조직과 활동에 참여 광주지회를 조직하고 지회장이 되었다.

1936년 8월 14일 천도교 대도주 박인호(朴寅浩)의 아침, 저녁 식고(食告)에 따라 일본의 멸망을 기원하는 특별기도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국교도에게 시행케 하였다.

이 후 1938년 소위 무인년 왜멸기도(倭滅祈禱)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1961년 1월 27일 천도교 교회장으로 선영에 안장될 때까지 일평생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1993년 공훈을 기려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배위(配位) 파평 윤씨(坡平 尹氏)는 영석(永奭)의 따님이고 아들은 백건(百健), 백조(百祖)이다.

## 한순회 존영 및 묘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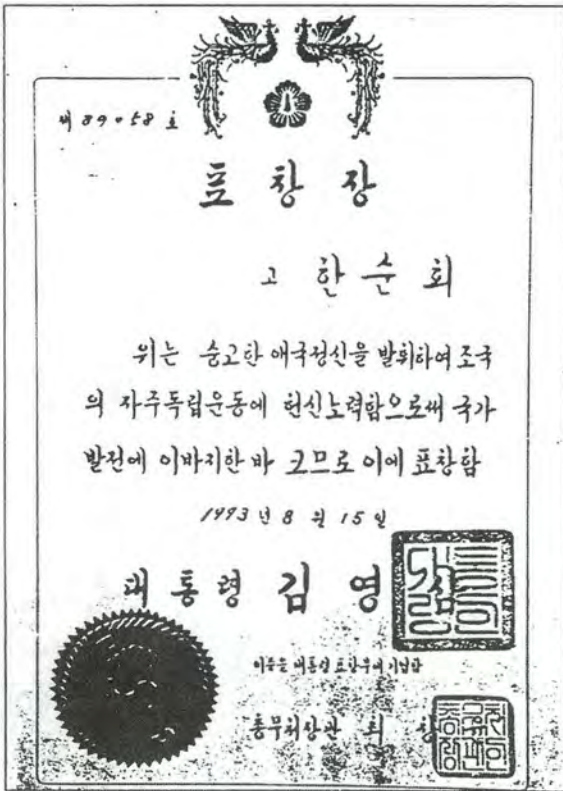


묘소전경



한순회 존영

한순회 표창장



義士(諱 順會)表彰狀

신간회 광주지회 임원





此旨ヲ記載シタル朝鮮獨立新聞  
 ナルモノヲ 群衆ニ讀聞ケ煽動シ  
 被告李載淳ハ右朝鮮獨立示威  
 運動ニ賛同シ同日時同ホ於テ群  
 衆ト共ニ朝鮮獨立示威ヲ唱和シ且  
 被告李時鍾ハ朝鮮獨立新聞ヲ  
 購テ群衆ニ讀聞ケルニ當リ其ニ傍  
 ニ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ニ佇立シテ同被告ノ如クナル文字ヲ教  
 ヘ共ニ群衆ヲ煽動シ  
 以テ被告等ニ執レヒ改治ニ同シ小體ノ  
 甚動リホレ固ク治安ヲ妨害シタルモノ  
 ナリ  
 右事ニ對シ  
 一當公廷ニ於ケン被告李時鍾ハ、

0814

群衆ヲ糾合セタリト云フ際ニ別ホ  
 同旨ノ供述  
 一當公廷ニ於ケン被告李載淳ハ、  
 自分ニ對シテ唱ヘサレヨク解スル外  
 別ホ同旨ノ供述  
 一檢事ハ被告李時鍾訊問調書中ニ  
 別ホ同旨ノ供述記載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一司法警察官ハ被告李載淳訊問調書  
 中ニ別ホ同旨ノ供述記載  
 一司法警察官ハ證人李胤鉉訊問調  
 書中ニ陰ニ二月二十四日夕刻被告李時  
 鍾ハ自分方ニ對シテ自分方治安ニ阻  
 ハリタルニ對シテ將來朝鮮ニ獨立スルニ對シテ  
 二項目ニ於テ記載セシ朝鮮獨立新聞

0815

聞タルミコヲ見舞、貸共セト申セシ故、貸  
 共レタルコトアハ、日、供述記載  
 一、司法警察官、故人李紀理、訊問、胡書  
 中、陰三月二十五日午後七時頃、突然  
 第、聲、種、ヤタルヲ以テ、未シ見タル、  
 故、李時鐘先頭、立ケ、的、ココナ名、  
 有トセ、第、獻、ウ、唱、里、回、リ、練、ウ、廻、リ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タルヨリ、雷、同、スル、者、合、シ、テ、的、有、名、ト、有、リ  
 タル、ガ、同、故、告、ハ、是、リ、大、旺、而、マ、事、務  
 不、到、リ、レ、ト、申、レ、一、回、進、行、ウ、ル、所、レ、處  
 途、中、故、告、李、載、淳、が、夜、ヲ、ハ、事、務  
 不、到、ル、ニ、シ、テ、而、後、居、ウ、サ、ン、ハ、ケ、レ、バ、岸、口、而、長  
 尾、ハ、カ、ン、ト、申、シ、一、回、進、行、ス、ル、所、レ、處  
 不、到、ル、的、ニ、シ、テ、合、同、許、リ、第、獻、ウ、唱、ハ

0816

タル、後、故、告、李、時、鐘、ハ、事、務、官、由、リ  
 陣、地、ニ、出、テ、群、衆、ニ、對、シ、朝、鮮、獨  
 立、を、闡、ト、題、ス、ル、不、穩、文、書、ヲ、胡、書  
 シ、故、告、李、載、淳、ハ、傍、ヨリ、文、字、ヲ、教、ヘ  
 居、リ、タル、旨、ヲ、供、述、記、載  
 一、司法警察官、故人李撰文、訊問  
 胡書中、被告等、大旺而マ事務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不、到、ル、者、合、シ、テ、的、有、名、ト、有、リ  
 稔、文、書、ヲ、胡、書、シ、テ、故、告、李、時、鐘  
 ハ、今、日、迄、一、回、進、行、ス、ル、所、レ、處、ハ、事、務  
 官、由、リ、シ、テ、朝、鮮、獨、立、を、主、ト、シ、テ、文、書、  
 撰、文、書、ハ、傍、ヨリ、文、字、ヲ、教、ヘ、居、リ、タル、旨、  
 ヲ、供、述、記、載  
 居、リ、タル、旨、ヲ、供、述、記、載  
 是、レ、事、ヲ、稔、文、書、ハ、傍、ヨリ、文、字、ヲ、教、ヘ、居、リ、タル、旨、

0817

法律ニ照スニ  
 本件ハ犯罪後ノ法令ニ因リ刑ノ變更アリタル  
 モノナルヲ以テ刑法第六條第八條第十條ニ從  
 ヒ新舊兩法ノ刑ヲ比照シテ其ノ輕キモノヲ適  
 用スヘキモノトス  
 舊法ニ在リテハ保安法第七條朝鮮刑事令第四  
 十二條ニ該當シ新法ニ在リテハ大正八年制令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第七號第一條ニ該當ス因テ其ノ輕キ舊法タル  
 保安法第七條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規定ヲ適用シ所定刑中懲役刑ヲ選擇  
 シ其ノ刑期範圍由ニ行リ適斷スヘキモノ  
 トス  
 仍<sub>レ</sub>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五月十五日  
 東京地方法院

0818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于中子 印  
 朝鮮總督府裁判所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0819

이시종 / 이재순 2인 판결문

사건개요 경기도 광주 지역 3·1운동 사료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자료로 활용

판결문번호 대정8년형공제561호

판결일 1919/07/26

판결법원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大正八年刑權第五六一號  
判決  
京畿道廣州郡突馬面麗水里農  
李時鍾  
十九年  
同郡大旺面水西里農  
李載淳  
朝鮮總督府裁判所  
右兩名ニ對シテ任安法違反ニ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五月十五日京城地方法院ニ於テ被告李時鍾李載淳一ニ被告李載淳ヲ懲役八月ニ處スル判決ニ服セズ被告兩名ヨリ控訴ノ申立ラレリニ依リ朝鮮總督府檢事水野重治等共ニ審理ノ遂ケ判決ヲ爲ス左ノ如シ

理由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被告李時鍾ハ朝鮮各地ニ於テ先ニ朝鮮獨立運動ニ賛同シ大正八年三月二十六日(陰二月二十五日)午後三時頃ヨリ同六時頃マシヨリ京畿道廣州郡中谷面松波里ニ於テ朝鮮獨立示威運動ヲ爲シ集合シタル三百餘名ノ里民ト共ニ朝鮮獨立萬歲ヲ唱和シ更ニ同日午後七時頃同郡大旺面水西里ニ於テ里民百餘名ヲ糾合シ同面々事務所前ニ揮寄セ共ニ朝鮮獨立萬歲ヲ唱和シ且朝鮮ハ獨立セザルハカラストノ趣旨ヲ記載シタル朝鮮獨立新聞ヲ群眾ニ讀出セ煽動シ

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0883

被告李載淳、右朝鮮獨立示威運動ニ賛  
同シ同日特日所ニ於テ群衆ト共ニ朝鮮獨  
立萬歳ヲ唱和シ且被告李時鐘カ朝鮮獨  
立新聞ヲ群衆ニ讀出スルニ當リ至傍  
ニ在リテ曰彼等ノ知ラサル文字ヲ教ヘ共ニ  
群衆ヲ煽動シ  
以テ被告等ハ政次ニ関シ不従ノ言動ヲ為  
裁判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レ因テ治安ヲ妨害シタリ  
以上ノ事實ハ當公廷ニ於テ被告李時鐘  
ノ群衆ヲ糾合シタリトテ罪ヲ除キ判示ニ付  
右ノ供述同シレリ被告李載淳カ朝鮮獨  
立新聞ヲ被告李時鐘カ判示ノ如ク讀出  
カスニ當リ他人ノ知ラサル文字ヲ教ヘタル旨ノ  
供述檢事、被告李時鐘訊問調書判示

0884

同題旨ノ供述記載ニ於テ法警察官、被告  
李載淳訊問調書中ニ判示同趣旨ノ供述  
記載ニ依リテ之ヲ認ム  
法律ニ照スニ被告兩名ノ所為ハ保安法第  
七條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ニ該當スル處  
犯行後刑ノ變更アリ先テ大正八年刑令  
第七條第一條ニ照シ刑法第六條ニ依リ  
裁判 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新舊ノ法ヲ比較シ輕キ保安法ニ從ヒ懲  
役刑ヲ選擇シ被告李時鐘ヲ懲役一  
年ニ被告李載淳ヲ懲役八月ニ處ス  
ハキモトス  
右ノ同一ニ處刑シタル原判決ハ相當ニシテ  
被告兩名ノ控訴ハ理由ナキヲ以テ刑事訴  
訟法第二百六十一條第一項ニ從ヒ之ヲ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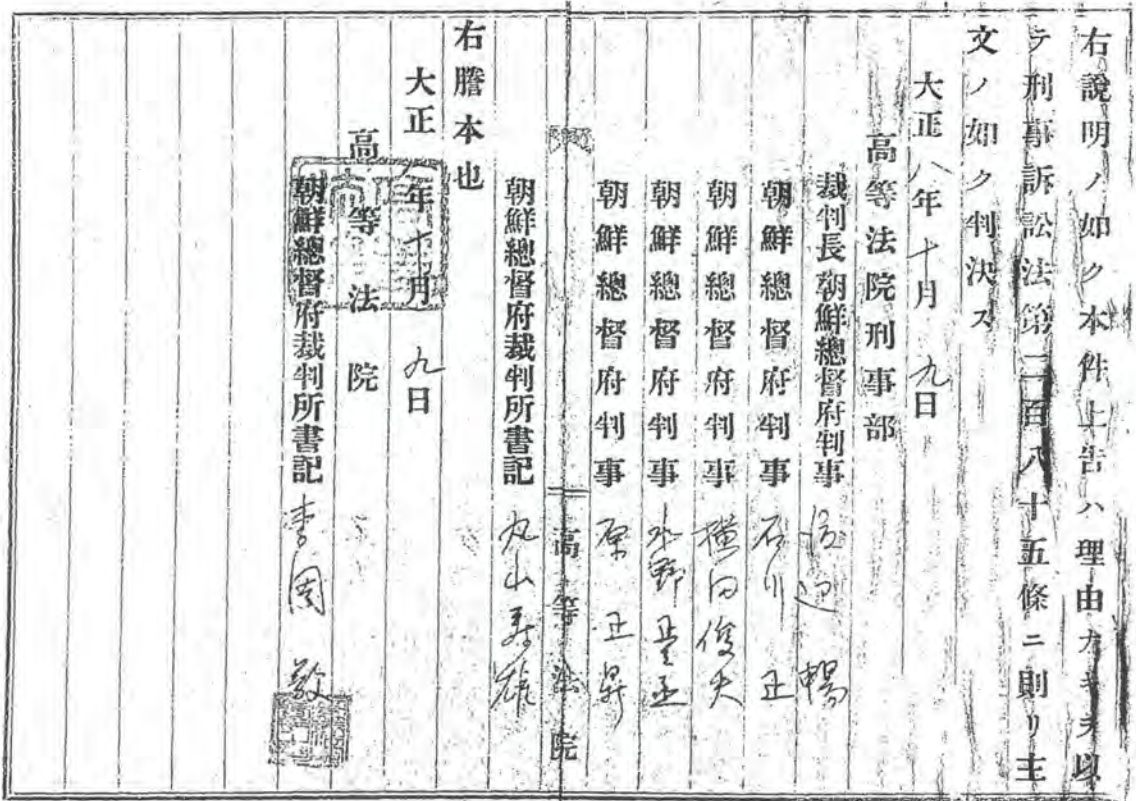
0885

久判決  
 大正八年七月二十六日  
 京城覆審法院刑事第三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鈴木健三郎  
 朝鮮總督府判事 土田半仙  
 朝鮮總督府判事 竹相田淳  
 朝鮮總督府判事 乙生  
 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0886







이시중/이재순 재판기록 <독립운동사자료집 5 : 삼일운동 재판기록>

판결

본적·주소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여수리(麗水里)

농업 (무종교)

이시중(李時鍾) 6월 11일생 19세

본적·주소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大旺面) 수서리(水西里)

농업 (무종교)

이재순(李載淳) 1월 11일생 32세

상기자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옥명우언(玉名友彦)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시중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이재순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 이시중은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여 대정 8년 3월 26일 (음력 2월 25일) 오후 3시 경부터 동 6시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中垔面) 송파리(松坡里)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고자 집합한 300여 명의 이민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르고 다시 동일 오후 7시 경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에 서 이민 100여 명을 규합하여 동면 면사무소 앞으로 몰려가서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불렀으며, 또한 ‘조선은 독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이란 것을 군중에게 읽어 주며 선동하고, 피고 이재순은 위 조선독립시위운동에 찬동하여 같은 일시에 그 곳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불렀으며, 또한 피고 이시종이 《조선독립신문》이란 것을 군중에게 읽어 줄 때 그 곁에 붙어 서서 그 피고가 모르는 글자를 알려 주며 함께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피고들은 모두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1. 당 공판정에서 피고 이시종이 말한 ‘군중을 규합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

1. 당 공판정에서 피고 이재순이 말한 ‘자기는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 이외는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

1. 검사의 피고 이시종 신문조서 중,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피고 이재순 신문조서 중,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윤중(李胤鍾) 신문조서 중, ‘음력 2월 24일 저녁 때 피고 이시종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집 방안 책상 위에 놓아 둔 “조선은 독립해야만 된다”는 취지를 12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한 《조선독립신문》이란 것을 보고 “잠깐 빌려 달라”고 하므로 빌려 준 일이 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범각(李範玉) 신문조서 중, ‘음력 3월 25일 오후 7시 경 갑자기 만세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피고 이시종이 선두에 서서 약 2, 3십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동리 안을 돌아 다니며 뇌동하는 자도 합하여 약 100 명이 되었는데, 동 피고는 여기서 “대왕면 면사무소로 가자”고 하여 일동이 행진을 시작한 바 도중 피고 이재순이 “밤중에 면사무소로 가더라도 면장이 없을 터이니 오히려 면장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일동이 불응하여 면사무소에 가서 약 20분 간쯤 만세를 부른 후 피고 이시종은 면사무소 안의 남포등에 불을 켜고 군중에게 대하여 《조선독립신문》이라 제한 불온문서를 낭독하여 주고 피고 이재순은 곁에서 글자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규문(李揆文)

신문조서 중, ‘피고들은 대왕면 사무소 앞에 모여 있는 군중 앞에서 불온 문서를 낭독하고 또한 피고 이시종은 “오늘까지는 면사무소에서 일본 일을 하고 있었으나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세금 등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고 들려주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등이 있음을 종합 참작할 때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법령으로 말미암아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 대조하여 그 경한 것을 적용할 것이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그 경한 구법인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受刑事項					身分	住所	出生地	本籍
及其事由	出獄年月日	執行監獄	言議裁判所	刑ノ始期				
滿期免假出獄	盜九 年 二月 八日	初 次 監 獄	高 級 投 書 法 院	盜 八 年 一 月 八 日	盜 八 年 七 月 九 日	禁 錮 一 年	解 名 文	漢 城 府 西 門 外 前 街 李 時 鍾
科 前					職 業		公 司	
備 考					前 犯			

氏 名	年 齡	身 長	指 紋 番 號
李 時 鍾	27 年 6 月 1 日 生	5 尺 1 寸 1 分	No. 89899 18988
特 徵			

60327

김교상 등 판결문

사건개요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문서를 인쇄, 반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함

판결문번호 대정9형공제1667호

판결일 1921/05/25

판결법원 경성지방법원

大正九刑公一六六七号	判決	京城府長沙洞七十八番地 在籍	京城道廣州郡中部面炭里 二百五十七番地居住農	金 教 爽	當三十三斗	朝鮮總督府裁判所	京城道廣州郡彦州面清潭里 二百九十一番地在籍居住 無職	木子 載 仁	當二十二斗	公道全郡中部面光池院里 九十二番地在籍居住農	姜 學 熙
------------	----	-------------------	---------------------------	-------	-------	----------	-----------------------------------	--------	-------	---------------------------	-------

1373

當二十四斗	右者ニ對スル政治犯處罰令 並出版法違反被告事件ニ付 朝鮮總督府檢事千綿宗六 千興審理、上判決スルコト左 如シ	主 文	被告金教爽ヲ懲役ニシテ、 被告木子載仁ヲ懲役一斗、 被告姜學熙ヲ懲役六 斗ニ處ス	未決拘留日數中百二十日ヲ 右被告三名、各本刑ニ算 入ス	押收物件中大正九領一 五六三号、一乃至五、不穩文	朝鮮總督府裁判所	裁判原本
-------	--	-----	---	-----------------------------------	-----------------------------	----------	------

1374

書乃至十二、印刷機具、  
 三十四、文穩文書、十六、  
 乃至二十一、不穩文書、二十  
 五、不穩文書、二十九、活版用  
 印刷機、之ヲ沒收シ其餘、  
 物件、差出人ニ還付ス

理由

被告金教爽、李載仁、豫テ  
 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朝鮮獨立ヲ希望シ居ルモノ  
 ナル盧韓、張辰教、洪永傳、李  
 暉ナル者、等ト共謀、上、朝  
 鮮獨立ニ関スル不穩文書ヲ  
 印刷頒布シ以テ朝鮮、獨  
 立運動ヲ爲サンコトヲ人止テ

大正九年陰四月頃ヨリ今斗  
 陰九月中ニ至ル迄、間數回ニ

1375

廣州郡彦洲面清潭里被告李  
 載仁方、今郡中部面炭里  
 被告金教爽方及今里安教  
 立里方等ニ於テ管轄官廳、  
 許可ヲ得スレテ被告金教爽  
 ハ其稿本ヲ起草シ今被告及  
 被告李載仁、韓震教等  
 ト共ニ印刷機械ヲ使用シテ

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大韓獨立運動、爲ニ生命  
 財產ヲ賭シテ大韓獨立國中  
 央部、傘ニ服從スルコトヲ誓  
 フレヒヨ、誓約書(領一號)約  
 千枚其他朝鮮獨立ヲ目的  
 トスル不穩文書、散言、告文(不  
 二號)約二百、暗殺團趣意書  
 (不四號)約三千、大韓獨立団地

1376

方郡施行規令(五十三号)ハ十卷  
 宣布文(五十三号)約千枚、大韓  
 獨立國敬務局施行規令  
 約三百四十卷、大韓獨立國  
 敬務局等印刷出版シ因テ治  
 安ヲ妨害セントシ  
 被告姜學熙ハ大正九年九  
 月二十五日頃前記安教堂方  
 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ニ於テ朝鮮獨立ニ因スル不穩  
 文書タルコトヲ知リ下ラ被告  
 金教爽本ヲ載仁及韓震教  
 等ト共ニ大韓獨立敬務局  
 施行規令印刷ニ從事シ以  
 前根被告等ハ不穩文書  
 出版ヲ幫助シタルモノナリ  
 被告等三名ハ前示犯行後

1377

大正九年十一月十五日鐘路警  
 察署ニ於テ敬務局犯盧  
 四訓規則違反ニ依リ拘留二十  
 五日ニ處セラレ其刑執行ヲ終  
 一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中被告金教爽  
 ニ因スル前判示事實ハ尚公廷  
 ニ於ケル全被告、其旨、供述  
 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ニ依リ之ヲ認定ス  
 法律ニ照スニ被告金教爽本  
 載仁、不穩文書印刷、所爲  
 ハ出版法第十一條第一項第一号  
 全條第一項朝鮮刑事令第四十  
 二條ニ被告金教爽、不穩文  
 書著作、所爲ハ出版法第十一  
 條第一項第一号朝鮮刑事令第一

1378

四十二條ニ、被告金教爽亦載仁ノ治安妨害セントシタル所爲ハ大正八年制令第七號第一條第一項ニ各該當ス(キ處右不穩文書、著作及印刷ハ夫々制令違反ノ所爲ト一所爲ニシテ數罪名ニ觸ルル關係アルヲ以テ刑法第五十四條第一項前段ヲ適用シ其最重キ制令第七號第一條ハ刑ニ從ヒ全條所定ノ懲役刑ヲ選擇シテ處斷ス(ク被告姜世熙、不穩文書印刷ノ所爲ハ出版法第十一條第一項第一号全條第二項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ニ該

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1378

1379

當スル處從犯ナルヲ以テ刑法第五十八條第六十二條第一項第六十三條第六十八條第三号ヲ適用シテ法定ノ減輕ヲ爲シタル範圍内ニ於テ處斷ス(ク被告等、前示犯行ニ餘罪ナルヲ以テ刑法第五十條ヲ適用シ未決拘留日數ノ一部ヲ併入ニ付テハ全法第二十一條ニ則リ押収物件中主文掲記ノ各不穩文書ハ犯罪ニ因リテ生シタル物件、全印刷機具ハ犯罪ノ用ニ供シ又ハ供セントシタル物件ニシテ孰シモ犯人以外ノ者ニ屬セザルヲ以テ全法第十九條ニ則リ之ヲ沒收シ

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1380

<p>其餘、物件ハ刑事訴訟法      中二百二條ニ從ヒテ屬斷ス      キモ、トス仍テ主文、如リ判      決ス</p>	<p>大正十年五月二十日      京城地方法院</p>	<p>朝鮮總督府判事      古宰</p>	<p>裁判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p>	<p>大正十年五月二十日      京城地方法院      古宰</p>	<p>大正十年五月二十日      京城地方法院      古宰</p>
---	----------------------------------	----------------------------	-------------------------------	--	--

1381

1381

김교상 판결문

사건개요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문서를 인쇄,반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함

판결문번호 대정10년형공제439호

판결일 1921/07/15

판결법원 경성복심법원

大正一〇年刑控第百四三九号)

判決

本籍 京城府長沙洞十八番地  
住所 京畿道廣州府中野面聚里  
二百五十七番地 農 金 敏 爽

昭和三十四年  
三十一號第一條  
三十一號第二條  
三十一號第三條  
三十一號第四條

右ニ對スル政治犯罪處罰令違反並  
出版法違反被告事件ニ付大正十年  
五月二十五日京城地方法院力言檢事  
有罪判決ニ對シ被告人ヨリ通牒申  
控訴ノ申立アリタルニヨリ本院ハ朝鮮  
總督府檢事河村幹水ヲ供更ニ審理  
シ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ハ之ヲ否棄ス

0137

理由

被告人ハ殊ニ朝鮮ニ運搬爲シ居  
ルニナルトコト本教仁等ト共謀ノ上朝  
鮮總督ニ関ス不逞文書ヲ印刷頒布  
シ以テ朝鮮ノ独立運動ヲ爲ヤルコト  
ヲ企テ大正九年陰四月次ヨリ大正  
十年九月次迄ノ間數回ニ廣州府廣州  
面清潭里本署方角書居里被控  
人方及同里各報章方等ニ於テ筆  
信ニ關シ許可ヲ得スレシ印刷機  
使用シテ大韓獨立運動ノ爲ニ生  
命財力ヲ賭シテ大韓獨立國中  
史部ノ命ニ服從スルコトヲ誓フ  
記載ニアル所ニ於テ約書約々被  
其地何レモ朝鮮ノ獨立運動ヲ鼓  
吹ス文詞ノ記載アル不逞文書

0138

告文約二百、暗殺圖越書約三ヶ大  
 韓領土國地方新施行規令ハ十卷宣  
 布文約廿枚、大韓領土國警察務局施  
 行規令約三百四十卷、大韓領土國越  
 告書、布告書等ヲ印刷出版シ因テ  
 治安秩序ヲ妨害セシムルモノニシテ  
 社義人ハ右不穩之書中暗殺圖越上  
 述之書以外ノモノ、原稿ヲ著作スル

右事實ハ原審官別始末書中致書  
 人ノ不穩之書著作ノ具テ備テ有共  
 著書ニ關スルモノ外別示左越告ノ  
 供述記載、核事ノ被告人ニ對テ調査  
 中布告書ニ關スルモノ、陽テ不穩之  
 書作成ニ關シ別示左越告ノ供述記  
 載ニ被告人ニ對テ筆錄司在禁

1.8.10

0139

禁官事務証ヲ取扱ノ才ニ回調書中  
 布告書一ヶ、調查ニ布告文トアレトモ  
 布告書ノ誤記ト誤(一)ニ關シ別示左越  
 告ノ供述記載ヲ轉合シテ之ヲ認ム  
 此等ニ對シテ被告人ノ所屬中不穩之  
 書著作ノ所屬ハ出版法才十條才一  
 次才一號ニ合テ書行印刷ノ所屬ハ左  
 法才十一條才一項才一號才二項ニ該

尚見トコト共ニ朝鮮利率令才四十  
 二條ヲ適用シ治安秩序ヲ妨害セシム  
 事ナルモノハ不正ハ年利才七才一  
 才一項ニ該南見トコト右不穩之書ノ  
 著作ノ印刷ハ夫々別令違反ノ所屬  
 上ノ所屬ニシテ刑罰ノ罪狀ニ觸ルル  
 關係ニルルヲ以テ刑性才五才四條才一項  
 前條才十條ヲ適用シ右ニ查テ別令

10.10

0140

牙七号分一條ヲ一攻ノ刑ニ從ヒ合條所  
 定ノ懲役刑ヲ選擇シ註刑期內ニ  
 テ被害者人ヲ懲役ニシテ處スルノ刑  
 法第三十條ニ別ク未決句爲日數中  
 百三十一ノ右刑ニ年入又ハノ押收物傳  
 中十九九ノ年餘ヲ一五六三号ノ一五五  
 十三十四十六乃至二〇、二十五ノ右不穩及  
 書ハ何レモ犯罪ニテ生ラサルモノ六  
 ノ五十二、二十九ノ印刷機具ハ犯罪ノ  
 用ニ使シ又ハ供セシトシテノルモノニシテ  
 被害者人及原告同被害者人以外ノ者ニ  
 屬セサルヲ以テ沒收シ其ノ餘ハ沒收  
 ニ係ラサルヲ以テ刑事訴訟法第二百  
 二條ニヨリ若シテ人ニ還付スルモノハ  
 トス然ラハ原告判決ハ本同題旨ニ  
 合テ相當ナルヲ以テ被害者人ノ控訴ハ

0141

理由ナレバ仍テ合條第二百三十一條ヲ一攻  
 ニ別ク重文ノ如ク判決ス  
 大正七年七月十五日  
 京城露審法院 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判事 本多乙田  
 朝鮮總督府 判事 石柳 武光  
 朝鮮總督府 判事 石柳 武光  
 朝鮮總督府 判事 石柳 武光

0142

## 김교상 판결문

판결 대정 10년 형공 제439호

본적 경성부 장사동 78번지

주소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 257번지

농업 김교상(金敎爽) 33세

위의 대한 정치범죄처벌령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대정 10년 5월 25일 경성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공소 신립이 있었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하촌정수(河村靜水) 간여로 다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전부터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던 바, 이재인 등과 공모한 다음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문서를 인쇄 반포하여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을 기도하고 대정 9년 음력 4월경부터 동년 음력 6월경까지 수차 광주군 언주면 청담리 이재인(李載仁)의 집, 앞에 기재한 주소의 피고인의 집 및 동리 안교동(安敎童)의 집 등에서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인쇄 기계를 사용하여 '대한독립운동을 위하여 생명 재산을 걸고 대한독립단 중앙부의 명에 복종할 것을 맹서함'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 약 1천매를 비롯하여 기타 어느 것이나 조선독립운동을 고취하는 문사(文辭)를 기재한 불온문서 경고문 약 2백, 암살단 취지서 약 3천, 대한독립단 지방부 시행 규령 80권, 선포문 약 1천매, 대한독립단 경무국 시행 규령 약 3백 40권, 대한독립단 취지서, 포고서 등을 인쇄 출판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하려고 한 자로서, 피고인은 상기 불온문서 중 암살단 취지서 권고를 저작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원심공판시말서 중, 피고인의 불온문서 저작의 행위 및 포고서에 관한 행위 외는 판시와 같은 취지의 공술 기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조서 중, 포고서에 관한 점을 제외하고 불온문서 작성에 관한 소위는 판시와 같은 취지의 공술 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사무 취급의 제2회 조서 중, 포고서(동 조서에는 포고문이라 했으나 포고서의 오기라고 인정한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취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함.

법률에 비추어 피고인의 소위 중, 불온문서 저작 소위는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동 문서 인쇄의 행위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해당하는 바, 다같이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고, 안녕 질서를 방해하려고 했던 소위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상기 불온문서의 저작 및 인쇄는 각각 제령 위반 소위와 동일한 소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54

조 제1항 전단 제10조를 적용하여 가장 중한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의 형에 따라 동조 소정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야 하고, 형법 제21조에 따라 미결 구류 일수 중 120일을 상기 형에 산입해야 하며 압수 물건 중, 대정 9년 영 제1563호의 1 내지 5·13·14·15 내지 20·25의 각 불온문서는 전 범죄에 의하여 생긴 것, 6내지 12·29의 인쇄 기구는 범죄용으로 쓰이고 또 쓰려고 했던 것으로서 피고인 및 원심 상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고 기여는 몰수와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여 각 차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 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 나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인하여 동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중훈 판결문

사건개요 독립군 활동 관련 판결문

판결문번호 소화10년형상제98호

판결일 1935/09/12

판결법원 고등법원

昭和十年刑上第九八號	判決	本籍及住居 平安北道元州郡東州洞小岩洞九六七番地 李 榮 李 昌 俊 李 鍾 均 事 李 鍾 勳 助	當二十六年	右者ニ對スル治安維持法違反及殺人及殺人未遂被告事件ニ付昭和十年六月十四日平壤地方法院ノ判決ニ對シ被告入ヨリ上告ノ申立マ爲シタルニ因リ朝鮮總督府ニ申上玉名及是關與判決スルコト云ノ如シ	王 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出 處	被告人上告趣意ハ昭和六年中梁世泰ハ各地ノ區長ニ對シ三人兄弟中一人死逃板シ庄則子ニ派遣アリタキ官給令ヲ渡シタルヨリ區長李春浩ハ西社碑ノ村ニテ被告人外九名ヲ逮捕シテ派遣シタルトコロ梁世泰ハ各地ヨリノ應募者四百名ヲ集合シ被告人等ヲ募集シタル目的ハ朝鮮獨立運動ノ爲ナル旨請示スルヲ以テ被告人ハ内心逃走ヲ決意シ該ヲ待テ居リシヲ棄却奉ハ都合ニヨリ全部解散セシメタルヲ以テ被告人ハ歸宅シ通化縣憲兵隊ニ自首歸順シ自宅ニテ發案ニ從事シ居リシカ昭和八年陰同五月十九日區長李春浩カ書ハ一通ヲ交付スルヲ以テ被告人ハ之ヲ陶寫シタルニ梁世泰カ部下百名ヲ率ヒ「リンコウ」ニ駐屯シ居リテ被告人ヲ召集スル書面ナリ
------------	----	---	-------	--	-----	------------	--------	------	-----	---

昭和十年刑上第九八號	判決	0356 東州洞小岩洞九六七番地 李 鍾 均 事 李 鍾 勳 助	當二十六年	人及殺人未遂被告事件ニ付昭和十年六月九判決ニ對シ被告入ヨリ上告ノ申立マ爲シタルニ因リ朝鮮總督府ニ申上玉名及是關與判決スルコト云ノ如シ	王 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出 處	被告人上告趣意ハ昭和六年中梁世泰ハ各地ノ區長ニ對シ三人兄弟中一人死逃板シ庄則子ニ派遣アリタキ官給令ヲ渡シタルヨリ區長李春浩ハ西社碑ノ村ニテ被告人外九名ヲ逮捕シテ派遣シタルトコロ梁世泰ハ各地ヨリノ應募者四百名ヲ集合シ被告人等ヲ募集シタル目的ハ朝鮮獨立運動ノ爲ナル旨請示スルヲ以テ被告人ハ内心逃走ヲ決意シ該ヲ待テ居リシヲ棄却奉ハ都合ニヨリ全部解散セシメタルヲ以テ被告人ハ歸宅シ通化縣憲兵隊ニ自首歸順シ自宅ニテ發案ニ從事シ居リシカ昭和八年陰同五月十九日區長李春浩カ書ハ一通ヲ交付スルヲ以テ被告人ハ之ヲ陶寫シタルニ梁世泰カ部下百名ヲ率ヒ「リンコウ」ニ駐屯シ居リテ被告人ヲ召集スル書面ナリ
------------	----	--	-------	--	-----	------------	--------	------	-----	---

シヲ以テ被告人ハ本年ハ大任任ニ疑案ヲ懸念シ居ルトテ是期方々求ムル  
 必書ヲ送附シタルトコロ案世奉ハ部下五名ヲ遣ハシ強制的ニ被告人ヲ連  
 レ行クヲ以テ被告人ハ案世奉ニ面言シ本年ハ大任任ニ疑案ヲ懸念セリト  
 テ收被刑廷相隊方ヲ乞ヒ被告人ノ父父外之ヲ懸念シタルモ向人ハ許心セ  
 サルヲ以テ被告人ハヒムナク玩弄ヲ形而シテ收被シタリ本據地ハ當初汪  
 清門ニ在リシヲ茲七月初頃「セヨソコウ」ニ移轉シタルカ被告人ハ歸郷  
 シタキモ旅費ノ調達困難ナルヲ以テ名ヲ父ノ病氣ニ藉リ案世奉ヨリ十日  
 間旅行ノ許可ヲ受ケ茲七月十五日ニ歸宅シ父ニ對シ茲八月初旬頃歸郷シ  
 タキニ付金二百圓ヲ懸念難免前死送金セラレタリト依頼シ當時直ニ歸  
 郷シタキ希冀ナキニシモ非スト懸念クテハ家族ニ危害ノ及フ虞アルヨリ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陸七月二十五日「セヨソコウ」ニ歸リタルトコロ案世奉ハ被告人ノ不在  
 中ニ一時間程交戦アリ兵車十名ヲ殺害シ隊方ハ二人ノ負傷者ヲ出シタリ  
 ト諱リシカ翌日初會ノ隊員シタルニ定例ハ隊員百名タリシモノ九十  
 名ヨリナキヲ以テ被告人ハ不審ニ思ヒシカ該會被擄等ヨリ聞クニ陸七  
 月二十日五時間程六十名ノ部隊ト交戦シ隊方八十名ノ死者、二名ノ負傷  
 者ヲ出シタリトコトナリシヲ以テ被告人ハ案世奉ノ言ハ虛妄ナルコト  
 ヲ覺知シタリ而シテ當時ハ疑念ナキ爲被告人ハ疑念ヲ拂而セシテ十五  
 日間同處ニテ服務シ陸八月九日夜何志者一名ト共ニ同處ヨリ脱出歸郷ノ  
 途ニ就キ案世奉疑念ニテ金二百圓ヲ受取り衣類等ヲ講製シ昭和九年正  
 月八車ニテ出發シ平安北道定州縣東州面小岩洞ニ到著シ所持金百八十圓

ヲ現金トシテ一家ヲ構ヘ妻モ迎ヘテ暮シ居リシカ昭和九年陰十月中案世  
 奉ハ被告人ノ本宅ニ到リ被告人ハ朝鮮獨立ニ反對シ歸郷シタル由ナルニ  
 付六箇月内ニ被告人ヲ拘致スヘク右シ詔セサルトキハ全家ヲ拘致スヘシ  
 ト行シタルヨリ被告人ノ本宅ニアハ大ニ俱レ被告人ヲ召喚スヘク第ヲ遣  
 ハシタルカ被告人ハ此ノ辱ヲ耐キ弟ニ警而ヲ送り案世奉ノ途中定州縣署  
 ニ立寄リ被告人カ留テ車路車ニ參加シタルモ自下歸郷シ居ル旨申告スル  
 トキハ一家ノ生命ヲ保全シ得ヘシト通告シタルトコロ案世奉定州縣署ニ  
 出頭シテ右起首ヲ申告シ被告人ハ同署ニ出頭シ豫テ案世奉ヨリ聞知シタ  
 ル事言ヲ陳述シタルトコロ案世奉自分力處罰セララルルノ懸念ニ附リタリ被  
 告人ハ一家ノ生命ヲ救フ爲約一年間苦ムニ耐ヒテ前記ノ如ク自言シタル

刑事判決原本

高等法院

モノナリシカ意外ニモ陸四年ニ處セラレタルハ同ニ殘念ニ極エサルト  
 コロナリ被告人ハ朝鮮以來朝鮮獨立ノ思想等有セス明法ノ旨下ニテ終サ  
 ムト妻モ迎ヘタル次第ニ付此ニ適止ナル判決ヲ下サレムコトヲ希冀スト  
 謂フニ在リ  
 然レトモ原判決告示ノ趣按ヲ審極スルニ原判ホノ犯罪事實ハ疑ニ之ヲ認  
 ムルニ足リ本件記録ヲ精査スルモ以判決ノ認定ニ重大ナル事實ノ誤謬ヲ  
 ルコトヲ疑フニ足ルヘキ顯著ナル事出存セサルノミナラス該會ノ情狀ヲ  
 詳察スルモ原案ノ刑ハ實ニ相當ニシテ該會刑極シ、不當トリト思料セ  
 シムヘキ顯著ナル事出存セシテ論旨ハ理出ナシ  
 仍テ刑事訴訟法第百四十六條ニ則リ注文ノ如ク判決ス

昭和十年九月十二日

高等法院 刑部

以判長朝鮮總督府判事

在任 趙基

朝鮮總督府判事

李多

朝鮮總督府判事

五井 市海

朝鮮總督府判事

也 少 川 富

刑事判決原本

朝鮮總督府判事

高 等 法 院

高 等 法 院

성남지역 내 독립유공자 유적지

# 성남지역 내 독립유공자 유적지

## 한백봉 선생

1881.8.28. - 1950.9.8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2-1

## 한순회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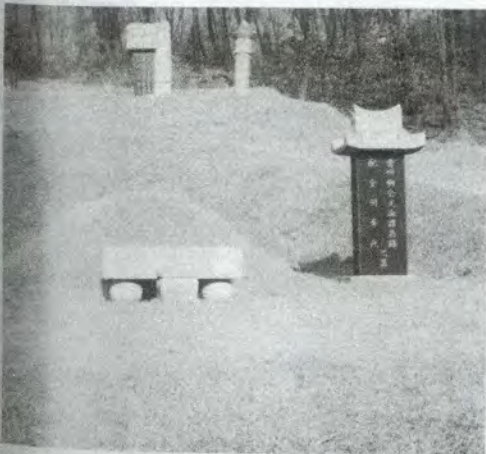
1885.12.14 - 1961.1.27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2-1

## 유창석 선생

1867 - 1952.10.14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13-1

## 남찬희 선생

1901.4.23 - 1967.11.29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63

성남지역 내 독립유공자 유적지

**방춘옥 선생**

1882.11.19-1946.12.14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13-1

**이연옥 선생**

1900.9.15-1971.2.26



남양주시 화도읍 백봉산기도원

**이희춘 선생**

1882.11.11-1951.8.13

충북 충주시 소태면 야동 산1-2

**서병흥 선생**

생몰 미확인



제 2 편

성남 3·1운동 문헌자료

여 백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경기도<sup>36)</sup>

지 명	집회횟수	집회인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투옥자수	소실교회	소실학교	소실민가
서울	57	570,000	5	692	1,200			
개성	28	3,800		140	76			
광주	21	7,500						
고양	19	2,500	3		158			
평택	7	800	64	100	7			
가평	28	3,200	23	50	25			
강화	2	400	7	51				
부평	6	950		52	98			
시흥	6	1,950			37			
포천	4	1,000						
인천	8	9,000			15			
용인	13	13,200	35	139	500			
이천	7	2,300	80	87	62			
진위	8	5,000		74	250			
연천	3	1,200	12	48				
양평	4	1,900	21	76	50			
여주	2	1,000	26	125				
수원	27	11,200	996	889	1,365	15		
죽산	6	3,000	25	160				
장단	2	700						
안성	13	1,800	51	50	300			
김포	13	15,000		120	200			
파주	7	5,000		71	212			
양성	7	3,500	124	200	125			

36) 원주: 원년(元年: 상해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 3월 1일에서 동년 5월 말일 사이의 상황. 이하 모두 같음.)

## 「한민족 독립 운동사」 3권, 「3·1운동」 (pp.342~344)

### <경기도편>

#### (1) 경기도의 3·1 운동

경기도 독립운동은 전체가 보조를 맞추지는 못했으나, 서울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파급되었다. 3월 1일 개성의 한영서원 학생과 기독교 목사가 계획하여 3일부터 근 1주간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므로써 시작되었다. 3일 고양군 등막, 9일 인천, 10일 양평군 문호, 11일 평택·안성, 13일 강화 14일 양주, 15일 가평, 16일 수원, 21일 연천, 22일 김포, 23일 부천·장단, 26일 파주·광주, 29일 용인·포천, 31일 이천, 4월 1일 여주에서 시위하므로써 도내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대체로 수원·안성·이천·양평군이 두드러진 운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운동은 군청 소재지 이상의 도시에서는 학생·기독교인이 중심이 되고, 일부는 천도교인이 주도했다. 그러나 산간지역의 면사무소 소재지에는 농민이 중심이었다. 양주·여주에서는 승려가, 안성에서는 시천교인이 그리고 수원·안성에서는 기생이 앞장서기도 하였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에는 독립선언서는 물론 각종 신문·선전문·격문이 일찍 전달되어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광주·강화·수원·양평·가평·개성군 등에는 선언서가, 그 외의 지역에도 각종 선전문이 배포되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만세시위가 많았으나, 점차 무력시위·봉화시위로 전환했다. 3월 21일 이후 수원과 오산에서 격렬하게 시위한 것을 계기로 4월 상순에는 고양·김포·파주·가평·광주 등 도의 중앙부에서부터 전역으로 확대되어 무력시위가 전개되었다. 4월 1일의 평택 시위, 안성경찰서·장단군청과 대남면·강상면사무소의 공격 방화, 연천군 산천리·여주군 이포·장단군 구화리·개성군 풍덕 등의 헌병주재소 공격, 2일 여주 시위, 3일 수원군 우정·서안면사무소 공격, 화수 경찰관주재소의 순사 살해, 안성 이죽면 사무소·여주군청 공격, 양평 및 지제면 곡수 시위 등은 규모가 크고 치열했다. 6일 광주군 실촌면 사무소·개성군 영남면장집 방화, 7일 양평 석흑리 헌병주재소 공격, 10일 시흥면장집 방화, 이천군 부발면 옥화교 방화 등이 감행되었다. 군청과 군경이 충돌한 것은 103건, 군청이 공격한 관공서는 경찰관서 17곳, 헌병대와 헌병파견소 12개소, 군청·면사무소 35개소, 우편소 2개소, 일인 및 친일파의 가옥 14호에 달했다.

또 3월 23일 이후 4월 15일까지 헛불시위가 전개되었다. 고양군(5개소)·시흥군(3개소)·광주군(7개면)·부천군(3개면)·수원군(7개면)·개성군(8개소)·강화군(17개소)·장단군(2개소)·파주군(2개소)·김포군(1개소)·양주군(3개면)·진위군(3개소)·이천군(3개면)·여주군(마을단위)에서 헛불을 울리며 시위했다.

경기도내 독립운동은 일제측 기록에 의하면, 51개소에서 일어나 사망 57명, 부상

106명을 내고, 일제측은 사망 1명 부상 4명이었고, 또 검거된 자는 2천12명(여자는13명)이었으며, 군별로 보면 인천 37, 고양 267, 광주35, 양주 117, 연천 95, 포천 10, 가평 44, 양평 82, 여주 32, 이천 27, 용인 72, 안성 429(여자 1), 진위 58, 수원 182(여자 1), 시흥 24, 부천 116, 김포 45, 강화 66, 파주 43(여자 2), 장단 50, 개성 189명(여자 9)이었다. 그러나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03회에 걸쳐 시위 하였는데, 참집인원은 총 6만 8천 100명, 사망 1천 469인, 부상 2천 677인, 피검 4천 220인에 달했다고 한다.

##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사』

### 제2편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과 3·1운동 <성남시편>

#### -옛광주군 내 돌마면·낙생면·대왕면-

#### 6. 돌마면

돌마면 지역의 3·1운동은 3월 27일 새벽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백봉·한순회·남태희 등의 주도하에 돌마·낙생 2개 면민이 합세하여 전개하였다. 한백봉(韓百鳳, 당시 39세)·한순회(韓順會, 당시 35세) 등은 1919년 2월 말 경 고종(高宗)의 장례식에 참석차 상경하였다가 3·1운동을 직접 목도하고 돌마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면내의 유지들과 모의한 후 전 낙생면장 남태희와도 연계. 거사를 계획하였다.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거사 일을 결정하고 태극기를 마련하는 등, 일단 준비를 마친 한백봉 등은 27일 새벽 그가 거주하는 율리 동리민 50여 명을 인솔하여 뒷산에 올라가 봉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다.

거사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경, 분당리 장터에 군중이 모이기 시작하자 한백봉·방모(方某) 등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에 들어갔다. 면내의 각지를 순회 시위하는 동안 시위군중은 점점 증가하여 27일 오후 낙생면 소재지 판교리에 진출, 남태희(南泰熙) 전 낙생면장에 인솔되어 시위에 가담한 낙생면민과 합세하였을 때에는 1000명 가까운 수(일본측 기록 600여 명)에 달하였다. 돌마·낙생면의 연합시위는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큰 것이었으나, 시위운동 자체는 평화적으로 전개된 것 같다. 그것은 판교리에도 헌병주재소가 설치되어 있긴 하였지만 평소에 치안당국과 면민 간에 큰 마찰 같은 것이 별로 없었던 데다 평화적으로 만세만 부르는 시위 군중에 대해 일제 헌병측에서도 강력하게 진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비록 만세시위가 평화적으로 전개되긴 했지만, 돌마 지역의 만세운동은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27일 저녁때까지 시위를 전개하고 군중은 일단 해산하였으나, 한백봉 등은 밤에 또다시 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28일과 29일 양일 간에도 계속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선동 전개하였다. 그러나 처음 시위운동에 대하여 방관적 자세이던 일제 헌병측도 시위가 계속되자 진압에 나섰고, 결국 한백봉 등 주동세력이 체포 검거되자 시위군중도 해산하였다.

돌마 지역 시위과정에서는 한백봉 등 십 수 명이 피검되어 판교헌병주재소에 일단 연행된 후, 다시 남한산성의 용인헌병분대 광주분전소로 이송되어 4일 간에 걸쳐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한순회·방모 등 대부분의 인사들은 방면되었으나, 한백봉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이송되고 다시 서대문감옥에 송치 이감되어, 치안질서를 방해하여 이른바 보안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된다 하여 보안법 제7조 및 조선형사령 제42조 위반죄를 적용, 5월 2일의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처해져, 경성북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으나 7월 9일 기각되고,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월 13일 역기 기각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8일 만기 출옥하였다. 한편 시위 때에 사용한 태극기는 증거물로 압수당하였는데,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다른 한편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된 한순회는 그 후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 있으면서 이천·여주·음성·원주 등지의 연락책임을 맡고 크게 활약하는 한편, 때때로 경향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시위운동으로 체포 수감된 인사들의 유가족을 돕기도 하였다.

## 7. 낙생면

낙생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돌마면과 연합적으로 추진 전개되었다. 낙생면의 초대 면장을 역임한 남태희(南泰熙)는 한백봉·한순회 등 돌마면 지역의 시위운동을 계획 추진하는 인사들로부터 27일의 시위에 나설 것을 권고 받고, 면민들로 하여금 만세시위에 참가하도록 전파하였다. 27일 새벽부터 돌마면 울리 지역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분당리 장날에 모인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이 시위 군중이 만세를 고창하면서 행진, 그날 오후 낙생면 소재지인 판교리까지 진출하였을 때에는 판교리 뿐 아니라 백현리·운중리·궁내리 등에서 시위에 가담키 위해 모여든 면민들이 합세하여 1000명 가까운 수에 이르게 되었다 (일제측 기록은 600여명). 시위군중도 큰 규모였고 더구나 판교리에는 헌병주재소(주재 헌병수 7명)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시위 자체는 평화적으로 전개되어 별다른 불상사는 없이 당일 저녁때까지 만세시위하고 해산하였다.

## 8. 대왕면

대왕면의 만세시위운동은 탄천을 경계로 동쪽 건너에 마주하고 있는 중대면 송파

리에서 일어난 시위운동이 이곳까지 비화하면서 전개되었다. 송파리의 만세시위는 3월 26일 오후 3시 경부터 6시 무렵까지 사이에 전개된바, 중대면 시위과정에서 진두지휘하던 이시종(李時種, 당시 19세)은 바로 대왕면 수서리가 출생지로서 마침 당일 송파리에 거주하는 친척 이범각(李範珪)·이윤종(李胤種)의 집에 불 일이 있어 다니러 갔던 차에 송파리 시위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이시종은 본적이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로서 수서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가담 후 대왕면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이었다. 3월 25일 밤, 친척인 이윤종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방안 책상 위에 놓여있는 『조선독립신문』을 보게 되었고, 동 신문에 “조선은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지의 글 등 모두 12개 항목의 조선독립에 관한 글이 서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윤종에게 “이 신문을 잠깐 좀 빌려 달라”하고 가지고 간 후 이튿날 송파시위에 가담한 것이었다.

이시종은 송파리의 시위운동이 오후 6시 경에 일단 시위군중의 해산으로 그치게 되자, 전날 저녁에 이윤종의 집에서 가지고 온 『조선독립신문』을 몸에 지닌 채 그의 집이 있는 수서리로 건너갔다. 수서리에 도착한 이시종은 오후 7시, 날이 어두울 무렵 같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 당시 32세)·이규문(李揆文) 등 동리민 100여 명을 규합한 후,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율현리 소재의 대왕면사무소까지 시위 행진하였다.

## 「광주군지」 중 「역사편」 ; 삼일 운동사

돌마면 율리의 한백봉(韓百鳳)은 이날 마을 주민 100여명과 함께 다음날 저녁때까지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만세시위 행진을 계속하였다. 즉, 밤에는 횃불을 올리고, 낮에는 각 동네를 돌아다니며 만세시위를 열렬히 전개하였다.

### (7) 3월 29~30일

낙생면과 돌마면 주민 수천 명은 28일 시위에 이어 이날도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군중의 수효는 3000여명을 헤아릴 정도로 대규모의 시위였다.

29일 남중면에서도 만세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일본 경찰에 미연에 방지되었으며, 30일에도 퇴촌면 광동리 국민들이 중심되어 시위를 전개하려 했으나 이 역시 미연에 방지되었다.

### (8) 4월 6일

이날 실촌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면민 약 630명은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시위군중 16명이 피검되었다.

광주지방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고 또 각지로 통하는 도로가 많아서, 3월 상순~4월 상순에 걸쳐 끊임없이 만세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과 헌병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경계를 폈다. 기독교와 천도교의 종교단체, 학생과 농민들이 운동의 핵심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곳 천도교구장 한순회는 이천·여주·원주·충북 등지에 연락책임을 맡고 크게 활약하였다. 그는 때때로 서울을 왕래하는 한편, 독립운동 소요경비를 모금하여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유가족을 돕고 운동자금에 쓰도록 중앙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3·1운동 기간 중 광주는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였는데, 매일 밤 산 위에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불렀는데, 강 건너 서울에까지 그 함성이 들릴 정도였다. 특히 서울과 광주는 지리적으로 연결한 지역이어서, 낮이면 서울 시내로 들어와 만세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경찰은 엄중 수사했으나 매일 계속하는 형편이어서 경찰과 헌병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만세시위의 진압에 있어서 매우 거칠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일이 비밀 비재했으며, 체포된 시위자에 대해서 고문과 학대 등 갖은 악행이 다 가해졌다.

## 「성남지역의 역사」 중 「근, 현대의 성남지역」 〈삼일운동사〉

금융기관으로서 1936년경 낙생면 판교리 319-3번지에 발족한 광주금융조합 판교지소가 그 효시이다. 판현 1930년대 초에는 대왕면 고동리에 교회당이, 그리고 둔전리에는 천주교 성당이 각각 세워졌다. (\*학교명·관천명에 있어 돌마·대왕은 처음부터 면명칭이 붙여졌으나, 낙생면은 초창기 실제 돌마·대왕면 구역까지 관할하였으므로 면중심인 ‘판교’의 명칭으로 불리웠고, 해방 이후부터 ‘낙생’이란 면명칭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일제 식민지시대 ‘성남지역’에 있어서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 8월, 일제에 의한 조선병합으로부터 1919년의 3·1운동까지 10여 년간은 소위 헌병경찰제에 의해 직접 지배되는 이른바 무단정치 시기이었고, 조선 민중은 일제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 식민지 노예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명목으로 법적으로 토지사유권을 확립시켜 토지약탈과 지세 징수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철도 화폐 금융 등 경제의 주요 기관을 지배하고 민족적 문화 교육을 말살하는 동화정책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일제의 무단정치 하에서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옥사하였고, 또는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민족의식을 키워나간 바, 3·1운동은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3·1운동 당시 ‘성남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집결하여 적극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성남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집결하여 적극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성남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돌마면 율리의 한순회·한백봉과 전낙색면장 남태희 등의 주도로 돌마·낙생면민이 합세하여 전개하였다. 특히 천도교 광주교구장 한순회는 한백봉과 더불어 1919년 2월말 경 고종(高宗)의 장례식에 참석차 상경, 3·1운동에 참가한 후 돌마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면내 각리의 유지들과 모의,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봉기하기로 계획하는 한편 낙생면의 남태희 등과도 연계하였다. 그리하여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3월 26일 오후 8시경, 율리 동민 50여명과 더불어 율리 뒷산에 올라가 봉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다.

만세 당일인 27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분당리 장터에 집결, 오전 10시경부터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시위에 들어갔다.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면내 각리를 순회 시위하는 동안 시위 군중은 천여 명으로 늘었고, 시위는 저녁 8시경까지 계속되었다. 만세시위는 28일에도 계속되어 돌마·낙생면민에 대왕면민까지 합세. 시위군중의 수가 3천여 명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한백봉을 비롯한 수십 명이 일제관헌에게 국기를 빼앗기고 체포당하게 되자 시위군중은 해산하였다. 한백봉(1881~1950)은 호가 송헌으로 청소년기에 분당리 진사 서상만의 문하에서 한문을 수학한 후 농사에 종사하였는바, 1990년에 정부로부터 독립유공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다.

일제 관헌에 체포당한 인사들은 당시에는 순사주재소가 낙생면 판교리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연행된 후 다시 당시의 군청소재지인 남한산성으로 이송되어 4일간에 걸쳐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대부분의 인사들은 방면되었으나 한백봉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을 거쳐 서대문감옥에 송치 이감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동년 5월 2일 징역 1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한편 한순회는 그 후에도 자주 경향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시위 도중에 체포 수감된 사람들의 유가족을 돕기도 하였다.

3·1운동 이후 민족독립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가 사회주의와의 연결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측은 민족주의측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타협적인 합법적 조직을 가지려는데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단일진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6·10만세 운동이 있던 다음 해인 1927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공동전선을 펴서 민족단일조직으로서의 신간회를 조직하기에 이른 바, 신간회가 내건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여기서 보면 신간회가 비록 합법적인 기관이긴 하였으나, 민족의 단결과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고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극히 투쟁적인 강령을 내세웠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신간회는 일제 경찰의 심한 감시로 표면적인 활동은 늘 억제될 당하였지만 전국에 많은 지회가 설립되고 회원 수도 무려 3만여 명이나 되었다.

##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 樂生面の 萬歲示威運動

분야 근현대  
유형 사건  
지역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판교리  
시대 일제강점기  
집필자 서승갑  
발생일시 1919년 3월 27일  
발생장소 낙생면 판교리

#### [정의]

1919년 3월 27일 낙생면 판교리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운동.

#### [진개]

낙생면의 만세시위운동은 초대면장 남태희 등의 주도하에 돌마면과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남태희는 3월 27일 돌마면에서 시위를 주도한 한백봉, 한순희 등의 권유를 받고 면민들에게 시위를 권고하고 참가를 유도하였다. 율리에서 시작한 만세시위가 분당리 장날에 군중이 가담하면서 규모가 증대되었다. 시위대는 행진을 계속하여 낙생면 소재지인 판교리에 진출하자 백현리, 운중리, 궁중리 등에서 시위에 참가하여 규모가 3,000여명에 달하였다.

#### [의의]

농촌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일제와 결탁한 친일분자를 타도 대상으로 하고 마을의 유력자나 학생, 교사 등이 주동이 되어 일어났다. 군수, 면장, 관공리, 헌병보조원 등은 위협을 가하며 주민들을 협박했으나 초대면장의 자발적 주도는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 이는 일제의 원시적 약탈체제에 전면 항거하는 공감대 형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 獨立運動家

분야 근현대  
유형 인물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일제강점기  
집필자 서승갑

#### [정의]

조선 후기 외세의 침투에 대항하여 국권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일제강점 후 주권을 되찾고자 벌였던 일련의 반외세, 반봉건을 지향한 운동가

#### [개관]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운동은 대내적으로 반봉건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외압으로부터 자주 국가를 건설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근대 민족주의운동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개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선각적인 지식인, 신진관료, 상공업 자본가들이로 이루어진 민족주의운동세력이었다. 제국주의 침탈에 대응하여 성남인들은 일본과 결탁한 봉건적 지주, 예속 자본가에 대항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반봉건과 반제국주의 기치 하에 일어선 민중이었다. 민중들의 혁명이념은 동학농민전쟁, 활빈당 등의 농민운동으로 표출되었다. 나아가 위정척사 사상을 구현한 의병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직접 착취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이 의병의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실천적 독립운동가인 한순회나 이명하 등의 역정에서 나타난 독립 의지가 성남지역의 전반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펼쳐진 민족주의운동은 성장과 분화 과정을 반복하며 민족해방운동으로 변모한다. 191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지식인 중심의 간접적인 투쟁 형태인 계몽운동과 직접 무장투쟁을 표방한 의병전쟁으로 전개되었다. 계몽운동은 세계 시장으로의 편입을 계기로 만연한 진화론적 제국주의 논리에 비판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 반면 직접 무장투쟁론은 근왕적인 유교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일차적 과제와 의병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계급모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차적 과제 사이에서 민족 역량을 최대화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 [의병운동]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전쟁은 반외세(反外勢), 반봉건(反封建)을 요구하는 직접 투쟁이었다. 일본인 농장주와 일진회원을 직접 응징하거나 친일관료를 처단하는 것은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현한 것이다. 의병전쟁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려는 민족주의운동의 한 방법이었으나 또다른 노선인 계몽

운동과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적인 형태로 전개된 것이 한계였다. 그러나 그 강도에 있어서는 남한산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치열한 전투로 이어졌다.

1878년 4월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에서 출생한 남상목은 이강년 의병대에 합류하여 참모관을 역임했다. 음성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나 후에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사하였다.

1876년 광주군 대왕면에서 출생한 윤치장은 퇴역병 출신으로 광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의병에 참여했다. 1907년 11월 중군장 오사과(吳司果) 등 부하 70명과 함께 광주, 과천에서 활동하였다.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의병운동과 독립군에서 활약한 이명하(李命夏)라 할 수 있다. 이명하는 1878년 광주 대왕면에서 출생하였으며 1902년 지방관리직에 나아가 제천군 주사에 종사하다가 의병에 참여하였다. 1907년에는 유인석의병장 수하의 소모장으로 활동하던 중 단양 영춘군수를 참살하였다. 의병전쟁에 참여한 후 1919년에 상경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10월 만주로 건너갔다. 독립군 제3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0년 2월 중국 삼도구(三道溝)에서 순사부장(巡查部長) 등을 사살하였다. 이명하는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직접 무장투쟁론자들이 독립군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한 일면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19년 3·1운동은 잠재된 의병정신이 폭발적인 위력을 과시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횃불 시위운동은 4월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경기도의 경우 일제 경찰력과 무력충돌이 70회 정도였으며 살해자는 104명, 부상자 190여 명, 체포자가 약 1,350명을 상회한다는 수치를 감안하면 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돌마면 율리의 한순회(韓順會), 한백봉(韓百鳳)은 1919년 고종 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주도하였다. 이들은 면내의 유지들과 접촉하면서 시위운동을 모의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南台熙)와도 연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던 점과 면장을 지낸 남태희 등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농촌의 지식인층이 시위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왕면의 독립운동은 중대면 송파리에서 일어난 시위운동이 이 지역에 파급되면서 시발되었다.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가 본적인 이시종(李時鍾)은 농사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참가한 후 대왕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 [변천]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후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 직접무장투쟁은 소강기를 맞는다. 계몽운동이 우위를 점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망하는 형세가 되었지만 국권 회복에의 의지는 일제 무단통치에 굴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성남지역에서 진행된 민족해방운동은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 방략을 전환함에 따

라 실력양성운동과 비밀결사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 [실력양성운동]

성남지역의 신지식층들은 구사상과 구관습에 대한 개혁론을 제기하여 시민 정신의 함양에 치중하였다. 즉 이런 개혁론은 산업과 교육의 진흥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적, 사회적 여건의 조성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성남지역에서 실력양성운동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는 단초가 해공 신익희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자강운동을 직접 시현한 대표적인 인물은 광주 대왕면 출신인 이석종으로 제국주의 침탈의 위험성을 직시하여 국권침탈조약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애국계몽운동을 실천하였다.

#### [비밀결사운동]

신간회 광주지회의 조직과 활동은 민족협동전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의 일단을 드러낸다. 민족협동전선의 흐름에 따라 돌마면의 독립지사 한순회 등이 신간회 지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광주지회장에 한순회가 선임되고 간사로 한백봉(韓百鳳), 한백호(韓百鎬), 이대헌(李大憲), 유인목(兪仁穆), 박기환(朴基煥), 한용회(韓龍會) 등이 피임되는 등 돌마지역 인사들이 조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한순회는 천도교에 귀의한 후 천도교 광주교구장을 거쳐 중앙총부 중앙위원과 봉도까지 역임하였다. 전국 순회 강연에 참여하여 독립정신을 앙양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조달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1930년대 조직 노선의 변화와 대중운동을 지도하려는 전국적인 경향은 성남에서도 나타난다. 1934년 조직 개편된 광주공산당협의회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단체의 전신은 1930년에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근거하여 석혜환, 정영신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노동운동단체 남한산노동공조회(南漢山勞動共組會)였다.

남한산노동공조회는 노동자, 농민, 상인 등을 망라한 조직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야학을 설립하는 한편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등 노동계급의 의식을 확대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1934년 12월 남한산노동공조회는 광주공산당협의회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강화하였다. 석혜환(石惠煥), 정영신(鄭榮信), 구상회(具想會), 구본흥(具本興), 김흥종(金興鍾), 구용홍(具溶弘), 정영배(鄭永培), 이양식(李良軾), 구희서(具喜書), 선진수(宣鎭秀), 강달영(姜達榮), 이순웅(李順應), 김귀용(金貴用) 등이 세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1934년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차원에서 조직 강화된 인천적색노동조합과 연계 투쟁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지역은 자료가 불분명하지만 당시 조선공산당 재건정리위원회와 연계되어 활동하였다. 광주공산당협의회가 경기도 지역의 사회주의 세포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사건에 관련된 인물로 산성리 출신의 석재홍

과 추완호가 있다. 이들은 프로레타리아 연극을 통해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하는 이동식 소형극장이라는 이동극단 형태의 결사체를 조직하여, 연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확산시키려는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다.

의병정신의 투지를 계승하고 무장투쟁론을 실천에 옮긴 인물은 광주군 중대면 출신인 염재항이다. 염재항은 광복군 제 2지대에 입대하여 초모를 위한 공작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적에 대한 정보수집, 유격전 등 항일 활동을 펼쳤다.

#### [의의]

성남지역에서 민족 해방을 쟁취하려는 의지는 전국적인 민족해방운동의 운동의 전개양상과 조응하여 발휘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의 태동기와 고양기에 전개된 운동은 절박한 상황에서 분산과 결집을 반복하면서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주의 우파에 의한 '선 실력양성 후 독립론'에서부터 적색노동조합의 사회주의 운동에까지 다양한 노선을 보여준다. 식민지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여 민족 정통성을 고수하는 한편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이 지역의 투쟁은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탄압에서도 이어 온 것이어서 의미를 지닌다.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은 반침략과 반봉건운동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반제국주의 투쟁에 성남지역의 투쟁 역량을 집결시켜 성남인의 저력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성남문화대전 突馬面の 示威運動

분야 근현대  
유형 사건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근대  
집필자 서승갑  
시위발생일 1919-03-27

#### [정의]

1919년 3월 27일 돌마면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운동.

## [경과]

돌마면의 시위운동은 천도교인과 농촌의 지식인층 일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로써 참가자가 증폭하였고 낙생면과의 연합 시위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돌마면 율리의 한순회(韓順會), 한백봉(韓百鳳) 등은 1919년 고종 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면내의 유지들과 접촉하면서 시위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南台熙)와도 연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던 점과 면장을 지낸 남태희 등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농촌의 지식인층이 시위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월 27일 새벽에 한백봉 등은 율리 동민 50여명을 인솔하고 뒷산에 올라가 봉화로 시위를 예고하는 등의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거사 당일 10시경 분당리 장터에서 군중이 운집하자 한백봉 등은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전개하였다. 면내를 순회하는 동안 시위 군중이 늘어났고 오후에 낙생면소재지 판교리에서 남태희가 주도한 시위군중과 합세하였을 때 시위 군중은 3,000여명에 달하였다.

## [의의]

한순회가 천도교에 관여한 사실에서 보면 당시 천도교인들은 국권회복과 독립이 당면한 사명이라는 인식하에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지력이 강하였다. 천도교인들은 독립선언서를 각지에 배포하는 한편, 태극기를 극비리에 제작하고 운동자금 모집 등도 관여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 디지털성남문화대전

### 突馬·樂生面の 연합시위운동

분야 근현대

유형 사건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근대

집필자 서승갑

시위기간 1919-03-27 ~ 1919-03-29

## [정의]

1919년 3월 27부터 3일간 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등이 돌마면과 낙생면의 면민을 규합하여 진행한 연합적 만세시위운동.

[경과]

돌마면과 낙생면민의 연합시위는 규모나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파급효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시위를 주도하기 이전에 봉화와 횃불을 통해 상호 교감을 일으켜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시위운동의 주도자들은 3월 28일에도 봉화를 올리고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9일까지 지속했기 때문이다.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하기로 거사하고 한백봉 등이 분당리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작하였다. 시위대가 낙생면 소재 판교리에 도착했을 때 백현리, 운중리, 궁내리의 군중들이 참여하면서 3,000여명에 달하였다.

[의의]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운집하는 분당리 장날인 27일을 거사일로 선택하고 횃불시위로 분위기를 고양한 점이 특징이다. 나아가 당시 3,000여명을 동원한 돌마면과 낙생면 시위만세운동은 대중성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디지털성남문화대전 大旺面의 만세시위운동

분야 근현대

유형 사건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근대

집필자 서승갑

시위발생일 1919-03-28

[정의]

1919년 3월 28일 대왕면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운동.

[경과]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가 본적인 이시중(李時鍾)은 농사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참가한 후 대왕면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게 된다. 「조선독립신문」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수서리에 돌아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 이규문(李揆文) 등 100

여명을 규합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시위대는 만세를 고창하면서 면사무소에 집결하였고 일부는 면사무소에 진입한 후 「조선독립신문」을 꺼내 독립의 당위성을 낭독하였다. 이시종은 군중에게 "오늘까지는 이 면사무소에서 일본의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 세금 등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였다.

#### [의의]

이시종은 일제하의 부역과 세금에 전면 반대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독립만세시위의 대왕면 주도층 의식은 중앙에서 전개된 투쟁 양상과 달리 원시적인 약탈경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약되어 있다. 성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농민층의 불만과 독립을 위한 의지가 비교적 정확하게 표출된 것이다. 대왕면 시위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반대한 운동으로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성남시사(城南市史)』

### 6. 성남지역의 항일독립운동

다음으로 일제 식민지시대 성남지역에 있어서의 민족독립운동(民族獨立運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 8월, 일제에 의한 조선병합으로부터 3·운동까지 10여 년간은 소위 헌병경찰제에 의해 직접 지배되는 이른바 무단정치 시기였고, 조선 민중은 일제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 식민지 노예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명목으로 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을 확립시켜 토지약탈과 지세 징수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철도, 화폐, 금융 등 경제의 주요 기관을 지배하고 민족적 문화 교육을 말살하는 동화정책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일제의 무단정치하에서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옥사하였고, 또는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민족의식을 키워나간 바, 3·운동은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우선 광주군지역의 3·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 지역의 만세운동이 지역 단독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군 전체가 연계하여 전개한 것이므로 광주지역 전체의 3·운동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의 3·운동은 3월 26일 중대면(中垔面) 송파리(松坡里)일대의 만세시위운동을 시작으로 27, 28 양일간에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4월 6일 실촌면의 만세운동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3월 1일 중앙에서 만세운동이 촉발된 지 25일만에 일어나 10일 정도 지속한 셈이다.

남한산성이나 곤지암 지역 등이 한말 의병의 격전지로서 군민들의 항일의식이 다

른 어느 지역에 못지 않을 것 같고,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광주군의 3·운동은 의외로 '늦게 시작되어 일찍 끝난' 운동이란 느낌마저 든다. 그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즉 광주지역은 산이 험준하고 지리적으로 서울의 인접지역이라고는 해도 본래 경기도의 20개 군 가운데 섬으로 된 강화군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철도가 통과하지 않은 지역인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여 정보전달이 그만큼 늦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개화기에 있어서도 사회문화적으로 별로 변화 발전하지 못한 지역적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근대식 학교, 우편관서, 도로 등 근대적 시설이 별반 이뤄지지 못한 지역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3·운동 당시 만세시위를 주도하거나 추진한 담당주체에 있어서 학생층이나 종교단체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인 위치였다고 하겠는데 학교 설립이 타 지역에 비해 늦은 편인 광주군은 그만큼 민중을 선도할 지도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동할 사회적 리더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늦게 시작되어 일찍 끝난' 운동이 되고 만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실제 3·운동 당시 광주군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동한 지도적 인물 15명의 경우를 보면, 직업에 있어 전원이 농업이었고, 종교관계는 천주교 1명과 기독교 1명일 뿐 그 외에는 모두 종교가 없었다. 그리고 학력은 절반 가량이 한문수학 정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의 3·운동 그 자체는 치열하고도 집요하게 전개된 것으로 평가될 성격의 운동이었다.

10여 일에 걸쳐 전개된 광주군 지역의 3·운동은 군청소재지나 면사무소, 또는 헌병주재소를 중심으로 연합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26일의 송파지역 300명 규모의 첫 번째 시위와 27일 300명 규모의 성남지역중부면(中部面)의 시위, 그리고 4월 6일 400명 규모의 실촌면의 마지막 시위는 면단위로 전개된 것이었지만, 27·8 양일간의 시위운동은 인접면간에 연합적으로 전개한 대규모 운동이었고, 이는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뉘볼 수가 있겠다. 27일 동부면·서부면·구천면의 3개 면민이 모여 각 면사무소에서 시위한 후 최종적으로 구천면 상일리 소재 헌병주재소에 1천여명이 집결하여 전개한 것이 그 하나이고, 같은 날 성남지역의 돌마면(突馬面) 분당리(盆唐里) 장날을 이용하여 시작된 시위가 낙생면·대왕면(大旺面) 지역을 순회식으로 3개 면민 600여 명이 연합, 28, 9일까지 3일간 끈질기게 운동을 전개한 것이 그 둘째이며, 28일 오포면 문형리·고산리에서 시작되어 양별리 주민 등 1,500여 명이 합세한 후 다시 경안면 주막리에서 2,000여 명이 집결, 광주군청에 육박하여 서울 주재 경성헌병본대로부터 진압부대가 지원 출동해야 할 만큼 광주지역 시위운동 증가장 치열하고 대규모적이었던 오포면·광주면의 운동이 그 셋째이다.

요컨대 광주지역의 3·1운동은 서울에서 가까운 서광주 지역에서부터 점차 동광주 지역으로 파급되어가면서 서광주 지역에서 연합시위 2회, 면단위 시위 2회와 그리고 동광주 지역에서 연합시위 1회, 면단위 시위 1회가 전개된 양상인데, 각 지역의 시위주동자는 천중선(千重善)·장덕균(張德均, 이상 중대면)·이대헌(李大憲)·김교영

(金敎永)·김홍렬(金弘烈, 이상 동부면)·구희서(具義書, 서부면)·한백봉(韓百鳳)·한순회(韓順會, 이상 돌마면)·남태희(南泰熙, 낙생면)·이시중(李時鍾)·이재순(李載淳, 이상 대왕면)·정제화(鄭濟華)·김인택(金仁澤)·임무경(林武京)·유면영(柳冕永, 이상 오포면)·오수식(吳壽軾, 실촌면) 등이었다. 이제 성남지역의 3·1운동에 대하여 중부면(中部面) 지역부터 살펴보자.

중부면은 면소재지이며 면의 중심인 산성리를 비롯하여 13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산성 안의 산성리를 중간에 두고 동부지역의 6개리와 서남지역의 6개리로 구분되어 있었다. 3·1운동은 그 중 서남부 지역(현 성남시구역)으로 성남출장소 관내에 속하는 단대리(丹垔里)·탄리(炭里)·수진리(壽進里) 등의 3개 동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이었다.

중부면의 만세시위운동은 그 주동자가 밝혀지지 않아 구체적 경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3월 27일 새벽, 남한산(南漢山)에 횃불을 올리고 만세를 고창하는 것을 신호로 시작되었다. 27일 오전 단대리·탄리·수진리의 주민 300여 명은 남한산성 남문 아래의 계곡에 집결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 부르면서 산성 안으로 진입, 시위 행진을 계속하면서 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였다. 흥분한 시위군중은 평소 적극적으로 부일(附日) 협력해온성명 미상의 중부면장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자 그를 응징하기 위해 끌어내어 곤봉으로 머리를 구타, 실신케 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자 경비 중이던 헌병은 공포를 발사, 시위군중도 해산하였다.

현재 분당구 지역에 해당하는 돌마면 지역의 3·1운동은 3월 27일 새벽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백봉·한순회·남태희 등의 주도하에 돌마·낙생 2개 면민이 합세하여 전개하였다. 한백봉(韓百鳳, 당시 39세)·한순회(韓順會, 당시 35세) 등은 1919년 2월 말경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차 상경하였다가 3·1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돌마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키로 결심하고 면내의 유지들과 모의한 후 낙생면장 남태희와도 연계, 거사를 계획하였다. 3월 27일 분당리(盆唐里)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거사일을 결정하고 태극기를 마련하는 등, 일단 준비를 마친 한백봉 등은 27일 새벽에 거주지인 울리(栗里) 동리민 50여 명을 인솔하여 뒷산에 올라가 봉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다.

거사 당일인 27일 오전 10시경, 분당리 장터에 군중이 모이기 시작하자 한백봉·방모(方某) 등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에 들어갔다. 면내의 각지를 순회 시위하는 동안 시위군중은 점점 증가하여 27일 오후에는 낙생면 소재지 판교리(板橋里)에 진출, 남태희 전면장에 인솔되어 시위에 가담한 낙생면민과 합세하였을 때에는 1천여 명에 가까운 수에 달하였다. 돌마·낙생면민의 연합시위는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큰 것이었으나 시위운동 자체는 평화적으로 전개된 것 같다. 그것은 판교리에도 헌병주재소가 설치되어 있긴 하였지만 평소에 치안당국과 면민 간에 큰 마찰 같은 것이 별로 없었던 데다 평화적으로 만세만 부르는 시위군중에 대해 일제헌병 측에서도 강력하게 진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비록 만세 시위가 평화적으로 전개되긴 했지만, 돌마지역의 만세운동은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27일 저녁 때까지 시위를 전개하고 군중은 일단 해산하였으나, 한백봉 등은 밤에 또다시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28일과 29일 양일 간에도 계속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선동 전개하였다. 그러나 처음 시위운동에 대하여 방관적 자세이던 일본헌병측도 시위가 계속되자 진압에 나섰고, 결국 한백봉 등 주동세력이 체포 검거되자 시위군중도 해산하였다.

돌마 지역 시위과정에서는 한백봉 등 십수 명이 피검되어 판교헌병주재소에 일단 연행된 후, 다시 남한산성의 용인헌병분대 광주분건소로 이송되어 4일간의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한순회·방모 등 대부분의 인사들은 방면되었으나 한백봉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다시 이송되고 또다시 서대문감옥에 송치 이감되어, 치안 질서를 방해하여 이른바 보안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된다 하여 보안법 제7조 및 조선형사령 제42조 위반죄를 적용, 5월 2일의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처해져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으나 7월 9일 기각되고,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월 13일 역시 기각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8일 만기 출옥하였다. 다른 한편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방면된 한순회는 그 후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 있으면서 이천·여주·음성·원주 등지의 연락 책임을 맡고 크게 활약하는 한편, 때때로 경향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시위운동으로 체포 수감된 인사들의 유가족을 돕기도 하였다.

낙생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돌마면과 연합적으로 추진 전개되었다. 낙생면의 초대 면장을 역임한 남태희(南泰熙)는 돌마 지역의 한백봉·한순회등으로부터 27일의 시위에 함께 나설 것을 권고 받고, 면민들로 하여금 만세시위에 참가하도록 전파하였다. 27일 새벽부터 돌마면 울리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분당리 장날에 모인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이 시위 군중이 만세를 고창하면서 행진, 그날 오후 낙생면 소재지인 판교리까지 진출하였을 때에는 판교리 뿐 아니라 백현리·운중리·궁내리 등에서 시위에 가담키 위해 모여든 면민들이 합세하여 1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시위군중도 큰 규모였고, 더구나 판교리에는 헌병주재소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시위 자체는 평화적으로 전개되어 별다른 불상사는 없이 당일 저녁 때까지 만세시위하고 해산하였다.

대왕면지역의 만세시위운동은 탄천(炭川)을 경계로 동쪽 건너에 마주하고 있는 중대면 송파리에서 일어난 시위운동이 이곳까지 비화하면서 전개된 것이었다. 송파리의 만세시위는 3월 26일 오후 3시경부터 6시 무렵까지 사이에 전개된 바, 중대면 시위과정에서 진두 지휘하던 이시중(李時鍾, 당시 19세)은 바로 대왕면 수서리(水西里)가 출생지로서 마침 당일 송파리에 거주하는 친척 이범각(李範珪)·이윤중(李胤鍾)의 집에 불 일이 있어 다니러 갔던 차에 송파리 시위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다. 이시중은 본적이광주군 돌마면 여수리(麗水里)로서 수서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가담 후 대왕면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3월 25일 밤에 친척인 이윤중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방안 책상위에 놓여있는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을 보게 되었고, 동 신문에 “조선은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요지의 글 등 모두 12개 항목의 조선독립에 관한 글이 서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윤종에게“이 신문을 잠깐만 빌려 달라”하고 가지고 간 후 이튿날 송파시위에 가담한 것이었다.

이시종은 송파리의 시위운동이 오후 6시경에 일단 시위군중의 해산으로 그치게 되자 전날 저녁에 이윤종의 집에서 가지고 온 『조선독립신문』을 몸에 지닌 채 그의 집이 있는 수서리로 건너갔다. 수서리에 도착한 이시종은 오후 7시, 날이 어두워질 무렵 같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 당시 32세)·이규문(李揆文) 등 동리민 100여 명을 규합한 후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울현리(栗峴里) 소재의 대왕면사무소까지 시위행진 하였다. 시위행진 도중 이재순이“이 밤중에 면사무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면장은 없을 터이니, 차라리 면장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지만, 이시종 등 일행은 불응, 면사무소로 가게 된 것이다.

면사무소 앞에 당도하여 약 20분간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이시종은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램프등에 불을 켜고 지니고 온 『조선독립신문』을 꺼내 군중을 향해서 낭독한 후 군중을 향해“오늘까지는 이 면사무소에서라도 일본을 위하는 일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 부역·세금 등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해산 귀가 후 이튿날 헌병주재소에 연행되었고, 두 사람 모두‘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 질서를 방해하였다’하여 이른바 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보안법 제7조 및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적용되어 5월 15일의 재판 결과 이시종은 징역 1년, 이재순은 징역 8개월에 각각 처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에 불복,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7월 26일 기각되고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0월 9일 기각되었다.

3·1운동 이후 민족독립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가 사회주의와의 연결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측은 민족주의측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타협적인 합법적 조직을 가지려는데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단일전선은 쉽게 이뤄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6·0만세 운동 이듬해인 1927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공동전선을 펴서 민족단일조직으로서의 신간회(新幹會)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보면 신간회가 비록 합법적인 기관이긴 했어도 민족의 단결과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고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극히 투쟁적인 강령을 내세웠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신간회는 일제 경찰의 심한 감시로 표면적인 활동은 늘 억제될 당하였지만 전국에 많은 지회(支會)가 설립되고 회원 수도 무려 3만여 명이나 되었다.

신간회 광주지회(廣州支會)는 1927년8월 24일에 경기도에서는 개성(開城)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되었는데, 지회장 한순회(韓順會)를 중심으로 석혜환(石惠煥)·한백봉(韓百鳳)·한백호(韓百鎬)·이대헌(李大憲)·유인목(兪仁穆)·홍순석(洪淳錫)·박기환(朴基煥)·한용회(韓龍會) 등이 조직한 바, 돌마 지역의 인사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광주지회는 1928년 12월 20일의 개편대회를 통하여 지회장에 석혜환(中部面山里), 부회장에 한순회, 간사에 유인목·한백호를 선출하고, 다시 1929년 8월 7일에는

지회설립 2주년 기념대회를 개최, 집행위원장에 유인목(東部面上山谷里)을 선출하고 다시금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신간회 광주지회는 1930년 초까지 활동하다가 해산한 바, 역대임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는 생략함)

한순회(韓順會, 1885. 12. 14, 1961. 1. 27)는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서 이천·여주·원주·음성 등지의 연락책임까지 맡아 크게 활약한 인물이었다. 호가 제암(霽菴)으로 어려서 족숙(族叔) 한영창(韓永彰)에게 한문을 수학, 일찍이 한학 7서에 통달하였으나 경술망국과 3·1만세운동을 체험하면서 자각한 바 있어 국민계몽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한순회는 보다 적극적인 국민계몽과 독립운동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깨닫고 천도교에 입교, 천도교 광주교구장을 거쳐 천도교 중앙총부의 중앙위원과 봉도(奉導)까지 역임하였다. 1927년에는 신간회의 조직과 활동에 참여, 신간회 광주지회의 결성을 주도하고 지회장을 역임하였음은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거니와, 그는 또한 천도교 간부로서 포교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상해에 보내기도 하였다. 그가 천도교인들의 연합예배인 백일기도회에서 강론중에 안심가(安心歌) 중 멸왜심고(滅倭心告)로서“무궁한 내 조화(造化)로로 개 같은 왜적놈들 일야간(一夜間)에 멸하고서 아국신세 세계에 떨치리라”는 대목을 한번도 빠지 않고 기도문에 넣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와같이 천도교 포교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1938년 황해도 사리원(沙里院)에서 천도교 중앙간부 최준모(崔俊模)·김재계(金在桂)·김경성(金庚成) 등과 함께 일제의 관헌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70여 일간 옥고를 치루었다. 한편 한순회가 1930년도부터 1959년까지의 일을 일기체 형식으로 남긴 필사본 『제암일지(霽菴日誌)』는 독립운동사 자료로서도 중요한 것이다

## 『돌마마을지』 (하), 성남문화원, 2008

### 한백봉 (韓白鳳, 1881~1950)

휘는 백봉(百鳳)이고, 자는 성의(聖儀)이다. 호는 송헌(松軒)과 벽송(碧松)을 사용하였다. 한영회(韓英會)와 김해김씨(金海金氏)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890년부터 진사 서상만(徐相晩) 문하에서 수학하여 한학 모든 경서에 통달하였으며 성현의 행적을 본받으며 오상(五常 ; 인, 의, 예, 지, 신)을 항상 실천한 청빈하고 대쪽 같은 개화기의 선비이다.

공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이며 확고한 민족자존 정신을 실천한 독립 운동가이다.

을사(乙巳) 망국을 당하여, 울분으로 지내던 중 1919년 2월말에 고종황제의 승하 소식을 접하고 고종장례식에 참석차 상경하였다가 손병희(孫秉熙), 한용운(韓龍雲), 권병덕(權秉惠), 오화영(吳華榮) 등의 독립 운동가들과 만나 3.1독립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광주에서 상경한 유림들과 광주지역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일정 등을 상의 조정한 후에 향리로 돌아와 문중 어른들과 젊은 청장년층을 모아 3월 26일 저녁에 율리 뒷산인 모란봉에서 시위를 알리는 봉화를 올리기 시작하여, 3월 27일 분당리 장날에는 3,000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3월 29일까지 열렬하고 끈기 있게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급기야 일경에 체포되어 온갖 고문과 악형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선민족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함은 정의인도에 기인한 정당한 의사발동이므로 죄가 아니다.” 라고 강변하며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내란 및 음모죄를 적용하여 9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으며, 일제가 국제간에 여론을 의식하고 조선민족을 절대로 탄압하지 않았다는 홍보를 위하여 급조된 소위 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 영친왕 국혼(國婚) 특사로 13개월 만에 사면되었다.

공은 출옥 후에도 농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주독립정신을 고취하였고, 1927년에는 한순회(韓順會), 이대헌(李大憲), 유인목(兪仁穆), 박기환(朴基煥), 한용회(韓龍會), 한진회(韓辰會), 한백호(韓百鎬) 등과 협의하여 신간회 광주지회를 결성을 주도하고 간사를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41년 팔월 회갑연에 들어온 <수석(壽席)>이란 현수 축시를 소개하면,

吉甲重回嶽降辰(길갑중회악강신)

좋은 회갑 돌아온 생신날에,

吾門祝賀壽其身(오문축하수기신)

우리 문중은 그 몸이 장수하시길 축하드립니다.

彩舞鸞情令八月(채무난정영팔월)

오색 찬란히 춤추는 란세의 정경 8월,

瑤歌鴻曲又天華(요가홍곡우천화)

아름다운 노래 큰 가락 또 많은 들꽃.

稻花酒熟盃如古(도화주숙배여고)

벼꽃피고 술 익는데 잔은 옛날 그대로요,

檣櫓文多史見新(명도문다사견신)

쓸모없는 재목도 글을 많이 하면 사관이 새로이 볼 것이니,

靜裏訓孫陪隴過(정리훈손배릉과)

조용히 자손들을 가르치고 큰 길 따라 지내노라면,

應知晚蔭世榮頻(응지만음세영빈)

응당 늦게라도 만음이 이르러, 세상 영화가 자주 있을 것이요.

愚叔 信菴 蕪呈(우숙 신암 무정)

나이 어린 아저씨 신암이 거칠게 써서 드림

대한민국 건국에도 적극적이었으나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유림을 포함한 경기지역유지들과 고유하며 국가중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1950년 전란 중에 한 많은 일생을 마쳤을 때에는 나라 잃었을 때의 민족전체가 일제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보낸 애환이 담긴 내용의 만장이 수없이 답지하여 평생을 민족자존의 굳은 독립정신으로 주위를 독려하며 조국광복운동에 전념하신 고인을 보내는 지인들의 글 중, 이희춘(李熹春 : 돌마면 초대면장 역임) 씨가 써온 만장을 옮겨본다.

竹林居士忠勇人(죽림거사충용인)

三一當時彰義人(삼일당시창의인)

且逢賊亂多憤慨(차봉난적다분개)

平和到來作故人(평화도래작고인)

벼슬 많은 거사로 충용한 사람,

삼일운동 당시에 창의한 사람,

적난을 또 만나 많이 분개한 사람,

평화가 오니 고인이 된 사람.

1990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 177호를 수여받았다.

묘소는 율동 산 2-1번지에 부인 평택임(平澤林氏) 임주화(林柱和) 여사와 간좌에 합조이다. 묘비문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용하(愼鏞夏) 박사가 지었고 글씨는 성봉(石峰) 한호(韓護)의 글씨를 집자하였다.

묘비와 기타석물은 2007년 11월 20일 성남문화원·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주최로 제막식을 하였다. 2006년 3·1절 기념식 날에는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제막식 및 제 87주년 추념식을 율동공원 기념탑 광장에서 거행하였다.

**한순회(韓順會, 1885년~1961년)**

자는 보경(輔卿)이고 호는 제암(霽菴)이다. 평택 포승면 내기리에서 출생하여 율리에 한영우(韓永佑)에게 입양, 율리로 이거한 후, 족속 한영창(韓永彰)에게 한학을 수학하여 한학 모든 경서에 통달하였다. 천도교인으로 천도교 중앙총부 중앙위원과 봉도를 역임하였다.

경술망국의 의분으로 지내던 중 3·1독립만세운동을 체험하고, 자각한 바 있어서 국민계몽과 독립운동을 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깨닫고 천도교에 귀의하여 천도교 광주 교구장을 지내면서 독립운동에 열중하였다.

1927년 신간회 광주지회 결성시에는 한백봉(韓白鳳), 이대헌(李大憲), 유인목(兪仁穆), 박기환(朴基煥), 한용회(韓龍會), 한진회(韓辰會), 한백호(韓百鎬), 이연옥(李淵玉) 등을 주축으로 조직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신간회 광주지회장으로 피선, 열렬한 활동을 하였다.

천도교 간부로서 전국 순회강연을 다닐 때에는 <안심가(安心歌)>와 <멸왜심고(滅倭心告)>로서 “무궁한 내 조화(造化)로 개 같은 왜적놈들 일야간(一夜間 ; 하룻밤 사이)에 멸하고 아국운세 세계에 떨치리라.”는 내용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문에 넣은 일화는 유명하다.

묘소는 율동공원 저수지 번지점프대 북쪽 산 2-1번지 내 공원산책로 옆에 배위 파평윤씨(坡平尹氏)와 합조이다.

**한용회(韓龍會, 1906~1980)**

회는 용회(龍會)이다. 약국을 경영하시던 부친의 가르침을 영향받아서 어려서부터 학문에 심취하여 한학철서를 다 배우고 젊은 소년 나이에 기미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1927년에 신간회 광주지회 창설 때에는 젊은 청년층을 이끌며 한백봉(韓白鳳), 유인목(兪仁穆), 이대헌(李大憲), 박기환(朴基煥), 한진회(韓辰會), 한백호(韓百鎬), 이연옥(李淵玉) 등과 의기투합하여 적극 참여하고 간사를 맡아 적극 활동하였으며 광복해방 후에는 낙생 금융조합 설립당시에 조합이사를 맡아 지역경제 재건에도 적극 앞장섰으며 와룡당 한약방을 직접 경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사회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묘소는 율동 산 9-1에 배위 남원윤씨(南原尹氏)와 단봉 합조이다.

**한백호(韓百鎬, 1907년~1976년)**

회는 백호(百鎬)이고 호는 일정(一亭)이다. 공은 독립운동가요 근세교육가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이라 불리었고 7~8세에 이미 사서를 통독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1921년 14세 때에 강화군수를 지내고 일제총독부의 지명수배를 받아 중국으로 망명하는 종조부 한영복(韓永福)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가 북경에 있는 육영고등학교와 연경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927년 신간회 창립당시에 참여하고 광주지회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독립운동에도 가담하였다.

1933년부터 1904년까지 숭문중학에서 교사를 하였고 1940년에서 1945까지는 보

인상업학교에서 교사를 역임하였는데 이때에 일본군인인 군사교련검열관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군인칙어의 암송을 강권하였는데 배우지 않은 칙어를 단 한 번에 막힘 없이 암송하여 검열관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해방 후인 1946년에는 경성 공업학교 교사를 거쳐 1952년에는 보인상업학교 교감과 부교장을 역임하였고 1953년에는 서울사범학교 교감으로 옮겼다가 1959년에는 성남중·고등학교 교감 및 교장서리를 지내고 1967년까지 교장으로 재직하고, 보인중·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마지막 봉사를 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 온 힘과 정열을 불태운 불멸의 애국지사요 교육가이다. 묘소는 울동 산2-1번지 태봉 굴청 윗 능선 자좌에 배위 용인이씨 합조이다.

# 경기남부독립운동사적지

## 낙생면사무소 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경위  
현재주소  
당시주소  
종류  
위치고증

1919년 3월 27일 돌마면민과 낙생면민이 전개한 만세시위 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321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판교리  
건물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9월 4일)와 디지털성남문화대전 등에 따르면 1911년 판교리 191번지에 세워진 낙생면사무소는 판교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지금은 그 터가 도로 및 낙생고등학교 정문 앞 부지로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실 / 현 낙생고등학교 정문 앞 빈터이다.

현재상태



1919년 3월 27일 새벽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돌마·낙생 2개 면민이 연합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돌마면 군중들은 거사 당일인 27일 오전 10시경, 분당리 장터에 모여서 한백봉·한순희 등이 주도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소리 높게 외치며 본격적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면내의 여러 곳을 순회하다 오후에는 판교리에 진출하여 낙생면민과 합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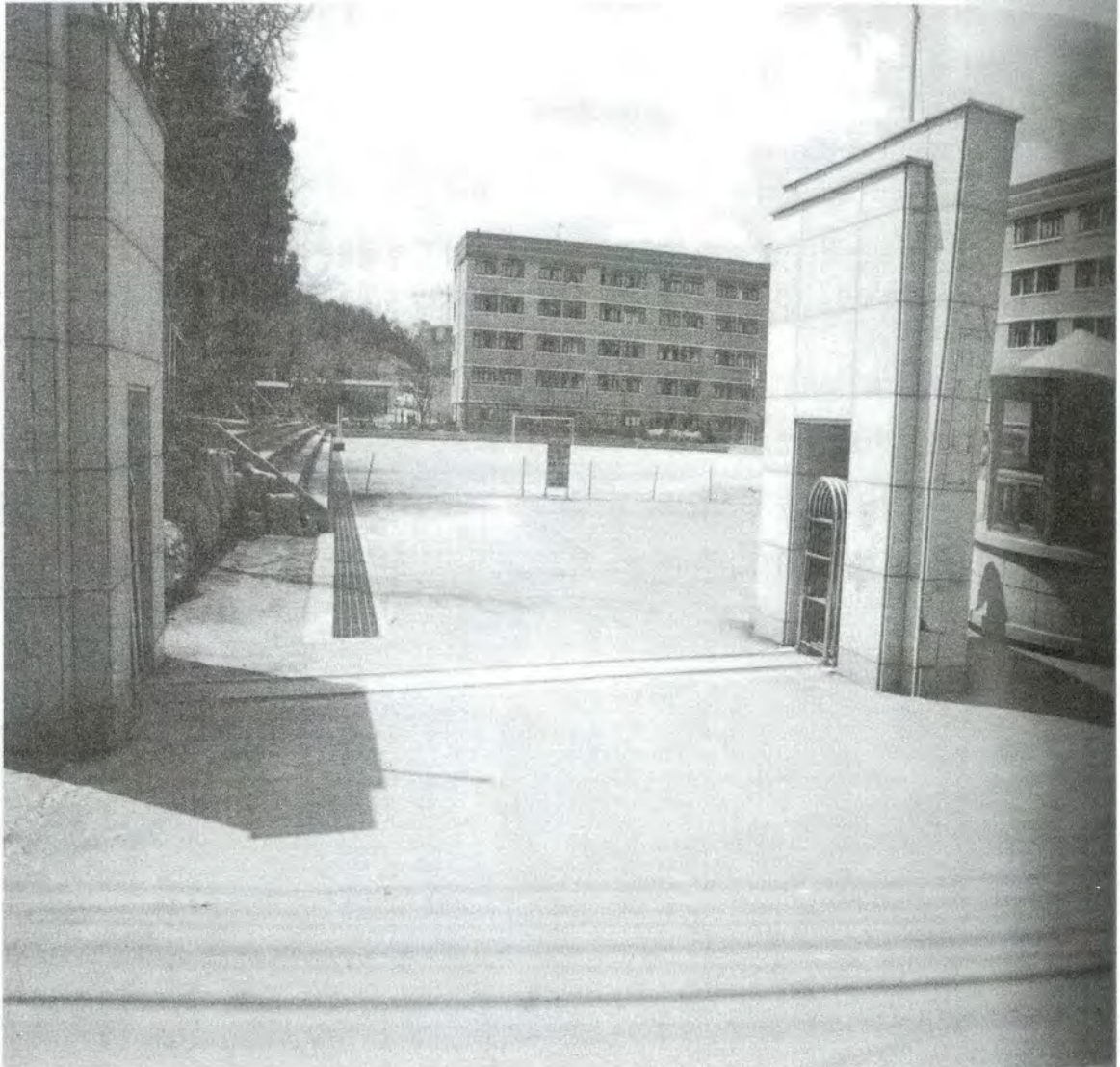
낙생면민들도 돌마면 시위군중과 연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를 선도한 남태희는 돌마면 시위를 주도한 한백봉·한순희 등의 권유를 받고 낙생면민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그 결과 돌마면 군중들은 낙생면민과 합세하여 면소재지인 판교리에 집결하였고, 인근 백현리·운중리·궁내리 주민들까지 시위에 합세하게 되면서 그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판교리는 면소재지이자, 7명의 헌병이 소속된 헌병주재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시위 군중의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과격한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탓인지 헌병들과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일 저녁 무렵까지 시위대는 만세운동을 계속하다가 해산하였다.

**조사의견** 낙생면 만세시위와 관련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9월 4일.  
디지털성남문화대전 (<http://seongnam.grandculture.net/gc/contents/contents.jsp?tid=1000052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 1995, 425-544쪽.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성남문화원, 2001.

낙생면사무소 터 3·1운동 만세시위지



낙생면사무소 터(낙생고등학교 정문 부근)



공터로 변해버린 낙생면사무소 터

제 3 편  
성남3·1운동 연구논문

여 백

# 1.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기념, 제1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1. 백남옥,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발표논문2. 한동익, 울동의 3·1만세운동 경위

성남 3.1 운동 기념사업회

< 創立紀念 >

## 학 술 발 표 회

◆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 백남옥 (동서울대학 역사학교수)

◆ 울동의 3.1만세운동 경위 / 한동익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 일시 : 2000년 8월 15일 (화) 오후 3:00~5:30

· 장소 : 성남문화의 집(구 성남교육청)

제1강의실(2층)

수정구 신촌1동 6926 / 전화 : 751-0644~5

지아철 8호선 '수진역' 8번 출구

주최 : 성남 3.1 운동 기념사업회

주관 : (주) **리빙타임즈**

후원 : 성남시·성남시의회·경기도 성남교육청

협찬 : 성남농업협동조합·청주한씨 청련공파 종중  
낙생농업협동조합

## 수 록 목 차

발표논문/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백남익 - 동서울대학, 역사학교수)

사건경위/울동의 3.1만세운동 경위 (한동익 -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부 록 / 광주군지 中 '삼일 운동사'

근현대의 성남지역사 中 '삼일 운동사'

한민족 독립운동사 中 '3.1 운동'

[ ] 창립식 "定款"(총 5장, 제20조 및 부칙항)全文

### 성남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식 준비를 위한

#### 推 進 委 員 會

위 원 장	한	춘	섭
부위원장	오 인 석	김 대 진	
	지 교 현	한 태 승	
	송 경 종	현 중 현	
간 사	한	동	억

##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백 남 옥 (동서울대학 역사학교수)

1. 머리말
2.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
  - 1) 1910년대 광주지역의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전쟁
  - 2) 광주지역의 실력양성운동
  - 3) 식민지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투쟁
3. 광주지역 3.1운동의 전개 과정
4. 맺음말

### 1. 머리말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운동은 대내적으로 반봉건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외압으로부터 자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으로 진행된 것이 특성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광주지역의 남한산성이 부각된 것은 개화파의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근대화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기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이 광주라는 점이다. 1883년 4월 당시 광주유수겸수어사(廣州留守兼守禦使)인 박영효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관 신복모(市福模) 등을 중심으로 천여 명 정도의 신식군대 양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신식군대의 양성을 위한 장소로 남한산성이 물색되어 양병계획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광주지역이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근대화 운동의 중심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주지역은 실학 발생의 진원지로 근기학파(近畿學派)의 개조인 성호 이익(李瀾)을 위시하여 안정복(安鼎福)·정약용(丁若鏞) 등을 배출한 곳이다. 이런 관제로 광주 근방에는 성호 계열의 남인학자들이 많이 살았고 석학과 깊은 관련을 갖는 주위 환경이 조성되었다. 학적인 토대를 구축한 것이 계

기가 되어 남인계열 학자들이 학문연구와 포교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런 기반이 결국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했다. 정약용의 근거지인 마재(馬峴:지금의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나 안정복이 향약을 실시한 경안(慶安)이 광주지역인 관계로 이들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지역의 독립운동은 실사구시와 주체 정신을 유지하려는 특이성이 내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일제하 광주지역의 독립운동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 실력양성운동,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통재와 압제가 강화되자 중요 역할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전이되면서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즉 광주지역이 서울의 배후 지역으로 위치하여 독립운동의 흐름과 경향을 신속하게 전이 받아 실천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지역의 3.1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근기지역이 지니는 고유적인 특성과 연관시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

### 1) 1910년대 광주지역의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전쟁

광주지역에서의 근대화 운동은 반외세·반분건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지식인·관료·개명유학자 등은 학교 설립과 신문잡지의 발간, 산업 진흥 등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경기도 광주지역에서의 자강운동은 단위 지역단체인 기호총학회와 대한자강회 및 대한협회 지회가 설립되면서 전국적인 애국계몽운동과 보조를 같이 했다.

국권회복 운동의 극단 투쟁인 의병전쟁 과정에서 광주지역은 중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배후지역이며 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남한산성은 광주·이천 의병의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남한산성을 기반으로 항쟁한 대표적인 남한산성 연합의병은 경기도 연합의병진의 실격을 나타내는 이천수장의병진(利川首領義兵陣)이라 할 수 있다.

1907년에서 1909년까지는 의병전쟁의 본격화 단계로 격렬한 항쟁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의병전쟁의 본격화 단계에서 광주지역에서 투쟁한 의병 부대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군 낙생면 출신인 남상목(南相穆), 광주군 대왕면 출신인 윤치장(尹致章), 광주·용인·죽산 등지에서 활약한 이익삼(李益三) 의병장 등이 대표적인 광주지역 의병장이다. 광주지역에서 활약한 의병부대로는 광주군에서 활약한 임경제(林景濟)

의병부대, 광주·용인·음죽 등지에서 활약한 정철하(鄭鼎夏)부대, 광주군 실촌면 일본헌병대를 공격한 임옥여부대 등이 대표적인 의병부대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광주지역의 의병운동은 반외세(反外勢)·반봉건(反封建)을 요구하는 직접 투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 농장주와 일진회원을 직접 응징하거나 친일관료를 처단하는 것은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광주지역의 실력양성운동

1910년대 후반 독립군 기지운동이 약화되자 국내 신지식층과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민족운동은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인 민족교육운동이다. 민족교육운동은 사립학교·서당·야학 등의 활동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당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민족적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야학도 노동자와 농민의 자제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민족교육운동이 민족해방운동에서 기본적인 토양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 방략을 전환함에 따라 실력양성운동과 비밀결사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1910년대 실력양성론의 주체가 되는 신지식층은 국내외 특히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은 유학생층이었다. 이들은 1910년대 후반 귀국하여 국내에 새로운 지식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근대 자본주의문명의 위력에 압도당하고 서구의 부르주아적 문화에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런 토대 위에서 국권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보여 주었다.

1915년에는 신익희·이광수(李光洙)·장덕수(張德秀) 등이 조선학회를 설립하는 한편 신익희는 유학생학우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유학생학우회는 웅변회, 졸업생축하회, 신도래학생(新渡來學生) 환영회, 운동회 등의 행사를 통해 결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을 발간하였다. 김회결사의 자유가 거의 금지된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신지식층의 행동은 합법적인 형태 내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라는 한계성을 지닌다. 타협적인 한계성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익희는 3.1운동을 주도한 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하였다. 이러한 광주지역의 신지식층들은 구사상·구관습 개혁론에 치중한 결과 실력양성운동을 위한 기본 토대가 구축될 수 있었다. 광주지역에서 실력양성운동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는 단초가 해공 신익희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3) 식민지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투쟁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무단 통치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 경제 구조를 식민지 수탈에 적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었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불법적인 토지 수탈을 자행하기 수단이었으며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지주 권리를 강화하고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하는 효과도 달성하였다. 나아가 고율 소작료, 마름의 수탈, 반봉건적인 질곡을 온존시켜 소작농민들은 반봉건적인 예속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폭력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나아가 통치 구조를 전면 개편하면서 탄압을 강화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일제에 대응한 광주지역 민중의 생존권 투쟁은 항일의식을 배양하고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등 민족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재편과정에서 보여준 토지에 대한 약탈은 한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광주지역의 농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각종 잡세와 증세에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기존의 주체적인 행동양식을 폭력적으로 개편하려는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민족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갔다.

### 3. 광주지역 3.1운동의 전개 과정

현재 광주군 읍면은 광주읍을 비롯하여 중부·초월·실촌·퇴촌·오포·도척·남종면 등 동광주 지역의 8개 읍면이지만 3.1운동 당시에는 서광주도 행정 구역에 편입된 상태였다. 따라서 구천·중대·연주·대왕·낙생·돌마·동부·서부면과 중부면 중 성남출장소 관내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 지역이 광주군의 관할이었다. 이런 관계로 광주지역 3.1운동에 대한 고찰은 광주군의 16개면을 포괄하는 것이 된다.

1919년 3.1운동은 광주지역에서 무단통치에 반대한 정치투쟁이 결집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민중 스스로의 생존권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무단농정 철폐와 토지 분배, 가혹한 세금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민중의 의지가 일시에 분출된 것이었다. 당시 3.1운동은 처음에 천도교나 기독교 조직을 통해 일어났으나 점차 고종 국장을 참례한 일단의 농촌 지식인 군이 귀향하면서 운동이 본격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지방의 운동소식과 선언서나 선전문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면단위별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지만 연합적으로 전개된 대규모적 운동 양상도 나타낸다.

광주지역의 3.1운동은 3월 26일 중대면 송파리 일대에서 격발된 시위운동이 발단이 되어 4월까지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지적한 정신사적인 저력이 계기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특히 격렬한 형태로 전개된 점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파급시키는 역할도 수행한 점이 주목된다. 먼저 광주지역에서 펼쳐진 3.1운동의 독립 양

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대면에서 진행된 시위운동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광주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 등의 동사본을 사전에 준비하고 치밀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었다. 중대면의 3.1운동은 장덕균(張德均)·김준현(金俊賢) 등이 모여 사전 준비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시켰다. 3월 21일 「독립선언서」의 동사본을 배포하면서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중대면 송파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장덕균이 독립 의식을 고취하였고 이에 동조한 이시중(李時鍾)·천중선(千重善) 등이 26일 만세시위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송파 동리지역을 순회하던 시위대는 송파진 헌병주재소에 집결하여 일본 헌병대와 대치하던 중 주도자인 천중선 등 13명이 피검당하면서 해산하게 된다.

동부면의 3.1운동은 교산리를 비롯하여 망월·풍산·천현리에서 동시적으로 전개되었다. 교산리의 이대현과 풍산리의 김홍렬이 주도한 독립운동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참가를 유도하는 한편 26일 밤에 봉화를 올려 시위 사실을 전달하였다. 동부면의 경우 먼저 면사무소에 일차적으로 집결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리단위로 집결한 시위대가 연합하면서 동부면 시위운동이 강화되었다. 시위운동의 과정에서 이대현을 포함한 14명이 검거되었는데 무거운 형량을 감안하면 근기지역의 탄압책을 짐작할 수 있다.

중부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남한산성을 중심축으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부면은 동면의 면소재지로 산성리를 비롯하여 13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부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성남출장소 관내 단대리·탄리·수진리 등의 동리 주민들이 주도하였다. 실제로 3월 27일 새벽을 기하여 남한산에서 횃불을 밝히고 이를 신호로 하여 단대리·탄리·수진리의 주민 300여 명이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시위대는 남한산성 남문에 집결하여 만세를 고창한 후 산성 안으로 진입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순 시위운동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시위대가 면사무소에 집결하면서 나타났다. 이런 양상을 통해 중부면의 독립시위운동을 살펴보면 횃불을 신호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한 양상은 이전 단계에 이미 목계된 조직성을 간파할 수 있고 일제 탄압책에 반대하려는 의지력을 적절하게 표출한 면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만세시위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 지역이 서부면이다. 인접한 구천면과 연합한 시위대는 상일리 헌병주재소 앞에 집결하여 1,000여명의 시위대가 주재소에 투석하면서 격발되었다. 일본 헌병대가 시위대에 발포하여 희생자가 발생하는 격화된 양상을 나타낸다. 농업에 종사하던 구희서(具羲書)가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3월 27일 횃불을 통해 인근 지역에 알리는 한편 주민의 참가를 유도하여 시위대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 투석하는 과격한 양상으로 이어졌고 희생자가 발생하는 단계로 진전되었다.

돌마면의 시위운동은 농촌의 지식인층 일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런 관계로 참가자가 증폭하였고 낙생면과 연합시위가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돌마면 율리의 한순회(韓順會), 한백봉(韓百鳳)은 1919년 고종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면내의 유지들과 접촉하면서 시위운동을 모의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南台熙)와도 연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던 점과 면장을 지낸 남태희 등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농촌의 지식인층이 시위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에 관여한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국권회복과 독립이 당면한 사명이라는 인식하에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지력이 강하였다. 천도교인들은 독립선언서를 각지에 배포하는 한편 운동을 주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태극기를 극비리에 제작하고 운동자금 모집 등도 관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돌마면 시위운동은 주도 면밀에게 준비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운집하는 분당리 장날인 27일을 거사일로 선택한 점등도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시위운동의 과정에서 일제의 대응책이 미온적이고 방관적이었다는 일단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즉각적인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었으므로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최고조에 달한 시위운동을 피하려는 술책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술책은 시위 주도층인 한백봉 등 수 십명을 29일에 체포하여 판교현병주재소에 연행한 후 남한산성 용인현병분견대 광주분견소에 이송하여 4일간 혹독한 고문을 가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대응 조치로 인해 당시 시위운동이 폭력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독립운동을 고양하는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이해된다.

낙생면의 만세시위 운동은 돌마면과 연합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초대면장을 역임한 남태희가 전면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27일 특히 돌마면 율리에서 시작한 만세시위가 분당리 장날에 군중이 가담하면서 규모가 증대하였다. 시위대가 낙생면 소재 판교리에 도착했을 때 백현리, 운중리, 궁내리의 군중들이 참여하면서 1,000여 명에 달하였다.

대왕면의 독립운동은 중대면 송파리에서 일어난 시위운동이 이 지역에 파급되면서 시발되었다.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가 본적인 이시중(李時鍾)은 농사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참가한 후 대왕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조선독립신문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수서리에 돌아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이규문(李揆文) 등 100여 명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시위대는 만세를 고창하면서 면사무소에 집결하였고 일부는 면사무소에 진입한 후 조선독립신문을 꺼내 독립의 당위성을 낭독하였다. 이시중은 군중에게 “오늘까지는 이 면사무소에서 일본을 위하는 일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조선이 독립하게 되어 부역·세금 등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였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이튿날 헌병주재소원에 피체되었다. 일제는 이들에게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보안법을 적용했다. 대왕면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부역 징발과 토지 수탈에 반대하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독립투쟁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포면과 경안면의 시위운동은 연합적인 형태로 펼쳐진 것이 특징이다. 오포면의 경우 3월 28일 추자리 소재 오포면사무소에 집결한 1,500여명의 면민들은 경안지역으로 진출하여 경안면민과 합세하였다. 규모면에서 보면 오포와 경안면의 시위운동이 광주군에서 가장 대규모적이고 격렬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추자리 정제화(鄭濟華)와 문형리 김인택(金仁澤), 임무경(林武京) 등이 봉기를 예고하는 봉화로 연락을 취하고 주민들을 독려하여 시위대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10년 동안 일제 통치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독립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2,000여명 이상의 시위대는 구한국 국기를 앞세우고 군청사에 집결하여 일본 헌병들과 대치하였다. 시위대 군중들이 점차 과격해지자 우체국 건물에 투석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 헌병과 격투가 벌어져 6명이 즉사하고 이재복 등 15명이 부상당하였다. 경안과 오포면의 시위운동은 연합적인 형태로 진행된 것과 일본 헌병과 격투 과정에서 무력적인 형태로 전개된 것이 특성이다.

실촌면의 3.1운동은 농민인 오수식(吳壽軾)이 주도하였는데 4월 6일에 촉발된 것이 특징이다. 3월 초순에 전개된 3.1 시위운동에 자극 받은 오수식·오흥운(吳興雲)·오세인(吳世仁) 등이 거사일과 시위 참여를 유도하였다. 실촌면 시위운동의 주도층이 먼저 주민 50여명과 함께 만선리에 도착하자 이에 호응한 군중이 참여하여 400여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집력에 힘입어 면사무소가 있는 오향리로 행진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시위 정보를 입수한 곤지암 헌병주재소 진압 병력이 도착하여 오수식·오흥운·동치익(董致益)·김익수(金益洙) 등 7명을 체포 연행하자 시위군중은 해산하였다.

광주군의 3.1독립운동은 퇴촌면·남중면·초월면·도척면에서는 미진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양상은 경기도 3.1운동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광주군의 3.1운동은 평화적인 만세 시위운동의 단계에서 헌병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단계로 진전되었다. 특히 봉화를 통하여 다른 지역에 과급 효과를 도모한 점과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시위운동으로 표출되면서 무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광주지역 3.1운동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 4. 맺음말

광주지역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햇불 시위운동은 4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경기도의 경우 일제 경찰력과 무력충돌이

70회 정도였으며 살해자는 104명, 부상자 190여 명, 피체포자가 약 1,350명을 상회한다는 수치를 감안하면 이 지역의 독립운동이 치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시위 형태는 대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평화적 시위에서부터 밤에 산에서 횃불과 봉화를 울리며 만세를 부르는 횃불시위, 몽둥이를 들고 관공서 등을 공격하는 무력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

광주지역 펼쳐진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무단통치에 반대한 정치투쟁이 결집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민중 스스로의 생존권 투쟁이다. 광주지역 3.1운동에 관한 견해 중 일부는 광주지역의 고립성을 들어 3.1운동이 타지역보다 후발적으로 격발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의 조직적인 운동이 비조직적인 민중에게 전이되는 과정과 시간을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국적인 운동 양상을 검토해 보면 3월에서 5월까지 전개된 시위운동은 비조직적인 민중들이 자체적으로 조직력을 배양해야만 했기 때문에 늦게 촉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지역 시위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무력투쟁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실학과 직접무장투쟁의 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의지력을 보여 준 운동이었다. 일정 부분은 폭력적인 형태로 진전되지 못했지만 이것은 일제의 교활한 전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독립운동은 중부에서 남부지역과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나아가 광주지역에서 민족운동은 전민족 항일투쟁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며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직접 투쟁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 참고문헌

-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1946.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2, 1966.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1, 明治百年史叢書, 原吉房, 1967.  
 東亞日報社,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 19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獨立運動史資料集』 6, 독립운동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尹炳奭, 『三一運動史』, 正音社, 197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三一運動史』 6, 독립운동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85.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 199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1~9, 1991~199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 울동의 3.1만세운동 경위

한 동 역 (향토문화 연구원)

1919년 3월과 4월은 이 땅에 조선민족이 살아온 이래 민족최대의 민중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삼천리 방방곡곡을 뒤흔들어 놓은 자랑스러운 채거의 달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일제의 총칼아래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이 내 혈육들의 피로 물들여지고 통곡으로 얼룩진 잔인한 달이기도 하다. 1919년 2월, 망국의 한을 달래지 못한 채 고종황제께서 승하하시자 팔도강산에 유립을 비롯한 지식인들과 만백성들의 통분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서울로 서울로 상경하여 고종황제의 승하를 애통해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국권을 잃은 민족의 비애를 새삼 곱씹고, 이제라도 국권을 되찾아 실추된 국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서 항일감정은 극도로 강화되었고,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은 하늘을 찌를 듯이 사기 충천되어 가고 있었다.

이 때에 울리에서 15대를 살며 고향과 조상을 지켜온 한백봉선생 일행은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석차 상경하여 한용운·손병희·권병덕·오화영선생 등 독립운동가들과 만나 조선독립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많은 사람들과 3.1일,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시작으로 독립만세운동에 헌신하기로 굳게 약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사일인 3.1일 오정이 다 되도록 33인의 민족대표는 한 분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공원에 모인 모두는 초조함과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기된 표정들이 굳어가고 있을 즈음, 사전에 밀고자들의 고변으로 33인 모두가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하여지자 일순 숙연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끼리라도 만세를 부르고 시위에 들어가자면서 조선독립만세의 시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급거 출동한 일본헌병들의 총칼앞에 순식간에 무너지며 시위대는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시위대가 무참하고 허무하게 해산되자 각기 같은 고장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만나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 독립운동에 전념하기로 굳은 맹세를 나누게 되었다.

한백봉선생을 비롯한 광주군에서 상경한 유지들은 따로 모여 앞으로 광주군지

역에서도 열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1919년 3.3일, 고종황제의 장례식이 끝난 뒤 다시 모여 만세운동에 대한 기본적 행동을 통일하기로 하고, 만세운동 때에는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동원된 군중에게도 소형 태극기를 나누어 주도록하여 준비기간을 넉넉히 잡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일정도 3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되 가능하면 평화적 시위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각자 향리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온 한백봉선생은 율리의 한씨 문중 어른들과 마을 원로들에게 전한 후 울동의 전 주민들(당시 율리는 약 50여 호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음)에게도 독립만세운동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지역유지들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인근주민들을 설득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간곡히 부탁하면서 비밀이 유지되도록 신신당부를 하였다. 한편으로는 유창석·한순회·남찬희·방춘옥 선생 등과 태극기를 만드는 등 한 치의 빈틈이 없이 모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전 낙생면장 남태희선생과 협의하여 돌마·낙생이 함께 연합시위를 하기로 하고, 광주유지들과 26일로 약속한 거사일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분당리 장날인 27일로 정하고 26일은 울동에서, 돌마 낙생 대왕면 일대에서 잘 보이는 곳인 모란봉 뒷산에 올라가 대단위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려서 만반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며, 다음날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도록 하고 각종 연락망을 가동하자고 굳게 약속하였다.

그러는 한편, 판교 현병주재소의 현병주재소장인 마쓰시마를 만나서는 조선의 독립만세운동 당위성을 설명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일 것임을 약속하여 설득시키고, 한편으로는 인근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밤이면 이웃마을을 차례로 방문하고 분당리 장날은 전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진력을 다하였다.

1919. 3. 26일 오후 8시 경, 울동 뒤 모란봉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밤새워 목청껏 조선독립만세를 불려 주민들에게 알려주었다. 3.27일 날이 밝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마을 앞에 다시 모여 손에 손에 준비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분당리 장터로 향하였다.

분당리 장터에는 구름처럼 모여드는 군중의 수가 무려 1천여 명이나 되었고, 나눠준 태극기가 물결치고 삼시간에 태극기 물결로 파도를 이루었다. 드디어 한백봉선생의 선장으로 조선독립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며 시위군중은 물밀듯이 돌마면 내의 각 동리를 순회하며 독립만세시위운동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판교 현병 주재소장인 일본 육군 상등병 “마쓰시마 이스지” 도 만세군중 속에 섞여 만세를 부르고 다녔다.

(\*그런 마쓰시마는 1919년 5월 17일, 천도교 성미 사건 때에 당시 천도교 광주교구장 한순회선생의 증인 신문조서에 조사담당관으로 한순회선생을 신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시위대는 분당리를 출발하여 서현리로 이매리, 야탑리, 여수리, 하대원리를 돌아 다시 분당리로 수내리, 정자리를 거치는 동안 시위군중은 홍수를 만난 듯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오후 2시경, 너더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남태희선생이 이끄는 낙생면민과 자진 참여한 대왕면민 일부와 합쳐지면서 시위군중의 수가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시위대는 낙생에서 대왕면 쪽으로 향하다가 날이 저물자 준비한 횃불을 밝히면서 밤늦도록 지칠 줄 모르고 시위를 계속하였다.

3.28일 분당리와 너더리로 다시 모인 시위대는 3,000여 명의 군중 그대로였고 대오를 갖추어 사기충천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목청껏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돌마, 낙생, 대왕을 오가면서 목이 쉬는 줄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른 채 오직 내 나라 내 민족의 장래만을 위해 온 몸으로 열렬하고 뜨거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힘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위대의 앞을 막는 강한 장벽을 만나게 되었다. 시위소식을 들은 남한산성 헌병대 1개 소대가 출동을 한 것이다. 그들은 독립만세 시위를 중지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한백봉선생 등 지도부가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독립만세시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길을 열어주어 시위를 계속하게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끝내 거부하고 요청에 대한 답을 총칼과 채찍 곤봉 등으로 대신하였다. 처음에는 공포를 쏘며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고 시위를 계속하자 말을 타고 달리며 채찍과 곤봉 등으로 마구잡이로 구타하다가 드디어는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시위대 중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데도 강경 일변도로 진압하자 시위군중은 극도로 흥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맨 주먹 뿐인 시위대가 아닌가! 말발굽에 채여 진 채로 고통에 뒹굴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은 아비규환 바로 그것이었다.

시위군중은 분노의 치를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산하게 되었다. 결국은 한백봉선생을 비롯한 수십 여 명이 체포되어 판교 주재소와 남한산성 헌병대에서 온갖 갖은 악형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뿔뿔이 흩어진 시위군중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밤이 되자 횃불을 들고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였고, 29일에도 도처에서 산발적인 시위는 계속되었으나 지도부를 잃은 시위대는 4일간의 강력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었으나, 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독립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신간회가 창립될 때 울동의 한백봉·한순회·한용회·한백호선생 등이 주축을 이루었고, 물산장려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체포된 수십명의 시위군중은 혹독하고 가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오직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한결같이 자진해서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노라고 진술함으로써 갖은 악형을 다 받았다.

남한산성 헌병대로 체포구속된 한백봉선생은 “시위를 주도한 것도 시위를 하

라고 권유한 것도 모두 내가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면하라” 고 하여 거의 방면되었으나 울리에 유창석선생과 남찬희선생 그리고 방춘옥선생 등은 한결같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진해서 내 나라 독립을 외치는데 앞장서서 뛰쳐나왔다고 하여 한층 혹독하고 치욕적인 고문을 받고 빈사상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방면된 후 뒤늦게 방면되었다. 이후 한백봉선생은 헌병대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송치 구속되었고 법정에서 “내가 조선인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즈음하여 조선의 독립을 주장함은 죄가 아니다” 라고 강변하였으나, 결국은 주동자로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3개월의 한 많은 옥고를 치루고 1920년 4월 28일 출옥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하여 볼 것은 한백봉선생의 최초의 구형통보서에는 “내란 및 음모” 죄가 적용되어 검사에 의하여 9년 8개월의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법원의 판결문에는 “보안법위반” 으로 죄명이 바뀌고, 형량도 1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는 일제의 간교한 술책으로 대 조선 국민유화책에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제는 대 내외에 조선의 독립만세운동은 몇몇 불순분자들의 소행이라고 보도하고 만세운동사건 발생당시에 추상같았던 “내란 음모” 죄로 몰아 “중징계” 하려던 정책을 바꾸어 “조선 형사령” 대신 “조선 제령” 을 급조하여 선포하고 형량을 비교 검토하여 형량이 가벼운 형량을 채택 선고함으로써 조선인에 대하여 관대한 듯이 대 내외에 보이게 하며, 그 알팍한 유화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한백봉선생의 판결문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화 정책은 조선민족을 달래는 척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더욱 강한 탄압의 족쇄를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니 이 때부터 더욱 치밀하고 계산적이며 조직적으로 거칠고 강력한 식민 탄압정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돌마, 낙생, 대왕면민 일부와 오포면민 일부까지 약 3,000여명의 대단위 조선독립 만세운동 시위는 주동자인 한백봉선생 한 분만이 실형을 받고 구속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는 한백봉선생의 애국애족정신과 자기 희생정신의 결과였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정부 발행 「독립운동사」 299P와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3.1운동 재판기록 291P, 292P에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죄 후에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신규 양법을 비교 대조하면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경하므로 동 법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며,” 라고 상세하게 전하여지고 있으며,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사 상권 제143P에도 “돌마면 울리 한백봉은 3월 28일 동리사람들 1백여명과 함께 다음날 저녁때까지 태극기와 햇불을 들고 만세시위 행진을 계속하였다. 즉, 밤에는 햇불, 낮에는 태극기를 들

고 각 동리를 돌아다니며 열렬하고 끈기있는 만세시위를 하였다” 라고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고, 「한민족 독립운동사」 제3권 3.1운동 342P와 343P에 “(1)경기도의 3.1운동 편에 경기도 독립운동은 전체가 보조를 맞추지는 못했으나 서울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파급되었다. 3.1일 개성의 한영서원 학생과 기독교 목사가 계획하여 3일부터 1주일간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므로써 시작되었다. 3일 고양군 동막, 9일 인천, 10일 양평군 문호, 11일 평택, 안성, 13일 강화, 14일 양주, 15일 가평, 16일 수원, 21일 연천, 22일 김포, 23일 부천, 장단, 26일 파주, 광주, 29일 용인, 포천, 31일 이천, 4월 1일 여주에서 시위하므로써 도내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광주 유지들의 26일 동시 다발적 시위운동 결의설은 확인할 수 있다. 또 「경기도 독립운동사」 제2권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과 3.1운동 435P 436P, 돌마면 편에 “돌마면 지역의 3.1운동은 3월 27일 새벽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등의 주도하에 돌마, 낙생, 2개면민이 합세하여 전개하였다. 한백봉(당시 39세), 한순회(당시 35세) 등은 1919년 2월 말 경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 차 상경하였다가 3.1운동을 직접 목도하고 돌마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면내의 유지들과 모의한 후 전 낙생면장 남태희와도 연계, 거사를 계획하였다.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거사일을 결정하고 태극기를 마련하는 등 일단 준비를 마친 한백봉 등은 27일 새벽 그가 거주하는 율리 동리민 50여 명을 인솔하여 뒷산에 올라가 봉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다. 거사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경, 분당리 장터에 군중이 모이기 시작하자 한백봉, 방모(방춘옥선생)등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에 들어갔다.” 고 기록되어 있다. 또 436P, 437P, 낙생면 편에도 “낙생면의 만세운동은 돌마면과 연합적으로 추진 전개되었다. 낙생면의 초대면장을 역임한 남태희는 한백봉, 한순회 등 돌마면 지역의 시위운동을 추진하는 인사들로부터 27일의 시위에 함께 나설 것을 권고받고 면민들로 하여금 만세시위에 참가하도록 전파하였다. 27일 새벽부터 돌마면 율리 지역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분당리 장날에 모인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이 시위군중이 만세를 고창하면서 행진 그날 오후 낙생면 소재지인 판교리까지 진출하였을 때에는 판교리 뿐 아니라 백현리, 운중리, 궁내리 등에서 시위에 가담키 위해 모여든 면민들이 합세하여 1,000여 명 가까운 수에 이르게 되었다.(일제측 기록은 600여 명)” 라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435P 맨 아래 하단에는 일본헌병주재소 소속의 “마쓰시마” 라는 헌병은 함께 만세까지 부르고 그 부인도 시위군중에 대해 이해 동정하는 기색이었다는 구절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 소우사건 경과 개량표에는 3월 27일 시위군중 600명이라고” 적혀 있다고 되어있어 시위가 27일부터라고 표기되었으나 이는 율동에서 시위 전날인 26일 오후 마을 뒷산에서 봉화를 올리며 밤새워 만세를 부른 것을 몰랐거나,

일제의 시위일자 축소 정책에 의하여 의도적인 축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광주군지, 성남시사 등 모든 기록이 27일부터 29일,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재판기록은 28일과 29일 양일로 기록이 되어있고, 또 시위운동에 참가한 군중의 수가 광주, 성남의 기록은 3,000여 명으로 경기도 기록은 1,000여 명으로 재판기록은 수백명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 축소로 볼 수 있다.

광주군지 역사편 358P에는 3월 27일, 28일편에 돌마면 율리의 한백봉은 이날 아침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다음날 저녁 때까지 태극기와 햇불을 들고 만세시위 행진을 계속하였다. 즉 밤에는 햇불을 올리고 낮에는 각 동리를 돌아다니며 만세시위를 열렬히 전개하였다. 또 3월 29일, 30일 편에는 낙생면과 돌마면민 수천명은 28일 시위에 이어 이날도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펼쳤는데 군중의 수효는 3,000여 명을 헤아릴 정도로 대규모 시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성남지역의 역사 중 근, 현대의 성남지역 중 '삼일운동사' 136P에는 1919년 3.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돌마면 율리의 한순희 한백봉과 전 낙생면장 남태희 등의 주도로 돌마, 낙생면민이 합세하여 전개하였으며, (이하 중략)

“28일에도 계속되어 돌마 낙생면민에 대왕면민까지 합세하여 시위군중의 수가 3,000여 명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록들과 정황들 그리고 율리에서 전하여 오는 26일~29일까지의 시위일자와 3,000여 명의 시위군중 숫자는 사실인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본다.

- 3. 1절 80주년 기념식 - (반세사건 회고)

~~분당구 울동공원 관리소앞 광장/한준섭~~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역사속에 나  
라 사랑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깊은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술한 역사를 통해 지난 일을 반성하면  
서 벅찬 새 천년의 21세기를 준비하  
지 않으면 안될 준비하는 해로서 참말  
로 의미깊은 한 해인 것입니다.

이 땅위에 여러가지 사건중에서 가장  
애국정신이 뜨거웠던 우리의 아버지요  
또 아버지들의 거룩한 나라사랑 이야  
기 우리고장에선 바로 이 마을 저 뒷  
산에서 지금껏 우리를 웃기<sup>어</sup> 재미게하고  
고개숙여 ~~울락어~~ 하고 있는 것입니<sup>다</sup>

이 자리를 ~~이 행사를~~ <sup>이 행사를</sup> 통해 우리러 모실 우리  
성남의 애국의사 이야기를 나누<sup>고</sup> ~~하~~  
오늘의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특히, 청주한씨 문중의 청년공파  
종친 여러분! 이 곳 울동의 지역이야  
말로 앞으로 먹고 마시는 놀이터가 아  
니라 가장 볼거리가 많고 내 이웃과  
내 나라의 우리를 소중히 기억할 역사  
의 명소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짧은 시간안에 큰 도시로 성장시킨  
우리는 성남의 역사와 문화 숨결을 피부  
로 실감할 수있게 이곳을 명소중에 명  
소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sup>다</sup>.

내 한몸의 편안은 아예 포기한 채 주권없는 민족의 억울함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로 주창한 태극기의 물결과 봉화횃불 시위가 당시 광주군 돌마면 율리 이 마을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곳은 비석이 있어야하고 교육의 장소가 있어야 하며 또, 기념자료관이 꾸며져야 할 것입니다.

밤에는 횃불, 낮에는 태극기를 들고 각 동리를 앞장서 ~~돌마~~ 다니셨던 우리마을의 애국의사 송헌 한백봉님, 제암 한순회님 외 남태희등 그 당시의 돌마 낙생. 대왕. 중부면 일대의 사적은 앞으로 상세히 검토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 마을에서의 3. 1절 기념식은 역사 이래 처음있는 일일 것으로 보아 이 행사를 적극 후원해 주신 시장님, 문화원장님 한편, 청주한씨 문중 여러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일을 저와 함께 깊이 논의하셨던 저희 향토문화연구소 한동억연구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지역내의 만세사건 회고는 또다른 교육의 기회를 이용하여 계속 보완할 것으로 저의 말씀은 마칩니다.

상세한 기록은  
전단지 뒷쪽을  
참조 要

{ 한씨문중 회장 송인백언  
율동 마을 등장 할영능  
그리고 한동억역원 人事 좀 해주셔  
요  
청년공과 한백창  
(신영)

2.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문화교실 개강식 특강,  
제2회 학술발표회

인사말씀(한춘섭 회장)

발표논문1. 서승갑,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특성

발표논문2. 현종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 제2회 > 성남 3.1 운동 기념사업회

# 학술발표회

- 문화교실 개강식 특강

- 일시 : 2001년 9월 5일 (수) 10:00~11:30
- 장소 : 성남시 분당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지하1층)  
718-5916~7 (交)2번



주최 : 성남분당문화정보센터  
성남 3.1 운동 기념사업회  
후원 : 성남문화원

주 제 발 표	서 승 갑	광주지역 3·1 독립운동의 특성
	현 종 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小考

■ 성남문화원

원 장 : 남선우

부원장 : 남효응, 노재동, 김동균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고 문 : 김병량 시장, 박신섭 교육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회 장 : 한춘섭

부회장 : 김대진, 한태승, 오인석, 송경중, 현종현

이 사 : 배병숙, 김영자, 서정식, 윤이수, 장기환

이성희, 이환구, 한동수, 한동열

사무총장 : 한동억

감 사 : 현준호, 윤효상

[인사 말씀]

## 신도시 故土의 역사 숨결 承繼

한 훈 섭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장,  
시조시인, 향토사학자>

분당의 옛 지명은 광주군 돌마면이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의 역사적 사건중에 손꼽을 만한 일이 다름아닌 1919년 3월, 지금으로부터 82년전 '조선독립 만세' 합성을 바로 <분당리 장터>에서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울동 마을 유지였던 한백봉, 한순희 외 낙생, 대왕의 남찬희, 방춘옥 선생이 주동이 되어 인근 마을 주민 3천여 명이 연 3일동안 힘차게 애국운동을 한 곳이 오늘의 분당구입니다.

오늘, 분당문화정보센터 가을 제2학기 문화교실의 개강식을 통하여 3년전부터 향토문화 유산 되찾는 사업을 전담해 온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의 두 번째 지역사 연구발표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 울동자연공원 일원에서의 '민족자존 봉화'는 이 겨레 자손만대까지 꺼져서는 안될 3.1 애국,애족 정신으로 계승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업회는 성남문화원 산하 순수 민간단체로서 뜻있는 시민들에 의해 앞으로 매년 3.1절 추모식 거행과 함께 성남 지역사 연구발표회를 지속할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적으로 수준높은 문화향수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시민앞에 오늘 연구발표를 하실 작가 현중현 교육학석사님(성보여정산고교)과 역사학자 서승갑 교수(경원대학교)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선우 성남문화원장님 그리고,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성남문화원에서는 성남시 지원하에 울동공원 안에 더 한층 격조높은 우리 고장 애국운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기념탑과 역사자료관 건립을 장단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찬과 동참을 이 기회를 통해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 9. 5.

## 광주지역 3·1 독립운동의 특성

서 승 갑  
(경원대학교·한국사)

### I. 머리말

광주지역은 지리상으로 서울과 인접한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정국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춘 곳이다. 이런 관계로 광주지역은 서울의 주변부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의 운동을 포괄하는 한편 운동의 역량을 분산시켜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광주지역은 실학의 발원지인 관계로 실사구시의 정신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일면을 나타낸다. 국권회복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광주지역의 의병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된 점을 고려하면 민족 정체성의 결집력이 3·1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은 계몽운동을 지지한 지식인층 중심의 간접 투쟁과 의병전쟁을 통해 직접 무장투쟁을 실행한 직접 투쟁으로 분산되어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권회복운동에서 나타난 분산적인 투쟁 전략은 일정 부분 자성의 계기가 되었고 민족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결집력이 요구된 운동이 3·1운동인 것이다. 민족운동의 전체적인 양상에서 보면 3·1운동은 분산된 역량이 결집되어 나타난 민족운동이기적이다. 1910년대 분산된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일본제국주의 원시적 약탈경제와 무단통치의 구조적 모순에 적극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3·1운동에 대한 평가는 주도층의 소극적인 대응 형태와 비폭력적으로 전개 양상에 주목한 것도 사실이다. 3·1운동의 대세론에 깊착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경향은 결과적으로 3·1운동의 전체상을 확일적으로 인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3·1운동에 대한 비폭력적 흐름은 일제의 진압 전술이나 투쟁 주체의 내재적 요인과 연관시켜 고려해야만 실질적인 전개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3·1운동은 일제하 식민지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분적으로 친일한 행동 형태가 시위과정에서 보상되는 효과로 이어져 민족 공동체 건설에 대한 욕구를 표출할 수 있었다. 즉 3·1운동은 분산된 민족 역량을 집결시켜 주체 국가의 필요성에 공감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1920년대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임시정부 수립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과 무정부주의 운동으로 분화된 양상은

3·1운동에 대한 자체 반성에 토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광주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을 재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광주지역 3·1 독립운동의 내적 요인

일본은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점을 한국 식민지에 전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시적 약탈경제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상공업에 치중하려는 정책은 생필품 안정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저곡가 정책이 필연적인 사항으로 부상하였다. 일본의 저곡가 정책은 식민지의 농업정책에 파급 효과를 가져와 쌀 농사만을 강요하는 기형적 농업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특징이며 한편으로는 노동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외적 강제가 일상화되었다.

일제는 헌병·경찰·면직원을 동원하여 일본인 입맛에 맞는 일본 품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나아가 못자리 설치, 퇴비 생산, 해충 구제, 수확시 건조 방법, 잡초 제거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간섭하여 지주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주의 권한 강화는 반대로 식민지 농민층의 노동 강화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으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작농의 증가는 일제의 토지수탈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식민지지주제를 강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일제 식민지재편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수탈이라는 가시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소작농이 격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작농간의 경쟁이 촉발되어 지주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시 말해 토지를 탈취 당하여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로 전락한 빈농층이 생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일제하 식민지지주가 제시하는 부당한 조건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일제하 식민지농촌의 지·소작관계는 고율 소작료에 의한 직접적인 지배방식을 축으로 경제외적강제를 이용한 고리대적 착취가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즉 지주는 장기저리자금의 상환액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소작농에게 전가한 것이었다. 이런 관계로 자·소작농층과 소작농층은 재생산의 잉여력을 상실하고 금융자본에 종속되어 채무적·영세농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주가 농촌금융기관의 저리자금을 대부받아 빈농층인 소작농에게 고금리로 대여하는 차용관계는 소작료를 매개로 한 현물착취에서 농가의 현금까지도 장악하여 소작농가의 자립기반을 초토화한 것이었다.

일제가 작성한 「조선민정보고서」에 따르면 고리대자본의 가혹한 수탈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식산은행·조선은행은 현재 고리대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고리만이 아니라 토지까지 빼앗고 있다. 동척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1호의 이민이 오면 5호 이상의 조선인이 출연 의식의 길을 잃고, 남북만주·연해주 방면으로 정처 없이 이주하게 되었다.

가혹한 수탈 현상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1918년 쌀값 폭동으로 인한 광주 인접 지역의 상황은 당시 광주지역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1918년 8월 서울의 경우 쌀값이 폭동하여 쌀 판매소에서 폭동이 발생하는 한편 농촌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전국 농촌은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을 이탈하거나 만주·일본 등지로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런 현상은 쌀값이 폭동하면서 기인한 것으로 1917년 1월 상품 한 가마에 15원하던 쌀값이 1918년 3월에는 27원, 8월에는 38원으로 폭동하였다. 이어 10월에는 쌀 한 되 값이 개벽이래 처음이라는 39전까지 치솟아 시중에서 쌀 구경하기가 어려웠고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농촌 이탈과 민심의 흐름은 3·1운동을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3·1운동은 식민지재편책으로 인한 계반의 모순에 항거한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재편책은 결국 영세농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 반농노적 생산방법을 잔존시켜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일본인 대지주는 봉건적인 소작관계와 고리대적인 착취관계를 더욱 조직적으로 강화하여 식민지 소작농들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광주지역에서 격렬하게 진행된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원시적 약탈경제와 무단통치의 구조적 모순에 반대한 민족 운동이다.

### Ⅲ. 3·1 독립운동 과정의 대중투쟁

광주지역 3·1운동의 주도층은 다양한 계층이 누층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쟁이 전개되던 전반부의 경우 지식인층이 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투쟁이 강화되던 시기에는 농업종사자가 전면부 부상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지역의 3·1운동은 전국적인 전개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정 부분 운동의 주도층이 운동을 선도하였지만 전개 과정에서 농민층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1919년 3월 20일 경 중대·구천·동부·서부면 등 서광주 일대의 면민들이 서울 지역의 만세 시위운동 사실을 접하기 시작하였다. 3월 21일에는 중대면 송과리에서 장덕균(張德均)·김준현(金俊賢) 등이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을 등사하여 배포하면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사회의 지식인층이 운동을 주도하고 운동에 시발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펼쳐진 운동 양상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인 주도층은 농민층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도표는 광주 각 면의 운동 주도자에 대한 직업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중대면	장덕균 농업 천중선 농업 기독교인-김준연, 이재순, 윤도길, 정석호, 이윤종
동부면	이대헌 교산리구장 농업 김교영 망월리구장 농업 천주교도 김홍렬 농업
서부면	구희서 농업
돌마면	한순회 천도교 광주교구장 한백봉 농업
낙생면	남태희 초대면장 역임-한순회
실촌면	오수식 구장 농업-오홍운, 동치익, 김익수, 오세민, 오세영
오포면	정제신 김인택 농업 임무경 농업 유면영 농업- 박상현, 배성신
대왕면	이시중 농업 이재순 농업-이범각, 이윤종, 이규문

실질적으로 구장이나 면장은 일제 식민지 체제의 하부 구조에 편입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1운동을 계기로 민족 모순을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사하여 운동을 주도한 점은 민족 역량이 집결되는 과정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광주지역에서 3·1운동의 주도층은 농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요구 조건이나 불만을 발현한 것이다.

3월 26일 광주군 동부면 교산리의 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한 이대헌(李大憲)과 3월 27일 동부면 망월리의 운동을 주도한 김교영(金敎永)은 구장이었다. 돌마면 율리의 한순회(韓順會), 한백봉(韓百鳳)은 1919년 고종 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면내의 유지들과 접촉하면서 시위운동을 모의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南台熙)와도 연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던 점과 면장을 지낸 남태희 등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농촌의

지식인층이 시위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촌면 시위대는 오향리 면사무소 앞에서 시위 중 실촌면장인 구연복(具然福)에게 만세 시위 참가를 종용하였다. 한편 중부면의 경우 만세 시위대는 남한산성 남문에 집결하여 만세를 고창한 후 산성 안으로 진입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순 시위운동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시위대가 면사무소에 집결하면서 나타났다. 즉 일제에 협력한 당시 중부면장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자 일부 시위대가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과격 양상으로 이어졌다. 실촌면과 중부면에 나타난 사례는 면장에게 시위대가 압력을 가한 것으로 참가에 강제하거나 타도 대상으로 삼아 응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운동의 주체가 농촌의 지식인층에서 농민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투쟁의 전면에 등장한 다수 농민층인 시위대가 주도층의 역할을 전담하고 운동 방향을 주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촌 지도층은 민족 모순에 직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일부는 외면하거나 강제적인 분위기에 종용당하였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단 통치의 기구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한 구장이나 면장들이 부분적으로 친일한 행각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역으로 국가 독립에 대한 욕구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왕면 시위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반대한 운동으로 광주지역 3·1운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왕면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부역 징발과 토지 수탈에 반대하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쟁의 주체인 농민층의 요구 조건을 담고 있다.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가 본적인 이시종(李時鍾)은 농사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참가한 후 대왕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조선독립신문」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수서리에 돌아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이규문(李揆文) 등 100여 명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시위대는 만세를 고창하면서 면사무소에 집결하였고 일부는 면사무소에 진입한 후 「조선독립신문」을 꺼내 독립의 당위성을 낭독하였다. 이시종은 군중에게 “오늘까지는 이 면사무소에서 일본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세금 등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였다.

대왕면 시위 양상은 3·1운동의 독립선언문 중 행동강령 약법삼장(約法三章)과 비교하면 농민층의 독립의지에 관한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약법삼장의 경우 “첫째, 자주하겠다는 정신을 발휘하되 배일 감정에 흐르지 말라. 둘째, 끝까지 민족의 염원이 무엇인가를 표시하는데 국한하자. 셋째, 일제의 현존질서를 문란치 말 것이며 모략과 밀행을 금하라”는 소극적인 행동 강령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시종의 경우 일제하의 부역과 세금에 전면 반대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만세 시위의 주도층 의식은 중앙에

서 전개된 투쟁 양상과 달리 원시적인 약탈경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약되어 있다. 광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농민층의 불만과 독립을 위한 의지가 비교적 정확하게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V. 광주지역 3·1 독립운동의 특성

3·1운동에 대한 비폭력적 흐름은 일제의 진압 전술과 연관시켜 고려해야만 한다. 나아가 일제의 탄압 기관에 대한 습격이나 사상자의 발생, 투쟁 과정에서 농민층의 전면 부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3·1운동의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은 식민지 사회구성원의 성장 논리와 연관된 것으로 1920년대 운동의 주체로 전면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위운동의 과정에서 일제의 대응책이 미온적이고 방관적이었다는 일단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즉각적인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었으므로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최고조에 달한 시위운동을 피하러는 술책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본국의 훈령이 조선 헌병대 사령관에게 타전된 내용을 검토하면 일본의 대응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소요 사건은 안팎으로 표면상 극히 경미한 문제로 간주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임중한 조치를 취해 장래 또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다만 조치를 취할 때 외국인이 주목하는 문제이므로 잔혹한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심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월 11일 일본 정부의 각료회의에서 토의한 결과는 실제적인 재발의 방지책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경미한 문제로 포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식민지 사회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양상은 소극적인 양상으로 왜곡되어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 탄압의 원시적 약탈 형태와 무단통치의 가혹성에 반대한 투쟁은 소극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무력 시위투쟁으로 격화되었다.

광주지역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봉화 시위운동은 4월 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부면 교산리의 구장인 이대헌의 경우 무명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면사무소 앞으로 쇄도하여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광주지역의 3·1운동의 특성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봉화를 올려 관심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으로 실질적인 시위운동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횃불을 올려 독립의지의 기상을 전하는 수단도 동원하였

다.

3·1운동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광주군 오폐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면영의 경우 폭력불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일제강점 이래 10년이 되는데 금후는 독립하기로 되었으니, 일동은 만세를 부르라고 말하고 군중에게 독립만세를 절규하게 한 다음, 이제부터 광주 군청으로 몰려가라. 그 곳에 가서 만일 헌병들이 발포하더라도 퇴각하지 말고 일심동체가 되어 그들을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동하였다.

이러한 주도층의 폭력을 통한 무력 투쟁의 방침은 시위운동의 실질적인 전개 과정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구천면과 경안면의 시위운동은 광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이 단순하게 소극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폭력 투쟁으로 전화되었음을 드러낸다.

3월 27일 광주군 구천면민 1,000여 명이 상일리 헌병주재소 앞에서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대는 주재소를 완전 포위한 상태에서 투석을 하며 쇠도하자 진압 헌병이 발포하여 1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경안면의 경우 광주군청 앞에서 시위대 2,0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면서 광주 군청과 우체국에 투석하여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흥분한 시위대는 헌병 상등병 1명과 헌병보조원 2명 및 재향군인 3명의 총기 탈취를 시도하려 하자 진압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이 즉사하고 15명이 부상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경기도의 경우 일제 경찰력과 무력충돌이 70회 정도였으며 살해자는 104명, 부상자 190여 명, 피체포자가 약 1,350명을 상회한다는 수치를 감안하면 이 지역의 독립운동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의 시위 형태는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평화적 시위에서부터 산 정상에서 횃불과 봉화를 울리며 만세를 부르는 횃불시위, 몽둥이를 들고 관공서 등을 공격하는 무력시위 등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광주지역에서 전개된 시위 양상을 소극적인 양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폭력적이고 무력 형태로 전환된 내면적인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의지력을 보여 준 운동이었다

### V. 맺음말

광주지역의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재편책으로 인한 제반의 모순에 항거한 것이다. 식민지재편책은 일본제국주의의 자체 모순을 한국 사회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적 약탈에 기초하였다. 이런 관계로 광주지역의 3·1운동은 1910년대 분산적인 투쟁 방략에 대한 반성으로 민족의 결집력을 드러내는 경향에 기초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후기 실학정신의 지역적 정서가 관통되는 정체성은 의병전쟁 이후 3·1운동에서 발현될 수 있었다.

광주지역의 3·1운동 전개 과정은 전국적인 흐름과 유사하게 전개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상이한 투쟁 양상을 보여준다. 3·1운동의 주도층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지식인들로 운동을 유발시켜 선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식민지 통치 구조에서 전위 조직의 담당자인 구장이나 면장 등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실은 민족적 독립 의지로 합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친일한 행각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 심리가 역으로 국가 독립에 대한 욕구로 표출된 것이며 이런 조류로 인해 민족의 역량이 결집되었다.

광주지역의 투쟁에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봉화투쟁이다. 각 지역의 산 정상에서 봉화를 올려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분위기를 고조하는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실질적인 시위운동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햇불을 올려 독립의지를 고조시키는 수단도 동원하였다. 시위투쟁에 전면 부상한 농민층은 일본제국주의의 원시적 약탈경제에 전면 반대하여 부역과 세금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주창하려는 목표 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시위투쟁을 주도한 유면영은 폭력투쟁의 당위성을 주창하고 일제 헌병에 대항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천과 경안면에서 전개된 폭력적 시위투쟁은 일제의 교묘한 진압 전술에 대항하여 소극적 투쟁에서 적극적인 무력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광주지역 3·1운동 특성은 실질적인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투쟁 방식이 일정 부분 폭력성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광주지역의 농민층이 일본제국주의 원시적인 약탈경제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면서 대중의 성장 논리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3·1운동의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무력적 시위형태는 식민지 사회 구성원의 성장 논리와 연관된 것으로 1920년대 운동의 주체로 전면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 격렬하게 진행된 3·1운동은 일본제국주의 원시적 약탈경제와 무단통치의 구조적 모순에 반대한 민족 운동으로 귀결된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2, 1966.  
 동아일보사,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 19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3·1운동재판기록, 『獨立運動史資料集』 5, 1972.  
 윤병석, 『三一運動史』, 1975.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1986.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 1990.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1~9, 1991~199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6, 199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부록> - 서 승 갑 교수

呂運一(30) 일본대학생,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수청리  
 조선독립선언서 및 청원서에 관계된 출판법 보안법 위반사건의 관련자

참고

현재 광주군 읍면은 광주읍을 비롯하여 중부·초월·실촌·퇴촌·오포·도척·남종면 등 동광주 지역의 8개 읍면이지만 3·1운동 당시에는 서광주도 행정 구역에 편입된 상태였다. 따라서 구천·중대·언주·대왕·낙생·돌마·동부·서부면과 중부면 중 성남출장소 관내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 지역이 광주군의 관할이었다. 이런 관계로 광주지역 3·1운동에 대한 고찰은 광주군의 16개면을 포괄하는 것이 된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이튿날 헌병주재소원에 피체되었다. 일제는 이들에게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보안법을 적용했다. 5월 15일 재판 결과 이시종은 징역 1년, 이재순은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일자] 1919년 03월 26일

[내용] 廣州郡 中堡面民, 宋坡里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습격

[일자] 1919년 03월 28일

[내용] 廣州郡民 1,000여명, 廣州郡廳 습격(死 5명, 傷 10명).

[일자] 1919년 04월 06일

[내용] 경기도 광주군 實村面民 시위 및 면사무소 방화

민족 지도자 중심의 투쟁에서 대중 투쟁으로 전환

참고

중부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남한산성을 중심축으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부면은 동면의 면소재지로 산성리를 비롯하여 13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부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성남출장소 관내 단대리·탄리·수진리 등의 동리 주민들이 주도하였다. 실제로 3월 27일 새벽을 기하여 남한산에서 횃불을 밝히고 이를 신호로 하여 단대리·탄리·수진리의 주민 300여 명이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결국 일제 헌병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무력 사용으로 인해 독립을 위한 시위운동은 좌절되었다. 이런 양상을 통해 중부면의 독립시위운동을 살펴보면 횃불을 신호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한 양상은 이전 단계에 이미 목계된 조직성을 간파할 수 있고 일제 탄압책에 반대하려는 의지력을 적절하게 표출한 면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돌마면의 시위운동은 농촌의 지식인층 일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런 관계로 참가자가 증폭하였고 낙생면과 연합시위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에 관여한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국권회복과 독립이 당면한 사명이라는 인식하에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지력이 강하였다. 천도교인들은 독립선언서를 각지에 배포하는 한편 운동을 주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태극기를 극비리에 제작하고 운동자금 모집 등도 관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돌마면 시위운동은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운집하는 분당리 장날인 27일을 거사일로 선택한 점 등도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7일 새벽에 한백봉 등은 울리 동민 50여 명을 인솔하고 뒷산에 올라가 봉화로 시위를 예고하는 등의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거사 당일 10시경 분당리 장터에서 군중이 운집하자 한백봉 등은 만세 시위를 주창하여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면내를 순회하는 동안 시위 군중이 늘어났고 오후에 낙생면소재지 판교리에서

남태희가 주도한 시위 군중과 합세하였을 때 시위 군중은 1,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돌마·낙생면민의 연합시위는 규모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이었다. 시위운동의 주도자들은 28일에도 봉화를 올리고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9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제 헌병이 시위 군중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도층 일부를 체포하자 시위는 약화되었다.

일제의 술책은 시위 주도층인 한백봉 등 수 십명을 29일에 체포하여 판교헌병주재소에 연행한 후 남한산성 용인헌병분견대 광주분견소에 이송하여 4일간 혹독한 고문을 가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대응 조치로 인해 당시 시위운동이 폭력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독립운동을 고양하는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 후 대부분의 인사들은 방면되었으나 한백봉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을 거쳐 서대문감옥에 이감되었다. 이어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1920년 4월 28일에 만기출옥하였다. 1990년 정부에서는 이런 민족운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애족장을 서훈하였다.

낙생면의 만세시위 운동은 돌마면과 연합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초대면장을 역임한 남태희가 전면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27일 특히 돌마면 울리에서 시작한 만세시위가 분당리 장날에 군중이 가담하면서 규모가 증대하였다. 시위대가 낙생면 소재 판교리에 도착했을 때 백현리, 운중리, 궁내리의 군중들이 참여하면서 1,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일정 부분은 폭력적인 형태로 진전되지 못했지만 이것은 일제의 교활한 전술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성남지역의 독립운동은 중부에서 남부지역과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나아가 성남지역에서 민족운동은 전민족 항일투쟁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며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직접 투쟁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 광주지역 3·1 독립운동의 특성

분산 통합 과정에서의 평가

민족모순의 해결이 갖는 의미

일제의 민족 분열정책으로 전환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제하 식민지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분적으로 친일한 행동 형태가 시위과정에서 보상되는 효과로 이어져 민족 공동체 건설에 대한 욕구를 표출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경기도 광주지역 독립운동 상황 자료

[일자] 1919년 01월 16일

[내용] 張德秀, 廣州에서 申奎植과 만나 독립운동전개에 따른 通信連絡方案을 지시 받음.

[출전] 기미를 알자.

[비고]

[일자] 1919년 03월 26일

[내용] 廣州郡 中垆面民, 宋坡里 현병주재소 면사무소 습격

[출전] 기미를 알자.

[비고]

[일자] 1919년 03월 27일

[내용] 廣州郡 九州面民 山上서 시위(死 2명, 傷 10명)

[출전] 기미를 알자

[비고]

[일자] 1919년 03월 28일

[내용] 廣州郡民 1,000여 명, 廣州郡廳 습격 (死 5명, 傷 10명)

[출전] 기미를 알자.

[비고]

[일자] 1919년 04월 06일

[내용] 경기도 광주군 實村面民, 宋坡里 시위 및 면사무소 방화

[출전] 한민족독립운동사 3 p.344

[비고]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小考 —3·1운동을 전후한 현대사를 중심으로—

현 중 현  
(작가·본회 부회장)

### 1. 서 론

최근의 일본 역사 교과서 논쟁은 지난 1980년대 있었던 두 차례의 교과서 파문과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당시에는 일본 정부의 지시를 통해 문제 내용이 수정되었고, '근린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검정 기준까지 만들어 유연히 대처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내각이 들어서면서 보수·우경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는 쪽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채수정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 원인은 일본 사회의 과거문제에 대한 보수화 경향 때문이다. 무엇보다 90년대의 '보통국가론'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자기 목소리 내기이다. 정치적 힘을 갖고 한국과 중국을 다독거리려 했던 나카소네나 다케시타 같은 리더가 없는 점도 이번 갈등을 깊게 하는 한 요인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인기는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고, 무엇보다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관심 자체가 별로 없다.

2001년 일본은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몇가지 불가(不可) 논리를 만들었다. 하나는 국내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끝낸 검정 교과서에 외국이 뭐라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 현대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혹은 성남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 등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 2. "새역모"와 교과서 왜곡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만든 새 교과서 내용 328쪽의 분량 중 한일관계사에 대한 내용은 매우 빈약하며 부실하다. 그 중 일본 문부성에

서 검정이 통과된 최종본(●)과 문제점(☞)을 이 글의 성격상 한·일 근대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본다.

#### (1) 한국 병합

● : ... 일본은 한국 내의 반대를 무력으로 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 미국·영국·러시아는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 내에서는 병합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족 독립을 잃은 데 대한 강한 저항이 있었고, 이후에도 독립 회복 운동이 끈질기게 일어났다.

... 병합 후 일본은 조선에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계발을 하고...

☞ : ... "한국 병합은 동아시아를 인정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함. "한국 내 병합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극소수 친일파를 자의적으로 해석.

... 식민 지배가 조선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태도.

#### (2) 강제 동원

● : (기존 부분을 그대로 기술한 뒤)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 광산 등에 어려운 조건 아래 일했다. 또 조선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강화됐고, 일본식 성명을 짓도록 하는 것 등이 강하게 진행됐다.

☞ : "대동아 전쟁" 용어를 그대로 사용. 종군위안부를 기술하지 않음.

#### (3) 가마카제 특공대

● : 일본군은 전세계를 경악시키는 작전을 감행했다. ... 비행기와 적함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공을 반복했다.

☞ : 이들의 행동을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 (4) 난징 사건

● : 삭제

☞ :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는 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사실 자체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는 자세.

#### (5) 태평양 전쟁과 아시아 국가의 관계

● : 전쟁 초기 ... 구미 식민지 아래 있던 아시아 인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대동아 공영권을 바탕으로 일본어 교육이나 신사참배가 강요돼 현지의 반발이 강했다(추가)

이처럼 일본군의 남방 진출은 오랫동안 서구 식민지였던 아시아 나라들이 독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 : 일본의 침략이 아시아 독립을 제공했다는 인식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은 일본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상대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일제의 한국 침략을 서술하면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빼고 "일본의 안전과 민주의 권익을 위해서 조선을 병합했다"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했다. 또한 착취, 수탈, 학살의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철도, 관개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근대화해 혜택을 준 것으로 미화하고, 한국어 말살, 창씨개명 등의 한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은 아시아 민중을 유린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여 아시아 민족의 해방전쟁으로 미화한 황국사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일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나 미국 탓으로 돌리며,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국에 대한 피해는 언급함이 없이 자신들의 피해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시켜 일본인의 역사의식을 강화하여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차적으로 자학사관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5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이루어낸 연구성과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렇게 새역모가 간행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을 국수주의 사관으로 무장시켜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평화헌법을 고쳐 다시금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교과서를 집필한 사카모토 교수는 "위안부 역사는 화장실 역사"라고 각종 매체를 통해 반복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위안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화장실 구조에 관한 역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교과서에 기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병사들이 위안소를 "공중변소"로 불렀던 사실을 연상케 한다.

최근, 새역모는 교과서 로비를 은밀히 감행했다. 현직 교사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교사들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청원서를 200개 이상의 지방의회에 제출, 4/20일 현재 홋카이도·후쿠오카 등 33곳의 지방의회와 222개 기초단체의회가 이미 이 청원을 받아들였고, 현재에도 도쿄도와 같이 상징적인 지역에서 이 역사교과서가 받아들여지도록 로비를 집중하고 있다.

### 3.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사태는 중·미 패권 충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자웅 겨룸을 의식한 일본 극우집단의 초조함에서 비롯되었으

며, 근본적으로 일본 정치의 소산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힘으로 제패하려는 데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은 단순한 반일감정을 등에 업고 출발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주권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성을 함양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몇 가지 반성할 점은 있다.

공주대 지수걸 교수는 한국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국가와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동아일보, 5/21) 즉, 일본교과서의 이름이 '일본사'인 반면 한국 교과서의 제목은 한국사가 아닌 '국사'라는 것이다. 국사라는 말은 무엇보다 국가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시각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객관성 면에서 소홀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상당 부분이 '우리 민족'을 주어로 서술돼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와 민족에 치우친 역사 서술은 다양한 관계와 질서 속에서 전개된 한국사의 전반을 온전히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자국 민족과 국가를 신성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고려·조선 등 새로운 정권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를 미화하는 역사 서술을 해왔으나, 우리 국사 교과서는 이를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 혹은 일본 역사를 보는 관점에도 문제가 있다. 필자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건대, 늘 부정적이고 왜소함만을 강조한 나머지 성인이 되어 실제 일본을 방문해 실체를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에 충격을 받게 된다. 최소한 일본인의 근검 절약 정신이나 질서의식 등은 세계 최고이고 본받아야 할 정신 정도임은 교육 받았어야 한다.

또한 지난 7월 23일 철도청이 위 사건에 항의하는 표시로 열차 내 일본어 방송 금지 및 하루만의 번복이나 내년부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대일본관 기술(記述)의 강화 문제는 좀 더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처럼 온 국민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도 일부에서는 일본 문화가 활개치고 있음도 되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반성과 더불어 학술적 뒷받침이 없는 맹목적인 규탄 대회는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감을 잃을 것이다.

#### 4. 성남 시민의 자세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를 우리 성남시의 문제로 축소시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남시에는 한일 현대사에 얽힌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유적지는 비교

적 빈곤한 편이다. 본 "성남시 3·1운동 기념사업회"를 만든 것도 위와 같은 연유에 의해서이다. 특히 울동공원에서의 3·1운동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준다면 시민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된 성남시의 현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란 민속시장 상인회

모란 민속시장 상인회(이하 "모란상인회")는 최근 한일 현대사 정립에 기여할 팔목할 행사를 몇 가지 벌였다.

1) 최근 증건된 중국 자싱시 하이엔현의 김구 선생 유적인 "영안정" 복구 공사에 앞장섰다. 지난 97년 겨울, 상하이를 방문했던 독립유공자 이용상(77세) 선생이 백범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시절 유적지로 알려진 영안정이 관리 소홀로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린 후, 모란상인회는 갖가지 행사와 모금 운동을 통해 복원 기금을 모았다. 작년 11/20 ~ 11/25, 금년 4/4 ~ 4/7 일 두 차례 방문하였고, 금년 4월 5일에는 영안정 복원 낙성식을 가졌고, 이 자리에 전상배 회장 등 모란상인회 10여 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용상옹(翁), 성남시장, 비서실장,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3명이 동행했다.

2) 4월 16일 오전, 모란상인들은 시민들과 함께 성남 모란시장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약 1시간의 행사를 마치고 일제인 마일드세븐 담배를 소각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어 낮 12시, 400여 명이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규탄대회"를 가졌다. 전상배 모란상인회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에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 정면 대응하려는 정치권에 힘들 실어주자"며 이번 모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회장에서 모란상인들은 "일본 내각은 역사 왜곡에 대해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고 정부는 일본 문화의 전면 개방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에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교과서를 재수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성명서는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3) 앞으로도 성남시민의 정기를 살리는 일에 계속해 앞장서나갈 것이라고 전상배 회장은 말한다.

(2) 삼성프라자 특별전시회

삼성프라자에서는 국립도서관 협찬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전시회를 삼성프라자 내 1층 열린광장에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성황리에 전시회

를 개최하였다.

\*\*\* 관련 사이트 주소 : <http://www.nanet.go.kr:8899/japan/index.html>

### (3) 학교에서의 특별 수업

한국교총은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전후한 4월 9일 ~ 14일을 특별수업 주간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일본 역사왜곡 관련 특별 수업을 실시 권장한 바 있다. 이때의 자료들을 한국교총 홈페이지 <http://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성남시의 각급 학교에서도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일기와 역사의 차이, 중학교는 한·일 관계의 쟁점, 고등학교는 독일·일본의 과거사 정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업한다.

### (4) 단체활동·특별활동·재량학습의 이용

일선 학교에서는, 제7차교육과정을 다루면서 학습자 주도의 창의적인 학습으로 수업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때 단체활동·특별활동·재량학습을 이용한 한일 현대사에 대한 창의적인 학습법은 매우 유용할 듯 하다.

여기에는 주로 반일(反日)보다는 지일(知日)이 필요할 듯 하다. 글로벌한 시대에 한일 우호관계가 정립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 삶의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남한산성 안에 있는 친구대 전보삼 교수가 운영하는 "만해 기념관" 같은 곳을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일제에 대항하는 만해 한용운 시인의 얼을 되살릴 수 있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manhae.or.kr/>

또한 앞서 말한 바 지금부터라도 성남시는 자료 준비와 함께 학습장 제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5. 결 론

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중국인이 일본군에게 목 잘리는 사진을 보고 혁명의 길을 포기하고 중국 혁명 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루신. 그를 정작 분노케 한 것은 일본 군사가 아니라 처형되는 현장에 있던 멍청한 표정의 중국인이었다 한다.

우리는 이번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에 대응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무력감을 후손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한 시대의 우호적인 관계란 나를 잘 알고 상대방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는 내부적 결속력 내지는 힘이 있어야 한다.

“어제를 잊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인도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의 옥중 편지 서간문집 “세계사 편력”에 있는 말이다.

역사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말이다.

정부와 우리 국민은 일회성이 아닌 일관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국민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특히 청소년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부록> - 현 종 현 작가

####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관련 일지]

- ▲ 97년 1월,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모임)’ 발족
- ▲ 00년 8월, 우익의 새모임 교과서 검정 신청
- ▲ 00년 9월, 침략미화, 황국사관 중심의 새모임 교과서 검정신청본 내용 공개돼 물의
- ▲ 01년 3월 29일, 새모임측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 ▲ 4월 3일, 日정부, 검정결과 공식 발표. 정부 강력한 유감 성명
- ▲ 4월 4일, 한승수 외교장관, 데라다 테루스케 일대사 초치, 강한 유감 전달
- ▲ 4월 10일, 최상용 주일대사 일시 소환
- ▲ 4월 12일,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출범. 중장기 대책안 논의
- ▲ 5월 3일, 제54회 헌법의 날을 맞아 일본 언론·정치권·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헌법 개정 논쟁을 벌였다. 일본 언론들은 3일 일제히 사설을 실었는데, 요미우리·산케이 신문은 개헌론을, 마이니치 신문은 신중론을 주장.
- ▲ 5월 8일,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부분 35개 항목 재수정 요구
- ▲ 7월 9일, 日문부상 “교과서 추가 정정 없다” 재수정 전면 거부
- ▲ 7월 13일, 국회의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만장일치로 7개항의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 7월 27일, 북한은 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日 역사왜곡은 신과쇼 테러행위” “추악한 위조문서”라고 평함.
- ▲ 7월 27일, 한일 역사교사들(한국 2,000명, 일본 3,000명) 내년 1월까지 공동 수업자료집 발간 합의.
- ▲ 7월 31일, 도쿄 공립학교(도립양호(養護)학교 중학부)에서 첫 왜곡교과서 채택

### 호사카 세종대 교수 “日 역사왜곡은 황국사상 때문” (조선일보)

7월 20일부터 열리는 ‘새로운 천년대를 열기 위한—한일시인대회’에서 일본 학자와 문인들이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호사카 유우지(45) 세종대 교수는 발표문 ‘한·일 문화의 대비적 고찰’을 통해 “일본은 천황중심 황국사상 때문에, 역사왜곡을 바로 잡아 과거 잘못을 시인하면 천황제 부정이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근현대사 공부를 피해왔기에, TV 드라마도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사는 방영된 적이 없다”면서 “일본 고교에서 역사는 선택과목이며 역사를 배우려 하지 않는 일본인이 늘고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7월 17일 미리 만난 호사카 교수는 “일본인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극우파의 폭력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으나,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일본 외무성 인터넷 사이트에는 독도에 대한 양국 주장이 나란히 올라 있고,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외교통산부 사이트에는 독도문제에 한마디 언급도 없다”고 비판하고, “한국은 일본을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일본어로 된 한일 간 현안 소개 사이트, 일본어로 된 관련 책자, 드라마, 만화 등을 만들고, 접촉을 늘려 일본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고 교류 단절 등 각 부문의 지속적인 단절은 역효과가 크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강경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단기적 처방으로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현대시인회 상임이사인 마루치 마모루(70) 치요다 학원 교수도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와 위정자들에 대해 비분강개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 “과거 일본의 부채인 식민지 정책문제, 한국인 강제 연행, 종군위안부, 역사 인식 문제 등을 삭제하지 말고 진지하게 예의를 갖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인 시바타 산키치씨는 “한일간 문제들은 대부분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회피해온 일본에 원인이 있다”면서, “사죄와 보상이 없다면 두 나라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가 된다 해도 마음 밑바닥에는 파도가 거친 험한 바다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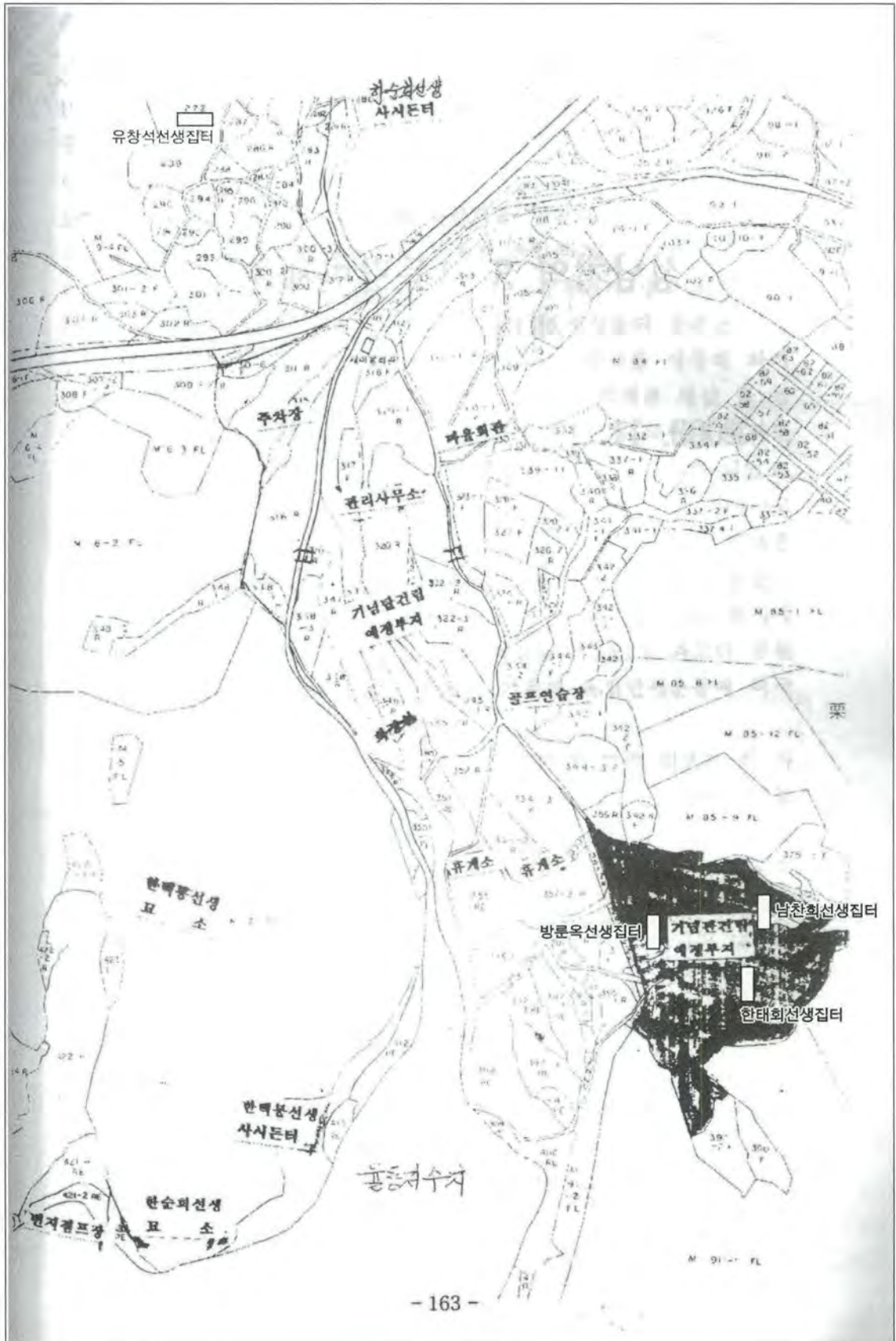
호사카 교수는 “한국의 유교 정신에 따르면 ‘적’이란 오랑캐(이적)를 뜻하는 것이기에 한국인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면 안되는 상대’로 치부한다. 최근 상대를 연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밝히려는 한국의 태도가 문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해온 윤석산 교수(제주대)는 “최근 분위기 탓에 세미나 개

최 철회압력도 받았으나, 국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왜곡사건 관련 사이트: <http://www.nanet.go.kr:8899/japan/index.html>)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있음



3. 성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 세미나 자료집

발표논문1. 한동익, 울동 3·1독립만세운동의 실태

발표논문2. 사업회, 성남 3·1운동 기념사업 제안

성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  
세미나 자료집

<2003. 11. 17. (月) 14시 성남문화원 2층>

### 운동 3.1 독립만세운동의 실태 한동익

1919년 3월과 4월은 이 땅에 한 민족이 살아온 이래로 민족 최대의 민중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삼천리 방방곡곡을 뒤 흔들어 놓은 자랑스런 쾌거의 달이기도 하다.

또 한편 으로는 일제의 총칼 아래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이 내 혈육들의 피로 물 들여지고 통곡으로 얼룩진 잔인한 달이기도 하다.

1919년 2월, 망국의 한을 달래지 못 한채 고종황제가 승하(昇遐)하자 팔도강산에 유림(儒林)을 비롯한 지식인들과 만 백성들의 통분은 극에 달 하게 되었고, 서울로 서울로 상경하여 황제의 승하를 애통해 하며 땅을 치고 통곡(痛哭) 하였다. 국권을 잃은 민족의 비애를 새삼 곱씹으면서 이제라도 국권을 되 찾아 실추된 국위를 회복 하여야 된다는 의식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傳)해져서 항일감정은 극도로 강화 되었고,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은 하늘을 찌를 듯이 강한 사기가 충천 되어가고 있었다. 이때에 울리에서 15대를 살면서 고향과 조상을 지켜온 한백봉 선생 일행은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례(參禮)하려고 상경하여 한용운 선생, 손병희 선생, 권병덕 선생, 오화영 선생 등과 만나서 독립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 하였다. 계속 협력 하여 많은 사람들이 3월1일 파고다 공원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연락망을 가동하는 가운데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헌신 하기로 굳게 약조 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사일인 3월1일 오정이 다 되어도 33인의 민족 대표는 한 사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원에 모인 사람 모두는 초조함과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기된 표정들이 굳어 가고 있을 즈음 밀고자들의 고변으로 33인 모두가 종로경찰서에 연행 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 하여지자 일순 숙연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나 누가 먼저 탈것도 없이 우리끼리 라도 만세를 부르고 시위에 들어 가자며 대한 독립 만세를 목청껏 부르면서 시위에 돌입 하였다.

그러나 급거 출동한 일본 헌병들에 총칼 앞에 순식간에 무너지며 시위대는 강제로 해산되고 말았다.

시위대가 무참하고 허무하게 해산 되자 같은 고장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만나서는 고종황제의 장례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즉시 독립만세의 상황을 주민 모두에게 알려서 전 국민이 독립만세운

동에 나서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결의 하고 자신들도 모두가 독립운동에 전념하기로 굳은 맹서로 결의 하였다.

광주지역에서 상경한 한백봉선생을 비롯한 유지들은 따로 모여서 앞으로 광주군 지역에서도 열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하고 1919년 3월 3일 고종황제의 장례식이 끝난 뒤 다시 모여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행동 통일을하기로 합의 하고 독립만세운동시에는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동원된 군중에게도 태극기를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일정도 3월 26일 동시 다발적으로 봉기 하되 가능하면 평화적 시위를 하도록 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끈질기게 시위를 하자고 결의 하고 각기 향리로 돌아갔다.

고향인 울리로 돌아온 한백봉선생은 울리 청주한씨 문중 어른들과 마을 원로들께 독립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울리의 전 주민(당시 울리는 50여호의 작은 마을이었음)들에게도 독립만세운동의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인근 지역 유지들과 긴밀하게 협의 하였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간곡하게 부탁 하고 비밀이 유지 되도록 신신당부를 하였다. 한편으로는 울리의 유창석선생, 한순희선생, 남찬희선생, 방춘옥선생, 이연옥선생, 등과 태극기를 만들고, 분당리에 서병홍선생, 정자리에 이희춘선생 등과 시위에 차질이 없게 빈틈 없는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전 낙생면장 남태희선생과 대왕면 사송리에 이문현선생과 오포면 신현리에 서정옥선생과 협의 하여 돌마, 낙생, 대왕, 일부와 오포 일부 주민이 함께 연합 시위를하기로 하였다. 상경시에 광주 유지들과 약속한 26일은 울동에서 돌마 낙생 대왕면과 중부면 그리고 오포면 일부 지역에서 잘 보이는 모란봉 과 뚝고개 일대에서 봉화를 올리고 밤새워 만세를 불러서 만반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자고 약속 하였으며 분당리 장날인 27일에는 연락망을 총 가동하여 시위에 참가할 사람들을 독려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참 시켜서 대단위 시위를 하자고 약속 하였다. 그러는 한편 판교 현병주재소의 현병주재소장 “마쓰시마 이스지”를 만나서 조선인의 독립만세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일 것 임을 약속하며 설득 시키고 인근 주민들을 참여 시키기 위하

여 밤이면 이웃 마을을 차례로 방문하여 분당리 장날에는 주민 모두가 전원 참여 하도록 설득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모든 준비를 치밀하게 끝내고 1919년 3월 26일 오후 8시경 울동 뒤 모란봉과 뚝고개로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밤새워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 지역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이 시작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1919년 3월 27일 날이 밝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을 앞에 다시 모여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분당리 장터로 성난 노도와 같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갔다.

분당리 장터에는 구름처럼 모여든 군중의 수효가 부러 천 여명 이나 되었고, 나누어 준 태극기가 물결치고 삼시간에 태극기 물결로 파도를 이루었다. 드디어 한백봉선생에 의하여 독립 선언서가 낭독되고 한백봉선생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 시키며 시위 군중은 물 밀 듯이 돌마면내의 각 동리를 순회하며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돌입 하기 시작 하였다. 이 때에 판교 현병 주재소장인 “마쓰시마 이스지”도 만세군중속에 섞여 만세를 부르고 다니고 있었다.

(그런 마쓰시마는 1919년 5월 17일 천도교 성미 사건때 당시 천도교 광주 교구장 한순희선생 증인 신문 조서에 조사 담당관으로 한순희선생을 신문한 기록이 남아있다.) 시위대는 분당리를 출발하여 돌마면 내를 돌아 다니는 동안 시위 군중은 홍수를 만난 듯 엄청나게 늘어 났으며 오후 들어 너더리에 도착 하였을 때에는 남태희선생이 이끄는 낙생면민과 일부 지역이지만 대왕면민이 합쳐 지면서 시위 군중의 수효가 무려 3000여명에 달 하였다.

시위대는 낙생에서 대왕으로 이동 하다가 날이 저물자 준비한 횃불을 밝혀 들고 밤 늦도록 지칠 줄 모르고 시위를 계속 하였다.

3월28일에 분당리와 너더리에서 다시 모인 시위대는 3000여명의 군중 그대로 였고 대오를 갖추어 사기 충천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목청껏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돌마, 낙생, 대왕을 순회 하여 오고 가면서 목이 쉬는 줄도 모르고 배 고품도 잊은 채 오직 내 나라 내 민족의 장래만을 위해 온몸으로 열렬하고 뜨거운 대한독립만세를 불러 외치며 힘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앞을 가로막는 강한 장벽을 만나게 되었다. 대규모

시위 소식을 전해들은 남한산성 헌병대 1개 소대가 급거 출동 한 것이다. 그들은 독립만세시위를 중지 할 것을 강요 하였으나 한백봉선생등 지도부가 완강히 거부 하며 오히려 독립만세 시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위대에 길을 열어주어 시위를 계속하게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끝내 거부 하고 요청에 대한 답을 총 칼과 채찍 곤봉 등으로 대신 하였다. 처음에는 공포를 쏘며 해산을 종용 하였으나 듣지 않고 시위를 계속 하자 말을 타고 달리면서 채찍과 곤봉 등으로 마구잡이로 구타 하다가 드디어는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시위대 중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데도 강경 일변도로 진압하자 시위 군중은 극도로 흥분하여 거칠게 반발 하였으나 맨주먹으로 어찌 할 수 없었다. 말 발굽에 채여 고통에 나딩굴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은 아비규환 바로 그것 이였다. 결국은 한백봉선생을 비롯한 수 십여명이 체포되어 판교 주재소와 남한산성 헌병대로 끌려가서 온갖 갖은 악형을 당하기 시작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시위 군중은 분노의 치를 떨면서도 어찌 할 수 없이 해산 하게 되었다. 뿔뿔이 흩어진 시위 군중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밤이 되자 횃불을 들고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 하였다.

29일에도 도처 에서 산발적인 시위는 계속 되었으나 지도부를 잃은 시위대의 힘은 미력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에는 4일간에 걸쳐 강력한 독립만세시위운동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으나 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독립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시작 하였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신간회 광주지회가 창립 될 때는 울리에 한백봉선생, 한순회선생, 한진회선생, 한용회선생, 한백호선생, 이연옥선생 등 여섯분이 참여 하였고, 분당동에 임병두선생, 하대원리에 박태원선생, 야탑리에 홍순석선생, 이근학선생 등 많은 이 지역 인사가 주축을 이루었고, 물산장려운동 등에도 적극 참여 하면서 독립운동에 진력 하게 되었다.

한편 체포된 수 십명의 시위대원은 혹독하고 가혹하기 이를데 없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오직 대한독립만세를 외쳐 대었고, 한결같이 자진해서 독립만세 시위 운동에 적극 참여 하였다가 진술함으로서 갖은 악형을 다 받았다. 남한산성 헌병대로 체포 구속 된 한백봉선생은 시위를 주도한 일도 시위를 하라고 권유 한 것도 모두 내가 하였으니 다른 사

람은 모두 방면 하라고 하여 거의 모든 사람이 방면 되었으나 우리의 유창석선생, 방춘옥선생, 남찬희선생 등은 한결같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적이 없고 자진 하여 내 나라 독립을 외치는데 앞장 서서 뛰쳐 나왔다고 하여 한층 혹독하고 치욕적인 고문을 받고 빈사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다 방면 된 며칠뒤에 뒤늦게 방면 되었다.

이후 한백봉선생은 남한산성 현병대에서 수원지방 검찰청 으로 이송 송치 구속 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내가 조선인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즈음 하여 내 나라 조선의 독립을 주장 한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강변 하였으나 결국에는 주동자로서 실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3개월의 한많은 옥고를 치루고 1920년 4월28일 출옥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고 하여 볼 것은 한백봉선생의 최초의 구형통보서에는 “내란 및 음모죄”가 적용되어 9년 8개월의 실형이 구형 되었으나, 법원의 판결문에는 “보안법 위반”으로 죄명이 바뀌고 형량도 1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일제의 간교한 술책으로 대 조선 국민 유화책에 기인 되어 형량을 줄여주고 만세 죄인을 방면한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일제는 대 내,외에 조선의 독립만세운동은 몇 몇 불순분자들에 소행으로 보도 하고, 독립만세운동 발생 당시 추상 같았던 “내란 및 음모죄”로 몰아 증징계 하려던 정책을 바꾸어 “조선형사령” 대신에 “조선제령”을 급조 하여 선포 하고 형량을 비교 검토 하여 형량이 가벼운 형량을 취하여 선고 함 으로서 조선인에 대 하여 관대 한 듯이 대 내,외에 보이게 하면서 알팍한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 하였다는 사실이 한백봉선생의 판결문 에서도 확연(確然)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화정책은 조선 민족을 달래는 척 하면서 내면으로는 더욱 강력한 탄압의 족쇄를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니 이 때 부터 더욱 치밀하며 계산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칠고 강력한 탄압 정치가 이 땅에서 시작 되었다. 결과적으로 돌마, 낙생, 대왕, 오폐면민 일부까지 약 3000여명의 대단위 조선독립만세운동 시위는 주동자인 한백봉선생 한 분만이 실형을 받고 구속 됨 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이는 한백봉선생의 애국애족 정신과 자기 희생 정신의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정부 발행 독립운동사299P,와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3.1운동 재판기록291P, 292P,에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

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 하는바, 위 범죄 후 에 발표된 대정8년 4월 15일(3.1운동이 일어난 후 임)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에 해당 하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신, 구 양법을 비교 대조 하면 구 법인 보안법제7조의 형이 경 하므로 동 법조를 적용 하여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내에서 처단 할 것이며” 라고 상 세 하게 전 하여지고 있으며,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사 상권 제 143P,에도 “돌마면 율리 한백봉은 3월 28일 동리 사람들 1백여명과 함 께 다음날 저녁때까지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만세 시위 행진을 계속 하였다. 즉 밤에는 횃불, 낮에는 태극기를 들고 각 동리를 돌아 다니며 열렬하고 끈기있는 만세 시위를 하였다.” 라고 확연 하게 기록 되어 있 다. 또 한민족독립운동사 제3권 3.1운동 342P,와 343P,에 “(1)경기도의 3.1운동 편에 경기도 독립운동은 전체가 보조를 맞추지는 못 하였으나 서울로 부터 가까운 곳 에서 먼 곳 으로 파급 되었다. 3.1일 개성의 한 영서원 학생과 기독교 목사가 계획하여 3일부터 1주일간 대대적인 시 위를 전개 하므로써 시작 되었다. 3일 고양군 동막 9일 인천, 10일 양 평군 문호, 11일 평택, 안성, 13일 강화, 14일 양주, 15일 가평, 16일 수 원, 21일 연천, 22일 김포, 23일 부천, 장단, 26일 파주, 광주, 29일 용 인, 포천, 31일 이천 4월1일 여주에서 시위 하므로써 도내 각 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 되었다.” 고 기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광주 유지들 의 26일 동시 다발적 시위운동 결의설 은 확인 할 수 있다. 또 경기도 독립운동사 제2권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과 3.1운동435P, 436P 돌마 면 편에 “돌마면 지역의 3.1운동은 3월27일 새벽부터 29일 까지3일간에 걸쳐 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등의 주도하에 돌마, 낙생, 2개면이 합세 하여 전개 하였다. 한백봉(당시39세), 한순회(당시35세) 등은 1919년 2 월 말경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차 상경 하였다가 3.1운동을 직접 목도 하고 돌마지역에서조 만세운동을 전개 할 것을 결심 하고 면내의 유지 들과 모의 한 후 전 낙생면장 남태희와도 연계 거사를 계획 하였다. 3 월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 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 하기로 거사일을 결정 하고 태극기를 마련 하는 등, 일단의 준비를 마친 한백봉 등은27 일 새벽 그가 거주하는 율리 주민 50여명을 인솔하여 마을 뒷 산에 올라가 봉기를 예고 하는 봉화를 올렸다. 거사 당일인 27일오전 10시경

분당리 장터에 군중이 모이기 시작 하자 한백봉, 방모(방춘옥선생) 등은 태극기를 앞 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 하면서 시위에 들어 갔다.” 고 기록 되어 있다. 또 436P, 437P, 낙생면 편에도 “낙생면의 초대 면장을 역임한 남태희는 한백봉, 한순희 등 돌마면 지역의 시위운동을 추진하는 인사 들로부터 27일의 시위에 함께 나설 것을 권고 받고 면민들로 하여금 만세 시위에 참가 하도록 전파 하였다. 27일 새벽부터 돌마면 울리 지역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분당리 장날에 모인 군중이 시위에 가담 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이 시위 군중이 만세를 고창 하면서 행진 그날 오후 낙생면 소재지인 판교리까지 진출 하였을 때 에는 판교리 뿐만 아니라, 백현리, 운중리, 궁내리 등에서 시위에 가담키 위해 모여든 면민들이 합세 하여 1000여명 가까운 수 에 이르게 되었다. (일제측 기록은600여명)” 라고 상세하게 기록 되어 있다. 또 435P 맨 아래 하단에는 일본 헌병 주재소 소속에 “마쓰시마”라는 헌병은 함께 만세까지 부르고 그 부인도 시위 군중에 대해 이해 동정 하는 기색 이었다고 함” 이란 구절이 분명하게 기록 되어 있다. 또 조선 소우 경과 개량표에는 3월 27일 시위 군중 600명 이라고 적혀 있어 시위가 26일 오후 울리 마을 뒷산에서 봉화를 울리며 밤새워 만세를 부른 것을 몰랐거나, 일제의 시위 일자 축소 정책에 의하여 의도적 으로 축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광주군지, 성남시사 등 모든 기록이 3월 27일부터 29일, 30일 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한백봉선생의 재판 기록은 28일과 29일 양일로 기록 되어 있고, 또 시위 운동에 참가한 군중의 수가 광주, 성남의 기록은 3000 여명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기록은 1000여명 으로 되었고 한백봉선생의 재판기록에는 수 백명으로 되어 있는 등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은 분명히 의도적 축소로 볼 수 있다. 광주군지 역사편 358P 에는 3월27일, 28일에 돌마면 울리의 한백봉은 이날 아침 주민 100여명과 함께 다음날 저녁 때까지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만세 시위 행진을 계속 하였다. 즉 밤 에는 횃불을 울리고 낮 에는 각 동리를 돌아 다니며 만세 시위를 펼쳤는데 군중의 수효는 3000명을 헤아릴 정도로 대 규모 시위였다. 고 기록 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역사 중, 근, 현대사의 성남지역에 3.1운동사 136P, 에는

1919년 3월 26일부터 3월28일 까지 3일간에 걸쳐 돌마면 울리의 한순회와 한백봉과 전 낙생면장 남태희 등의 주도로 돌마, 낙생면민이 합세(合勢) 하여 전개 하였으며, <이하 중략>

“28일 예도 계속 되어 돌마, 낙생면민에 대왕면민 까지 합세 하여 시위 군중의 수가 3000여명 에 까지 이르렀다 고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록들과 정황들과 그리고 울리에서 전 하여 오는 26일에서 29일 까지의 시위일자는 정확한 사실이다. 그 증거가 울리에서 전하여 오는 시위대원이 3000명 이라는 증거가 “조선 소우사건 일람표”에서 3000명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에 울동에서 전하여 오는 기미년 3.1독립만세운동에 관한 모든 구전을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건국제안서 2003년11월17일 순국선열의날

## 성남3.1운동기념사업제안

### 울동공원에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과 기념관을 세우자!

어느 국가나 민족이나 수만년을 이어 오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속에서도 그들만의 정서를 가리고 민족의 특성을 살려 민족고유의 전통과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키워온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군성조께서 개국이래 반만년을 이어 오면서 수많은 외침과 국란의 와중에서도 이 나라를 굳게 지켜 올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선열들의 가르침을 후세들이 착실하게 따르고 실천하면서 탁월한 민족자존의 독립정신과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탄탄하고 뜨거운 정신문명과 의혈정신으로 굳게 뭉쳐진 대동의 단결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19년인 기미년 3.1일, 성난 노도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세계만방에 우리의 존재를 확연하게 알려준 쾌거였었다.

이때 이 지역 선구자 한백봉(韓百鳳)선생의 주도로 한순회(韓順會)선생, 남태희(南泰熙)선생, 유창석(柳昌錫)선생, 남찬희(南贊熙)선생, 방춘옥(方春玉)선생 등이 지역주민 3000여명을 동원하여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백봉(韓百鳳)선생 등은 고종황제의 인산시에 서울로 상경하여 독립운동가인 한용운(韓用雲), 손병희(孫秉熙), 권병덕(權炳德), 오화영(吳華英)선생들과 만나서 독립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광주일대에서 상경한 각면(各面)의 유지들과 협의하여 광주지역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굳게 맹서(盟誓)하였다. 한백봉(韓百鳳)선생 일행은 향리(鄉里)로 돌아오는 즉시, 면내 각 동리의 유지들과 독립만세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說破)하였다. 많은 면내 지역유지들이 적극 호응하게되자 지역유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낙생면의 남태희(南泰熙)선생과 협의하여 분당리 장날부터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울동의 청주한씨 문중(門中)의 원로(元老)들과도 상의(相議)하고 한순회(韓順會)선생, 유창석(柳昌錫)선생, 남찬희(南贊熙)선생, 방춘옥

(方春玉)선생 등과 대대적(大隊的)으로 봉기(蜂起) 할 것을 약속하고 절대비밀을 유지하면서 면내 이외에 대왕면 일부 동리와 오포면내 일부지역과 각 동리를 연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날을 밤새우면서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의 만반준비(萬般準備)를 마치고 3월26일 저녁7시-8시경부터 한백봉(韓百鳳)선생은 마을주민 100여명과 함께 돌마 낙생은 물론, 대왕면과 중부면, 중대면 일대와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불빛이 보일수 있는 울리(栗里)마을 뒷산인 모란봉 일대에서 추위를 참아가며 돌마(突馬), 낙생(樂生)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봉화(烽火)를 올리고, 밤새워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27일 날이 밝자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대오를 지어 분당리 장터로 향하였다. 분당리 장터에는 구름처럼 모여든 주민의 수효가 약1,000여명을 넘었고, 10시경에 한백봉(韓百鳳)선생에 의하여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곧 이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만세 시위에 돌입하였다. 시위대는 돌마(突馬), 낙생(樂生), 대왕(大旺)면을 오가면서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다. 돌마, 낙생, 대왕등의 삼개면을 돌아 다니며 만세를 부르는 사이에 시위 군중의 수효는 어느새 약 3000여명의 어마어마한 군중으로 불어나 있었다. 낮에는 태극기를 들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목이 쉬는 것도, 배고픔도 잊은 채 오직 빼앗긴 조국의 독립만을 생각하며 독립만세만을 외쳤던 것이다. 첫날에는 방관하던 일본 관헌들이 3.28일에는 일본헌병 남한산성파견대 일대(一隊)가 시위대를 덮쳐 총칼로 마구잡이식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시위주동자인 한백봉(韓百鳳)선생 등 50-60여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시위대에게도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3.29일에도 산발적인 시위는 계속되었으나 지도부를 잃은 시의 시위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듯 하였으나 이때부터 끈질기고 거족위대는 또 다시 출동한 일본헌병들에 의하여 해산함으로써 연속 4일간적인 민족의 저항이 치열하게 전개 되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천명의 시위대원 중 한백봉선생 한 분만이 14개월의 옥고를 치루었으니 한백봉선생은 살신성인의 표상이었고 이 지역 최고의 지도자임을 증명한 중대사건이었다. 이때에 상황을 <성남시사> 와 <광주군지>는 3000여명으로 기록하였고, 경기도 독립운동사는 1000여명으로, 한국 독립운동사는 700명으로, 그 외에 조선 소우 경과 개량표에는 600명으

로 기록하여 각기 다른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일제가 조선독립의 당위성이 해외로 전파됨을 막기 위하여 그 규모나 시위일정 등을 중앙으로 올라 갈 수록 줄여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27일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향토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이라는 주제 세미나에서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서승갑 경원대 교수> 주제발표에서 일본 육,해군성에서 본국정부에 보고한 시위군중의 수가 3,000명이라는 사실을 일본국 육,해군성의 보고서를 인용 재확인하였다.

이 지역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주도자인 한백봉(韓百鳳)선생은 광주 향교(鄕校)의 임원으로 인근충렬서원(忠烈書院)이나 인곡서원(仁谷書院)등에서 서원(書院)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유림에 폭 넓은 지지가 있었고, 한순회(韓順會)선생은 천도교 광주교구장(廣州教區長)이었으며 남태희(南泰熙)선생은 전직 낙생면장(樂生面長)이었기에 누구 보다도 더 한층 높은 설득력이나 포용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특히 이지역이 각(各) 동리마다 전통(傳統)의 명문가(名文家)와 대성(大姓)들이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있어서 충효덕례(忠孝德禮)에 관한 높은 식견(識見)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성씨(姓氏)간에 안,밖으로 겹사돈이 맺어져 있는 혈연(血緣)관계로 서로가 이해(理解)와 협력(協力)이 잘되어 연락(連絡)이 손쉬웠고, 또 비밀유지(秘密維持)가 완벽(完璧)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기인(幾人)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선열(先烈)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한데 뭉쳐서 의연(依然)하고 과감하게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고 지속적(持續的)으로 독립운동을 하여 이 나라의 독립을 맞이 하게 된 이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선열들의 그 숭고(崇高)한 민족자존(民族自存)의 독립정신을 이어 가야하고, 그 정신(精神)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 우리세대 이후에도 이 민족의 민족정신이 억만년(億萬年)계승(繼承) 발전(發展)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시장(市長)이하 전 공무원(公務員)과 시의회(市議會) 의장(議長)등 시의원(市議員) 전원과 100만시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서 이 지역의 독립만세 운동의 발상지(發想地)이며 선창지(先

밭地)인 울동공원(栗洞公園)내에 기미년 3.1일 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독립만세운동기념탑”과 “기념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이곳은 성남시가 공원조성을 위하여 이미 구입 완료한 360-1등의 토지가 약 5,500평 정도가 있으므로 건축비용만 마련하면 용이 하며 이러한 사업은 경기도(京畿道)와 중앙정부(中央政府)에서도 건립자금(建立資金)을 지원(支援) 받을 수 있는 사업(事業)이므로 보다 능동적(能動的)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이곳엔 3.1운동을 주도하신 한백봉(韓百鳳)선생과 3.1독립만세운동당시 맹활약한 한순회(韓順會)선생, 유창석(柳昌錫)선생, 남찬희(南贊熙)선생, 방춘옥(方春玉)선생 등이 살던 터 외에 한백봉(韓百鳳)선생, 한순회(韓順會)선생과 함께 경기도내에서 개성 다음으로 신간회 광주지회를 만든 한진회(韓辰會)선생, 한용회(韓龍會)선생, 한백호(韓百鎬)선생, 이연옥(李淵玉)선생의 집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상태이다. 울동공원 산책로변에 한백봉(韓百鳳)선생의 묘소와 한순회(韓順會)선생의 묘소가 접하여 있고, 울동내에 유창석(柳昌錫)선생, 한진회(韓辰會)선생, 남찬희(南贊熙)선생, 방춘옥(方春玉)선생과 한용회(韓龍會)선생, 이연옥(李淵玉)선생, 한백호(韓百鎬)선생등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어서 이 분들이 사시던 터와 이 분들의 묘소를 두루 참배하며,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을 고취(高趣)시키는 교육의 도량(道場)으로서 더 없이 좋은 역사적, 지리적 여건과 역사의 사실조명 등, 교육효과(教育效果)의 극대화가 예상되는 곳이 기도 하다. 이처럼 뜻 깊은 곳에 기념탑을 세워 100만시민의 애국애족하는 민족자존의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길이 기리고, 기념관을 지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후손 만대에 물려줄 선열들의 빛나는 업적을 가르치고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얼마전 일제는 교과서를 왜곡하면서도 한 민족 침탈과 각종 사건들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대외적으로 암시하는 행태와 침략을 미화하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시켜 보면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온 국민이 재정립하여 마음깊이 되새겨야 하는 시점에 이르른 것이다. 이는 역사의 흐름이며 시대적 소명이며, 정신문화의 계승발전의 이어짐이니 100만 성남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동참(積極同參)하여야 한다. 거룩하고 숭고한 선열들의 민족 자존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아로 새기고 울동공원내에 3.1독립 만세운동기념탑과 기념관 건립에 100만시민이 일치단결하여 결집된 무서운 힘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를 계기로 100만 시민 모두가 민족정기를 회복하여 재무장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된 시민정신을 대내외에 과시하여 새 성남 시민정신으로 굳게 단결된 무서운 지혜와 힘으로 세계 초일류의 지상 최고의 전원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 데 총 매진 해야 할 것이다.

# 제81주년, 3·1절 추모식 - 제2회 -

## ◆ 울동 3.1 만세운동 개요 ◆

### ◇ 취 지

제 81주년 3.1절을 맞게되는 올해의 3월 1일에 '인도주의에 입각해 사회를 개조하여 약소민족이 독립하자고 했던 기룩한 3.1민족정신' 을 후대앞에 고취, 계승시켜 나가고자 당시 광주군내 들마면, 낙생면, 중부면 일대의 주민 1천여 명이 기미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성남시 독립운동의 발발지인 현 분당구 울동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혼을 추모식으로 더욱 선양코자 함.

### ◇ 기본방침

- ◎ 성남지역의 독립만세 운동 발상지인 울동 현장에서 추모행사 개최.
- ◎ 만세사건의 회고와 설명으로 청소년 교육 실시.
- ◎ 이 추모식을 계기로 우리지역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연구와 추모행사 지속.

### ◇ 만세사건 내용 발췌

돌아오는 3월 1일은 공휴일이다. 올해가 81년전 3.1절의 역사적 만세운동이 당시, 조선땅 나라 안팎에서 일어났던 그 날! 성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도 현 울동 자연공원에서 우리 고장출신 독립유공자 한백봉(1881~1950), 한순회(1885~1961) 등에 의해 봉화를 올리고, 손에손에 태극기를 든 채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 만세" 소리가 농촌마을을 뒤덮으며 일제 탄압의 억울함을 온 세상에 규탄, 호소하였다.

작년에 처음으로 울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에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원(부설)의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3.1절 추모행사를 가졌다.

최근 수년동안 찾아지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1919년도의 3월 만세사건은 이미 나라안과 나라 밖에서 연계되어 수개월 동안 일제의 수탈정책을 인도주의에 입각한 만민평등 대원칙에 의하여 적의 심장이 서늘하도록 만세소리를 높인 저항정신의 큰 사건이었다.

81년전 그 날의 한국정세는 주권이 없는 망국민 노예생활의 출발시기였다. 일본 유학생들이 적의 심장부 동경에서 1919년 2월 8일에 집회를 통해 정당한 조선인의 의견을 선언서로 주장하고, 만세소리 외침으로 내 나라를 되찾음에 주저치 않으며 의연히 일어섰다.

이같은 소식이 나라안에 알려지면서 급기야는 각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 민중들이 방방곡곡에서 연쇄적으로 구국운동에 너도나도 앞장 섰었다.

이곳 성남시 일원에서도 당시, 경기도 광주군 관할의 중부면, 들마면, 대왕면, 낙생면 등 4개 면민들이 곧바로 독립정신이 남보다 앞선 한백봉(당시 39세)과 한순회(당시 35세) 그리고, 낙생면장을 지낸 남태희 몇 사람들에 의해 만세사건은 3월 26일 <sup>새벽</sup> <sub>지방</sub>부터 4일동안 각 면민들 합세로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성남시 안에서 81년전에 있었던 작지 않았던 만세사건을 그냥 파묻어 두고 말 수는 없으며, 역사의 후손된 우리야말로 자못, 죄스러운조차 깨달으며 그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민족과 조국의 활기찬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개척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로 비운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한순회선생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고, 한백봉선생은 광주향교의 간부로서 그 누구보다 폭넓은 지역 활동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경술 국치일' 의 울분을 지닌 채 1919년 2월,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손병희, 오영영, 권병덕 같은 민족지도자들을 만나 조선독립 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그해 3.1 만세사건에 <sup>인사</sup> <sub>공</sub>소 참여하였다. 드디어,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택하고 <sup>인사</sup> <sub>공</sub>그날 <sup>인사</sup> <sub>공</sub>울리주민 50여 명과 같이 <sup>인사</sup> <sub>공</sub>영장산 <sup>인사</sup> <sub>공</sub>관의 모란봉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리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분당리 장터에서 오전 10시경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 선창행렬을 앞세운 만세시위 사건은 일어났다고 기록으로 전한다.

이날부터 연속 3일동안 시위대 군중들이 들마면에서 낙생면과 대왕면민 그리고, 중부면과 오포면민 일부가 가세하자 무려, 1천여 명의 대집회 군중들로 늘어난 만세사건이었다.

### 울동에서의 3.1 만세운동

돌아오는 3월 1일은 공휴일이다. 올해가 제 81주년 3.1절의 역사적 만세운동이 당시, 조선땅 나라 안팎에서 일어났던 그 날! 성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도 현 울동 자연공원에서 우리 고장출신 독립유공자 한백봉(1881-1950), 한순회(1885-1961) 등에 의해 봉화를 올리고, 손에손에 태극기를 든 채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 만세”소리가 농촌마을을 뒤덮으며 일제 탄압의 억울함을 온 세상에 규탄. 호소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울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에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원 (부설)의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3.1절 추모행사를 가졌으나 금년도 행사추진은 예전처럼 여의치 않다. 우리 고장에 기미독립 만세운동 발상지가 각종 문헌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으나 뜻있는 개인과 단체에서 고개를 외면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이어서 심히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수년동안 찾아지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1919년도의 3월 만세사건은 이미 나라안과 나라 밖에서 연계되어 수개월 동안 일제의 수탈정책을 인도주의에 입각한 만민평등 대원칙에 의하여 적의 심장이 서늘하도록 만세소리를 높인 것이었다.

기록을 뒤져보고, 현장에서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면담을 통해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들이 <성남지역 3.1만세 사건>역사적 의미를 통찰한다는 일은 그 어느 것 보다 값진 교훈담이라 생각된다. 여기에 그 만세사건의 줄거리를 남겨 두고자 한다.

81년전 그 날의 한국정세는 주권이 없는 망국민 노예생활의 출발시기였다. 일본유학생들이 적의 심장부 동경에서 1919년 2월 8일에 집회를 통해 정당한 조선인의 의견을 선언서로 주장하고 만세소리 외침으로 내 나라를 되찾음에 주저치 않으며 의연히 일어섰었다. 이같은 소식이 나라안에 알려지면서 급기야는 각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 민중들이 방방곡곡에서 연쇄적으로 구국운동에 너도나도 앞장섰었다. 이같은 시국정세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전국 각 지역으로 파급되기에 이른 것이며, 이곳 성남시 일원에서도 당시, 경기도 광주군 관할의 중부면. 돌마면. 대왕면. 낙생면 등 4개 면민들이 곧바로 독립정신이 남보다 앞선 한백봉(당시 39세)과 한순회(당시 35세) 그리고, 낙생면장을 지낸 남태희 몇 사람들에 의해 만세사건은 3월 27일 새벽부터 3일 동안 각 면민들 합세로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에 우리 후손들은 국내외 전 세계를 향해 또한, 일제 강권주의자들에

대항한 선조들의 독립만세 합성을 새로운 역사 시점앞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또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새삼 숙연한 마음으로 신 도시민들에게 묻고 싶을 따름이다. 성남시 안에서 81년전에 있었던 작지 않았던 만세사건을 그냥 파묻어 두고 말 수는 없으며, 이같은 역사의 후손된 우리야말로 자못, 죄스러움 조차 깨달으며 그 어떤 시대라하더라도 민족과 조국의 활기찬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힘차게 개척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로 비운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한순희선생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고, 한백봉선생은 광주향교의 간부로서 그 누구보다 폭넓은 지역활동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경술국치일의 울분을 지닌 채 1919년 2월,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손병희, 오화영, 권병덕 같은 민족지도자들을 만나 조선독립 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그 해 3.1 만세사건에 몸소 참여하였다. 그리고 서울 빼고다공원 시위에 참여치 못한 이 고장 유지들과 은밀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른다. 현 분당구 울동의 주민 지도자들과 각 면의 주도자와 만나 봉기하기로 결심한 후 태극기도 만들고 집회할 시간과 장소, 만세활동 진행과정과 그 후의 모든 일을 준비한 채 드디어,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택하고 그날 새벽 울리주민 50여 명과 같이 영장산 계곡의 모란봉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리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분당리 장터에서 오전 10시경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 선도행렬을 앞세운 만세시위 사건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전한다. 이날부터 연속 3일동안 시위대 군중들이 돌마면에서 낙생면과 대왕면민 그리고, 중부면과 오포면민 일부가 가세하자 무려, 1천여 명의 대집회 군중들로 늘어난 만세사건이었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헌병대의 진압 총칼앞에서는 주모자 구속과 열성지지자 구타로 일단 해산되었을 것이다. 태극기 압수와 함께 산발적 시위는 간헐적으로 몇 차례 더 있었다고 하나 관교순사주재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함께 주동자 몇 사람만이 남한산성헌병대에 이송조치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은 것으로 사건조사서에 전해지고 있다.

한백봉선생은 죄를 묻는 일본헌병에게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기인하여 자주독립을 주장함은 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모두 방면해 주시오.”하면서 그후 3-4일만에 대부분 풀려났다. 그와같은 문초 끝에 주동자로 지목된 그는 1년의 옥고를 치른 후 풀려나 제차 뜻있는 이들과 항일운동 지조를 굽히지 않아 울리의 남찬희, 방춘옥, 한용희, 한백호선생, 동부면의 이대현, 유인목선생, 경안면의 박기환 등과 주도하여 광주지회 신간회를 창립하고 계속하여 독립운동에 정진하였다.

성남지역에서의 3.1 만세사건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나타났다. 주동자들이 서울 중심지역의 독립만세 추세를 살피가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고 인근 면민들과의 비밀조직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남지역의 만세사건은 늦게 봉기하였다.

그당시 전국적인 만세사건은 통털어 1,200차례나 일어났고 동원된 국민총수가 110만명으로 조사되어 전한다. 이 중에 한 지역이었던 이 고장 3.1만세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원한 민족자존과 호국충절의 정의로운 애국정신으로 길이길이 계승되어야 할 국민지표인 것이다. 이에 한 지역에서 있었던 작은 듯한 81년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향토역사의 뼈아픈 정신유산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 자료제공: 향토사학자/ 한 춘섭>

### 성남3.1만세운동기념탑기념관건립계획(안)

건립위치 : 울동362-1, 369-1, 393-1, 도래마을일대.

부지면적 : 5.518평.

주소지 : 울동357-1,(235㎡) 358-1,(231㎡) 360,(370㎡)  
 361-1,(588㎡) 362-1,(1977㎡) 363-1,(423㎡)  
 364,(278㎡) 365,(641㎡) 366,(569㎡) 367,(258㎡)  
 367-4,(311㎡) 368,(575㎡) 369-1,(1405㎡)  
 369-2,(291㎡) 370,(744㎡) 371,(185㎡) 372,(555㎡)  
 373-1,(555㎡) 373-2,(456㎡) 374(565㎡)  
 390-1,(1226㎡) 391,(208㎡) 391-1,(860㎡)  
 392,(592㎡) 393-1(2945㎡) 산94(1200㎡)일대

\*공원계획에의거매입한성남시소유,울동저수지동측도래마을전체

총건립비 : 3.290.000.000.-

토목공사 : 300.000.000.-

기념탑 : 울동공원광장중앙에 건립 500.000.000.-  
 (광장중앙에 세워야 많은 시민들이 경건한마음으로  
 추모하고 그높은 뜻을 이어갈것으로 사료됨)

건축면적 : 410평. 소요금액. 1.190.000.000.-

사 당 : 20평. 160.000.000.-

기념관 : 390평. 1.030.000.000.-

자료관.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영사관. 관리실.등

기타비용 : 1.300.000.000.-

자료수집준비금. 전시물제작비.

강의실비품비용. 영사기구입비.

체험관시설비용. 집기비품구입.

조경등기타경비.

총공사및시설비품비용총계(예상). 3.290.000.000.-

4. 2008,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학술토론회

기념시

만세 터에 서서

한 춘 접  
(시조시인/성남문화원장)

영장산 높은 기세  
대못 박힌 꼭두에는  
누리를 물들였네. 자존의 피 흘리 저어,  
억만 년  
엮어 온 줄기  
에서 脈이 끊기라

돌마장 己未 정오  
숫구친 분노들이  
얼룩진 나라 깃발 펼쳐 들고 나섰네.  
그 약속  
悲壯했으리  
대한 독립 만세 소리

아-아-, 거짓 없게  
주인을 주인이라-.  
나라 세운 大王님들 혼백 부른 한 판 굿  
이 산하  
다 울지 못한  
억장 恨을 풀고 가리

우지끈 언 땅 풀려  
전하는 말 남기거늘  
몇 생을 피고 저도, 밤 나무는 밤 알 여니,  
텃 새여,  
제 핏줄 품어  
靑瓷 하늘 날아라.

개회사

만세운동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성남시민!

김 대 진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장)

지금으로부터 89년 전, 1919년 3월!

삼천리 금수강산 이 나라에는 한민족(韓民族) 자주독립을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온 누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때, 우리 성남의 선조들께서도 마을 뒷산에서 올린 봉화불을 신호로 하여,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율동의 한순회, 한백봉 선생과 낙생면장을 지낸 남태희 선생 등 선각자들께서 기미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소식을 성남 땅에 전파하면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 만세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봉화불이 성남을 비롯하여 광주, 하남 일대에서 동시에 올려졌습니다. 봉화 췌불을 신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성남지역에서만 3천명이 넘는 군중이 성남 파도와 같이 만세를 외침으로써 자주 독립의 의지를 온 천하에 떨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공약삼장(公約三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의(正義), 인도(人道), 생존(生存), 존영(尊榮)”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를 한 것으로써,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였으며, 최후의 1인 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쾌히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일제의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는 비폭력·평화적인 것이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총칼로 무장한 경찰과 헌병을 투입하여 우리의 만세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일제의 무력진압과 만세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무수히 많은 애국선열들이 시위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순국하거나,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셨고, 다행히 생명을 부지하더라도 모진 고문을 받아 감옥살이 후에도 평생 동안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국 선열들께서는 모진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혼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뜨거운 나라 사랑의 3.1만세운동이 있던 지 89주년이 되는 오늘, 그 자랑스런 민족 자존의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낸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번영된 성남의 오늘이 있게 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피 흘려 가면서 지켜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날의 만세소리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 줄 미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는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초대회장을 맡으셨던 한춘섭 성남문화원장님께서 ‘3.1운동 정신의 계승’에 대한 기조연설과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는 경원대학교의 서승갑 교수님이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미’를 발표하신 후,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이신 한동익 향토사학자께서 ‘성남지역 3.1운

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이 토론회의 진행과 발표를 맡아주신 한준섭 원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두 분,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학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회를 통하여 89년 전 우리 성남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 당에 살고 있는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한민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던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온 시민이 화합하고, 이러한 뜻 깊은 의미가 다음 세대에도 길이 전해져서 조국 통일의 역군으로 성장하는 정신적 기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뜻 깊은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내빈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울리며, 특히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유가족 후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아울러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

발표논문 1.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서승갑)

#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미

서 승 갑

역사학, 경원대학교 교수

#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미

서 승 갑  
(경원대학교 교수)

## 목 차

- I. 머리말
- II. 성남 3.1운동의 정신적 배경
- III. 만세시위운동의 내재적 요인
- IV. 성남지역 만세시위운동의 특징
  - 1) 만세시위운동의 지향점
  - 2) 만세시위운동의 투쟁 양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지역민들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려는 당면 과제는 다양한 형태로 존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독립운동은 일차적으로 민족모순을 해결하려는 반제국주의 투쟁은 항일의식을 배양하고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등 민족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일제 강권통치의 압제에서 탈피하여 민족해방을

성취하려는 투쟁은 자긍심에 기초한 주체적인 의지와 실천적인 행동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인들의 주체적인 의지는 지역적 특성에서 발현되는 고유한 저항 정신과 실천적 독립운동가들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19년 거족적인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적 무단통치와 식민지 재편과정에서 보여준 토지에 대한 약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성남지역의 농민층이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각종 잡세와 증세에 집단적으로 저항한 것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성남지역의 3.1만세 시위운동은 무단통치에 반대한 정치투쟁이 결집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민중 스스로의 생존권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무단농정 철폐와 토지 분배, 가혹한 세금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민중의 의지가 일시에 분출된 것이었다. 일제의 강압통치에서 비롯된 농촌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빈민층이 속출하였고 기득권을 보장받은 친일분자들에 대한 불만 등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은 중앙에서 주도한 해방투쟁의 방략이나 흐름을 지방에 전달하거나 반대로 중앙에 전이하는 중간자적인 지대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적 위상으로 인해 성남지역은 3.1만세 시위운동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었고 일제하 무단통치에 항거하는 투쟁 대열에 적극 동조할 수 있었다. 성남지역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한 이시중(李時鍾), 한백봉(韓百鳳), 한순회(韓順會) 등은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일제 타도를 외치면서 투쟁의 당위성과 실천성을 강조한 것은 독립선언서의 지침 내용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고유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족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절대 독립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남한산성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이나 전술을 구사하고 실천적 시위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한 저력이 성남 3.1운동의 중요 사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1운동 후 성남지역의 독립운동의 방향이나 투쟁의 전략적 방법론, 나아가 일제 통치의 전환에 따른 대응 방식, 저항 정신의 변환 등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주목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II. 성남 3.1운동의 정신적 토양

전근대사회 유교이데올로기가 관통된 성남은 지역정서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긍심이 내재되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족자존을 고민했던 시대정신이 배어 있는 남한산성은 주체성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자리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으로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성남지역은 실학의 진원지로 성호 이 익(星湖 李 瀾)을 위시하여 순암 안정복(順菴 安鼎福),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등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곳이다. 이런 관계로 남인계열 학자들이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서양의 합리주의와 평등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포교 활동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구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정서로 인해 성남인들은 자긍심을 지키려는 주체성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유지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성남지역에서 나타나는 자긍심의 정신세계가 근대화운동의 과정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주체적인 민족정신은 3.1운동에도 계승되었다.

일제에 대응한 성남지역의 민중의 생존권 투쟁은 항일의식을 배양하고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등 민족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일제의 식민지 재편과정에서 보여준 토지에 대한 약탈은 한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성남지역의 농민과 소상인층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각종 잡세와 증세에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일제 침탈에 대한 투쟁은 기존의 주체적인 행동 양식을 폭력적으로 재편하려는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민족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갔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상품화폐경제로 편입되면서 한층 강화되는 원시적 약탈경제와 국권 침탈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성남지역에서

활발하게 발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계기가 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성남지역은 1차 의병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각되었고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줄기찬 투쟁이 이어졌다.

성남지역의 3.1운동은 민족정신의 계승적 차원에서 보면 자긍심을 지키려는 주체성이 잠재되었다가 폭발적인 위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은 성남지역에서 무단통치에 반대한 정치투쟁이 결집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민중 자발적 투쟁이며 실학과 의병정신이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무단농정 철폐와 토지 분배, 가혹한 세금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민중의 의지가 일시에 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재적인 요인은 의병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족의 선각적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잠재력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3.1운동은 처음에 천도교나 기독교 조직을 통해 일어났으나 점차 고종(高宗)황제의 국장을 참례한 일단의 농촌 지식인군이 귀향하면서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지방의 운동소식과 선언서나 선전문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성남지역의 1910년대 후반기 민족운동은 일제 무단통치에 정면으로 반대한 투쟁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성남지역의 주체적인 저항 정신을 표출한 시위운동은 중부면(中部面), 돌마면(突馬面) 등의 지역에서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중부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남한산성을 중심축으로 전개되었는데 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횃불을 신호로 일사불란한 단결력을 과시한 것이 주목된다. 중부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성남출장소 관내 단대리(丹垞里), 탄리(炭里), 수진리(壽進里) 등의 동리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3월 27일 남한산성 남문에 집결한 만세 시위대는 산성 안으로 진입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순 시위운동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시위대가 면사무소에 집결하면서 과격 양상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저항정신의 상징이며 근대화 과정에서 자주적인 군대 양성지였음을 감안하면 중부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격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돌마면 율리(栗里)의 만세시위운동도 의병정신을 일정 부분 계승한 관계로 주변 지역과 연합 투쟁이나 군중 참여도에서도 자발성을 나타낸다. 27일 새벽에 한백봉 등은 율리 동민 50여 명을 인솔하고 뒷산에 올라가 봉화로 시위를 예고하는 등의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3월 28~29일의 양일에 걸쳐 돌마면의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만세시위 행진을 계속하였다. 거사 당일 10시경 분당리(盆唐里) 장터에서 군중이 운집하자 한백봉 등은 만세 시위를 주창하여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면내를 순회하는 동안 시위 군중이 늘어났고 오후에 낙생면(樂生面) 소재지 판교리(板橋里)에서 남태희(南台熙)가 주도한 시위 군중과 합세하였을 때 시위 군중은 1,000여 명에 달하였다. 밤에는 횃불, 낮에는 태극기(太極旗)를 들고 독립만세(獨立萬歲)를 고창하며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성남지역에서 만세시위운동의 주도 계층을 살펴보면 민족의 주체성을 계승하려는 일단의 의지를 보여 준 특색을 감지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만세시위운동의 참여 계층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방 유지로 활동한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 만세시위 주도층은 서울의 만세시위 흐름을 민감하게 수용하여 지역민에게 계몽하는 한편 거사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했다. 만세시위의 주도층들은 극비리에 구한국 국기를 제작하고 운동자금 모집 등도 관여한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봉화시위나 횃불시위를 준비하여 민중들에게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주목된다.

성남 돌마면의 시위운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정 부분 농촌의 지식인층 일단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최하였다는 것이다. 돌마면과 낙생면의 연합시위를 이끌 수 있었던 것 등은 주도층의 내적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돌마면 율리의 한백봉(韓百鳳), 한순회(韓順會)는 1919년 고종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면내의 유지들과 접촉하면서 시위운동을 모의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南台熙)와도 연

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한순회가 1919년 5월 16일에 판교헌병주재소에서 조서에 서명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한순회는 양반출신으로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으며 당시 광주군 천도교구장으로 있었다. 심문의 주요 내용은 1918년 10월부터 1919년 4월까지 특별 성미를 각출하여 천도교 중앙총부로 송금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천도교가 추구한 만세 시위운동의 지침에 대한 한계성을 고려하면 한순회의 경우 대체로 3.1운동의 지도층이 시행한 행동 형태에 준한 것이 아닌가 한다. 3.1운동 과정에서 한순회는 판교헌병주재소에서 조서를 받는 정도였고, 1938년 3월에 이르러 독립자금을 모금하다 피체되어 투옥되었기 때문이다. 한순회는 연락망을 유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인정되지만 종교적 한계성에 의해 폭력을 지향하지 못한 한계성을 만세시위 과정에서 보여주었다.

한백봉은 3월 28일 돌마면 율리에서 거주민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하고 약 50명을 집결시켜 시위운동을 촉발시켰다. 29일에는 국기를 제작하여 휴대하고 돌마면 일대에서 각 동리를 돌면서 독립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시위운동의 과정에서 운동을 주도하여 전면에 부각한 한백봉은 민중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동 과정에서 시위대를 선도하고 직접 투쟁하여 일제의 압제를 타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麗水里)가 본적인 이시종(李時鍾)은 농업에 종사하던 중 송파시위에 참가한 후 대왕면(大旺面)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조선독립신문」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수서리(水西里)에 돌아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 등 100여 명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시종은 헌병주재소원에 체포되었고 일제는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보안법을 적용했다. 5월 15일 재판 결과 이시종은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민중의 성향을 반영한 한백봉과 이시종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면서 식민지 모순에 반대하고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민족운동을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순회의 경우는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조직력을 활용하여 독립의 당위성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 시위운동의 방략이 현실적으로 시위운동 과정에서 민중과 결합하면서 투쟁 방향은 강경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남지역의 항일의식은 의병전쟁 과정에서 보여 준 직접무장투쟁의 정신을 3.1운동의 시위투쟁에 계승시키려는 고민의 일단을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3.1운동은 합법적인 투쟁을 지향한 반면 식민지 농촌현실을 고발하려는 주도층은 대중성에 기초하여 절대독립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Ⅲ. 만세시위운동의 내재적 요인

성남지역의 만세시위 투쟁의 내적 요인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사회 구성원의 자각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남지역에서 3.1운동을 촉발시킨 요인은 일차적으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일제의 무단통치라 할 수 있다. 일제가 원시적 약탈경제에 기초하여 식민지를 재편한 것으로 제국주의 모순이 식민지에 전가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시위운동 과정에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과격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한 일단의 반성과 농촌사회에서 일어난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결과물이 만세시위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농촌경제에 대한 동향을 살피는 것은 만세시위의 내적 조건을 가늠해 보는 선행 작업이라 하겠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통계연보에 나타난 1909~1911년에 걸친 광주지역의 농산물 생산액 구성을 조사해 보면 성남에 대한 지역적 특성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농산물 생산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84.2%이고,

콩류가 6.1%, 보리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액 구성이 시사하는 것은 성남지역이 전형적인 농업지대로 쌀농사가 주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성남지역의 토지에 대한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일제하 식민지 농촌의 재편책에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봉건 양반계급에게 토지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민지 농민에게는 소유권과 경작권의 상실로 이어져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 확보책에서 시행된 것으로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합리화하고 한인의 토지를 수탈한 결과가 되었다. 일제 통치에 순응한 일부 지주 계층에게 일정 부분 기득권을 보장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였다. 반면에 근대적 토지소유를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근대적 지배 방식에서 관용적으로 용납되었던 실질적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부정되었다. 결국 형식적인 토지소유자인 지주에게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의 제반 권리를 인정하여 식민지 기생지주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은 민족공동체의 양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층 간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킨 탄압 정책의 표본이라 하겠다.

참고로 1917년 경기도 농가의 계급 구성을 살펴보면 대지주는 1.7%, 중소지주는 2.1%, 자작농은 10.0%, 자작 겸 소작농은 38.8%, 소작농은 47.4%로 나타난다. 토지 소유라는 기준으로 보면 약 13.8%가 토지를 소유한 반면 순소작농인 47.4%가 토지를 상실하여 농민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었다. 일제에 의해 토지 소유를 추인받은 절차상의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가치 기준은 구성원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남지역의 농민층이 몰락한 부차적인 요인은 일제가 추진한 지세령의 개정이다. 논의 경우 35%나 토지 세율이 증가된 결과 지세가 2배 이상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세에 대한 부담이 강화된 경우 영세한 자작농은 토지를 처분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토지를 박탈당한 결과로 인해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성남지역의 농촌의 계급 구성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면 일단의 몰락 농민은 도시노동자로 전환하거나 살길을 찾아 만주나 시베리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로 진출하여 막노동자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이미 포화 상태여서 감행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일차적으로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정치적으로 좌절당한 상실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과 지세령(地稅令)을 강화하는 일제의 식민지 재편책은 농민의 불만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런 결과 성남지역의 농촌 동향은 계급 구성에서 양극화가 표면화되고 자신의 토지를 박탈당한 식민지 현실로 나타난다. 성남지역의 농민층은 일제하 식민지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남지역민의 자발적인 민중 참여의 요인은 민족모순에 대한 새로운 면을 자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하 일본제국주의의 자본주의 모순이 가중되면서 성남지역의 민중들이 만세 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자본주의 모순이 식민지 사회에 전가된 것은 쌀값의 등귀로 이어졌고 빈곤에 대응한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사회의 상황은 1917년 이후 쌀 부족 현상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노가 극도에 달하면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쌀값 폭등의 직접적인 요인은 지주나 미곡상들이 쌀을 매점하여 사재기하는 행위이지만 일본제국주의 모순에서 파생한 식량 부족 현상을 식민지에 전가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1918년에는 쌀값 폭등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폭동을 수반하는 상황으로 진전되었다. 1914년 당시 경기도 지역의 농촌 궁핍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일제 강점 후 농산물 수확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한인 농민층은 생계유지에 급급할 정도의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추수기 수확물은 공산품 구입 등에 소비하기 때문에 2월까지만 자급하고 이후에는 잡곡을 주식으로 한다. 6월의 경우 쌀 혼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식사는 증가하지만 하루의 식대는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 농가는 이런 점에서

보면 식량 결핍의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고 춘궁기 때 상황이 악화되어 불만이 누적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식량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농번기 출역을 약속하고 유력 농가에 식량이나 금전을 차입하기도 한다. 제방 보수 공사에 참여하거나 농장에 출역하며 임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전한 농민층은 야채죽 등으로 대식하거나 식사 수를 줄이는 감식의 방법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 빈곤 현상은 성남지역의 궁민층(窮民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존 위협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존권 위협의 여건으로 인해 성남지역의 농민층은 일제 강압통치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고 만세시위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 IV. 성남지역 만세시위운동의 특징

### 1. 만세시위운동의 지향점

성남의 만세시위운동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려는 의병전쟁(義兵戰爭)의 정신사적인 측면을 계승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하려는 의지가 선결 과제였지만 구성원의 참여를 결집하는 과정에서는 계급모순의 해결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성남의 대왕면 시위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반대한 운동으로 성남지역 3·1운동의 일면을 나타내는 명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시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독립과 강경 투쟁의 수단인 폭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왕면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부역 징발과 토지 수탈에 반대하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쟁 주체인 농민층의 요구 조건을 담고 있다.

대왕면에서 진행된 3.1만세 시위운동은 시위 목표인 민족 독립을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어서 주목되어진다. 중앙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에서 주도층이 보여 준 모호한 형태의 목표 의식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성남지역 만세 시위운동의 특이성이다. 3월 25일 저녁 이시종은 대왕면사무소에 집결한 군중에게 남포등을 밝힌 후 문서를 낭독하였다. 군중에게 발표한 격문 형태의 발표문은 성남의 만세시위운동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시종이 발표한 격문의 내용은

**“오늘까지는 이 면사무소에서 일본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 세금 등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였다. 발표문의 경우 일제하의 부역과 세금에 전면 반대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세시위의 목표는 조선의 절대독립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부역에 대한 반대 의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동력 착취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왕면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성남 만세시위의 지향점은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공약삼장(公約三章)」이 내포하는 포괄적인 내용에서 진일보하여 한국의 절대독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남지역에서 펼쳐진 시위운동이 폭력화되면서 시위운동의 투쟁 대상도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농촌에서 진행된 만세시위는 일제에 결탁한 친일분자를 타도 대상으로 하고 마을의 유력자나 학생, 서당교사 등이 주동이 되어 일어났으나 진행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농민층이 주도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만세시위에 참여한 일반 민중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참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수, 면장, 관공리, 헌병보조원 등은 위협이나 강요로 인해 강제 참여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성남지역에서 펼쳐진 시위운동의 투쟁 대상은 일차적으로 면장과 면사무소에 집중된 것이지만 근원적인 대상은 일제의 타도임을 알 수 있다.

투쟁 대상을 면장으로 설정한 경우는 중부면 산성리(山城里) 만세시위 사

레이다. 중부면은 동면의 면소재지로 산성리를 비롯하여 13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부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성남출장소 관내 단대리, 탄리, 수진리 등의 동리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실제로 3월 27일 새벽을 기하여 남한산에서 횃불을 밝히고 이를 신호로 하여 주민 300여 명이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남한산성 남문에 집결하여 시위하는 과정에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한 것은 시위대가 면사무소에 집결하면서 나타났다. 즉 일제에 우호적인 당시 중부면장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자 일부 시위대가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과격 양상으로 이어졌고 현병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시위운동의 타도 대상이 면장 구타나 면사무소 투석 행위로 표출된 것은 일제 무단통치의 첩병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항일이라는 민족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일차적인 목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식민지적 모순에서 야기된 곤궁한 생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만세시위운동의 투쟁 양상

성남지역의 만세시위 투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민족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고려한 후 대중이 집결된 상황에서는 투쟁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력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성남지역의 만세시위의 투쟁이 전형적인 평화시위로 전개되다가 폭력적인 형태로 전환된 것은 이러한 사례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투쟁의 목표를 공감하여 투쟁이 전개된 이후에는 횃불시위 등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한백봉과 한순회는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서울의 분위기를 체험하여 운동의 방향이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었다. 한순회의 경우는 천도교의 조직을 활용하여 치밀성을 구사하거나 정보 수집을 통해 운동의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성남지역의 만세시위운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무력시

위와 햇불시위로 전환된 것이 특색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체로 전국적인 추세와 유사하게 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3월 초순부터 4월 하순까지 전개되었다. 경기도 지역은 시위 규모나 전개 형태의 지속성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중부면의 경우 단대리, 수진리 등의 주민을 집결시키고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 남한산성에서 햇불을 올리고 만세를 고창하여 투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실행하였다. 3월 27일 새벽에 한백봉 등은 율리 동민 50여 명을 인솔하고 뒷산에 올라가 봉화로 시위를 예고하는 등의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거사 당일 10시경 분당리 장터에서 군중이 운집하자 한백봉 등은 만세시위를 주창하여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돌마면에서의 시위운동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낙생면민과 연합하여 전개한 것이 특징이다. 돌마면은 한백봉과 한순희가 고종 장례식에 참여하여 3.1운동을 직접 체험하고 면내 유지와 낙생면장 남태희와 연계하여 거사를 계획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지역에서 전개한 시위투쟁은 결집력을 위한 사전작업이 치밀하게 계획되는 한편 인근 서울지역과 타 경기지역의 운동과도 연계하여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사전정지작업은 중대면의 경우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 등을 등사하여 배포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시위 투쟁에서 주목되는 점은 구성원의 주체성을 이끌어 참여의식을 확대한 결과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3.1운동의 참여 계층이나 참여 인원수를 분석해 보면 대중성을 확보한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월 29일에 광주군 낙생면과 돌마면에서 전개된 시위운동은 일제가 보고한 일본외무성 육해군문서에 따르면 참여 인원이 대략 3,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낙생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돌마면과 연합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초대면장을 역임한 남태희 등이 전면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27일 특히 돌마면 율리에서 시작한 만세시위가 분

당리 장날에 군중이 가담하면서 규모가 증대하였다. 시위대가 낙생면 소재 판교리에 도착했을 때 백현리, 운중리, 궁내리의 군중들이 참여하면서 3,000여 명에 달한 것이다. 또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운집하는 분당리 장날인 27일을 거사일로 선택한 점 등도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 3,000여 명을 동원한 낙생·돌마 시위만세 운동은 대중성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만세시위운동은 장날을 이용하여 운집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층의 주도로 식민지 민중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었다. 식민지 한인의 계층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주도층인 지식인층이 결합되어 대중성을 확보한 것이다. 성남의 만세시위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족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지력이며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중부면 면사무소에 집결한 격앙된 시위군중은 적극적으로 일제를 위해 부일하고 친일에 앞장선 중부면장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폭력 양상이 전환되자 경비 중이던 헌병이 공포를 발사하였고 시위군중이 해산한 것은 시위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만세시위운동이 지속성과 폭발성을 결여한 것은 항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는 성공했지만 투쟁 방략의 체계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민족 모순의 해결을 강조하는 시위 주도층은 계급 모순의 해결을 주장하려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시위운동의 과정에서 일제의 대응책이 미온적이고 방관적이었다는 일단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즉각적인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었으므로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최고조에 달한 시위운동을 피하려는 술책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술책은 시위 주도층인 한백봉 등 수 십 명을 29일에 체포하여 판교헌병주재소에 연행한 후 남한산성 용인헌병분견대 광주분견소에 이송하여 4일간 혹독한 고문을 가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대응 조치로 인해 당시 시위운동이 폭력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독립운동을 고양하는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 후 대부분의 인사들은 방면되었으나 한백봉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을 거쳐 서대문감옥에 이감되었다. 이어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1920년 4월 28일에 만기 출옥하였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이튿날 헌병주재소원에 피체되었다. 일제는 이들에게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보안법을 적용했다. 5월 15일 재판 결과 이시종은 징역 1년, 이재순은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대왕면 시위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일제 타도와 절대독립을 천명하였다. 대왕면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부역 징발과 토지 수탈에 반대하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독립투쟁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남지역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홧불 시위운동은 4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경기도의 경우 일제 경찰력과 무력충돌이 70회 정도였으며 살해자는 104명, 부상자 190여 명, 피체포자가 약 1,350명을 상회한다는 수치를 감안하면 이 지역의 독립운동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지역의 만세시위 투쟁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인위적인 형태를 유지하였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부면 남한산성에서 27일 새벽에 홧불을 올려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독립선언문 등을 등사하여 배포하고, 사전에 거사를 계획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다음으로 만세시위운동을 실천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장날을 이용하여 군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이다. 돌마와 낙생면의 연합시위 형태는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일제 헌병이 진압 후 시위 주도층을 체포하여 격리시켰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지역 만세시위운동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평화적 시위에서부터 밤에 산에서 홧불과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는 홧불시위, 곤봉을 들고 투석하는 행위, 관공서 등을 방화 공격하는 무력시위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 V. 맺음말

성남지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의지력을 보여 준 운동이었다. 성남지역에서 민족운동은 전민족 항일투쟁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며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직접 투쟁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성남지역의 시위만세운동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해결하려는 의병전쟁 이후 민족적 당면 과제를 달성하려는 연장선에서 전개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인의 독립정신은 성남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고유성과 남한산성이 갖는 저항정신이 자궁심으로 작동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남지역의 시위투쟁은 식민지 모순에서 야기되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이 투쟁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토지를 상실한 소작농민층의 불만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민들은 1918년 쌀값의 앙등과 농촌경제 파페로 인해 강압통치에 불만이 누적되었고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특히 식민지 농촌에서는 궁핍 상황이 심화되어 생계가 어려워 생존에 위협이 가중되자 시위투쟁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타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주도층의 전략과 대중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성남지역의 만세 시위운동은 대중성과 무력시위 양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 봉화시위나 햇불시위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대중이 집결하는 장날을 기해 독립 시위투쟁을 전개한 전략은 효율적이었다. 낙생과 돌마면의 연합시위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한 사실은 대중성을 확보한 것으로 농민층이 요구하는 식민지 모순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대왕면 이시종의 사례는 시위 지향점의 경우 「독립선언서 공약삼장」이 내포하는 포괄적인 내용에서 진일보하여 식민지 착취에 반대하고 절대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결과 성남지역의 만세 시위운동은 독립선언서의 지침보다 실천성을 배가할 수 있었다.

성남지역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햇불 시위는 4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지역의 시위 형태는 대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평화적 시위에서부터 밤에 산에서 횃불과 봉화를 울리며 만세를 부르는 횃불시위, 몽둥이를 들고 관공서 등을 공격하는 무력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 성남지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의지력을 보여 준 운동이었다. 시위투쟁은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실학정신과 의병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지역적 특징인 주체적인 고유성을 표출한 것이다.

성남지역의 3.1운동은 일부 친일분자의 반민족 행위를 아우르고 통합하여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이 특징이다. 면장이나 친일분자들이 만세시위에 동참한 사례는 민족모순을 일제 타도와 등치시켜 투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만세시위의 과정에서 식민지 농촌현실을 고발하려는 농민층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계급모순의 일단인 일제 탄압책을 폭로한 것도 의미를 갖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1946.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2, 1966.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1, 明治百年史叢書, 原書房, 1967.  
 東亞日報社,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 19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獨立運動史資料集』 6, 1973.  
 尹炳奭, 『三一運動史』, 正音社, 1975.  
 국회도서관, 『한민족독립운동사』 (三一運動 其1), 197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三一運動史』 6, 198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 198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89.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 1990.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1~9, 1991~199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성남문화원, 성남지역 의병조사 연구, 2002.

발표논문 2. 성남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한동억)

# 성남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家系)와 독립정신

한 동 억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 성남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家系)와 독립정신

한 동 익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 목 차

1. 성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실태
2. 성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 지도자들의 가계
  - 1)한백봉(韓百鳳, 1881-1950)
  - 2)한순회(韓順會, 1885-1961)
  - 3)남태희(南台熙, 1876-1930)
3. 지도자(指導者)들의 사상(思想)

## 1. 성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실태

1919년 2월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승하소식이 팔도강산에 메아리치듯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자 팔도의 유림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황제 국상에 참여하려는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성남지역에서 누대(累代)를 살아온 한백봉(韓百鳳)선생 일행은 단숨에 상경하여 한용운, 손병희 권병덕 오화영 선생들을 두루 만나서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에 뜻을 같이 하기로 하여,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자 거사당일 파고다 공원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밀고자들에 의하여 33인은 벌써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모두 아연失色하였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여 삼시간에 종로일대가 만세소리에 파묻혀 버렸다.

그러나 급거 출동한 일본 헌병들의 총칼 앞에 전열이 무너지고 각자 고향에서 올라온 유지들이 모여 이제부터는 목숨을 걸고라도 조국의 광복과 민족자존의 독립을 위하여 온몸을 바치자고 결의하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독립운동에 전념하기로 결의하였다. 한백봉 선생은 우선 문중의 어른들께 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애국지사들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독립운동의 전개를 결의하고 돌아온 사실과 이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 절실함을 설파하였다. 문중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달라고 부탁하고는 당일부터 인근의 유지들과의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율동에서 유창석 선생, 한순회 선생, 남찬희 선생, 이연옥 선생, 방춘옥 선생 등과 낙생면의 남태희 선생, 대왕면의 이문헌 선생, 분당리의 서병홍 선생, 정자리의 이희춘 선생, 오폐면의 서정옥 선생 등, 많은 지역유지들과의 동참과 밀계가 이루어지자 율동에서 문중을 비롯한 참여인사들이 비밀리에 태극기를 그리는 한편으로는 자금모금을 하고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할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근본정신을 일깨우는데 총력을 경주 하였다. 우선은 시위 일정을 광주유지들과 약속한 날인 3월 27일 분당리 장날로 잡고 시위는 시작한날로부터 계속하기로 하였다. 돌마, 낙생, 대왕, 오폐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율동의 모란봉에서 3월 26일 오후부터 밤새워 봉화를 올려 많은 주민이 이를 신호로 3월 27일부터는 계속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약속하는 등의 치밀하게 3.1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고 3월 26일 오후에는 율동 주민 100여명을 인솔하고 뒷산인 모란봉에 올라가서 밤새워 봉화를 올리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외쳤고, 3월 27일 새벽이 되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 아침식사를 마치고는 분당리 장터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에 돌입하였다.

시위군중은 낙생 면민이 합세하였을 때에는 3,000여명의 대단위 시위대가 형성되어 성난 노도와 같이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날에는 판교 헌병주재소장인 “마쓰시마 이쓰지”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밤이 되자 준비한 횃불을 들고 만세를 계속하였으며 이튿날인 3월 28일에도 여전히 3,000명의 군중이 목이 터져라 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몰입하였다. 밤이 되어도 끈기 있고 열렬한 시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동조적으로 방관하던 일본 헌병대가 방향을 바꾸어 거칠게 진압하기 시작하여 한백봉 선생 등의 주도층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남한산성

헌병대와 판교주재소에서 온갖 악형과 고문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선장을 잃은 시위군중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음날인 3월 29일에도 산발적으로 시위는 계속되었으나 헌병대의 강력한 시위저지로 시위는 중단되었다.

헌병대에 잡혀간 많은 애국지사들은 온갖 악형을 받았으나 거의 다 풀려나왔고 오직 한백봉 선생만이 “내란 및 음모죄”로 9년 8개월의 형을 언도받고 상고에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1년 2개월 만에 영친왕 특사(特赦)로 방면되었다.

## 2. 성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 지도자들의 가계

조선시대의 성남지역은 한양과 접해있는 광주지역으로 수많은 명문가가 수백 년간의 전통을 지키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자녀를 주고받는 혼맥(婚脈)을 이루어 겹사돈이 얽히고설켜어 문밖을 나서면 남이 없는 친인척혈맥공동의 사회를 이루는 형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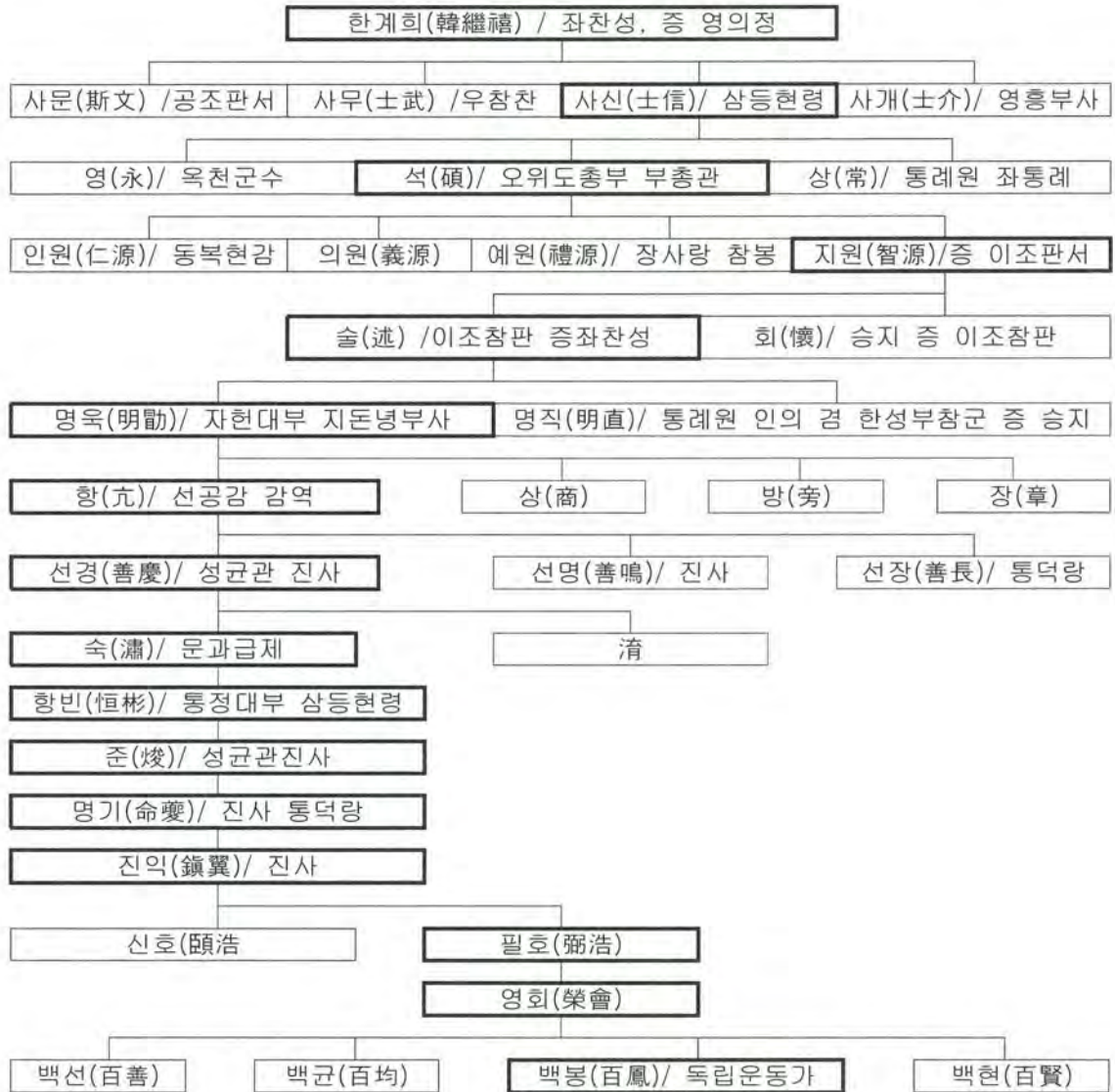
성남지역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 지도자들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 1) 한백봉(韓百鳳, 1881-1950)

본관(本貫)은 청주(淸州)이다. 휘(諱)는 백봉(百鳳)이고 자는 정의(聖儀)이며, 호는 송헌(松軒)과 벽송(碧松)으로도 불렸다.

조선 성종(成宗)때에 의정부 좌찬성을 지내고 증직(贈職)으로 의정부(議政府)영의정(領議政)을 제수(除授)받고 문정(文靖)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은 한계희(韓繼禧)의 15대손이다. 성남의 울동에서만 오백(五百)여년을 계속 살아온 토박이로 한학(漢學)에 통달한 대쪽 같은 선비이다.

### 한백봉 가계(韓百鳳 家系)



## 2) 한순회(韓順會, 1885-1961)

본관은 청주이다. 휘(諱)는 순회(順會)이고 호(號)는 제암(霽菴)이다. 문정공(文靖公) 계희(繼禧)의 14대손이다.

어려서 영우(永佑)에게 양자로 들어와 족속인 영창(永彰)에게서 한문을 수학(修學)하여 한학(漢學)에 통달한 선비이다. 천도교(天道教) 광주(廣州)교구장을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장로로서 맹활약하였다.

### 한순회 가계(韓順會 家系)



### 3) 남태희(南台熙, 1876-1930)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휘(諱)는 태희(泰熙)이고 자(字)는 00이고, 호(號)는 00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한학(漢學)에 통달하였으며 초대(初代) 낙생면장(樂生面長)과 광주유림(廣州儒林)의 회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일제(日帝)에 의하여 지명수배(指名手配)를 받기도 한 대쪽 같은 선비이다.

#### 남태희 가계(南台熙 家系)



위의 가계도(家系圖)에서 보듯이 한백봉(韓百鳳) 독립운동가와 한순회(韓順會) 독립운동가는 청주 한씨(淸州 韓氏)의 울동(栗洞) 입향조(入鄉祖)인 조선 초기의 문신(文臣)으로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을 지냈으며 증직(贈職)으로 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을 제수 받고 시호(諡號)가 문정(文靖)인 인물의 15대 후손으로서 대대로 문사(文士)를 배출(排出)한 양반가(兩班家) 출신이다. 남태희(南台熙) 독립운동가 역시 조선 초기 문신으로 병조의랑(兵曹議郎)을 지내고 증(贈)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을 제수받은 의령 남씨(宜寧 南氏) 입향조(入鄉祖)인 남경문(南景文)의 후손으로서 대대(代代)로 벼슬이 끊이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순흥부사(順興府使)를 지냈고, 아버지는 일곱 고을의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자신도 참봉(參奉)을 지냈고 초대(初代) 낙생면장(樂生面長)을 지낸 대쪽 같은 선비의 집안이었으므로 선비정신(精神)을 이어 받아 학문에 전념하여 한학전서(漢學全書)에 통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장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명문현벌가문(名門賢閥家門)의 전통을 이어 받은 세 분의 독립운동가의 가계(家系)는 당대 최고수준의 가계(家系)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한백봉(韓百鳳) 독립운동가의 12대조 한지원(韓智源)은 사가독서(賜家讀書)를 명(命)받은 문재(文才)로서 최초로 조광조(趙光祖)의 신원상소(伸冤上疏)를 천하명문(天下名文)으로 올렸으며, 시문(詩文)도 수천(數千)편을 썼다는 문장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1대조 한술(韓述), 한회(韓懷)는 형제 모두 문장가로서 시문(詩文)에 능통(能通)하여 수천편의 시문을 남겨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은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의 삼부자 문장가(三父子 文章家)인 삼소(三蘇 : 蘇純과 두 아들 蘇軾 蘇轍)에 견줄만한 인물들로 평가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형제가 임진왜란 호성원종공신(壬辰倭亂 扈聖願從功臣)에 녹권(錄券)되었다. 10대조 한명욱(韓明勛)도 문장이 출중(出衆)하여 울곡(栗谷) 이이(李 珣)와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무고소변상소문(誣告疎辯上疏文)은 천하명문으로 사림(士林)의 찬탄(讚嘆)을 받았으며 부친과 삼촌(三寸)의 시문(詩文)과 할아버지의 시문을 엮어 삼체집(三體集)을 만들기도 하였다. 11대조 이후 증조부 까지 진사(進士) 이상의 벼슬을 한 명문가의 가계를 이루고 있다.

한순회(韓順會) 독립운동가도 한백봉(韓百鳳) 애국지사(愛國志士) 가계와

똑같이 내려오다가 한순회(韓順會) 애국지사의 7대조인 통덕랑(通德郎) 한선장(韓善長) 부터 갈리었으나 항상 벼슬과 문맥(文脈)이 끊이지 않은 명문가(名文家)이다.

남태희(南台熙) 독립운동가는 의령 남씨 족보(族譜)에는 참봉(參奉)벼슬을 지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府署)인지는 기록이 없다. 입향조(入鄉祖)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남경문(南景文)인데 병조의랑(兵曹議郎)을 지내고 증(贈)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을 제수 받고, 충경(忠敬) 시호(諡號)를 받은 인물(人物)이다. 대대로 벼슬이 끊이지 않았는데 11대조 남정유(南廷蕤)와 10대조 남 철(南 澈) 부자는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순절(殉節)하여 부자 정려(父子 旌閭)를 받은 충절명문가(忠節名門家)이다. 아버지 남정린(南廷麟)은 일곱 고을의 현령을 지냈으며 할아버지 남면교(南勉教)는 순흥부사(順興府使)를 지냈고, 고조부(高祖父) 유노(有老)는 진사를 지낸 명가이다.

위와 같이 세 분 독립운동가 분들 가계의 주종(主從)을 이루는 양반명가(兩班名家)의 대쪽같이 곧고 날카로운 선비정신(精神)의 전통이 대(代)를 잇는 흐름이 끊긴 오늘날에는 양반명가의 숭고(崇高)한 선비정신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 시대변화에 따르는 나날이 새롭고 국제화된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애국정신(愛國精神)의 창출(創出)로 수많은 애국청년(愛國靑年)들이 출현하여 새로운 명가의 가계를 이루는 전통이 기다려지는 시기이다.

### 3. 지도자(指導者)들의 사상(思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분의 독립운동가의 가계는 전통적인 반가(班家)의 충효사상(忠孝思想)과 뛰어난 절충보국(折衷報國)의 사류정신(士類精神)이 전(傳)해오고 있던 조선최고의 명문양반가문(名門兩班家門)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민족수난(民族受難)의 치욕적인 망국(亡國)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자존(民族自存)의 독립정신(獨立精神)이 다시 불타오르며,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와 일제치하(日帝治下)에 신음하는 백성(百姓)들에게 희망의 등대(燈臺)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自身)을 불살라야 한다는 사명감(使命感)이 일깨워지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고 본다. 조선의 선비정신은 자연의 섭리(攝理) 중에 제일로 천리숭앙(天理崇仰) 사상이었는데,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도지상(天道之常)이라 하여 천리(天理)로 숭상(崇尚)하였고, 국가경영에 필요한 충효덕례(忠孝德禮)를 외형상의 최고본분(最高本分)으로 여기었다. 사회적으로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인성지강(人性之剛)이라 하여 인간이 꼭 지켜야 할 덕목(德目)으로 꼽고 실천하였는데, 거기에 신(信)을 더하여 오상(五常)이라는 덕목(德目)으로 행동에 모범(模範)을 보이는 것이 선비사상(思想) 중에 상례(上例)였다. 이러한 선비사상의 흐름은 자기보다는 국가우선(國家于先)의 선충정신(先忠精神)으로 물들어 양반가(兩班家)에서 사상의 주류(主流)를 이루었는데 세 분의 독립운동가 모두가 이러한 범주(範疇)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한백봉(韓百鳳) 독립운동가는 기미년 3.1독립만세 사건(獨立萬歲事件)이후에도 농민운동(農民運動)과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에 적극 참여하여 민중(民衆)을 적극적으로 계도(啓導)하였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 광주지회(廣州支會)를 창립(創立)할 당시에 돌마면(突馬面) 외에도 광주유림(廣州儒林)의 지도자급(指導者級) 유지(有志)들이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동지(同志)들을 설득구합(說得糾合)하는 등 맹활약(猛活躍)하였다. 그리고는 간사(幹事)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광주(廣州), 용인(龍仁) 유림(儒林)과 문중(門中)의 간부(幹部)와 유지들에게도 민족자존(民族自存)의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한백봉(韓百鳳) 독립운동가는 모든 반가(班家)의 사상(思想)과 같은 철저(徹底)한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이다. 개화기(改化期)에 개화일변도(改化一邊倒)에 직면(直面)한 현실에서도 제민구휼(濟民救恤)의 실사구시 정신(實事求是精神)과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민본사상(民本思想)과 실용주의사상(實用主義思想)을 실천한 분이다.

한순회(韓順會) 독립운동가는 3.1운동 직후인 4월에는 천도교(天道敎) 성미사건(誠米事件)으로 판교 헌병대 주재소(板橋憲兵隊駐在所)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 광주지회(廣州支會) 창립시에는 한백봉(韓百鳳), 한진회(韓辰會), 한용회(韓龍會), 한백호(韓百鎬)등의 문중인(門中

人)들과 적극적으로 동지규합에 나서 돌마면(突馬面)의 유지들이 타(他)지역 유지들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유도하여 초대지회장(初代支會長)을 맡아 맹활약하였다. 그 후에는 천도교(天道敎)에서 더욱 포교활동(布敎活動)에 정진(精進)하여 천도교 장로(天道敎長老)로서 강력하고 포용력있는 지도자로서 평판(評判)이 높아 교령후보군(敎領候補群)에 까지 올랐었다. 철저한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이며 천도교에서는 정도포교(正道布敎)와 실용주의사상(實用主義思想)에 기본을 둔 이론가(理論家)로 정평(正評)이 나있는 분이다.

남태희(南台熙) 독립운동가는 광주유림(廣州儒林)의 회장을 맡아 유림(儒林)의 위상(位相)을 높이는데 솔선(率先)하여 매사에 앞장섰으며, 3.1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 때에도 낙생면(樂生面) 유림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참여시켰다. 3.1운동 이후에도 적극적인 민족자존(民族自存)의 독립운동(獨立運動)에 앞장서다가 일제(日帝)에 의하여 지명수배(指名手配)가 되어 부득이 잠적(潛跡)하여 서울로 들어가 비밀리에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시었다. 양반가문에서 전수받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이며 민본사상(民本思想)과 실용주의사상(實用主義思想)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한 분이다.

이러한 선열(先烈)들의 정신세계(精神世界)인 사상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세 분은 선대(先代)로부터 대쪽 같은 선비정신을 모태(母胎)로 진화된 충효덕례(忠孝德禮)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이 가미되어 아무도 흉내 내거나 감히 따르기 힘든 출중한 사대부정신(士大夫精神)이 형성되어 그 전통에서 창출되어 흘러나오는 애국애족(愛國愛族)의 국가와 민족사랑 사상과 민족자존의 독립사상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분들은 실용주의 사상의 실천을 하는 모범을 보인 분들이다. 그러나 애석(哀惜)하게도 이러한 민족자존독립사상과 실용주의사상은 오늘날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움 속에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우리 민족만이 지니는 특수성있는 새로운 사상의 출현이 기다려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사상의 출현만이 수천년 길이 전해온 민족자존(民族自存)의 독립사상(獨立思想)의 총체적 소멸(總體的消滅)로 인(因)하여 쇠퇴일로(衰頹一路)에 있는 실용주의사상이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保障)하는 민족보존(民族保存)의 시대사상으로 정립되어야만 후손만대(後孫萬代)에 길이 보전(保全)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자존 독립사상(民族自存 獨立

思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수립 60주년(週年)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을 아로새기고 국제화로 변화무쌍(變化無雙)하고 국경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한민족사상(韓民族思想)의 창출을 위해 깊이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5. 2009년 「성남지역 독립운동 학술토론회」

일시 : 2009년 8월 15일(토) 16:00~

장소 : 율동공원(청주한씨 문정공파 재실)

### 접 수 (15:30~16:00)

### 제1부 개회식 (16:00~16:15)

개 회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개 회 사 김대진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인사말씀 한춘섭 / 성남문화원장  
내빈축사

사 회 : 김정진 /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 제2부 학술토론회 (16:20~18:00)

좌 장 : 문수진 / 신구대학 교수·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16:20~16:30) 기조발표 : 한춘섭 / 성남문화원장

- (16:30~16:50) 제1주제 :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동역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토론자 : 박만장 / 前 수내고 교장
- (16:50~17:10) 제2주제 : 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윤중준 /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토론자 : 남기형 / 광복회 이사

### 휴 식 (17:10~17:20)

- (17:20~17:40) 제3주제 :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서승갑 / 동서울대학 교수)  
\*토론자 : 이수철 /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17:40~18:00) 제4주제 : 성남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강진갑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자 : 조남두 / 신구대학 교수

### 종합토론 및 질의 (18:00~18:20)

### 폐회 (18:20)

[개회사]

##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독립운동 정신



김 대 진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장

문화가족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제64주년을 맞이한 오늘, 성남 만세운동의 성지인 이곳에서 우리 고장 성남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3·1운동 90주년이 되는 해로써,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관심도가 높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1일을 전후하여 천도교나 동북아역사재단 등에서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도 1919년 3월에 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등 애국지사들의 지도하에 수많은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독립만세의 함성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국지사들과 무명의 조상들이 일본 경찰과 헌병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이 지역입니다. 것처럼 피땀 흘려 나라를 되찾은 역사적 경축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는 그 동안 성남의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여 왔고, 현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께서 기념사업회 초대회장을 맡으셨을 때에는 율동공원 내에 만세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각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성남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아 나가면서 앞으로의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료의 축적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오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성남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승하여야 하며, 기념관의 건립이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를 주관하는 성남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기초발표를 해주실 한춘섭 원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공사간 다망한 가운데에도 이 토론회를 참관하기 위해 와 주신 시민 여러분, 문화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방향 모색



한 춘 섭  
성남문화원장

성남시의 문화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광복절 64주년의 뜻 깊은 날을 맞이한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오전 경축식은 그 의미가 깊습니다.  
90년 전, 이곳 울동공원은 '대한독립만세'의 비폭력 독립투쟁이 시작되었던 성지입니다. 뜻 깊은 날, 뜻 깊은 장소에서 학술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우리 고장 성남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었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의 결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성남문화원에서는 <성남3·1운동 연구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우리 고장의 3·1운동에 관한 문헌자료와 기념사업 자료를 정리하여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돌마면 울리(울동공원 일대)에서 한백봉·한순회, 낙생면에서 남태희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인물 기록, 재판 기록 등의 역사자료 및 기념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는 1998년 11월 3일 (가칭) '울동3·1독립만세 운동기념사업회'로 출범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하여 왔습니다. 기념사업 초창기에는 김대진 현 회장님과 독립운동가 한백봉 선생의 후손인 한동역, 그리고 초대회장을 맡았던 본인 등 몇몇 인사들의 노력으로 기념사업이 시작되었고, 기념탑의 건립 등 점차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는 본인이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의 과제'를 기조발표하며, 한동역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이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윤종준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서승갑 동서울대 교수가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강진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성남지역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성남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번영된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 전적으로 우리 애국선열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 애국정신을 우리는 계승해야 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잘 사는 나라, 주권이 확고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 의미를 찾아 나가는 한편으로 이를 전승하기 위한 교육, 체험학습, 기념관의 건립 및 독립운동을 주제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연구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후원해 준 성남시와 경기문화재단 및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제 4 편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자료

여 백

## 제4편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자료

### 1.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정 관

###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는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는 기미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에 온 마을이 참여하여 돌마·낙생면민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던 선열들의 덕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켜 국가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선열 추모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1. 기미독립 만세운동 자료수집 및 보존사업  
2. 선열들의 각종 추모사업  
3. 선열 후손들의 복지사업  
4. 기타 본회 사업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5. 지역 고유의 문화사업

제 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성남시내에 둔다.

제 5조 (조직)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            |
|------------|------------|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명 |
| 3. 감사 2인   | 4. 이사 약간명  |
| 5. 사무총장 1인 | 6. 고문 약간명  |

### 제 2장 회 원

제 6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성남시 출신이거나 거주자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이로서 특별한 경우, 회장단의 추천 및

심의를 의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제 7조 (회원명부) 본 회의 회원은 명부를 작성·비치한다.

제 8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 가. 의결권      나. 선거 및 피선거권      다. 사업 참여권  
나. 수혜권      마. 기타 발생하는 모든 권리

2. 의무

- 가. 회칙 준수      나. 회비 납부      다. 품위 유지  
라. 정보 기밀의 유지

### 제 3장                      총 회

제 9조 (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 (의결) 1.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결사항)

1. 회칙의 변경      2.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임원 선출      5. 기타 사업회 업무

제12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13조 (임원 임기) 모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한 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4장 예산 및 결산

제1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재정) 본 회의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사업 후원금)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재산) 회장은 본 회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매 회계연도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결로 확정하고 제반 목적사업을 추진한다.
2.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와 함께 총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제19조 (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일반사업의 수입·지출에 의한다.
2. 특별회계는 기업 특별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 5장 포상 및 징계

제20조 (포상·징계의 종류) 일체의 포상과 징계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과 감사장으로 나눈다.
2.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 견책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회칙의 시행일은 200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연혁

- 1998. 11. 3 : (가칭) ‘울동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조직(한백엄, 한동역)
- 1999. 2. 10 : ‘분당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로 명칭변경
- 1999. 3. 1 : 성남문화원 주최 제80주년 3·1절 추모식 거행
  - 장소 : 울동 3·1운동 발상지
  - 남선우 원장, 한춘섭 향토문화연구소장, 한동역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2000. 3. 1 : 제81주년 3·1절 추모식(연례행사로 정착)
  - 후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 성남교육청
- 2000. 8. 15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 초대 한춘섭 회장 취임
  - 장소 : 성남문화의집 3층 강당
- 2001. 1. 16 : 제1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본회 회의실
  - 안건 : 제82주년 3·1절 기념행사에 관한 건
- 2001. 4. 17. 19:00 : 제2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본회 회의실
  - 안건 : 8월 15일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6. 19. 19:00 : 제3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성남문화의집
  - 안건 : 8.15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7. 26. 19:00 : 제4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성남문화의집
  - 안건 : 8.15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8. 28. 19:00 : 제5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성남문화센터
  - 안건 : 9월 4일 세미나 개최 최종 점검
- 2001. 9. 4 : 광복절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 장소 : 성남문화원 강당
- 2002. 2. 5. 17:00 : 제6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성남문화의집
  - 안건 : 제83주년 3·1독립만세운동 추념행사 준비의 건
- 2002. 4. 12 : 제7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성남문화의집
  - 안건 : 3·1운동 83주년 행사 결산 및 8월 세미나 개최의 건
- 2002. 10. 5 : 성남3·1운동 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 청원서 제출
- 2002. 12. 4 : 제8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성남문화의집
  - 안건 : 제84주년 3·1절 행사 준비의 건
- 2003. 2. 21. 17:00 : 제9차 이사회 개최

- 장소 : 성남문화회관 1층 소회의실  
 안건 : 제84주년 3·1독립만세운동 추모행사 준비의 건
- 2003. 3. 1 : 제84주년 3·1절 추모식 및 3행시 짓기 행사
- 2003. 4. 10 : 기념탑 건립 설계도 성남시에 제출
- 2003. 6. 9. 19:00 : 제10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성남문화의집 1층 소회의실  
 안건 : 3·1운동 84주년 추모행사 반성의 건, 기타 부의 안건
- 2003. 8. 15. 11:30 : 제11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율동공원 내 무교동 낙지집  
 안건 : 3·1운동 주도 선열 묘전 현화 현작례에 대한 평가
- 2003. 11.17 : “율동 3·1독립만세 운동의 실태” 세미나  
 발표 : 한동억 사무총장  
 긴급제언 : “성남3·1운동기념사업” 제안(한춘섭 회장)  
 장소 : 분당문화정보센터
- 2003. 12.20 : 『성남지역 3·1운동 자료집』 발간
- 2004. 2. 10. : 제12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성남문화원 소회의실  
 안건 : 제85주년 3·1절 추모식 준비의 건
- 2005. 2. 23. 18:00 : 제13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 : 제86주년 3·1운동 추모행사의 건 및 기념탑 건립추진의 건  
 “기념탑 건립 사업비 6억원 지원 결정”
- 2005. 6. 23. 16:00 : 제14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 : 성남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의 건
- 2005. 9. 9 : 기념탑 작품 공모 (주)소토 <태극의 울림-wave>선정
- 2006. 2. 20. 16:00 : 제15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 : 성남3·1운동 기념탑 준공식과 추모식 준비의 건
- 2006. 3. 1 :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제막식 및 87주년 추념식 거행  
 율동 만세운동 발상지에 6억원의 예산으로 기념탑 건립
- 2007. 2. 27. 17:00 : 임시총회  
 장소 : 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정관일부개정 및 임원선출 : 김대진 제2대 회장 선출,  
 상임부회장 한동억  
 사무총장 윤종준
- 2007. 3. 1 : 제88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거행  
 장소 : 성남3·1운동 기념탑 광장
- 2007. 4. 23 : 제2대 김대진 회장 취임  
 장소 : 성남문화원 강당
- 2007. 11. 16 : 독립운동가 한백봉 선생 묘비 제막식

장소 : 한백봉 선생 묘소

○2008. 3. 1 : 제89주년 성남 3·1운동 기념식 거행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학술토론회 개최

장소 : 성남문화원 강당

발표 :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서승갑(경원대 교수, 역사학)

“성남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  
한동억(성남문화원 이사, 향토사학자)

○2009. 3·1 : 제90주년 성남3·1운동 기념식 거행

○2009. 8. 15 :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학술토론회 개최

## 2. 성남3·1운동 기념식

○1999년 - 80주년 3·1절 기념식 행사(기사)

- 80주년

# 3·1절 기념식

- ▶ 때 : 1999. 3. 1(월) 오전 11시 - 12시
- ▶ 곳 : 분당구 율동공원 공원관리소 앞
- ▶ 주최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 후원 - 성남시
- ▶ 협찬 - 청주한씨 청년공과 증친회

### ◇기념식 순서◇

사 회 : 이관우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 개 식 사
- 애 국 가
- 목 념 념
- 독립선언서 낭독 :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 기 념 사 : 김병량 성남시장
- 만세사건 회고 : 한춘섭 향토문화연구소장
- 3·1절 노래 제창
- 만 세 삼 창 : 한백효 양명중학교 초대 교장
- 폐 식

### <삼일절 노래>

기미년 3월 1일 경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 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 \*행사집행위원회

대 회 장 :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기 획 위 원: 한춘섭 향토문화연구소장  
 흥 보 위 원: 모동희 분당신문편집국장  
 진 행 위 원: 이수용 성남문화원 이사  
 자 료 위 원: 한동익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성남지역 3·1운동의 유래(요약)

둘다, 학생지역에서의 기미독립선운동은 울리에 한순회선생과 한백봉선생 그리고 낙성면장을 지낸 남태회선생의 주도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은 원주민들 사이에는 가슴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한순회선생은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 계시고, 한백봉선생은 광주향교의 간부이셨으므로 누구보다 폭 넓은 활동을 하실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은 경술국치를 읊본으로 지내시던 중 1919년 2월 고향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이어 순병회, 권병당, 오화영선생 등을 만나 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시며 기미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시고, 광주 지역에서 상경한 유지들과 광주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울리로 돌아오시는 즉시 면내의 유지들과 상의하여 낙성에서도 함께 봉기할 것을 약속하고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3월 26일 저녁때, 울리주민 50여명과 둘다, 낙성, 대왕은 물론 중부, 중대, 언주면 일대와 서울에서도 모략할 수 있는 모란봉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 시위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습니다.

만세 당일인 27일에는 아침부터 수백명 군중이 분당리 장터에 집결하여 오전 10시경 독립선언서 낭독 후, 태극기를 앞세우고 한백봉선생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시위에 들어가 면내의 각 리를 순회하는 동안 시위군중은 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시위는 늦은 밤까지 계속 되었으며 3월 28일 아침부터 계속된 시위대는 둘다, 낙성 면민과 대왕면민 그리고 오폘면민 일부까지 합세하여 30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헌병대의 총, 칼 앞에 한백봉선생을 비롯한 수십 명이 체포되고 태극기를 압수당하고 마구잡이로 구타당하게 되자 시위군중은 분노의 치를 떨면서도 해산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29일에도 산발적인 시위는 계속되었으나 일본 헌병들의 적지로 결국은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헌병에 체포당한 수많은 우등지사들은 관교 순사주재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으며, 남한산성 헌병대에 이송되어 형언 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처절한 절규에 찬 소리는 "대한독립만세"였습니다.

한백봉 선생은 죄를 묻는 일본헌병에게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기인하여 자주독립을 주장함은 죄가 아니다"라며 항변하였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모두 방면하라"고 하시어 3 - 4일만에 거의 방면되었으나 울리의 남찬회선생과 방춘옥선생은 한사코 "누구도 지지도 받은 바 없고, 내 나라 독립을 외치는데 차진 죄서 죄지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어 더 한층 가혹한 고문을 당하시고 빈사상태에서 피땀겨 방면되었습니다. 한백봉선생은 상고의 상고를 거듭하시며 무죄임을 주장하였으나, 주동자로 1년의 유교를 치르셨습니다. 한편 일제는 재판에서부터 동원된 시위리중의 숫자와 시위리자를 축소, 주장 또는 은폐하여 주동자들의 실형을 최소화하는 등 대외적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이 미미한 것으로 홍보하는 등의 포괄한 유희정책을 펼쳐 보이는 듯 하였으나, 이 때부터 조선의 대한 계획된 국민관심결치는 더욱 가혹하고 참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후, 한순회선생과 한백봉선생은 울리의 한순회선생, 한백회선생과 동부면의 이대면선생, 유인목선생, 경안면의 박기환선생 등과의 주도로 신간회 광주지회를 창립하고, 계속 독립운동에 전진하였습니다. 이 지역 분들의 이러한 충열의 정신과 정의로운 기개는 영광산 정기로 인한 이 지역 정서와 문화에 기인한 다 하셨습니다.

영광산 각락에서 태어나고 장대신 영인 현사들이 수 없이 많으나, 그 중 영광산 봉우리에선 세종 때에 영 계상이셨고, 영백리군 유명한 명사상 선생의 묘소가 있고 서쪽기슭인 울동에는 석조와 상층 조의 당내 최고의 참문과 청백리의 표상이셨던 한계회선생과 그 후손들의 묘소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려말의 충신 김자수선생이, 북쪽으로는 역시 고려말의 충신인신 조 건선생의 묘소가 있어 충절과 청백의 기류와 학문의 집대성을 이루었다는 정신이 도도히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광렬의 산화하신 이경률장군의 묘소가 수녀동역, 전란중에도 산조 임금을 끝까지 보필하신 공으로 호성 원종공신 반열에 오르신 한 술, 한 회 형제분의 절충 보국하신 정신과 세종 초에 장원급제로 그 실력을 세상에 알리셨던 안 구선생, 그리고 증국 소저 삼부자보다 탁월한 문장대가를 이루신 한지원, 한 술, 한 회 삼부자 본의 학문의 집대성 등 그 외에도 수 없이 많은 선현들이 가르침이, 이 땅위에 지금도 소리내어 호르고 있기에, 이 곳 울리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둘다, 낙성 만세운동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열들의 위대한 충절의 정신과 호국의 사상으로 이루어진 기미독립만세 운동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선열들께서 남기신 업적과 유산을 받들고 몸담쳐 이루하신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오늘의 난국을 헤쳐 나가는 슬기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 - 81주년 3·1절 기념식 행사(기념사, 회고, 공문서, 자료기사)

## 제81주년, 3·1절 追慕式

- ▣ 때 : 2000년 3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
- ▣ 곳 : 분당구 올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

- 주최 - 성남 문화원
- 주관 - (부설)향토문화연구소
- 후원 - 성남시, 경기도 성남교육청
- 협찬 - 리빙타임즈 / 내일신문사 / 성남유선방송사  
분당 3·1만세 추모사업회(가칭)  
(주)진로 성남지점 / 천은경사



한백봉 독립유공자



한순희 독립유공자



신간회 광주지회 결성 2주년 기념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재현 작곡

Andante

기 미년 삼 일 일 일 정 - 오 티 지 자 밀 황 갑 온  
내 한 독립 만 세 대 각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라 나 요  
이 날 은 우리 의 요 생 명 이 요 고 - 훈 이 다 한 강 활  
다 시 초 르 고 백 두 산 - 늘 있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집 이 밧 내 가

0957-44011

氏	名	年 齡	生 日	指 紋 番 號
韓	百 鳳	身長	5尺 4寸 分	4875 27441
		特 記		

### ◆ **울동 3.1 만세운동 개요** ◆

#### ◇ **취 지**

제 81주년 3.1절을 맞게되는 올 해의 3월 1일에 '인도주의에 입각해 사회를 개조하여 약소민족이 독립하자고 했던 거룩한 3.1민족정신' 을 후대앞에 고취, 계승시켜 나가고자 당시 광주군내 돌마면, 낙생면, 중부면 일대의 주민 1천여 명이 기미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성남시 독립운동의 발발지인 현 분당구 울동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혼을 추모식으로 더욱 선양코자 함.

#### ◇ **기본방침**

- ◎ 성남지역의 독립만세 운동 발상지인 울동 현장에서 추모행사 개최.
- ◎ 만세사건의 회고와 설명으로 청소년 교육 실시.
- ◎ 이 추모식을 계기로 우리지역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연구와 추모행사 지속.

#### ◇ **만세사건 내용 발췌**

올해가 81년전 3.1절의 역사적 만세운동이 당시, 조선땅 나라 안팎에서 일어났던 그 날! 성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도 현 울동 자연공원에서 우리 고장출신 독립유공자 한백봉(1881~1950), 한순회(1885~1961) 등에 의해 봉화를 올리고, 손에손에 태극기를 든 채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 만세” 소리가 농촌마을을 뒤흔으며 일제 탄압의 억울함을 온 세상에 규탄, 호소하였다.

작년에 처음으로 울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에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원(부설)의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3.1절 추모행사를 가졌다.

최근 수년동안 찾아지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1919년도의 3월 만세사건은 이미 나라안과 나라 밖에서 연계되어 수개월 동안 일제의 수탈정책을 인도주의에 입각한 만민평등 대원칙에 의하여 적의 심장이 서늘하도록 만세소리를 높인 저항정신의 큰 사건이었다.

81년전 그 날의 한국정세는 주권이 없는 망국민 노예생활의 출발시기였다. 일본 유학생들이 적의 심장부 동경에서 1919년 2월 8일에 집회를 통해 정당한 조선인의 의견을 선언서로 주창하고, 만세소리 외침으로 내 나라를 되찾음에 주저치 않으며 의연히 일어섰다.

이같은 소식이 나라안에 알려지면서 급기야는 각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 민중들이 방방곡곡에서 연쇄적으로 구국운동에 너도나도 앞장 섰었다.

이곳 성남시 일원에서도 당시, 경기도 광주군 관할의 중부면, 돌마면, 대왕면, 낙생면 등 4개 면민들이 곧바로 독립정신이 남보다 앞선 한백봉(당시 39세)과 한순회(당시 35세) 그리고, 낙생면장을 지낸 남태희 몇 사람들에 의해 만세사건은 3월 27일 새벽부터 3일동안 각 면민들 합세로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성남시 안에서 81년전에 있었던 작지 않았던 만세사건을 그냥 파묻어 두고 말 수는 없으며, 역사의 후손된 우리야말로 자못, 죄스러움조차 깨달으며 그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민족과 조국의 활기찬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개척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로 비운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한순회선생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고, 한백봉선생은 광주향교의 간부로서 그 누구보다 폭넓은 지역 활동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경술 국치일' 의 울분을 지닌 채 1919년 3월,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손병희, 오화영, 권병덕 같은 민족지도자들을 만나 조선독립 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그해 3.1 만세사건에 몸소 참여하였다. 드디어,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택하고 그날 새벽 울리주민 50여 명과 같이 영장산 계곡의 모란봉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리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분당리 장터에서 오전 10시경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 선창행렬을 앞세운 만세시위 사건은 일어났다고 기록으로 전한다.

이날부터 연속 3일동안 시위대 군중들이 돌마면에서 낙생면과 대왕면민 그리고, 중부면과 오폐면민 일부가 가세하자 무려, 1천여 명의 대집회 군중들로 늘어난 만세사건이었다.



## 성남 지역에서의 3·1 독립 만세 운동

전보삼(만해기념관 관장, 신구대 교수)

오늘 3월 1일은 일제 강제 점령 하인 1919년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8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뜻깊게 보내고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렸던 그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요 책무이기도 하다.

3·1 독립 만세운동은 민족의 자존과 조선 독립의 정신을 세계 만방에 고취시킨 민족사의 쾌거이자 조선 민중의 승리의 날이다. 약소 민족의 해방 투쟁의 첫 햇불을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서 제일 먼저 들었고, 중국(5·4 운동) 인도가 그 뒤를 따랐다는 사실이다.

3·1 독립 만세 운동의 민족대표 29인이 태화관에 최후 집합하였을 때 그 집주인 안순환은 결사 반대하였지만, “두려우면 신고하라”고 일러주면서 “기쁘다! 더욱 힘쓰자.” 라는 짙막한 한마디 말 즉 나라 없는 백성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 나라, 내조국에서 죽을 수 있어 기쁘다고 당당히 말하는 자세를 접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내나라 내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처연한 선혈들의 모습이 어찌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 정신이 아닙니까.

그 정신 그 이상을 본받아 우리 성남지역에서는 광주군청 소재지였던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3·1 만세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주간에는 지형을 이용한 산악전을, 야간에는 어둠을 이용하여 시가전을 벌리면서 조선인의 끈질긴 집념을 보였다. 그 후 성남 지역 주관으로 3·1 독립 만세시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나갔다.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기하여 울동 주민들이 새벽녘에 영장실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예고하는 봉화를 올리면서 성남 지역의 3·1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는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분당리 장터에서 오전 10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남태희(낙생면장), 한백봉(광주향교의 간부), 한승희(천도교 광주교구장) 등이 앞장을 서고 광주군 중부면, 돌마면, 대왕면, 낙생면 등 4개 면민들이 참가하여 주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조선 독립에 대한 만세 시위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이날부터 3일 동안 치열하게 독립만세를 외치던 시위대 군중들이 돌마면에서 낙생면으로 그리고 중부면, 오포면민들이 가세하여 군중은 무려 1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총독부 헌병대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없이 당당히 맞섰다. 죽음을 초월한 용맹이 분출되는 시위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태극기 압수와 주동자 처벌이라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조선인으로 조선인의 길을 갔을 뿐임을 당당히 밝히는 자세는 너무도 의연하였다. 취조를 하는 총독부 헌병에게 “조선인이 조선을 위하여 독립 운동을 하는 것은 백번 말해도 마땅한 노릇인데 감히 일본인 너희들이 무슨 재판이나 하고 횡남하면서, 바꾸어 생각해 보아라 조선인이 일본인 너희들을 재판하려 한다면 너희들은 그 재판에 응하겠는가?” 라고 항변하였다.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서도 신간회 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에도 앞장을 서 민족의 자존심을 굳건하게 살려 나간 뿌리 깊은 전통이 숨쉬는 성남의 3·1 독립 만세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옳은 일을 위하여, 정의의 위하여 생명마저도 내던질 수 있는 용맹이 넘쳐나는 그 기상, 그 정신을 후손된 우리가 받들고 가꾸고자 함은 당연한 우리의 책무이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 또한 그 정신으로 충만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전통을 계승 발전 시켜 성남의 든든한 문화적 전통이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 가꾸어 우리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하여 더한층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자.

# 第 82 周年 城南 3·1 獨立運動 紀念式

- 일시 : 2001. 3. 1(목) 11:00~12:20
- 장소 : 율동공원 관리사무소 광장



- 주 최 : 성남문화원 (부설)망토문화연구소
- 주 관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후 원 : 성남시·성남시의회·경기도성남교육청

## 삼일절 노래

Andante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 풀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 감찰  
다시호르고 백두산-높았다 선 일하 이 나라를  
보소 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 자

○2002년 - 83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추념식  
(행사식순, 추념사, 회고사, 기사)

### 第 83 周年 城南 3·1獨立運動 追念式

■ 일시 : 2002. 3. 1 (금) 11:00 - 12:30  
■ 장소 : 을동공원 관리사무소 광장



◇ 주최 : 성남문화원  
◇ 주관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후원 : 성남시·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청·(주)리빙타임즈



###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연 작곡

Andante

기미년 삼월일일 정- 오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 열하 이 나라를  
보소 서 동포야 이 날을 길 이 빛내 자

# 추 념 사

성남문화원장 남 선 우

존경하는 시민, 학생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영광의 민족사를 개척해 가는 벽찬 보람속에 기미독립운동 여든 세 번째 돌을 맞았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외치며 식민통치의 억압에 맨 주먹으로 분연히 일어섰던 그 당시 겨레의 모습을 생각하며, 애국선열들에게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1910년 경술국치라고 일컫는 한일합방에 이어 1919년 갑자기 고종황제의 승하하심은 쌓이고 쌓였던 일제의 만행에 짓눌려온 우리 2천만 민족의 분노를 폭발케 하였으며, 마침내 삼천리 강토 곳곳에서 독립을 외치는 만세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켰던 것입니다. 일제의 총칼앞에 선열들은 빈부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에 모진 고초와 목숨마저 홀연히 던지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구국의 대열에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3.1 만세운동은 자유와 민주에 대한 단호한 결의로 독립투쟁에 나서 조국의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곳 울동공원이 여든 세 해 전 3월 26일부터 3일간 한백봉, 한순회, 낙생면장 남태희 등이 주동이 되어 1천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원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시민 모두의 수치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새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정책이 현대적 역사 재창조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거니는 사랑받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여든 세 번째 3.1절을 맞아 다시 한 번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무엇보다 변화하고 개척하고 민족의 앞날을 창조하려는 역사 창조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되새기어, 이제는 우리 시민이 뜻을 모아 이 울동공원 안에 격조 높은 우리 고장 애국운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기념탑과 역사자료관인 기념관 건립을 하여야 할 때라고 보아 강조하면서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 고 사

성남시장 김 병 량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독립유공자 내빈, 학생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남 3.1독립운동을 추념하고 선열들의 뜻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3년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일제의 탄압에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고하는 독립만세운동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하였고, 우리 고장 성남에서도 울리 출신인 한순회 선생과 낙생면장 남태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주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독립만세 시위를 하며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였던 것으로, 오늘 이 자리는 그 숭고한 애국지사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일본 헌병에 체포당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판교 주재소와 남한산성 헌병대에 이송되어 형언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처절하고 절규에 찬 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정의로운 기개와 인도주의에 기인한 외침은 우리 겨레가 나아갈 목표와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분변의 이상을 밝힌 것이라 하겠으며, 우리 민족이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 남서울공원 묘지에 있는 박태현 선생의 묘소를 유가족과 음악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참배하고 왔습니다만, 3.1절 노래를 작곡하신 박태현 선생님의 묘소가 바로 성남에 있고, 많은 애국지사의 묘소가 있는 우리 고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3.1 독립정신이 깃든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선열들의 충절과 애국사상으로 이루어진 기미독립만세운동의 8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의 추념행사가 이곳에 사는 시민과 앞으로 우리 고장을 이끌어갈 새 세대에 게 우리가 사는 고장 내력을 일깨워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숭고한 3.1정신을 이어 받아 다시 한번 한민족의 단합된 힘을, 그리고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주최하신 남선우 문화원장님과 한춘섭 성남 3.1운동 기념사업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추념식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시민, 학생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 고 사

성남시의회 의장 박 용 두

친애하는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83년전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및 시민 여러분! 오늘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에 민족정기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성남 지역의 3.1독립만세 발상지인 당시, 돌마면 울리 이곳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시작하여 성남지역에 확산되었던 3.1만세 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순국선열의 거룩하신 영령앞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아울러 숭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명예와 긍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따뜻한 위로와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제는 36년간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을 무참히 짓밟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자 온갖 잔악한 만행을 자행하였으나 우리의 선열들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국권회복과 민족의 독립을 외치곤 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을 다 바쳐 투쟁하여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외침과 전란의 위기에 처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온 겨레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후의 순간까지 항전하며 나라를 지켰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선열들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깊이 되새기면서 이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일본은 수구세력의 영향으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는 말아야 하겠으며, 우리의 암울하고 굴절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된 조국을 만드는 것이 위대한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념식을 통해 고이 잠드신 영령들 앞에 민족의 융성과 영원한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든 민족적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뜻깊은 추념식을 마련하신 성남문화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 84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추념식  
(식순, 초청장, 3행시 짓기, 원고지, 기사)

## 第 84 周年 城南 3·1獨立運動 追念式

■ 일시 : 2003. 3. 1 (토) 11:00 ~ 12:00  
■ 장소 : 을동공원 관리사무소 광장



※3행시 짓기 행사 (09:00~10:30)

- ◇ 주최 : 성남문화원
- ◇ 주관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 후원 : 성남시·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청·(주)아름방송 네트워크



###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민 작곡

Andante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 감물  
다시흐르고 백두산-높았다 선 열하 이 나라를  
보소 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 회 고 사

성남시의회 의장 김 상 현

친애하는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84년전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및 시민 여러분! 오늘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에 민족정기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성남 지역의 3.1독립만세 발상지인 당시, 돌마면 울리 이곳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시작하여 성남지역에 확산되었던 3.1만세 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순국선열의 거룩하신 영령앞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아울러 숱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명예와 긍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따뜻한 위로와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제는 36년간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을 무참히 짓밟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자 온갖 잔악한 만행을 자행하였으나 우리의 선열들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국권회복과 민족의 독립을 외치곤 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을 다 바쳐 투쟁하여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 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외침과 전란의 위기에 처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온 겨레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후의 순간까지 항전하며 나라를 지켰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선열들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깊이 되새기면서 이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 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일본은 수구세력의 영향으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는 말아야 하겠으며, 우리의 암울하고 굴절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된 조국을 만드는 것이 위대한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념식을 통해 고이 잠드신 영령들 앞에 민족의 융성과 영원한 안식이 깃들기 기원하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민족적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뜻깊은 추념식을 마련하신 성남문화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식 순**

司會 : 이 인 순 (사무국장)

- 개회사
- 국민의례 .....신민용 외 5명 '아모르 금관 5중주' 연주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다같이
-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장 한춘섭
- 추념사 ..... 성남문화원장 남선우
- 회고사 ..... 성남시장 이대엽
- 회고사 ..... 성남시의회 의장 김상현
- 순국선열 추모 공연
  - 민요 <노랫가락> '만세비 깃발'.....김영자 외 3명
  - 무용 <국가방 애무단> '고대무'.....신미경 외 8명
- 3.1절 노래 제창 .....다같이
- 추모패 전달 (고 방춘옥 · 고 남찬희 · 고 유창석).....성남문화원장
- '3행시' 입상자 발표.....심사위원장 김영의
- 만세 3창.....독립유공자 이용상
- 폐회사

※ 행사협조  
 장안중 : 양영중  
 홍성고 : 성보여정산고



**추 념 사**

성남문화원장 남 선 우

존경하는 시민, 학생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영광의 민족사를 개척해 가는 벽찬 보람속에 기미독립운동 여든 네 번째 돌을 맞았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외치며 식민통치의 억압에 댄 주먹으로 분연히 일어섰던 그 당시 겨레의 모습을 생각하며, 애국선열들에게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1910년 경술국치라고 일컫는 한일합방에 이어 1919년 갑자기 고종황제의 승하하심은 쌓이고 쌓였던 일제의 만행에 짓눌려온 우리 2천만 민족의 분노를 폭발케 하였으며, 마침내 삼천리 강토 곳곳에서 독립을 외치는 만세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켰던 것입니다. 일제의 총칼앞에 선열들은 빈부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에 모진 고초와 목숨마저 희생하 던지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구국의 대열에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3.1 만세운동은 자유와 민주에 대한 단호한 결의로 독립투쟁에 나서 조국의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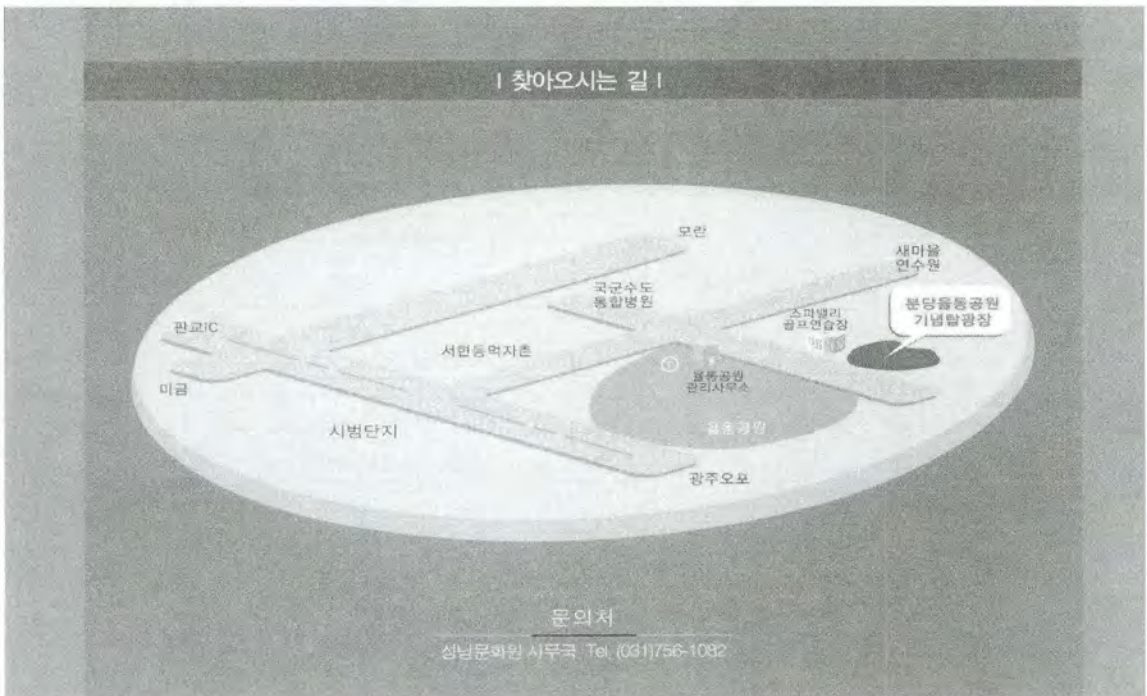
바로 이곳 율동공원이 여든 네 해 전 3월 26일부터 3일간 한백봉, 한순회, 낙생면장 남태희 등이 주동이 되어 1천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원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시민 모두의 수치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새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정책이 현대적 역사 재창조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거니는 사랑받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여든 네 번째 3.1절을 맞아 다시 한 번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무엇보다 변화하고 개척하고 민족의 앞날을 창조하려는 역사 창조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되새기어, 이제는 우리 시민이 뜻을 모아 이 율동공원 안에 격조 높은 우리 고장 애국운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기념탑과 역사자료 기념관 건립을 하여야 할 때라고 보아 강조하면서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2004년 - 85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식순, 초청장, 기념사, 축사)
- 2005년 - 86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식순, 초청장, 기념사, 축사)
- 2006년 - 87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식순, 초청장, 기념사, 축사)



초대합니다

성남문화원의 역점사업으로 건립한  
3.1운동 기념탑 개막식 및 제 87주년 추념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성남지역에서 의혈로서 독립을 소리 높여 외친 애국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뜻 깊은 자리에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

성남문화원장 남 선 우

- 주최: 성남문화원
- 후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청, 성남예총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경기도민회



3.1운동 기념탑 제막식 및 제87주년 추념식

프로그램

- | 식전 행사: 풍물공연(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시지회)
- | 개회 선언
-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 성남시장 감사패 전달: (주)소토 대표 이영송
- | 연혁보고: 이사 한동억
- | 제막: 원장,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 시의원
- | 탑 비문 낭독: 이사 김재택
- | 기미 독립선언문 낭독: 신임 원장 한춘섭
- | 추념사: 원장 남선우
- | 회고사: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의장
- | 추념특별공연: "애 유관순"  
(출연: 신미경 춤사랑 무용단, 명창 문효심과 판소리보존회 성남지부)
- | 만세 3창: 예총회장 방영기
- | 폐회






○2007년 - 88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식순, 초청장, 기념사, 축사)


e-푸른성남

# 제88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2007. 3. 1(목) 오전 10:30  
| 성남 3·1운동 기념공원 (분당 울동공원 내)

· 주 최 :  성남문화원    · 주 관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후 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청, 광복회 성남시지회,  성남예총, 경기도민회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

(추모시)

### 만세 터에 서서

시조시인 한춘섭 作詩  
연극배우 이주희 朗讀

영장산 높은 기세  
대못 막힌 곡두에는  
누리를 물들었네. 自辱의 피 흘리 저어,  
억만 년  
엮어 온 즐기  
에서 脈이 끊기라

돌마장 己未 정오  
숫구 친 분노들이  
일룩진 나라 깃발 펼쳐 들고 나섰네.  
그 약속  
悲壯했으리  
대한 독립 만세 소리

아-아-, 거짓 없게  
주인을 주인이라-.  
나라 세운 大正님들 혼백 부른 한 판 굿  
이 산하  
다 울지 못한  
역장 恨을 풀고 가라

우지끈 언 땅 풀려  
전하는 말 남기거늘  
몇 소을 피고 저도, 밤 나무는 밤 알 여니,  
텃새여,  
채 밧줄 끊어  
靑岑 하늘 날아라.

### 식 순

#### ■ 1부 식전 행사

| 풍물공연 '경기 웃다리 농악' - 강승호 외 풍물굿패 「살매」

#### ■ 2부 기념식

| 개 식 - 사회 / 유현경 사무국장

| 국민 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반주 / 풍생고등학교 밴드부 (지도·신민용)
- 애국가 제창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임명운)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다같이

| 3·1운동 약사 보고 - 이용위 광복회 성남시지회장

|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 임학수 경기도성남교육장

| 기념사 -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 경축사 - 이대엽 성남시장

| 경축사 - 이수영 성남시의회의장

| 추모시 '만세 터에 서서' (작시 / 한춘섭) - 낭송 / 이주희 연극배우

| 추모공연 '애 유관순' - 무용 / 신미경 무용가

| 3.1절 노래 제창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만세 심창 - 한동역 유족 대표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폐 식 - 안내 말씀

제88주년 성남 3·1만세 운동 기념식

# 기념사

성남문화원장 | 한춘섭



## 우리의 독립 의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뜻 깊은 3·1獨立萬歲運動 제88주년을 맞이하여, 그날의 감격을 되살려 先烈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영원히 기리고자 이곳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 율동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민족의 정의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한백봉, 한순희, 남태희 선생의 주도하에 주민 3,000여 명이 천지를 진동할 만큼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으로, 역사적인 만세운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1일,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제막하고, 올해 <제88주년, 성남 3·1獨立萬歲運動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감개가 무량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기미년 오늘, 우리의 아버지·어머니, 할머니·할아버지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맨 주먹으로 일어서 자주 독립과 민족자존이란 대의 앞에 목숨을 걸고 총칼에 맞섰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뒤흔든 대한독립 만세소리는 어떠한 일제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치며, 억압받던 민족 혼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어린 학생 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만세운동을 총칼로 진압하여 수만 명을 살상하고, 많은 부상자를 내는 민족의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일제의 잔인한 폭력앞에 목표는 비록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선명히 알릴 수 있었고, 이러한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나라 안팎의 독립투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세월은 어언 88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고장 선조들이 숭고했던 '나라사랑' 시민정신을 되새기며 3·1운동 당시, 함께 외쳤던 그날의 함성과, 그날 하나가 되었던 우리 성남시민들의 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힘으로 문화 성남의 꿈을 반드시 이뤄냅니다. 우리 고장 후손들이 자랑할 만한 영광스런 성남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1998년 율동지역 인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출발되어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발족에 힘을 다 바쳐 온 남선우, 한동영, 김대진 외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성남문화원의 간절한 염원이던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는 데 적극 도와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이수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임학수 경기도성남교육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시민·학생 모두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기념사에 가름합니다.

2007. 3. 1

제88주년 성남 3·1만세 운동 기념식



성남시장 | 이 대엽

# 경축사

## 선조들의 자주적 위상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예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3·1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시의 독립유공자, 후손, 내빈, 시민여러분들을 모시고 제88주년 3·1운동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는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 앞에 서니 그날의 만세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지는 듯하여 가슴 벅찬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산화하신 애국선열들의 올곧은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길이 기억될 역사교육의 장인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크고 작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오며 경제에 매진한 결과,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목숨 초개(草芥)같이 여긴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가슴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북핵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 무역장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칠혹같은 절망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선조들의 자주적 위상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계속의 한국, 전국 제일의 성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낙생면장 남태희 선생님을 비롯한 신간회 광주교구장 한순희 선생님,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신 한백봉 선생님 등 순국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함께하신 독립유공자 가족과 내빈,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3. 1

제88주년 성남 3·1만세 운동 기념식

# 경축사

성남시의회 의장 | 이수영



## 뜻 깊고 위대한 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내빈 여러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제에 맞섰던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저마다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 놓아 외쳤던 성남 3·1운동의 발생지로 88주년의 뜻 깊은 의미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날 우리는 맨 주먹으로 일제의 총칼에 맞서 우리의 자주 독립 의지를 '대한독립 만세' 소리에 실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게 했고, 그 소리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뜻 깊고 위대한 날을 맞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 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그 동안에 뿌리 내려 온 역사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신사참배,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아 공정문제 등으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있으며, 우리 선열들의 숭고하고 빛나는 3·1운동 정신을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1919년 기미년 3월 1일 그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겨레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 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주 독립이라는 역사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쟁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분이나 지역을 떠나 하나가 되어야 전국 제일의 도시, 미래첨단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00만 시민 모두가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의 참여와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성남시는 발전할 것이며, 지방 자치는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깨끗하고 투명한 맑은 의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회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뜻 깊은 3·1절을 맞아 우리 모두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 조국과 민족,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7. 3. 1

제88주년 성남 3·1만세 운동 기념식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연혁

1998. 11. 3: (가칭)〈울동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조직 (한백업, 한동역)
1999. 2. 10: 〈분당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로 명칭변경
1999. 3. 1: 성남문화원 주최 〈제80주년, 3.1절 추모식〉 최초 지역문화 행사로  
울동공원 관리소 광장에서 거행 (남선우 원장, 한춘섭 향토문화연구소장, 한동역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2000. 3. 1: 〈제81주년, 3·1절 추모식〉 연례행사 거행  
(후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 성남교육청)
2000. 8. 15: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학술 세미나를 성남문화의 집 3층  
전시실에서 개최 (회장: 한춘섭 추대)
2001. 3. 1: 〈제82주년 3·1절 추모식〉 거행
2001. 9. 4: 광복절 학술 세미나를 분당문화정보센터 지하 강당에서 개최(발표자 현종현 선생 외)
2002. 3. 1: 〈제83주년 3·1절 추모식〉 거행
2002. 10. 5: 성남 3·1운동 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 청원서 제출
2003. 3. 1: 〈제84주년 3·1절 추모식〉 거행 및 3행시 짓기 행사
2003. 4. 10: 기념탑 건립 설계도 성남시에 제출
2003. 8. 15: 사업회 임원 일동 독립지사 묘역 참배 헌화
2003. 11. 17: 세미나 발표 '울동 3·1독립만세 운동의 실태' 발표(한동역 사무총장)  
긴급제언 '성남 3·1운동기념 사업 제안'(한춘섭 기념사업회장)
2004. 3. 1: 〈제85주년 3·1절 추모식〉 거행
2005. 2. 23: 성남시,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비 성남문화원으로 6억 지원(남선우 문화원장)
2005. 3. 1: 〈제86주년 3·1절 추모식〉 거행
2005. 9. 9: 기념탑 작품공모 (주)소토 '태극의 울림 - wave' 선정
2006. 3. 1: 성남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제막식 및 〈제87주년 추념식〉 거행
2007. 3. 1: 〈제88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거행



“  
 성남문화원은  
 100만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 나눔의 문화  
 신명나는 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삼일절 노래

Anda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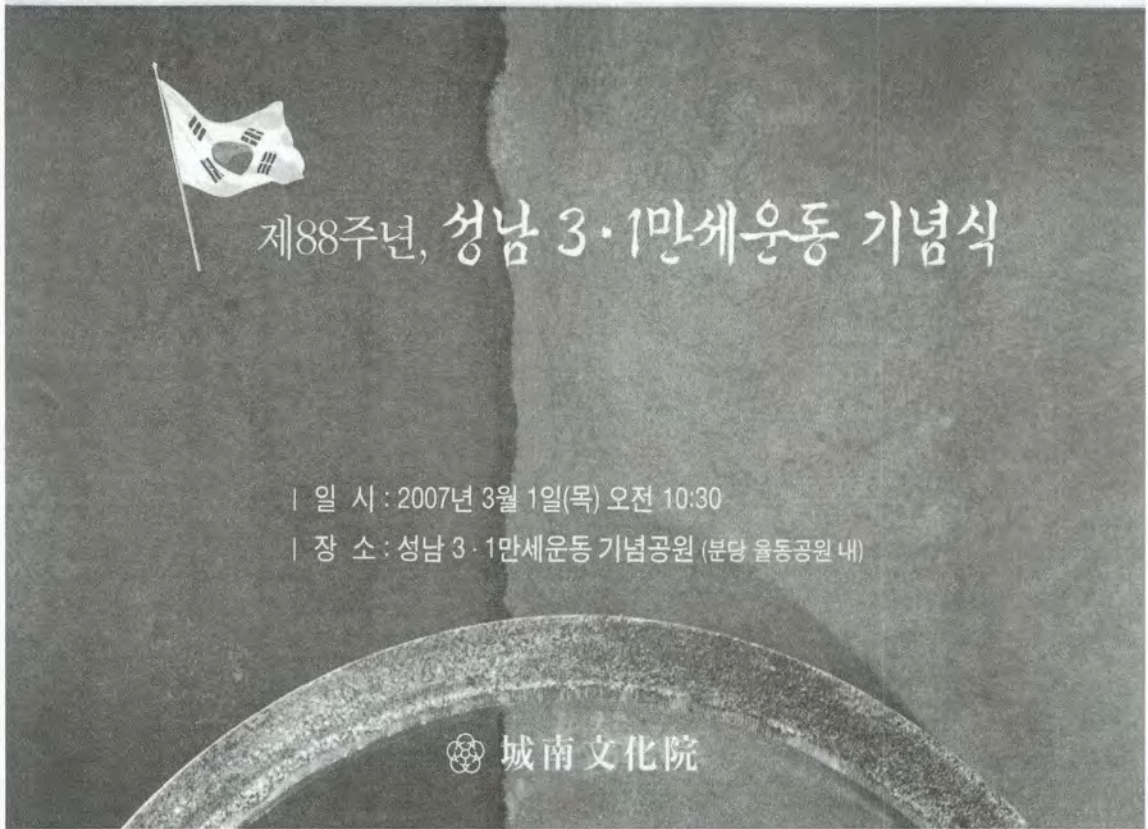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기 미년 삼 월 일 일 정- 오 터 지자 밀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로  
 이 날 은 우 리 에 의 요 생 명 이 요 교-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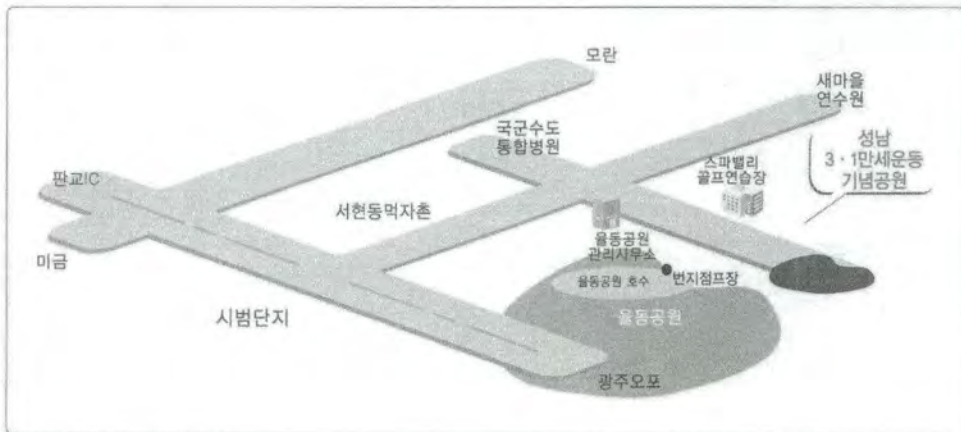


城南文化院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  
 TEL : (031)756-1082, 1028 | FAX : (031)756-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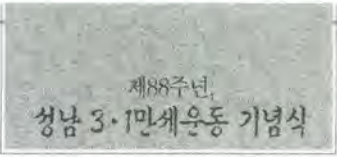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문의처

성남문화원 사무국 Tel. (031)756-1082



모시는 말씀

1919년의 대한독립만세 운동은 성남지역에서 3000여 시위군중의 애국심 의혈로써 민족자존의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던 항일 의거였습니다. 이에,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88주년, 성남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계승하여 온 기념식전에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성남문화원장 한 춘 섭

- 주 최 : 성남문화원    · 주 관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후 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청, 광복회 성남시지회, 성남예총, 경기도민회

식순


1부 식전 행사

- 풍물공연 '경기 웃다리 농악' ..... 강승호 외 풍물굿패 「살매」

2부 기념식

- 개 식 ..... 사회 / 유현경 사무국장
- 국민 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반주 / 풍생고등학교 밴드부 (지도 · 신민웅)
- 애국가 제창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 임명운)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다같이
- 3.1운동 약사 보고 ..... 이용위 광복회 성남시지회장
-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 임학수 경기도성남교육장
- 기 녘 사 .....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 경 축 사 ..... 이대엽 성남시장
- 경 축 사 ..... 이수영 성남시의회 의장
- 추모시 '만세 터에 서서' (작시 / 한춘섭) ..... 낭송 / 이주희 연극배우
- 추모공연 '애! 유관순' ..... 무용 / 신미경 무용가
- 3.1절 노래 제창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만세 삼창 ..... 한동익 유족 대표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폐 식 ..... 안내 말씀


○2008년 - 89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식순, 초청장, 기념사, 축사)







# 제89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일 시 : 2008년 3월 1일(토) 오전 10:30

| 장 소 : 성남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분당 율동공원 내)



城南文化院

• 주 최 :  성남문화원 • 주 관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후 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청, 광복회 성남시지회, 경기도민회

제89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식 순

### 1부 식전 행사

- 독립운동가(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묘소 참배 및 헌화
- 「성남 오리뜰 農樂」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시지회 / 지도 강승호

### 2부 기념식

- 개 식 사회 / 김정진 사무국장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성남시립합창단·시밀레합창단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다같이
- 성남 3·1운동 역사보고 김대진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장
-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임학수 / 경기도성남교육장
- 기 념 사 한춘섭 / 성남문화원장
- 경 축 사 이대엽 / 성남시장
- 경 축 사 이수영 / 성남시의회의장
- 추모시 '만세터에 서서' (작시 / 한춘섭) 낭 송 / 연극배우 이주희
- 추모공연 '아! 유관순' 무용가 / 신미경
- 3·1절 노래 제창 성남시립합창단·시밀레합창단
- 만세삼창 이용위 / 광복회 성남시지회장
- 폐 식 안내말씀

## 성남지역 3·1만세운동 학술토론회

###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일시** 2008. 3. 1 (토) 15:00

**장소** 성남문화원 3층 강당

**좌 장**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초대회장)  
성남3·1운동 정신의 계승, 기초연설 및 토론 진행

**주 제 발 표**

[제1주제]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발표자 : 서승진 (역사학, 경원대 교수)  
토론자 : 윤종준 (역사학,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

[제2주제] 성남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家系)와 독립정신  
발표자 : 한동익 (성남문화원 이사, 한도사학자)  
토론자 : 문수진 (역사학, 신구대 교수)

제89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기념사

### 송고한 민족 혼을 기리며

성남문화원장 | 한 춘 섭



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뜻깊은 3.1독립만세 운동 제 89주년을 맞이하여, 그 날의 감격을 되살려 선열의 송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비폭력 자주독립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영원히 기념하고자 이곳 성남 3.1운동 기념탑앞에 모였습니다. 이곳 울동은 우리 조국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 되었을 때, 민족자결(民族自決)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고장 출신의 한백봉, 한순화, 남태희 선생의 주도하에 주민 3,000여명이 천지를 진동할 만큼 독립만세의 함성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역사에 길이 남을 성지로서, 1996년 3월 기념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만세운동의 역사 89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89년 전, 우리의 어버이들은 잃어버린 나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맨 손에 태극기만을 들고 일본의 군인, 헌병, 경찰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선열들의 만세 소리는 전국으로 퍼져 갔으며, 세계만방에 우리겨레의 자주독립 의지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의 평화적 만세시위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무력으로써 진압하여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 까지도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경에 의한 잔인한 폭력 앞에 비록 당장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국내외에 천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주독립의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끊임없는 자주 독립의 투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광복의 날을 맞이함으로써 '민족의 혼'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주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 89주년을 맞이하면서, 살신성인의 송고한 희생을 당한 애국 선열의 영령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세월은 어언 89년이 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의 덕택으로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번영된 역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송고했던 희생이 없었다면 이러한 번영의 시대는 기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애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그날의 함성과, 그 날 하나가 되었던 우리 성남시민들의 애국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힘으로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금의 우리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선조들이 남겨준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문화 성남의 꿈을 이루어 냅시다. 우리 고장 후손들에게 자랑할만한 영광스런 성남의 새로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1998년에 자발적인 모임으로 출발하여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발족에 힘을 모아 온 남선우,한동억, 김대진 외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며, 성남문화원의 간절한 염원이던 "성남3.1만세운동기념탑"을 건립하는 데 적극 지원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이수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참석해 주신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

제89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경축사

###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성남시장 | 이대엽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 유가족, 내·외빈 여러분!

오늘 3.1운동 여든아홉돌을 맞이하여 겨레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아울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반만년을 이어온 이 땅이 일제의 침략에 짓밟히게 되었을 때 민족자존의 태극 깃발을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던 매우 뜻 깊은 장소입니다. 그날 우리 선열들은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후손들에게 자주독립의 조국을 물려주겠다는 염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권 상실이란 칠혹같은 어둠속에서도 항일 독립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선열들께서는 기어코 제국주의 일본을 몰아내었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금년으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온 결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밑거름 된 것으로써 선열들의 지주적 정신을 이어 받아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지역 출신으로 3.1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던 한백봉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행사를 주최한 한춘섭 성남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순국선열 유가족 여러분과 내빈,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

제89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경축사

### 뜻 깊고 위대한 날

성남시의회 의장 | 이수영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여든아홉 돌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성남지역의 3.1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이곳에서 제89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김대진 회장님, 한춘섭 문화원장님, 이용위 광복회 성남시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물결쳤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을 되새기게 되며,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에 맞서 억압받던 민족혼을 다시 일깨우고 민족의 자존을 세계에 알린 애국선열들의 위업을 다시금 기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2.8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부르짖는 3.1 항쟁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대의명분을 알렸으며, 그 위대한 정신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나라 안팎의 독립투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혁명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역사의를 되찾았고 마침내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였으며 외세의 억압속에 독립을 갈구하는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3.1운동이 꺼져 가는 민족혼의 불씨를 지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유, 평화의 정신으로 민족의 내일을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화, 국제화 속에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민족의 도덕성을 되찾고 발굴,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곳 율동에서 우리 성남의 자긍심이라는 주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던 3.1운동 함성은 더욱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과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하여 성남을 발전시키고 "세계속의 성남"이라는 위업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제89주년 3.1만세운동 기념식을 통해 다시 한번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

# 만세 터에 서서

한 춘 섭  
(시조시인/성남문화원장)

영장산 높은 기세  
대못 박힌 꼭두에는  
누리를 물들였네. 自尊의 피 흘러 저어,  
억만 년  
역어 온 줄기  
예서 脈이 끊기라

돌마장 己未 정오  
숫구 친 분노들이  
얼룩진 나라 깃발 펼쳐 들고 나섰네.  
그 약속  
悲壯했으리  
대한 독립 만세 소리

아-아-, 거짓 없게  
주인을 주인이라-.  
나라 세운 大王님들 혼백 부른 한 판 굿  
이 산하  
다 울지 못한  
역장 恨을 풀고 가리

우지끈 언 땅 풀려  
전하는 말 남기거늘  
몇 생을 피고 저도, 밤 나무는 밤 알 여니,  
텃 새여,  
계 핏줄 품어  
靑瓷 하늘 날아라.



### 3·1절 노래

조금느리게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 오  
터 지 자 밀 들 갈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미 다 삼 천 만 이 하 나 로  
이 날 은 우리 의 의 요 생 명 이 요 고 - 훈 이 다  
한 강 은 다시 흐 르 고 백 두 산 -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아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 城南文化院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  
TEL : (031)756-1082, 1028 | FAX : (031)756-1056  
[www.seongnamculture.or.kr](http://www.seongnamculture.or.kr)




○2009년 - 90주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식순, 초청장, 기념사, 축사)

e 푸른성남

# 제90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 일시 : 2009. 3. 1(일) 10:30~
- ◆ 장소 : 성남 3·1만세운동 기념공원(분당 율동공원 내)

· 주최 :  성남문화원    · 주관 : (부설)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 후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청  
광복회 성남시지회, 성남경기도민회,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성남시세거문중협의회

제90주년,

성남 3·1 만세운동 기념식

제90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식 순

1부 식전 행사

- | 독립운동가 (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묘소 참배 및 헌화
- | 「성남 오리뜰 農樂」 -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시지회 (지도 / 강승호)

2부 기념식

- | 개 식 ..... 사회 / 김정진 사무국장
-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 임명운)
-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 김광래 / 경기도성남교육장
- | 성남 3·1운동 약사보고 ..... 한동역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 | 기념사 ..... 한춘섭 / 성남문화원장
- | 경축사 ..... 이대엽 / 성남시장
- | 경축사 ..... 김대진 / 성남시의회 의장
- | 회고사 ..... 강만수 / 성남경기도민회장
- | 현시 '만세 터에 서서' 낭송 ..... 작시 / 한춘섭  
낭송 / 최만순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장
- | 기념공연 ..... 혼풀이 / 무용가 신미경
- | 3·1절 노래 제창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 | 만세삼창 ..... 이용위 / 광복회 성남시지회장
- | 폐 식 ..... 안내 말씀

제90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경축사



성남시장 | 이 대 연

### 3·1만세운동의 유훈을 새기며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독립유공자, 그리고 순국선열 유가족 및 내·외빈 여러분!  
오늘 3·1 운동 제90주년을 맞이하여 겨레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오늘은 남녀노소, 계층, 출신지역을 가리지 않고 온 겨레가 하나 되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대한독립만세'의 힘찬 함성과 함께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드러낸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주독립의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평화적인 만세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제국주의 일본을 몰아내고 기어코 광복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3·1 만세운동은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숭고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불황과 침체의 늪에 빠져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열들의 숭고한 3·1 만세 운동의 유훈을 가슴에 새기며, 제2의 독립운동의 자세로 경제난 극복과 함께 세계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지역 출신으로 3·1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던 한백봉 선생님, 일제의 침략에 항거한 동천 남상목 의병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열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신 한춘섭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순국선열 유가족 및 내빈,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3. 1

제90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 경축사

### 애국선열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성남시의회 의장 | 김대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0주년 3·1절을 맞는 오늘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제의 폭압에 맞섰던 매우 숭고한 날로써 성남 3·1운동의 발생지인 이 곳 율동공원에서 오늘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9년 오늘은 삼천만 온 겨레가 하나되어 훼손된 민족정기와 자주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독립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강력한 자주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물론, 해외에서도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쳐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던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하나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커녕,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하면서 또다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민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지켜나감은 물론,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 된 마음으로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졌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 불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 시민, 나아가 온 국민이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단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되살려 보다 밝은 성남시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3. 1

제90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현시〉

## 만세 터에 서서

한 춘 섭

(시조시인 / 성남문화원장)

영장산 높은 기세  
 대못 박힌 꼭두에는  
 누리를 물들였네. 自尊의 피 흘러 저어,  
 억만년  
 엮어 온 줄기  
 예서 脈이 끊기라

돌마장 己未 정오  
 솟구 친 분노들이  
 얼룩진 나라 깃발 펼쳐 들고 나셨네.  
 그 약속  
 悲壯했으리  
 대한 독립 만 만세

아-아-, 거짓 없게  
 주인을 주인이라-.  
 나라 세운 大포님들 혼백 부른 한 판 굿  
 이 산하  
 다 울지 못한  
 억장 恨을 풀고 가리

우지끈 언 땅 끌려  
 전하는 말 남기거늘  
 몇 생을 피고 저도, 밤 나무는 밤알 여니,  
 텃 새여,  
 제 뿔줄 끊어  
 靑瓷 하늘 날아라.





###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Andante

기 미년 삼 월 일 일 정 오  
 터 지자 밀 물갈은 대 한 독립만 세  
 태 극 기 곳 곳마다 삼 천만 이 하 나로  
 이 날 은 우리 의 의요 생 명이요 교-훈이다  
 한 강 은 다시 흐르고 백 두 산- 높 았다  
 선 열 하 이 나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 城南文化院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  
 TEL : (031)756-1082, 1028 | FAX : (031)756-1056  
 www.seongnamculture.or.kr

3. 기념관 건립 청원서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제안(案)**

성남문화원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첨부한 자료와 같이 추진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4월

**성남문화원장 한 춘 섭**

## 1. 「성남 3·1 운동」의 개요

### 가. 배경 및 의의

- 기미년 3월 1일, 나라와 향토를 지키기 위해 선조들은 노도(怒濤)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킴.
- 일제 항거에 분연히 일어섰던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문명과 의혈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정신의 구심이 되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음.

### 나. 성남지역의 전개과정

- 성남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돌마면 율리의 한백봉, 한순회와 낙생면장 남태희 등의 주도로 돌마·낙생면민 3,000여명이 합세하여 전개함.
- 한백봉 선생은 1919년 2월 고종황제 국상 때 상경하여 3월 1일 파고다공원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3월 3일 고종장례에 참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던 한순회 선생과 율리의 유창석, 남찬희, 방춘옥 선생 등과 돌마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낙생면의 남태희와도 연계함.
- 면내 각리의 유지들과 모의,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봉기할 것을 계획 한 후,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3월 26일 오후 8시경, 율리 동민 50여명과 더불어 율리 뒷산에 올라가 봉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림.

-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던 돌마, 낙생면니의 시위대 수가 대왕면민까지 합세, 시위군중의 수가 3천여 명에 달하였으나, 출동한 일제 관헌과 헌병들에 의해 주도자는 체포되고 시위군중은 해산됨.
- 일제 관헌에 의해 체포당한 인사들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한백봉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름.

## 2. 「성남 3·1 운동 기념사업」 추진경과

### 가. 「성남 3·1운동 기념사업」 추진 연혁

- 1998. 11. 03 : (가칭)‘울동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조직(한백엄, 한동억)
- 1999. 02. 10 : ‘분당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로 명칭변경
- 1999. 03. 01 : 성남문화원 주최 제80주년 3.1절 추모식 거행  
장소-울동 3.1운동 발상지  
남선우 원장, 한춘섭 소장, 한동억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2000. 03. 01 : 제81주년 3.1절 추모식(연례행사로 정착)  
후원-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 성남교육청
- 2000. 08. 15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초대 한춘섭 회장 취임  
장소-성남문화의집 3층 강당
- 2001. 01. 16 : 제1차 이사회 개최  
장소-본회 회의실  
안건-제82주년 3.1절 기념행사에 관한 건

- 2001. 04. 17 : 제2차 이사회 개최  
장소-본회 회의실  
안건-8월 15일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06. 19 : 제3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8.15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07. 26 : 제4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8.15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08. 28 : 제5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센터  
안건-9월 4일 세미나 개최 최종 점검
  
- 2001. 09. 04 : 광복절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강당
  
- 2002. 02. 05 : 제6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제83주년 3.1독립만세운동 추념행사 준비의 건
  
- 2002. 04. 12 : 제7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3.1운동 83주년 행사 결산 및 8월 세미나 개최  
의 건
  
- 2002. 10. 05 : 성남3.1운동 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 청원서 제출
  
- 2002. 12. 04 : 제8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제84주년 3.1절 행사 준비의 건

- 2003. 02. 21 : 제9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회관 1층 소회의실  
안건-제84주년 3.1독립만세운동 추모행사 준비의 건
  
- 2003. 03. 01 : 제84주년 3.1절 추모식 및 3행시 짓기 행사
  
- 2003. 04. 10 : 기념탑 건립 설계도 성남시에 제출
  
- 2003. 06. 09 : 제10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1층 소회의실  
안건-3.1운동 84주년 추모행사 반성의 건, 기타 부의 안건
  
- 2003. 08. 15 : 제11차 이사회 개최  
장소-율동공원 내 무교동 낙지집  
안건-3.1운동 주도 선열 묘전 현화 현작례에 대한 평가
  
- 2003. 11. 17 : “율동 3.1독립만세 운동의 실태” 세미나  
발표-한동익 사무총장  
긴급제언-“성남3.1운동기념사업” 제안(한춘섭 회장)  
장소-분당문화정보센터
  
- 2003. 12. 20 : 『성남지역 3.1운동 자료집』 발간
  
- 2004. 02. 10 : 제12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소회의실  
안건-제85주년 3.1절 추모식 준비의 건
  
- 2005. 02. 23 : 제13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제86주년 3.1운동 추모행사의 건 및 기념탑 건립추진의 건

“기념탑 건립 사업비 6억원 지원 결정”

○ 2005. 06. 23 : 제14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성남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의 건

○ 2005. 09. 09 : 기념탑 작품 공모 (주)소토 <태극의 울림-wave>선정

기념탑명 : 성남3.1운동기념탑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율동 370(744㎡)외 25필지

부지면적 : 약 5500평(건립부지 200평)

예 산 : 600,000,000원(건립년도 2005년)

<성남 3.1운동 기념탑 조감도(2005년 건립)>



- 2006. 02. 20 : 제15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성남3.1운동 기념탑 준공식과 추모식 준비의 건
  
- 2006. 03. 01 :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제막식 및 87주년 추념식 거행  
율동 만세운동 발상지에 6억원의 예산으로 기념탑 건립
  
- 2007. 02. 27 : 임시총회  
장소-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정관일부개정 및 임원선출 : 김대진 제2대 회장 선출,  
상임부회장 한동억  
사무총장 윤종준
  
- 2007. 03. 01 : 제88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거행  
장소-성남3.1운동 기념탑 광장
  
- 2007. 04. 23 : 제2대 김대진 회장 취임  
장소-성남문화원 강당
  
- 2007. 11. 16 : 독립운동가 한백봉 선생 묘비 제막식  
장소-한백봉 선생 묘소
  
- 2008. 03. 01 :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학술토론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강당  
발표-“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서승갑(경원대 교수, 역사학)  
“성남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  
한동억(성남문화원 이사, 향토사학자)

## 나.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조직도



## 3. 「성남 3·1 운동 기념관」 건립 계획(안)

### 가.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 의의

■ 성남지역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역사와 문화공간으로 일제 항거에 분연히 일어섰던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 문명과 의혈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정신의 구심이 되는 우리 지역 만세운동의 본원지인 분당구 율동 지역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음.

## 나.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

- 성남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돌마면 율리의 한백봉, 한순회와 낙생면장 남태희 등의 주도로 돌마·낙생면민 3,000여명이 합세한 3·1운동의 주요 격전지 중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을 후손만대에 기리 전할 추모 및 교육의 장이 『성남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밖에는 없는 실정임.
- 또한 해마다 3월 1일에는 분당 율동 내에 2005년 건립된 『성남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앞에서 3·1만세운동 기념식이 400명의 기관단체장 및 일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기념관 조성이 이뤄지지 않음.
- 따라서 『성남3·1독립만세운동 기념관』의 건립이 시급함. 성남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좌 전면에 배치하여 기념탑과 기념관의 연계적 활용이 기대되고, 향후 기념공원 조성되어 성남시민의 애국애족 교육의 장일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의 휴식처로서 활동코자 함.

## 다. 「성남 3·1운동 기념관」의 건립 세부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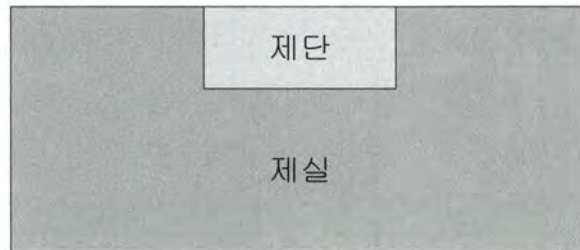
- 건립 장소 : 율동 393-1번지 일대, 3·1운동 기념탑 좌전면

■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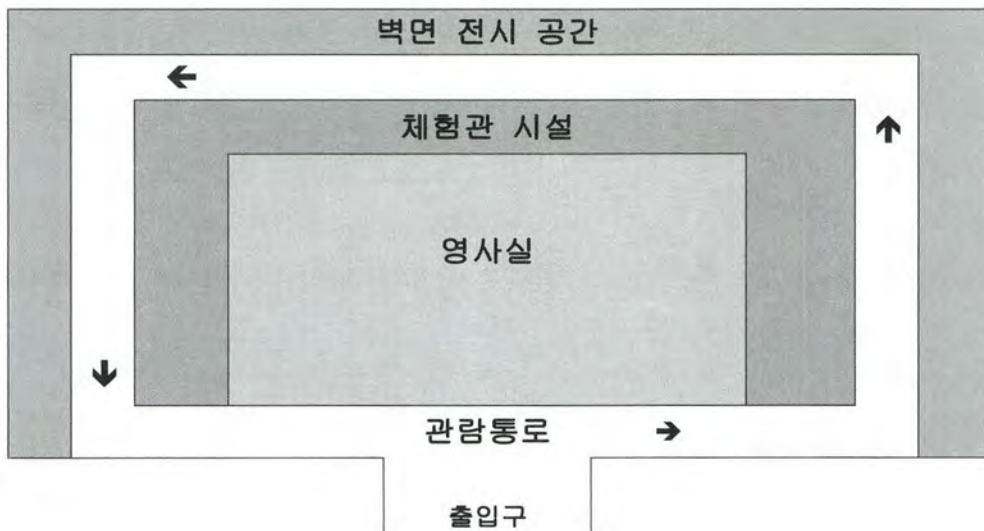
구 분	구 성
사당	1층짜리 1동 : 전통 한식건물
기념관	3층짜리 1동 : 전시관, 체험관, 영사실, 강의실, 역사자료실, 휴게실, 관리사무실, 세미나실, 연구실, 수장고

■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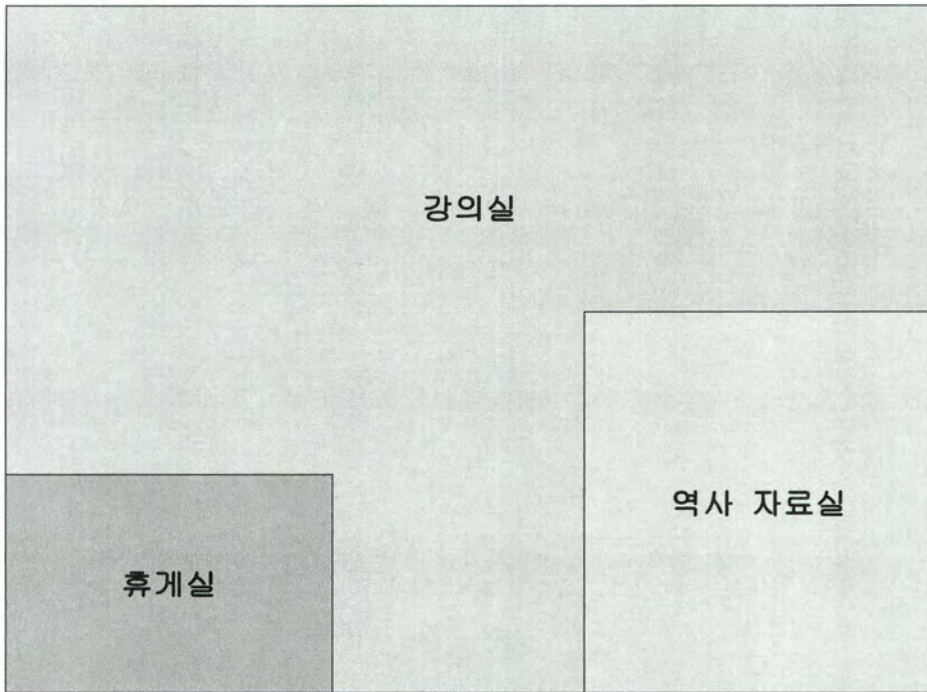
1. 사당(1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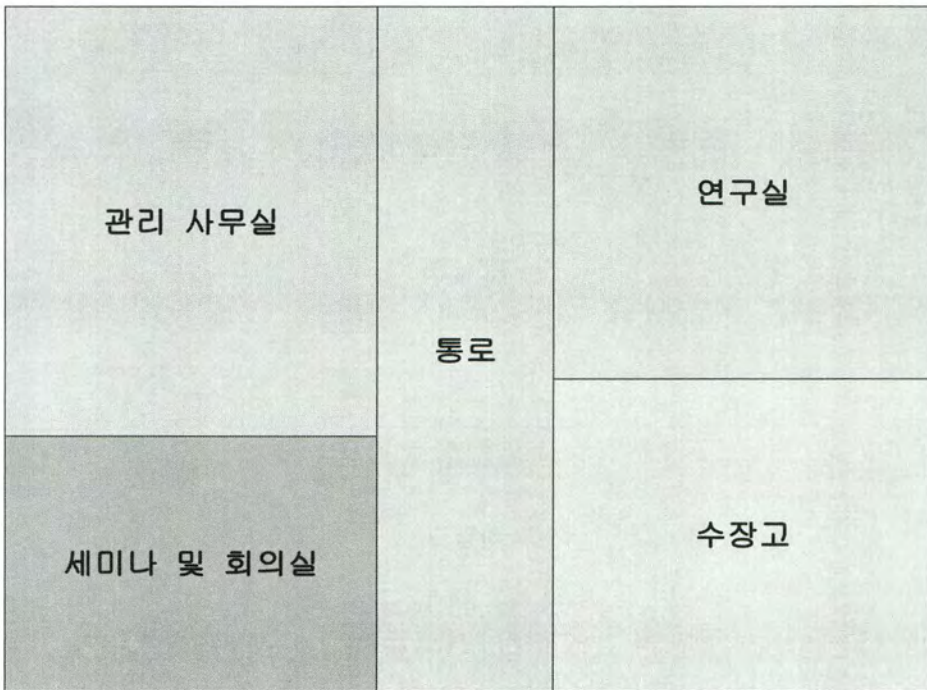
2. 기념관(300평)



<1층 배치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소요액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당12평(전통한옥):12평×평당 2,000원=24,000원</li> <li>◦기념관300평(철근콘크리트조): 300평×평당170원 =51,000원</li> </ul>	75,000
건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당12평(전통한옥) :12평×평당 25,000원=300,000원</li> <li>◦기념관300평(철근콘크리트 조, 칸막이 공사 등 포함) : 300평×평당 4,000원=1,200,000원</li> </ul>	1,500,000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시설물(고문장면 5조) : 5조×10,000원=50,000원</li> <li>◦체험시설물(감옥형태 5조) : 5조×10,000원=50,000원</li> <li>◦영상시설 2SET×50,000원=100,000원</li> </ul>	200,000
집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실 100인용×100원=10,000원</li> <li>◦의전1SET(응접SET 9인용)×3,000원=3,000원</li> <li>◦사무실5SET×300원=1,500원</li> <li>◦연구실비, 세미나실, 수장고 33,000원</li> </ul>	47,5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경 및 주차시설 200,000원</li> <li>◦예비비 20,000원</li> </ul>	220,000
총계		2,042,500 원

## 4. 타지역 3·1 운동 기념관 현황

명 칭	사 진	개 요
<p>안성3·1 운동기념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 경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186-21</li> <li>◦목적 : 3.1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안성지역의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 지역의 성역화 사업으로 기념관을 건립함.</li> <li>◦개관일 : 2001년 11월 17일</li> <li>◦사업량 : 부지면적- 33,091㎡ (사유지30,422,국공유지2,669) 건축연면적- 1,237,24㎡ (지상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관 : 1,038.3㎡</li> <li>- 사당 : 81.59㎡</li> <li>- 삼문 : 20.16㎡</li> <li>- 기타(화장실, 관리소) : 97.19㎡</li> </ul> </li> <li>◦총사업비 : 4,298,000천원 (도비 2,075,000천원, 시비 1,503,000천원, 국가보훈처 720,000천원)</li> <li>◦구성 : 광복사, 3.1운동 기념탑, 전시관, 무궁화동산</li> </ul>
<p>독립기념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li> <li>◦목적 :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역사 박물관으로서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분노가 있었을 당시, 국민 모금을 통하여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음. 한국 역사자료의 수집, 관리, 전시, 조사, 연구, 국민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하고 있음.</li> <li>◦개관일 : 1987년 8월 15일</li> <li>◦예산 및 직원수 : 연간 총예산 228억원, 자체수입 36억, 국고보조 192억원. 104명 임직원이 근무함.</li> </ul>

명 칭	사 진	개 요
<p>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p>		<p>◦위치 : 경기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2-4                      ◦목적 : 제암리 학살사건이 있는지 63년이 지나서야 마을에서 4km 떨어진 도이리 공동묘지에 평토장으로 안장되었던 유해를 발굴하여 제암교회 뒷동산 양지바른 곳에 유해를 마련하였으며 후세에 이 사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전시관, 교육관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개관일 : 2001년 1월 10일                      ◦면적 : 1,306㎡ (395평)                      ◦예산규모 : 3,800,000천원                      ◦이용시설 :                      &lt; 기념관 &gt;                      전시장 - 키오스크(전자관람시스템)                      시청각실 - 좌석수 30인                      제1전시관 - 제암리 3.1운동 자료 전시                      제2전시관 - 전국 3.1운동 자료 전시                      &lt; 3.1 정신교육관 / 23인 상징조각물 / 23인 순국묘지 / 3.1 운동 순국기념탑 / 제암교회 &gt;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중</p>
<p>제주항일 기념관</p>		<p>◦위치 :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1142-1번지                      ◦목적 : 지난 1991년 재일동포 김봉각씨 의 5억원 기탁으로 3.1독립운동기념탑이 건립된 계기로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이 추진되었음.                      ◦개관일 : 1997년 8월 15일                      ◦예산 : 8,500,000천원                      ◦규 모 : 17,000여 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13평)                      ◦주요시설 : 항일기념관, 3.1독립운동기념탑, 넓은(잔디) 광장, 위패 봉헌실, 추모탑 등                      ※ 자치구 도 사업소에서 관리중</p>

## 5. 소위원회 추진 사항

### 가. 회의 개최 현황

#### ■ 1차 회의

일 시 : 2008. 10. 13(월) 11:00

장 소 : 문화원 원장실

참 석 자 : 한 춘 섭 (문화원장)

황 평 산 (부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한 동 억 (이사)

이 용 위 (특별회원)

윤 종 준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 보 영 (총무과장, 소위원회 담당 간사)

내 용 : 경과보고 및 성남3·1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추진 방향

#### ■ 2차 회의

일 시 : 2008. 12. 8(월) 11:00

장 소 : 문화원 원장실

참 석 자 : 한 춘 섭 (문화원장)

황 평 산 (부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남 기 형 (이사)

박 형 원 (이사)

이 용 위 (특별회원)

이 보 영 (총무과장, 소위원회 담당 간사)

내 용 : 타지역 현황 보고 및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추진 방향

### ■ 3차 회의

일 시 : 2009. 2. 16(월) 15:00

장 소 : 문화원 원장실

참 석 자 : 한 춘 섭 (문화원장)

황 평 산 (부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한 동 역 (이사)

남 기 형 (이사)

박 형 원 (이사)

이 용 위 (특별회원)

윤 종 준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 보 영 (총무과장, 소위원회 담당 간사)

내 용 :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

### 나. 1차, 2차, 3차 소위원회 회의록

##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 1차 회의록

○ 일시 : 2008년 10월 13일 11:00 ~ 11:50

○ 장소 : 성남문화원 2층 원장실

○ 심사위원 : 한춘섭 문화원장, 황평산 부원장, 한동역 이사, 이용위 특별회원, 윤종준 상임연구위원, 이보영 총무과장 총 6명

#### 1. 개 회 (11 : 00)

· 사회 이보영 : 개회함.

#### 2. 원장님 인사말씀

· 원장 한춘섭 : 오늘 회의는 본원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4가지의 특색 사업 중의 한가지 추진 소위원회로서 아주 중요한 사업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3. 추진 경과 보고 : 윤종준 (유인물로 대체함)

#### 4. 회의진행

- **사회 이보영** : 페이지 6을 보시면, 2005년도에 본원에서는 성남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였습니다.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함.) 페이지 7는 성남3·1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대략적인 (안)입니다.
- **원장 한춘섭** :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익** : 지금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은 관계자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황평산** :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관계자들에게 자꾸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 **이용위** :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원장 한춘섭** : 세부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가상 설계도 등을 어느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 이런 소위원회를 일년에 1~4회 정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내용을 구체화 시킬 때, 우리의 뜻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여의치 않아 보고서 형태로 만들기 힘들다면, 내년도 <성남3·1운동자료조사연구> 책자의 부록으로라도 추진해봐야 할 것입니다.
- **한동익** : 일전에 전봉구 교수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작업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지난 3·1기념탑을 세운 (주)소토에서도 스테딩 정도를 가능하다고 했었으니,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 **원장 한춘섭** : 그럼 다음 12월 회의 때까지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이보영 간사에게 주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내용이 다음 회의자료가 될 수 있게 각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폐 회

· 원장 한춘섭 : 이상으로 성남3·1운동 기념관 추진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50)

##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 2차 회의록

○ 일시 : 2008년 12월 8일 11:00 ~ 11:45

○ 장소 : 성남문화원 2층 원장실

○ 심사위원 : 한춘섭 문화원장, 황평산 부원장, 남기형 이사, 박형원 이사, 이용위 특별회원, 이보영 총무과장 총 6명

### 1. 개 회 (11 : 00)

· 사회 김정진 : 개회함.

### 2. 원장님 인사말씀

· 원장 한춘섭 :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기념관 건립의 추진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면, 오늘 2차 회의에서는 타지역의 기념관 사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형원 이사께서 그간 사업진행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공해주셨고, 향후 2~5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 4~6월까지 4~5번의 회의를 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3·1운동 기념관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문화역사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타지역의 장점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3. 1차 회의록 보고 : 이보영 (유인물로 대체함)

### 4. 타지역 3·1운동 기념관 현황 보고 : 이보영 (유인물로 대체함)

### 5. 회의진행

· **원장 한춘섭** : 3·1운동 자료가 부족한 성남에서는 기념관을 건립한 후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기형 이사님부터 조언 부탁드립니다.

· **남기형** : 안성의 기념관은 안성군에서부터 시작되어 원양3·1운동 유족회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국고 및 지자체, 모금 등을 통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그곳은 현충시설 뿐만 아니라 만세고개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금은 관광명소화 되어 지자체의 수입으로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모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제암리는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었고, 제주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기념관을 건립할 때 핵심적인 자료나 유품이 없다면, 독립기념관을 복제라도 해야할 것이며, 마스터 플랜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또한 타지역 비교도 좋지만, 조감도부터 나와야 추정예산을 산정할 수 있고 구체화된 사업계획 수립이 우선입니다.

· **이용위** : 예산 확보가 제일 걱정입니다.

· **원장 한춘섭** :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서가 잘 작성되어야 합니다.

· **박형원** : 저또한 타지역 답사보다는 건립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기념관 건립은 당위적인 일이며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 일정 금액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면 1, 2차로 단계적인 착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산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황평산** : 성남의 기념관은 울동에 기념탑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되며, 예산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시와 의회에 지속적인 접촉해야 할 것입니다.

· **원장 한춘섭** : 그럼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을 이 사업의 그간 추진했던 분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동역 이사께서 다른 타지역을 참조해서 작성토록 하여, 그것을 다음 회의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4~5회의 모임을 갖고 청원서를 만들 것이며, 자료가 더 있으신 분은 제

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 6. 폐 회

· **원장 한춘섭** : 이상으로 성남3·1운동 기념관 추진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45)

#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 3차 회의록

○ 일시 : 2009년 2월 16일 15:00 ~ 16:10

○ 장소 : 성남문화원 2층 원장실

○ 심사위원 : 한춘섭 문화원장, 황평산 부원장, 한동익 이사, 남기형 이사, 박형원 이사, 이용위 특별회원, 윤종준 상임연구위원, 이보영 총무과장 총 8명

## 1. 개 회 (15 : 00)

· 사회 이보영 : 개회함.

## 2. 원장님 인사말씀

· **원장 한춘섭** : 작년 10월 첫회의와 12월 두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1차에서는 박형원 이사께서 국가유공자예후에 관한 발췌자료를 제공하여 주셨고, 또한 호국공원 건립에 대한 건의서를 참고자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난 성남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계획서를 입수하여 오늘 그 동안의 논의와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는 마무리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 3. 1차 회의록 보고 : 이보영 (유인물로 대체함)

## 4. 회의진행

· **원장 한춘섭** : 성남 현충탑과 공원 등을 한데 모으는 공원화 작업이 법적 문제로 여수동에 추진하다가 원점화 되었습니다. 울동 공원에 건립된 기념탑

을 중심으로 기존 현충탑을 옮겨, 하나로 엮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성남시에 제시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형원 이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형원** : 성남 태평4동의 충혼탑은 2004년 여수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거의 마무리 되어 공모자도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업체가 탑의 위치를 서향에서 서북향으로 하여 2위 업체가 소송을 걸어 법정문제로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현재 시는 분당의 여수동과 삼평공원을 충혼탑 건립 후보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 규모는 150억 이상입니다.

대전에는 탑과 조형물이 어우러진 보훈공원이 최초로 만들어 집니다. 우리도 보훈공원 형태로 성남지역에 흩어져 있는 순국·호국 기념물들을 모아 기념공원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남시에 건의하기에 앞서, 9개의 보훈단체 중 5개가 법정단체이고 4개는 개별적 단체로 볼 수 있는 데 서로 힘을 모아야하고, 특히 광복회가 제기능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또한 오는 8월까지 보훈체제가 크게 바뀔 예정인데 저희도 '성남시 호국공원 설치 건의서'를 제출할 때 세부사항에 대한 것보다는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의의를 둘 것이며, 그 건의서에 기념관도 플러스해서 넣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남시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짙 중요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국비가 30%가량 보조 가능하고 도비도 가능합니다.

· **원장 한춘섭** : 청원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율동을 중심으로만 할 것인지 또는 현충탑을 포함한 호국공원화를 건의할 것인지, 그 윤곽을 우리가 만들어 보훈단체 또는 문화예술과에 우리의 단체명으로 건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위** : 넓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훈단체로서 장소 등을 우리가 정한다는 것은 힘들고 우리는 건의만 할 뿐입니다.

· **남기형** : 현충시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잘 모르는 게 요즘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하나의 시립 현충원화 하던가, 또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동익** : 성남시 부지가 5,500평가량 됩니다. 기념탑 주위 넓은 공간을 현충공원화 하여 교육의 도량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100 몇 십 억이면 충분히 건립가능하다고 봅니다. 탑과 사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위치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 **황평산** : 성남3·1운동과 현충탑이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시에서도 보는 관점이 같을 것입니다.
- **박형원** : 현재 현충탑이 태평동에, 무공수훈자공적비가 양지공원에, 베트남 참전비가 황성공원에, 성남3·1독립만세운동기념탑이 율동에 위치해 있는 등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 **한동익** : 그 위치는 삼평동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않습니다. 율동은 이미 대지 확보가 되어 있으며, 율동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 접근성도 용의합니다. 다만 주차시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윤종준** : 저도 공원화에 동의합니다. 산재되어 있는 기념물들을 한 곳에 모아 시대별로 전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원장 한춘섭** : 우리가 3·1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회의에서 시작하여 의병·현충탑 등을 한 곳으로 모아 현충 공원화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 이사회의 서명을 받고, 3~4부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3월말 이전에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문을 간략히 만들고, 보훈단체의 동의서는 보훈단체에서 서명 받으시면,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5. 폐 회

- **원장 한춘섭** : 이상으로 성남3·1운동 기념관 추진소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10)

## 다.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추진 소위원회 명단

소위원회 위원장	황 평 산 (성남문화원 부원장)
소위원회 위 원	한 춘 섭 (성남문화원 원장)
소위원회 위 원	한 동 억 (성남문화원 이사, 성남3·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소위원회 위 원	남 기 형 (성남문화원 이사, 前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사무총장)
소위원회 위 원	박 형 원 (성남문화원 이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성남지회장)
소위원회 위 원	방 영 기 (성남문화원 이사, 경기도의원)
소위원회 위 원	이 용 위 (성남문화원 특별회원, 광복회 성남시지 회장)
소위원회 위 원	윤 종 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소위원회 담당간사	이 보 영 (성남문화원 총무과장)

작 성 일 : 2009년 4월 28일(화)

작 성 자 : 이 보 영 (인)

**특색사업 추진 소위원회**  
**「성남 3·1운동 기념관」 추진**  
**소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 일 시 : 2008. 10. 13(월) 11:00

◎ 장 소 : 문화원 원장실

# 성남문화원

## 특색사업 추진 소위원회

### 「성남 3·1운동 기념관」 추진 소위원회

#### 회의 순서

- 일 시 : 2008. 10. 13(월) 11:00
- 장 소 : 문화원 원장실
- 참 석 자 : 한 춘 섭 (문화원장)
  - 황 평 산 (부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 한 동 억 (이사)
  - 남 기 형 (이사)
  - 박 형 원 (이사)
  - 방 영 기 (이사)
  - 이 용 위 (특별회원)
  - 윤 종 준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이 보 영 (총무과장, 소위원회 담당 간사)
  
- 개 회
  
- 인사말씀 (한춘섭 문화원장)
  
- 경과보고 (윤종준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2
  - ※ 별첨 : 성남 3·1운동 기념탑 건립 개요-----6
  
- 협의사항
  -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7
  
- 폐 회

##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 추진 경과 ㉸

- 1998. 11. 03 : (가칭)‘울동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조직(한백엄, 한동익)
- 1999. 02. 10 : ‘분당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로 명칭변경
- 1999. 03. 01 : 성남문화원 주최 제80주년 3.1절 추모식 거행  
장소-울동 3.1운동 발상지  
남선우 원장, 한춘섭 소장, 한동익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2000. 03. 01 : 제81주년 3.1절 추모식(연례행사로 정착)  
후원-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 성남교육청
- 2000. 08. 15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초대 한춘섭 회장 취임  
장소-성남문화의집 3층 강당
- 2001. 01. 16 : 제1차 이사회 개최  
장소-본회 회의실  
안건-제82주년 3.1절 기념행사에 관한 건
- 2001. 04. 17 : 제2차 이사회 개최  
장소-본회 회의실  
안건-8월 15일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06. 19 : 제3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8.15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07. 26 : 제4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8.15 세미나 개최의 건

- 2001. 08. 28 : 제5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센터  
안건-9월 4일 세미나 개최 최종 점검
  
- 2001. 09. 04 : 광복절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강당
  
- 2002. 02. 05 : 제6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제83주년 3.1독립만세운동 추념행사 준비의 건
  
- 2002. 04. 12 : 제7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3.1운동 83주년 행사 결산 및 8월 세미나 개최의 건
  
- 2002. 10. 05 : 성남3.1운동 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 청원서 제출
  
- 2002. 12. 04 : 제8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안건-제84주년 3.1절 행사 준비의 건
  
- 2003. 02. 21 : 제9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회관 1층 소회의실  
안건-제84주년 3.1독립만세운동 추모행사 준비의 건
  
- 2003. 03. 01 : 제84주년 3.1절 추모식 및 3행시 짓기 행사
  
- 2003. 04. 10 : 기념탑 건립 설계도 성남시에 제출
  
- 2003. 06. 09 : 제10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의집 1층 소회의실  
안건-3.1운동 84주년 추모행사 반성의 건, 기타 부의 안건
  
- 2003. 08. 15 : 제11차 이사회 개최

장소-율동공원 내 무교동 낙지집

안건-3.1운동 주도 선열 묘전 현화 현작례에 대한 평가

○ 2003. 11. 17 : “율동 3.1독립만세 운동의 실태” 세미나

발표-한동익 사무총장

긴급제언-“성남3.1운동기념사업” 제안(한춘섭 회장)

장소-분당문화정보센터

○ 2003. 12. 20 : 『성남지역 3.1운동 자료집』 발간

○ 2004. 02. 10 : 제12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소회의실

안건-제85주년 3.1절 추모식 준비의 건

○ 2005. 02. 23 : 제13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제86주년 3.1운동 추모행사의 건 및 기념탑 건립추진의 건  
“기념탑 건립 사업비 6억원 지원 결정”

○ 2005. 06. 23 : 제14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성남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의 건

○ 2005. 09. 09 : 기념탑 작품 공모 (주)소토 <태극의 울림-wave>선정

○ 2006. 02. 20 : 제15차 이사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안건-성남3.1운동 기념탑 준공식과 추모식 준비의 건

○ 2006. 03. 01 :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제막식 및 87주년  
추념식 거행

율동 만세운동 발상지에 6억원의 예산으로 기념탑 건립

○ 2007. 02. 27 : 임시총회

장소-성남문화원 2층 소회의실

정관일부개정 및 임원선출 : 김대진 제2대 회장 선출,

상임부회장 한동억

사무총장 윤종준

○ 2007. 03. 01 : 제88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거행

장소-성남3.1운동 기념탑 광장

○ 2007. 04. 23 : 제2대 김대진 회장 취임

장소-성남문화원 강당

○ 2007. 11. 16 : 독립운동가 한백봉 선생 묘비 제막식

장소-한백봉 선생 묘소

○ 2008. 03. 01 :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학술토론회 개최

장소-성남문화원 강당

발표-“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서승갑(경원대 교수, 역사학)

“성남지역 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

한동억(성남문화원 이사, 향토사학자)

## ☞ 성남 3·1운동 기념탑 건립 개요 ☜

성남문화원에서는 성남지역의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역사와 문화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성남 3.1 운동 기념탑을 건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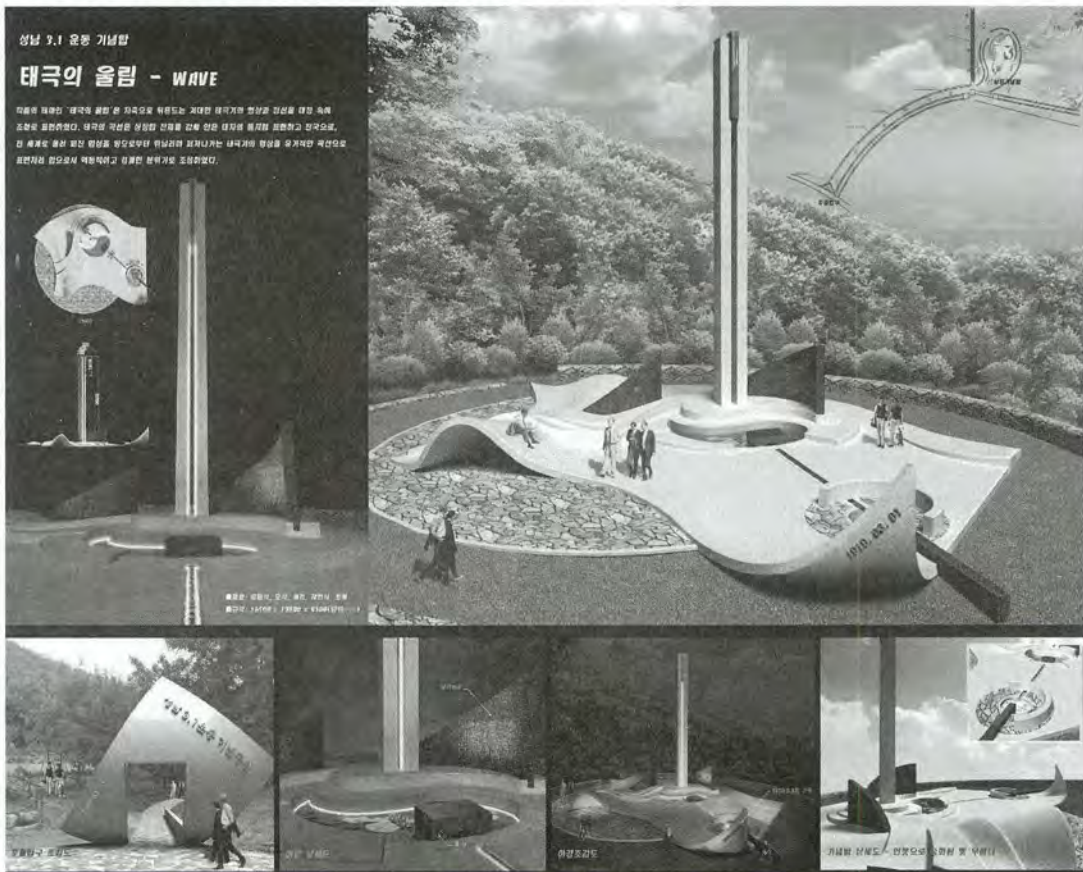
☞ 기념탑명 : 성남3.1운동기념탑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율동 370(744m<sup>2</sup>)외 25필지

☞ 부지면적 : 약 5500평(건립부지 200평)

☞ 예 산 : 600,000,000원(건립년도 2005년)

☞ 성남 3.1독립 만세 운동 기념탑 조감도



## ㉸ 협 의 사 항 ㉸

### 성남 3.1운동 기념관 건립(안)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 고장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바르게 기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발로는 물론 역사의 현장 학습 공간으로서 애국 애족의 장이 되도록 기어코자 함.

㉸ 일 시 : 계속 사업

㉸ 소재지 : 분당구 율동 362-1, 369-1, 393-1 도래마을 일대

㉸ 사업 내용 :

○ 건축면적 : 약 410평

○ 층 수 : 지상 1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사당 20평, 자료관 50평, 전시관 50평, 체험관 100평, 강의실 100평, 영사실 50평, 관리실 40평

㉸ 예산 규모 : 2,060,000,000원

(공원계획에 의거하여 성남시가 확보한 공원 용지를 사용하므로써 토지구입비는 불포함됨.)

㉸ 향후 과제 :

○ 성남의 3·1운동 자료의 지속적 연구 및 확보

○ 추진 주체간의 업무 협력 방안 모색

○ 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여론 조성

○ 가상 설계도, 조감도, 구체적 운영시스템 구성, 시민 사회의 영향력 조사 등과 관련된 세부 계획서 수립

# '가칭' 성남 3·1운동기념탑 계획(안)

2003.03



성남시



## CONTENTS

성남 3.1운동 기념탑

1. 건립개요	3
2. 건립배경과 목적	
3. 성남의 3.1운동 전개과정	
4. 기본컨셉	4
5. 위치도	5
6. 평면도	6
7. 입면도	7
8. 측면도	8
9. 추정사업비	9
10. 예정공정표	

### 1. 건립 개요

- 기념탑명 : 성남 3.1운동 기념탑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內
- 부지면적 : 약 〇〇㎡(〇〇평)

### 2. 건립 배경과 목적

- 기미년 3월 1일, 나라와 향토를 지키기 위해 선조들은 성남 노도(怒濤)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 일제 항거에 분연히 일어섰던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문명과 의혈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정신의 구심이 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있다.

### 3. 성남의 3.1운동 전개과정

- 성남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돌마면 율리의 한백봉, 한순회와 낙생면장 남태희 등의 주도로 돌마·낙생면민 3,000여명이 합세하여 전개하였다.
- 한백봉 선생은 1919년 2월 고종황제 국상 때 상경하여 3월 1일 파고다공원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3월 3일 고종장례에 참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던 한순회 선생과, 율리의 유창석, 남찬희, 방춘옥 선생 등과 돌마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낙생면의 남태희와도 연계하였다.
- 면내 각리의 유지들과 모의,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봉기할 것을 계획 한 후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3월 26일 오후 8시경, 율리 동민 50여명과 더불어 율리 뒷산에 올라가 봉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다.
- 27일부터 28일 양일간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던 돌마, 낙생면민의 시위대수가 대왕면민까지 합세, 시위군중의 수가 3천여명에 달하였으나 출동한 일제 관헌과 헌병들에 의해 주도자는 체포되고 시위군중은 해산되었다.
- 일제관헌에 의해 체포당한 인사들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한백봉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었다.

#### 4. 기본 컨셉

##### 호국의 상징 - 남한산성 성곽

-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도성을 지키던 남부의 산성으로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인 지역이다.
-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피신한 후 항복하였으나, 외침에 의하여 정복당한 적이 없는 호국충절의 얼이 서려 있는 성이다.

##### 봉기의 신호탄 - 봉화

- 봉화는 멀리 바라보기 좋은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하여 밤에는 횃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를 올려 외적이 침입하거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는 통신수단이다.
- 1919년 3월 26일, 울리 동민 50여명이 울리 뒷산에 올라가 봉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울리므로 역사적인 성남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성곽

봉화(횃불)

##### 조형물의 상징은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마다 남한산성 성곽에서 불굴(不屈)의 의지로 조국을 수호했던 호국충절의 애국정신과,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성남인의 애국애족 정신을 꺼지지 않는 횃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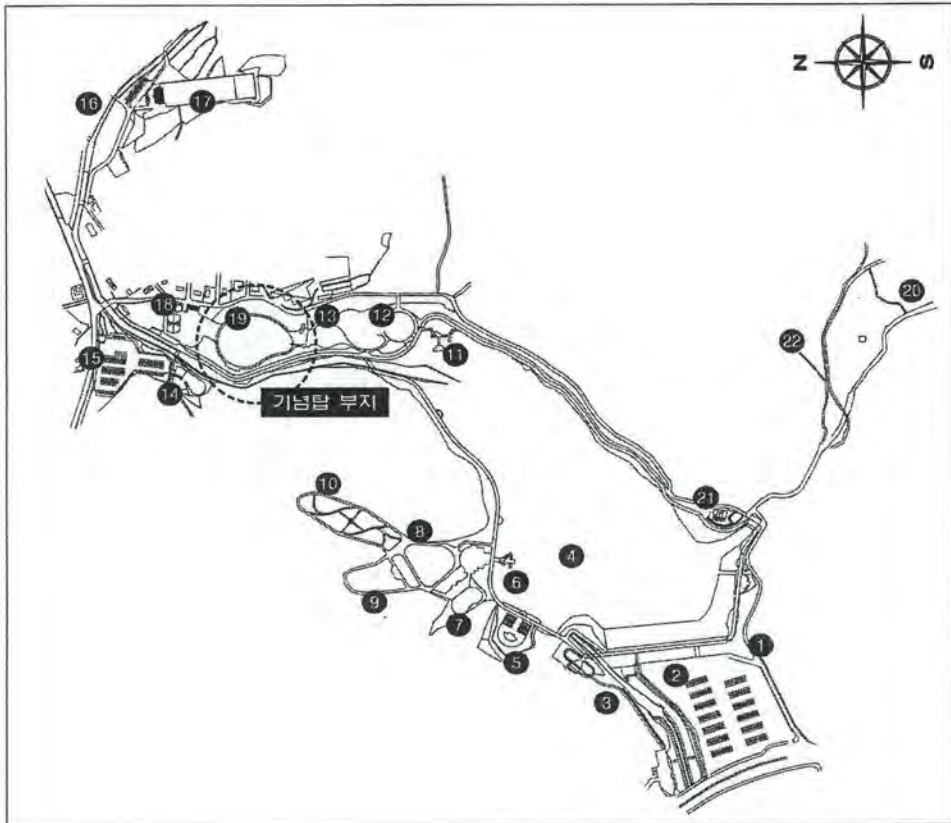
정복당한 적이 없는 단단한 성곽

비폭력 주도의 3.1운동

기층민들의 높은 애국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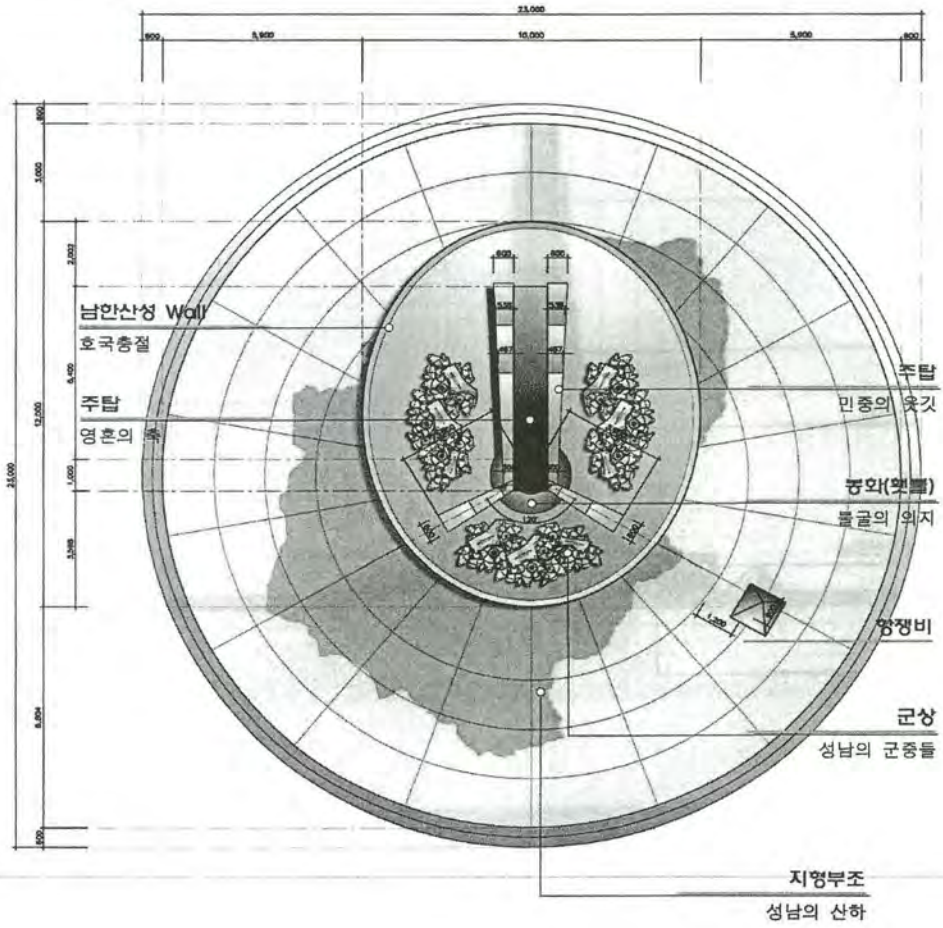
성남인의 단결과 끝없는 기상

5.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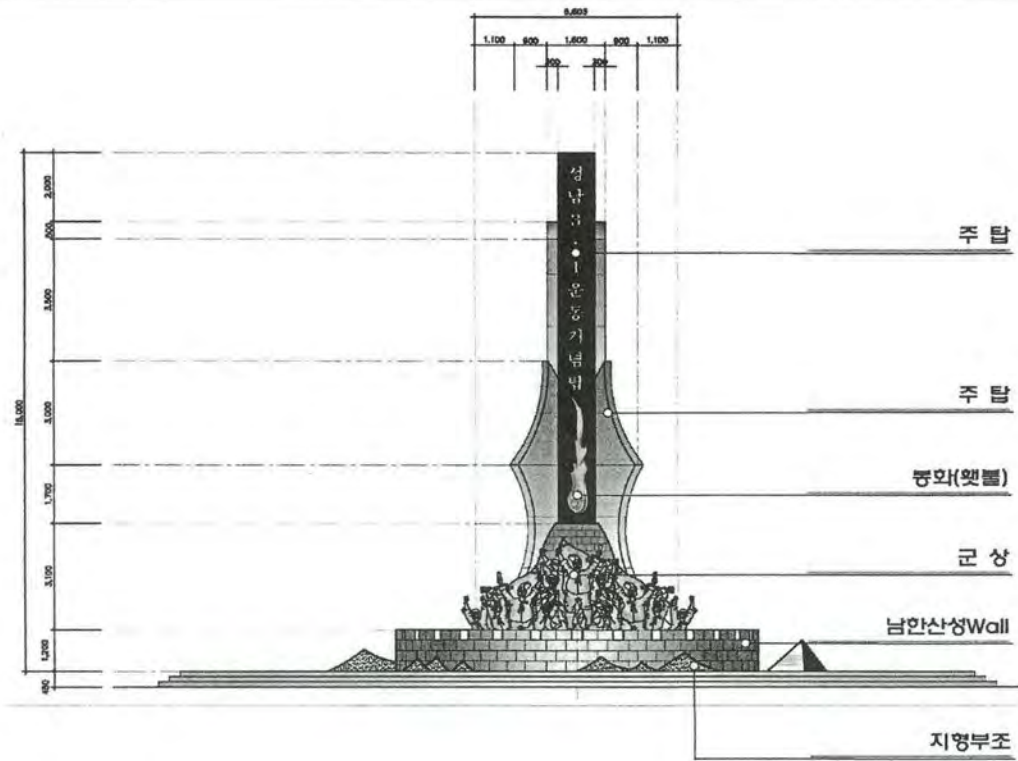


1	주차장 입구	7	어린이 놀이터	13	조형물 광장	19	잔디광장
2	주차장	8	발자압장	14	어린이 놀이터	20	대도사
3	수변 휴게소	9	잔디광장	15	주차장	21	수변 휴게소
4	분수대	10	사계절 꽃동산	16	주차장	22	잔디광장
5	배드민턴장	11	테크 및 갈대밭	17	극장		
6	번지점프대	12	수변 휴게소	18	관리사무소		

6.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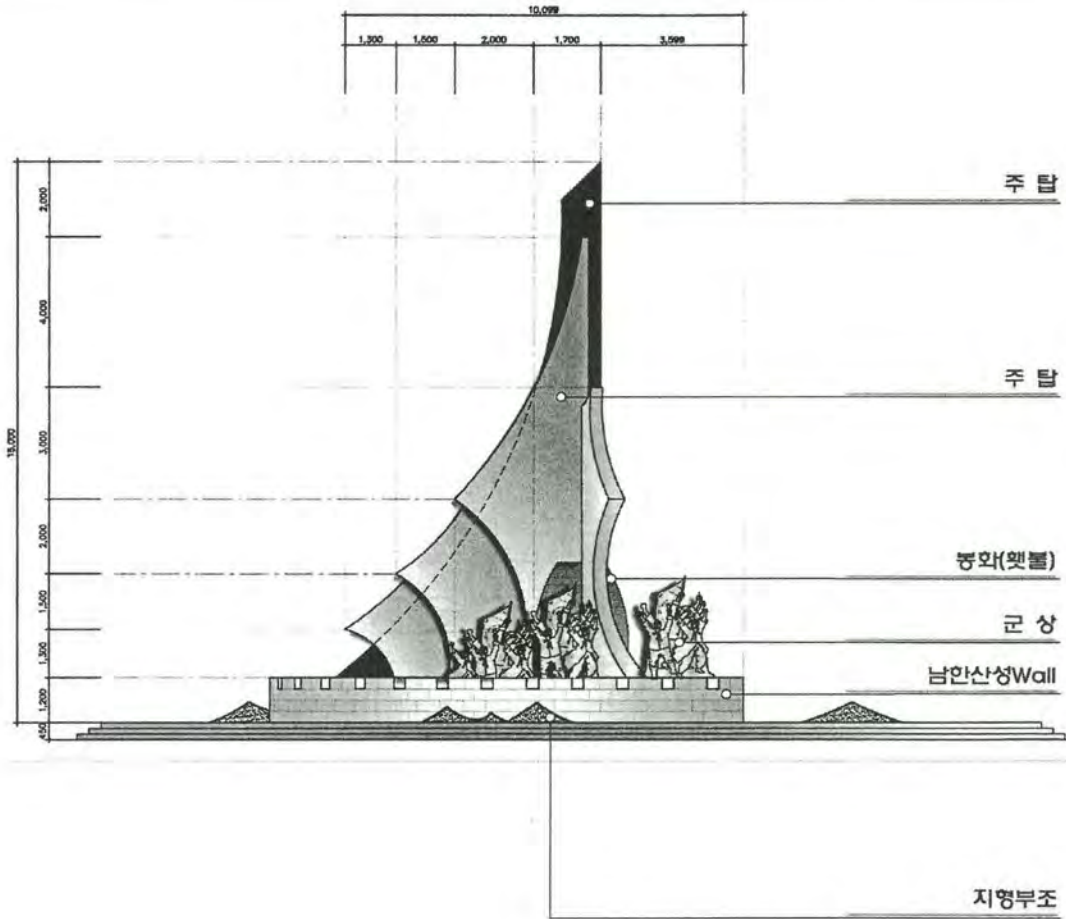
7. 입면도



○ 재료 계획

구 분	재 료	비 고
주탑 (영혼의 축)	오 석	
주탑 (민중의 옷깃)	화강석	
봉화 (불굴의 의지)	브론즈	
군상 (성남의 군상들)	화강석	
남한산성 Wall (호국충절)	화강석	
지형부조 (성남의 산하)	마천석	
기단	화강석	

8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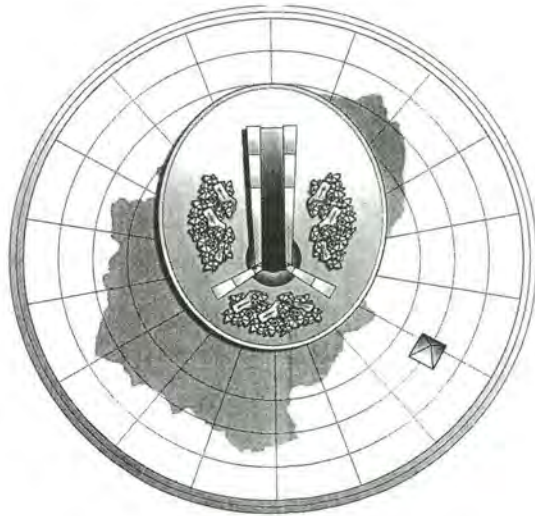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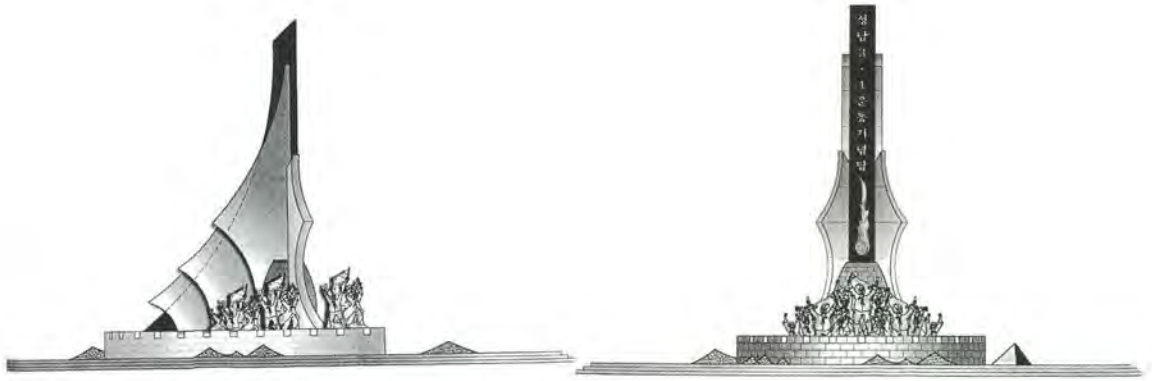
9. 추정사업비

공 사 명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가설공사	식	1	4,400,000	
터파기 및 지정공사	식	1	12,700,000	주변정지작업 포함
철근콘크리트 공사	식	1	75,700,000	
석재가공 및 제작설치	식	1	393,600,000	부조, 환조 등 조형물 포함
청동주물 제작설치	식	1	25,000,000	영혼의 등불
항쟁비 제작설치	식	1	15,000,000	
설계비	식	1	30,000,000	
합 계			556,400,000	V.A.T 별도

10. 예정공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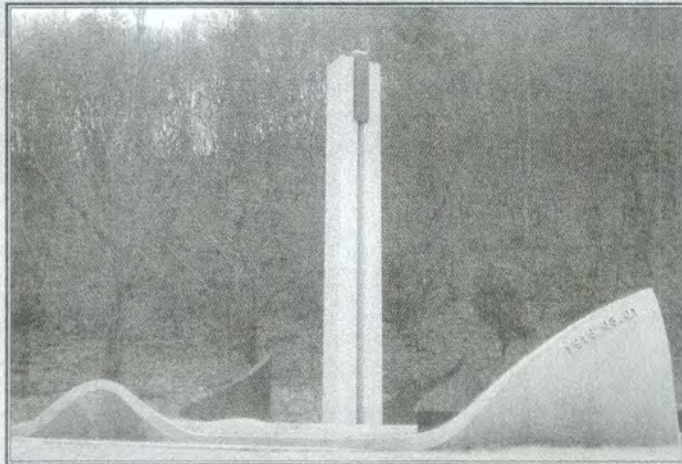
단위 : 개월

구 분 \ 일 정	1			2			3			4			비 고	
	1	15	30	1	15	30	1	15	30	1	15	30		
준비 및 가설공사	●	●			●			●			●			
터파기 및 지정공사		●	●											
기초부철근 콘크리트공사			●	●										
기단부 콘크리트공사				●	●									
탐신부 콘크리트공사						●	●							
석재 및 청동주물 제작 설치 준비	●	●			●	●			●	●				
현장 정리 및 청소									●	●	●	●	●	●



4. 회장 이·취임식 자료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2007. 4. 23 (월) 17:00~
- 장소 : 성남문화원(3층 전시실)

## 식 순

- ▣ 개회(사회-윤종준 사무총장)
-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봉창
-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연혁보고(한동익 상임부회장)
- ▣ 신임회장 선임패 전달
- ▣ 이임사
- ▣ 취임사
- ▣ 축사
  - 성남시장
  - 성남시의회 의장
  - 국회의원
  - 도의원
  - 광복회 성남지회장
- ▣ 감사패 전달
- ▣ 폐회
- ▣ 다과회

## 이임 · 신임회장 프로파일

### 초대회장 한 춘 섭



**[학력]**

1965 국제대학 국문학과 졸업  
1975 단국대학원 국문학과 졸업(문학석사)  
동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경력]**

- 1966 <시조문학> 추천 (시조시인 문단 출壇)  
한국문인협회(現), 한국시조시인협회(現).
- 1970 여주중, 농업고등학교(교사)
- 1974 국어국문학회(국문학자-現) 국제펜클럽한국본부(現).
- 1980 동성고등학교(교사)
- 1981 대유공업전문대학(교양 국어강사)
- 1982 <고시조 해설> 발행
- 1984 육당문학상 제정(상임위원)
- 1985 한국시조학회 창립(총무이사), <한국시조 큰 사전> 발행
- 1986 <번역 시조시선> 발행
- 1987 <성남문화원보> 창간호 편집, 주관
- 1989 <시조생활> 전문지 편집장
- 1990 육당 문학상 수상, 경기문학상 수상  
<한국 시조시 논총> 발행
- 1992 <한국시조 가사문학론> 발행
- 1993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창립 제1차 제출(연구위원, 現)  
중국연변시조시사 후원회장(現), <성남시사> 집필, 교열위원  
<한국 근현대 시조시인 연구> 발행
- 1994 <민들레 홀씨 돌이서> 발행
- 1996 성남문화상(학술부문) 수상
- 1997 성남시민헌장 제정 기획위원
- 1998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시조문학> 전문지 편집장
- 1999 성남기능대학(대학국어 겸임교수-現) <성남문화유산> 발행  
성남시 도로지명위원(現), 대통령 표창 수상
- 2000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장
- 2001 성남 향토유적 보호위원(現) <적跡> 시집 발행
- 2002 성남문화원 부원장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장 (現)
- 2004 전문 도서 2,200권 기증(중앙도서관 "문학자료실" 장서)
- 2005 강정일당 문화관광부 7월의 문화 인물 지정 추진
- 2006 성남문화원 원장(現)
- 현재, 개인 저서 13권 발행, 전공 연구 논문 30편,  
성남지역 연구논문 20편, 지역 특강 80회 등

### 신임회장 김 대 진



**[학력]**

-낙성초등학교 졸업  
-양명중학교 졸업  
-수성고등학교 졸업  
-서울산업대학교 졸업

**[경력]**

- 낙성초등학교 육성회장 및 운영위원장, 낙성고등학교 육성회장
- 판교동 예비군 동대장
- 낙성라이온스클럽 제14대, 제15대 회장
- 농협중앙회 대의원
- 낙성농협 협동조합 제8대, 제9대 조합장
- 분당경찰서 방범협의회 회장
- 성남시의회 3대 및 4대 시의원
- 성남시의회 판교 1.C 통행로 징수민원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성남시의회 분당 고압선 지중화 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분당 갑 지구당 부위원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성남시의회)
- 성남시의회 4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부회장
- [걸어가는 길]**
-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 지부장
- 21세기 분당포럼 자문위원
- 성남문화원 이사
- 판교지구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분당 갑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
- 낙성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경제정의 실현 시민연합(경실련) 회원
- 성남시의회 5대 시의원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 [수상 및 훈포상]**
- 판교동 방위협의회 회원 일동 동대장 재직 감사패
- 성남시장 표창2회
- 경기도 교육감 표창장 및 감사패 2회
- 국제라이온스 클럽 309-G지구 총재 무궁화 대상, 금상3회
- 낙성고등학교 교장 감사패
- 낙성농협 조합원 일동 세금환급 송소만결(15억 6천만원) 공로패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감사패 3회
- 낙성농협 조합원 일동 감사패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공로패
- 낙성초등학교장 감사패
- 국무총리 표창장
- 국민포장 수상

# 이 임 사

## 손에서, 손으로 태극기를 건네 받던 선열들



초대회장 한 춘섭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오늘, 조출한 <3·1운동 기념사업회> 이·취임식에 귀한 걸음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켰던 <3·1운동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물러납니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부족함에 부끄러워지는 7년이었습니다. 나라를 품듯 태극기를 품고, 목청을 돋우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선열들의 민족혼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 행여,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항상, 행사 때마다 달려온 7년이었습니다.

1999년 3월 1일, 울동공원 관리소 광장에 모여 서서,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80주년, 3·1절 추모식>을 거행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3·1절 추모식을 거행해 온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울동에서 선열들을 추모하고 그 추모의 마음을 한 데 모아 기념탑을 세우기 까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엽 시장님과 이수영 시의장님 지지에 의해 이곳에 모인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첫 사업 한 가지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어두웠던 억압의 시대는 가고 자유와 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나날이 도약·발전하는 오늘날, 과연 빼앗기고, 잃기만 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했던 이전의 시대보다, 어찌 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고 이 시대를 자평해봅니다.

제가 지난 7년간 <3·1운동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지내면서 애국선열들의 민족혼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 부족함을 떨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달려왔던 7년이었고, 앞으로도 자라나고 태어나는 후대에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뜻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취임하시는 김대진 회장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힘차게 이어나가 <3·1운동 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에 디딤들을 포개놓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취임식은,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에서 손으로 태극기를 조심스레 쥐어 들었던 애국선열들의 마음가짐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남선우 前 성남문화원장님, 한동익 사무총장님께 깊은 사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임사로 대신하겠습니다.

2007. 4. 23

# 취 임 사

## 애국애족의 민족정신이 전통적으로 계승되도록



신임회장 김 대 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원근에서 저희 3·1운동 기념 사업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언제나 마음속깊이 존경하옵는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각계 지도자 여러분과 3·1운동 기념 사업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많은 애국지사 분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같이하는 지역유지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2000년 8월 15일 성남3·1운동 기념사업회가 창립되면서 부회장으로 선임된 저로서는 일생일에 더 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임 회장이신 한 춘 섭 문화원장님의 탁월한 이끄심으로 기념 사업회는 발전을 거듭하며 성남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울동공원 내에 성남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라는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임하시는 한춘섭 전회장님께 전 회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불초한 제가 회장으로서는 얼마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주시면 백만 시민의 염원인 기미3·1독립만세운동 기념관과 애국지사들께서 형언 할 수 없이 참혹한 고문과 악형을 당하고 쓰라린 옥고를 겪으셨던 옥고체험관을 건립하여 애국지사 분들이 겪었던 참상을 시민 모두가 체험함으로써 성남의 백만 시민이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을 깊이 명심하고 함양케 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전승되는 애국애족의 민족정신이 전통적으로 계승되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만 시민들께서도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23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沿革

- 1998. 11.03 (가칭) 울동 3·1 독립만세 운동 기념사업회 조직(회장 : 한백엄, 사무총장:한동역)
- 1999. 02.10 (가칭) 분당 3·1 독립만세 운동 기념사업회로 명칭변경
- 1999. 03.01 "성남문화원 주최 제80년 3·1 절 추모식" 최초의 지역문화행사로 울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에서 거행(남선우 문화원장, 한춘섭 향토문화연구소장,  
한백엄 명예회장, 한동역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2000. 03.01 제81주년 3·1 절 추모식 거행(후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청)
- 2000. 08.15 성남 3·1 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총회(회장 한춘섭, 사무총장 한동역 선출) 및  
학술세미나 개최(문화의 집 3층, 전시실)
- 2001. 03.01 제82주년 3·1 절 추모식 거행
- 2001. 09.01 광복절 학술세미나 개최(분당 문화정보센터 지하 강당, 현종현 외 3인)
- 2002. 03.01 제83주년 3·1 절 추모식 거행
- 2002. 10.05 성남 3·1 운동 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청원서 제출
- 2003. 03.01 제84주년 3·1 절 추모식 거행  
(시에서 행사 지원금 550만원을 최초로 받음)
- 2003. 04.10 성남시청에 기념탑 건립설계도 제출
- 2003. 08.15 성남 3·1 운동 기념사업회 임원 일동 독립지사 묘역 참배 한화
- 2003. 11.17 제3차 세미나 개최(울동 3·1 독립만세 운동의 실태, 발표자:한동역)  
성남3·1 운동 기념사업 긴급제언(기념사업회장 한춘섭)
- 2003. 12.20 <성남지역 3·1운동 자료집> 총232쪽 발간
- 2004. 03.01 제85주년 3·1 절 추모식 거행
- 2005. 02.23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비 6억 문화원(원장 남선우)사업비로 지원
- 2005. 03.01 제86주년 3·1 절 추모식 거행
- 2005. 09.09 기념탑 작품 공모결과 (주)소토의 "태극의 울림-wave" 선정
- 2006. 03.01 제87주년 3·1 절 추모식 및 기념탑 제막식 거행
- 2006. 05.15 기념탑 보완공사 및 기념탑 일대 조경공사 완료
- 2006. 02.27 한춘섭 회장의 사임의사로 긴급 임시총회 개최(회장 김대진, 선출)  
정관 일부개정으로 (상임부회장 한동역 선출, 사무총장 윤종준 임명)
- 2007. 03.01 제88주년 성남 3·1 만세운동 기념식 거행(후원: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청)
- 2007. 04.23 회장 이·취임식

제 5 편  
언론보도자료

여 백



# 울동에서의 3.1 만세사건

올아오는 3월1일은 공휴일이다. 올해가 81년경 3.1절의 역사적 만세운동이 당시, 조선 땅 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그 날! 성남지역에서의 만세운동도 한 울동 자연공원에서 우리 고장출신 독립유공자 한백봉(1881~1950), 안순희(1885~1961) 등에 의해 봉화를 올리고, 손에손에 태극기를 든 채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 만세" 소리가 높은 마을을 뒤덮으며 일제 탄압의 억울함을 온 세상에 규탄, 호소하였다.

작년에 처음으로 울동공원 관리소 앞 공장에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원(부설)의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3.1절 추모행사를 가졌으나 끝낸도 행사추진에 애착처럼 여의지 않았다.

우리 고장에 기미독립 만세운동을 발상지가 각종 본연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으나 뜻있는 개인과 단체에서 고개를 외면한 채 지나치기 쉬운 일에서 신히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수년동안 찾아지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1919년의 3월 만세사건은 이미 나라안과 나라 밖에서 연계되어 수개월 동안 일제의 수탈정책을 인도주의에 입각한 만민평등 대원칙에 의하여 적의 심장이 서늘하도록 만세소리를 높인 저항 정신의 큰 사건이었다.

81년전 그 날의 한국정세는 주권이 없는 한국인 노예 생활의 출렁기였다. 일본 유학생들이 적의 신장부 동경에서 1919년 2월8일에 집회를 통해 정당한 조선인의 의견을 선언서로 주장하고, 만세소리를 외치며 내 나라를 되찾음에 주저치 않으려 의연히 일어섰다.

이같은 소식이 나라안에 알려지면서 급기야는 각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 민중

들이 방방곡곡에서 연쇄적으로 구국운동에 너도나도 앞장 섰었다.

이곳 성남시 일원에서도 당시, 경기도 광주군 관할의 중부면, 돌마면, 대왕면, 나생면 등 4개 면민들이 곧바로 독립정신이 남보다 앞선 한백봉(당시 39세)과 안순희(당시 35세) 그리고, 나생면 장을 지낸 남태희 및 사민들

가 개척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도 비운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연연한 사심인 것이다.

한순희선생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고, 한백봉선생은 광주향교의 간부로서 그 누구보다 폭넓은 지역활동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경술 국치일'의 울분을 지낸 채 1019년 2월,

러였다.

분당리 정터에서 오전 10시경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 선장행렬을 앞세운 만세시의 사건은 일어났다고 기록으로 전한다.

이날부터 연속 3일동안 시위대 군중들이 돌마면에서 나생면과 대왕면인 그리고, 중부면과 오포면인 일부가 개척하지 무려, 1천여 명의

되어 거룩한 고분을 받은 것으로 사건조사서에 정해지고 있다.

한백봉선생은 죄를 묻는 일본헌병에게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기인하여 자주독립을 주장한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항변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모두 방면해 주시오!" 하면서 그후 3~4일만에 대부분 풀려났다.

그외같은 돈초 끝에 주동자로 지목된 그는 1년의 옥고를 치른 후 풀려나 재차 뜻있는 이들과 함일운동 지도를 맡지 않아 울리의 남산천, 방촌속, 한송의, 한백희선생, 동부면의 이대환, 유인옥선생, 경안면의 박기환 등과 주도하여 광주지역의 신간회를 창립하고 계속하여 독립운동에 정진하였다.

성남지역에서의 3.1 만세사건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늦게 나타났다. 주동자들이 서울 중심지역의 독립만세 추세를 살펴가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통일정신을 고무시키고 인근 면민들과의 비밀조직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남지역의 만세사건은 늦게 벌어졌다.

그당시 전국적인 만세사건은 1천2백여차례 일어났고 독립유공자 1백10만 명으로 조사되어 정한다. 이중에 한 지역이었던 이 고장 3.1 만세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원한 민족자존과 호국충정의 정의로써 애국정신으로 길이길이 계승되어가야 할 국민지표인 것이다. 이에 한 지역에서 있었던 작은 듯한 3.1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 잊혀질 수 없는 항복에서의 빼어난 정신유산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앓을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료제공: 향토사학자 /한양천)



울동공원 호수앞에 세워진 안순희 독립유공자비

## 우렁찬 '조선독립 만세' 성남땅 기미년의 함성!

에 의해 만세사건은 3월27일 새벽부터 3일동안 각 면민들 함께로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성남시 안에서 81년전에 있었던 작지 않았던 만세사건을 그냥 파묻어 두고 말 수는 없으며, 역사의 후손원유리아말로 자못, 피스라움조와 깨달으며 그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민족의 조국의 활기찬 운명을 민족 스스로

고통황제의 참례식에 참석하여, 손영희, 오희영, 권범억 같은 민족지도자들을 만나 조선독립 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그해 3.1 만세사건에 폭소 참여하였다. 드디어, 3월27일 분당리 장남을 택하고 그날 새벽 울리 주민 50여 명과 같이 열장산계곡의 모란봉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리는 일로부터 시작

대집회 군중들로 늘어난 만세사건이었다.

그러나 울동한 일본 헌병대의 진압 총알앞에서는 주모자 구속과 열장산지자구 무로 일단 해산되었을 것이다. 태극기 함수와 함께 산방치 시위는 간헐적으로 몇 차례 더 있었다고 하니 권교순사주재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함께 주동자 및 사민이 남한산성헌병대에 이송조치

# 기미년 3.1독립만세 운동

본지가 이미 특집으로 발표한 운동에서의 31만세사건(294호)에 이어 그 두번째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3월 1일 오전 10시반부터 을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에서 직년도에 이어 제8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기로 예정된 시점에서 연속적인 특집은 그 의미가 클 것이다.

성남문화원과 (부설)향토문화연구소에 의해 추진중인 이 사업이야말로 성남지역의 역사적인 만세사건을 올바르게 후세들에게 계승할 사업이라고 믿는다.

〈편집자주〉

이 지역의 화려했던 역사와 문화가 훼손되고 오도되거나 유실되어 버린 일이 허다하거나와 정의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자존의 독립만세 운동이 성난 노도와 같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펼쳐질 때 들마, 나생 지역을 강타한 역사의 사실을 바로 알리고자 한다. 주도하신 분들은 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등 세 분이다.

만세운동의 기간은 3월 26~3월29일이었다.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 5집 31운동 재민기록 291, 292쪽 에 있는 한백봉선생의 관필문 내용에 3월28일 괴고가 거주하는 동리에서 이반에게 대하여 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여 약 50명을 모았는데 다시 다른 곳에서 그 가사에 찬동하여 수백명이 와서 참가했다. (이하생략)라는 구절이 있고, 또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사(상) 1143쪽에는 '들마면, 율리의 한백봉은 3월28일 동리시한 1백여명과 함께 다음날 저녁때까지 태극기와 깃발을 들고 만세시위를 계속했다 (이하생략)고 적혀 있으며, 경기도 향일옥 향일운동사 제2권 1910년대 항일독립운동과 3.1운동 435쪽

에 '일단의 준비를 마친 한백봉 등은 27일 새벽 그가 거주하는 율리 동리인 50여 명을 인솔하여 뒷 봉산에 올라가 분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성남지역의 역사 중 근, 현대사의 성남지역 3.1운동사 136쪽에(전문생략) 3월 26일 오후 8시경, 율리동민 50여명과 더불어 마을 뒷동

들은 3.1독립만세사건 이후 일제는 대·내외적으로 유화 정책을 쓰면서 시위운동의 숫자나 일정을 축소 조정 또는 이에 폐기시키기도 하고, 처음에 혹독한 체벌과 형기를 안락한 형적이 여러곳에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일제의 의도적 소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세운동의 주창자인 율동에서는 3월26일 제

1910년대 항일운동과 3.1운동 435쪽에는 '반교 현병주 재소 소속의 마쓰시마라는 현병은 함께 만세까지 부르려고 하는 기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시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광화적 시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하겠다. 수백명이던 시위군중은 낙생면민과 한세하였을 때에는 1천여명 또는 3천

명을 비롯한 수십여명이 증원을 든 일본 헌병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무차별 구타 및 온갖 형언할 수 없는 악행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들까지 기개를 굽히지 않고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한 기복이 남아 있다. 한백봉 선생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모두 방명하라'고 하여 2~3일만에 거의 풀려났으나



신광의 황주에서 결성 한주년 기념사진



한백봉 독립유공자



한순회 독립유공자

## 정확한 날짜는 3월26일부터 민족자존의 정의로운 기개

산에 올라가 분기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다'고 적혀있고, 관주군지 역사편 삼일운동사 (하)쪽에 '들마면 율리의 한백봉은 이날(3월28일) 마을 주민 1백여명과 함께 다음날 저녁까지 태극기와 깃발을 들고 만세시위 행진을 계속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기록마다 하루이름 차이가 있어 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의 혼

난부터 27일 새벽까지 봉화를 계속올리고 만세를 부른 것으로 진하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3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가 정확한 날짜이다. 3월27일 분당리장터에는 수백명이 모여 독립선언서 낭독 후 조선 독립만세를 한백봉선생의 선장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시위에 들어갔다. 이때의 상황을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사 제2권

여명으로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엔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들마, 나생이 각 동리의 구조가 집중촌을 이루고 있어서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연결고리가 끈끈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연립과 행동이 치밀하고 높은 자치수준이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28일 한백봉선생은 199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 1백만 시민이 하나되어 민족자존의 정의로운 기개와 독립정신을 일깨워 찬란한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강하게 푸는에게 달려들어서 역사의 왜곡을 막아야 하겠다. 한동익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리빙타임즈 (2001. 2. 13/ 2002. 1. 22/ 2. 19)

2001년 2월 13일 [화요일]

리빙타임즈

제 356 호

# 울동에서의 3·1 만세운동

## 문헌, 자료에는 밝혀지나 유적지 복원 및 기념사업 시작단계

올해오는 3월1일은 일제 치하였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82년째 되는 날이다.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린 역사적 만세운동이 당시 삼천리 반방곡곡으로 메아리치던 그 날! 성남지역에서는 한 울동 지원공원에서 우리 고장출신 독립 유공자 한백봉(1881~1950), 안순희(1885~1961) 등에 의해 봉화를 올렸고, 순애순에 태극기를 든 채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 만세' 소리가 농촌마을을 뒤덮으며 일제 경찰의 무장한 얼굴 내상에 규탄, 호소하였다.

2년 전인 1999년, 처음으로 울동공원 관리소 앞 공장에서 성남시의 성남문화원이 공표 주최하고 문화원(부설)의 향토문화연구소 주관하에 3·1절 추모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작년엔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회장 한순희 시조시인)'가 결성되어 보다 치밀한 계획 아래 성현의 유지를 본격적으로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고장의 기억돌림 만세운동 발상지가 각종 문헌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으나 유적지 복원 및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는 현명이다. 그 중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기념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위 사업회는 작년에 회원들 스스로 자비를 모아 8월 15일 광복절에 성남문화원 집(순진물소계, 구 교학정)에서 제민내(포자, 백남옥 등)사육에교수, 한봉익(향토문화연구원 연구원) 및 보존회를 기했고, 이후 수차례 걸쳐 회원들이 토론과 연구를 거듭하며 현장답사 및 기념물 건립 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단년에는 성남사에서 이러한 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므로 성남의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될 기틀을 갖게 되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82년전 그 날의 조선 전역에는 주권이 없는 광국민의 노예 생활이 막을 내린 시기였다. 그때 미국 여행객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및 고종의 인산 등의 사건이 맞물리면서 독립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급기야 3·1독립만세운동이 불길처럼 산천리 반방곡곡으로 번져 나갔다.

이곳 성남시 일원에서도 당시 경기도 광주군 관할의 중부면, 울미면, 대왕면, 낙성면 등 4개 면민들이 곧바로 가담했다. 독립정신이 투철했던 한백봉(당시 39세)과 안순희(당시 35세) 그리고, 낙성면

이년부터 연속 3일봉산 시위대 군중들이 울미면에서 낙성면과 대왕면인 그리고, 중부면과 오포면인 일주가 가세하자 군중은 무려 1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울동한 일본 헌병대의 진압 총알 앞에서 주도자 구속과 일성지지지 구타로 일단 해산되었다. 태극기 압수와 함께 산

동에 정진하였다.

성남지역에서의 3.1 만세사건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뚜렷게 일어났다. 우한 자군이 서울 중심지역의 독립만세 추세를 침략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고 인근 주민들과의 비밀조직을 만드는 기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만세사건은 전국적으로 1천2백회나 일어났고 동원된 국민 총수가 1백10만명이었다고 조사보고서는 적었다. 그 중 한 지역이었던 이 고장 3·1 만세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원한 민족자존과 효국충절의 정의로써 대국정신으로 굳이같이 계승되어야 할 시민적요인 것이다. 이에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뜻 깊은 뜻한 82년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잊혀질 수 없는 항토역사의 배아인 정신유산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고장 독립 유공자 한백봉, 안순희 등에 의해 봉화

장문 지원 남태의 등 몇 사람의 주도하에 만세사건은 3월27일 새벽부터 3일 동안 전개되었다.

한순희선생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고, 한백봉선생은 광주향교의 건부로서 그 누구보다 폭넓은 지역활동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정순 국지일'의 울분을 지닌 채 1919년 3월,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순병죄, 오화죄, 권벌죄 같은 민족지도자들을 만나 조선독립 만세운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그해 3·1 만세사건에 몸소 참여하였다. 드디어, 3월 27일 본단의 장남을 택하고 그날 새벽 울리 주민 50여 명과 같이 열장산 계곡의 모란봉 정상에 울리가 독립만세를 예고하는 봉화를 올렸다.

분당리 집터에서 오전 10시경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 선상행렬을 앞세워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발의 시위는 간헐적으로 몇차례 더 있었다고 한다. 평소 순사주재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함께 주동자 및 시민은 남한산성행진에 이송조치 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은 것으로 사건조사서에 정해지고 있다.

한백봉선생은 처음 끝은 일변면에게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기인하여 자주독립을 주장함을 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모두 방면해 주시오"하여 그후 3~4일만에 검거자 대부분은 석방되었다.

그와같은 문초 끝에 주동자로 기록된 그는 1년의 옥고를 치른 후 풀려났으나 항일운동에 대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다시, 울리의 남한희, 방춘옥, 한영희, 한백오선생, 등부면의 이예연, 유인복선생, 경안면의 박기환 등과 주도하여 광주지회 신간회를 창립하고 계속하여 독립운

### 82주년 3·1절 추모식 알림

성남지역의 3·1 독립만세 운동 발상지인 현 분당구 울동(당시 울미면 울리-분당장남)에서 향토문화연구소 주관, 성남문화원 및 기념사업회 주최하에 '제82주년, 3·1절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뜨거운 민족자존의 정신과 고귀한 애국혼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같이 추모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식탁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3월 1일(목) 11시~
- ▲장소: 울동공원 관리소 앞 공장
- ▲참석인: 지역단체장 및 성남 시민
- ▲후회: 성남시 경기도 성남교육청
- ▲주최: 리빙타임즈/ 성남농협 / 낙성농협
- ▲주최인: 개산-국민회계-북남기독교회
- ▲주최인: 성남-기념사-추모사-민세사건회고-3.1절 노래 부르기-민세상-내빈소개-우로 노랫가-도로행렬-폐식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좌담회(발췌)



김우권 한국공군특수지원부대 교관, 남기형 순국선열유족회 사무총장, 남전우 성남문화원 회장, 이용상 독립유공자, 시인, 한동익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준섭 리빙타임즈 회장

# 일제에 저항으로 맞섰던 애국 정기 성남의 3.1독립 만세운동과 의병활동

지난 99년 3.1절 추모식(제80회)부터 울릉에서 행사를 전담해 온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회장 한준섭)는 우리 민족의 지존·민주·도의 순국선열 정신과 경위를 알기 위해 본지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지금의 성남 옛 고장이었던 대왕·낙생면의 구국 의병장, 월미면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과 관심있는 인사와의 대화로써 향후, 성남의 애국선열 추모사업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일상: 1. 20일 오후 400 ▶장소: 리빙타임즈 신문사

▶한준섭 = 올 88주년, 성남3.1독립운동 추모식을 준비하면서 울릉에서 애국 활동과 더불어 특히, 성남 의병활동을 함께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지난 99년도 80주년의 3.1절 추모행사가 성남에서 최초로 거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례적 추모사업을 위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오니 향후, 도움되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형 =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순국선열 성양사업을 주관하며 우리나라 초기 의병이 주로 농민층기에 의해 나라를 지키려 했던 자취를 알게 되었지요. 중,말기 의병항쟁에 나갈 수족 민영환 자결, 이상설, 이준 형사의 순국 사건으로 확대됩니다만 성남에서의 재 확대되지 못함에 달란 일제에 의한 하산준동(드물리) 강제/말복 노동에 부당함을 외치다가 구타와 모진 고문에 의해 결국, 서대문형무소에서 33세 이 젊은 몸의 나이에 옥사하셨지요. 그의 대항전의 용감함 의병장도 재 한이 비자와 뵈는때였어요.

▶김우권 = 본인이 1992년도 입주한 후 저는 역사관,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제2세대가 민족적인 사임을 할지라 시책이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날기 형제와 같이 의병장 추모비 건립문제를 몇 차례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껏 아무 도움이 못 되어 수입내 한 김병항시정당을 집권할 생각으로 있으며, 향후 애국자 추모사업은 빠른 수속 좋다고 봅니다.

▶한준섭 = 저는 96년엔 '성남문화연구 3호'에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를 처음 발표했는데 아직껏 순이비 건립은 제 자리 정음으로 잘 운영될 상태입니다. 이요전의 애국자 후손사업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곳

에 대한 표징비 건립은 연차적으로 건립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동익 = 성남에서 의병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표징비 건립은 연차적으로 건립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동익 = 성남에서 의병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표징비 건립은 연차적으로 건립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 성남, 각 집성촌 애국지사 많아 애국자 추모사업, 빨리 돌려야

답유공자를 주제로 이같은 좌담회도 처음으로 열린 것 같습니다. 제 포부에서는 올달 3.1만세에 앞장서신 분이나 마을 뒷산 묘안분 봉하여 분당리장날을 택하여 만세시위를 연 3월 동안 1천여명 지역주민들과 거세게 부흥한 활동정도가 확실합니다. 일제 관력에 따라 1년동안 목고를 치루신 그분은 신간의 활동에도 앞장 서 움직인 이었습니다.

▶남전우 = 자리를 함께하신 이용상, 김우권 독립운동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시민들에 '민족정기 계승'을 확실히 홍보해 오신 (주)리빙타임즈사에도 감사함을 전하며, 전국 방방곡곡 애국애족 정기가 성남 이 땅에서도 열렬하게 앞장섰다는 역사적 증거일에 후손일 우리는 앞으로 안정에 건립된 기념관과 탐, 전시관을 표본으로 삼아 문화원에서도 애국자 성양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 중입니다.

▶이용상 = 성남시 위상을 드높이는 일에 역사문화와 위대한 인물을 찾아 모시기는 정말, 값진 일이지요.

일정한 터전에 민족정기 성양기념비를 건립하고 이제라도 시민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교육장남과 협조하여 학생교육에도 나서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용상 = 성남 이 지역특성이 묘한 데에서 애국심이 아주 막강하지요. 원래, 이 지역 공주군의 역사는 그런 데가 아니었거든요. 언론과 지역신문사가 더욱 홍보하는 노력을 보여야 해요. 모란상인회에서까지 애국자 모시기에 관심을 보이는 마당에 지역인사들이나 시민, 공직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남전우 = 중원의 고성에 걸맞게 문화원의 옮겨 일을 맡고드리지만, '의병장 역사자료 조사' 사업과 학술회, 향토유적 바로알기, 참뎡리 학술회의 등 사업으로 이 고장 애국자 성양에 힘써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홍보와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준섭 = 성남시에선 역사의 인물 연구와 발표회나 연례적으로 지속성있게 특성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후속조치로 시민홍보는 부족한 상태지요. 앞으로 문화원, 도서관 등에서 인터넷 정보화 자료자점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지금까지 탐승 나누신 중에 기념물이나 기념관 문책을 시 당국에서도 상당부분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완성될 때가 있게 될 겁니다.

▶한동익 = 의병이나 3.1운동의 자료들도 빨리 만들어 주어야 하며,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일도 치를러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발굴고 나서지 않으면 자주 뒤질 일이지요.

▶남기형 = 자료수집에는 후손뿐 아니라 자신도 협조하셨습니까. 다만, 아전안수책이 될 우려 때문에 함부로 내사시키기 곤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준섭 = 여러분과 함께 한 기념사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애국정신 성양사업을 전개하여 자랑스런 정신문화 유산의 고장임을 시민들에게 더 한층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좌담회를 마치고습니다.

성남도민의 집합 장소라는 신 도시의 정착 시설을 자주 뇌끼리기 전에 옛 공주군 문화원을 조사 발굴하여 현충하여 합니다. 각 집성촌의 성씨별 위인이 적지 않게 묻혀있다고 합니다.

▶김우권 = 광복의 활동에는 60년 초에 참호되어 현재, 생전에국지사 3백여명, 유족 5천7백여명의 회원입니다. 성남시민으로 살며 전 공원이나

3.1 독립만세 추념식을 준비하며

한준섭 時論 글림

# 3.1 독립만세운동 율동에서 메아리쳐

## 돌마·대왕·낙생·중부면 주민 천여명 연일 만세운동

매년 3월 첫날이 가까워 오면, 이 나라 애국선조들의 구국 만세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심천리 방방곡곡은 백성들의 '조선독립 만세' 외침은 그야말로 조성을 강제 침탈했던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어 주기 충분했을 것이다.

물론로서 어느 세 해, 그들의 함성은 뜻있는 후예라면 어느 누구라도 가슴 울림이 없지 않다.

본지는 3.1 독립만세 추념식에 즈음하여 우리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인해 율동공원에서 열린 31독립운동 추념식에 모인 시민들

### 성남의 독립만세 운동

현 성남지역이었던 당시 광주군 돌마면의 대왕·낙생·중부 4개면인 1,000여명 주민들도 율동에서의 한백봉(1881-1950), 한순회(1885-1961) 독립유공자의 첫 불꽃 및 만세의침을 시작으로 급기야 성남 일화에 연일 계속되어 여러 지역 인사들까지 독립항쟁 대열에 동참하였다.

1919년 3월, 고종황제 장례식에 참석하여 독립운동을 지도자들을 만나고 돌아 온 이 고장 지도자 및 사관은 각 마을마다 비밀결사에 의해 태극기를 만들고 분당리 장남인 3월 27일 오전 10시, 만세집회 시간으로 정한 채 그 날 새벽부터 돌마면 율리 뒤 영장산 기슭 모란봉 정상에 50인 마을주민과 함께 올라가 독립만세는 물론, 분화를 피워 올렸다.

### 일본 헌병대의 무자비한 진압

장터 집회에서도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 외침 즉시, '조선독립 만세' 시위 군중 행렬은 순식간에 4개 면 각 부락마다 이어졌으며, 남대노소가 차츰 가세되어 연 3일동안의 항쟁대열이 한적했던 농촌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울분했던 일본 헌병대의 진압 총칼앞에도 굴하지 않았던 구속당함 지도자들은 혹독한 고문과 사형조치에 의해 남한산성 헌병대에 이송조치 당했다.

그 당시 조선독립만세 구국항쟁은 전국적으로 21개소 1천542회에 2백2만여명이라고 기록은 전한다. 이 고장 3.1 독립만세 운동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약소민족이라도 자주적 생존권을 누려야 한다는 민족자결주의 대원칙 시대변화에 따른 옛 선조들의 호국충절 3.1정신은 길이길이 이 땅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인 것이다.

독립운동은 한국인이란면 누구를 지워 버릴 수 없는 숭고한 애국선상의 자립된 뿌리임을 틀림없다. 더구나 아직도 분단의 현 상흔하를 새삼 짊어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민족 누천년대 역사속에 두 번 다시 되풀이되

지 말아야 할 배아팠던 우리의 과거사인 점이 틀림없다.

이 고장 근대 역사 속에는 애국충절의 발자취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보다 근 100여년 전에 의병항쟁을 주동했던 남상득, 윤치장 의병장에 의해 일본에 항거하는 '구국사랑' 애국적 봉기가 있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또한, 이 고장의 굳건한 애국주의 충절이 대대로 비속에 뱀 고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도 개인 이기주의



### 한백봉, 한순회 독립유공자 만세외침 영장산 모란봉 정상 마을주민 모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 더 밝은 미래를 가꾸는 민족 대안결여에 한 걸음 생각하여야 할 즈음이다.

**일본의 아비한 기회주의**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움직임을 자세히 보자면 우리 스스로의 주권과자식을 경계야 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보인다. 지난 해에 있었던 일본의 사태를 바라보면, 준비지을 세계2회 일본이 1954년 자위대 발을 더욱 강화하면서 2001년 방위백

서에 근거하여 미중 테러를 빌미로 자위대 파견법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군함 병함을 경북지역에 과감히 투입시킨 일로 시작하여 지난 해 8월 4일, '제1회 대동아 삼강제'인 대대적 국가 행사에 맞춰 거대한 율령비까지 건립한 것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아찔한 기분이 드는 실례로 성립비 건립식장에 참석했던 건법세대(嚴犯世代)들은 "영령들이여, 만세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 되소서"라



와차던 의기양양한 절면피적인 악랄 목정이 되살아 우리의 울분을 더욱 자극시켰다. 저들은 그 비적을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외치면다.

"아시아를 제방사키고자 한, 아시아에 있어 유일한 근대국가의 자주백일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널리 알리고 기념해야 할 건국주요인 점에서..." 라고. 이같은 민정정의 기회주의 일본의 태도를 강건히 불결 보듯 한다면 우리는 수권을 또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전

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휴전위에 승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예전 3.1운동 정신에 명시되어 있는 <자주독립, 황대독립, 영정독립> 세 가지 중에 '영정독립'은 찾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 무정무령을 부추기자는 건 아니며, 국력의 배양과 정심 문화운동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즉 문화운동을 통한 '우리의 힘'을 지속성있게 되살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자기의 없는 역사도 날조 왜곡하려고 힘쓰는데 한국은 영원한 역사적 사실조차 외면, 망각하거나 나 몰라라 한다면 다시 내 것을 내어 주는 수모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관달할 수 있겠는가?

### 책임성 있는 지도자 필요

은 나라 하루하루의 뉴스가 언론, 진흥집 권다가 폭탄을 세해로 담판 기쁘다.

급변되어 부채 실형전 정치인들의 존박한 선거바람은 성남시 구석구석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생기를 넘기게 된 것이 할 것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아예, 손두리째 사라진 느낌이다.

지금도 그 슬픈 정당, 사회단체와 주장들이 국면으로 승회되지 못한 채 이전투구일 뿐이다. 이 시대 지도자들은 구호성은 배제되고 책임성이 강조된 인물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중지란은 자생력을 떨어뜨려 외침의 기회만을 재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그동안 외면되어 온 성남시 순국선열들의 의로운 애국정신을 계승처 가기 위해서라도 3.1 독립만세 기념탑과 역사관은 의당 세워져야 백년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내안으로 준비성 없던 19세기말, 그 치욕의 암흑기가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족과 사회의 국민들의 절망된 정심투성이 필요하다고 3.1절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의 사명감을 또다시 일깨워 보고자 한다.

(3.1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시티타임즈 (2002. 3. 5)

2002년 3월 5일 【화요일】

No. 406

city타임즈

# 故 박태현 선생 묘소 참배

## 3.1절 노래, 나팔불어요등 주옥같은 200여곡 동요 남겨



3.1절을 맞아 성남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서울 남서울공원묘원에 있는 '3.1절 노래'를 작곡한 고 박태현 선생 묘소를 참배했다./사진 남서울공원묘원

삼일절을 맞아 성남지역 각계 인사들이 야탑동 남서울공원묘지에 있는 3.1절 노래를 지은 작곡가 고(故) 박태현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다.

고 박태현 선생은 첫 소절만 들어도 우리 귀에 익은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

자...',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등 주옥같은 동요 200여곡을 작곡했다.

1907년 평양에서 태어난 박 선생은 일본 도쿄음악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일제의 음악활동 제

재가 심하자 평양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겨 첫 작품 '누가누가 잠자나'를 발표한 뒤 우리 동요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광복 이후에도 '산바람 강바람', '나팔불어요', '봄맞이 가자', '달따러 가자'등을 만들었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 '3.1절 노래'와 '한글날 노래'를 작곡했다.

그는 80년대초 성남에 정착한 뒤 93년 타계할 때까지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 하며 독립운동가 이용상(전 성남문화원장)선생의 노랫말에 곡을 붙인 애향곡 '나 성남에 살리라'를 작곡하기도 했다.

성남시와 성남 문화예술인들은 박 선생의 이 같은 음악 정신과 애향심을 기리기 위해 98년 박태현음악제와 동요제, 음악상을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박 선생의 선구자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어떠한 역사도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이죠”(남선우 원장)



opinion leader

성남문화원 남선우 원장

## “어떠한 역사도 소중한 지역 문화 유산이죠”



지난 1959년 우리지역에서도 만세 운동이 있었다. 지난 3월 성남문화원 주최로 열린 3.1절 추념식에서 용동공원에 3.1운동 기념탑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일취에는 성남향토사를 기록하고, 발굴해 온 성남문화원의 역할이 컸다. ▶ 3월 31일 3.1절 추념식 모습

“바로 이곳 용동 공원 마을이 1919년 3월 23일 만백성, 한순희, 남태희 씨 등이 주도해 각 마을의 3천여 명의 주민들이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겨우내 찬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용동공원 앞 4백여 명의 학생과 시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66회 3.1절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성남문화원 남선우(64) 원장은 말하는 목소리로 추념사를 읽어 내려갔다.

삼일절 추념식은 간소한지만 질서 있게 치러졌다. 거리 만세 행렬을 옛 그대로 용동 공원을 들어 재현하고, 3.1운동 기념사업회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우리는 열명들에게 먼저 라는 구상 시인의 추념시 낭송, 신미경 부용단의 ‘혼불이 무용.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남 원장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내년에는 용동 공원에 3.1운동 기념탑과 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지역 3.1운동 관련 향토사를 기록하고, 발굴해 온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밖에도 성남 문화원이 하고 있는 향토 문화 사업은 여러 가지다. 최근 정월대보름 민속연날리기 대회, 천원산 문화재 세현, 단군제 · 도당굿 등의 행사를 매년 치러낸다. 특히 향토문화연구소, 문화학교 운영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향토문화연구소는 강정일당, 문촌이집, 남한산성 등등 지역문화유산을 학술회의로 고증하고 알리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문화학교는 시민들을 향토 문화의 주인이자, 문화지도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3.1 운동 기념탑 · 체험관 건립 추진

지난 1958년부터 제작해 온 남선우 원장은 내년이면 8월 해로, 지역에서 제 13주년 문화원장이 된다.

남 원장은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지역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시에서 지원을 받지 간섭은 받지 않는다”라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향토 문화 연구

에 매진하고 있는게 모람이라고 밝혔다. 남 원장은 또한 추념식에서 밝혔듯이 올해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동 5천5백여 평에 삼일절 기념탑과 체험기념관을 건립하는 것 이외 더 붙여 우리 지역에 3.1절 노래를 작곡한 박태현 선생이 활동한 것을 기념, 선생의 흉상과 노래비도 세우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역사 흔적이라도 발굴하고 보존하는 활동이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옛 역사를 현대화 하는 일이 있어야 문화 도시 ‘삼남’이 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수경 · 정원 구와 분당구의 정서적인 갈등도 자연스레 해소되리라 봅니다.”

삼일절 추념식이 끝난 후에 남 원장은 시의원, 문화원 사업들과 인성사로 떠났다. 그 지역에 세워질 3.1운동 기념탑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향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그의 발걸음은 분주해 보였다. ▶



율동공원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한춘섭 회장)

분당에서의 3·1운동

# 율동공원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진혹한 일제의 총칼에 민족자존을 뱉었길 수 없다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날, 삼천리 방방곡곡이 만세소리로 뒤덮였으니 분당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분당에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처음 울린 곳, 바로 분당의 장티였다.

글 조규림 기자 · 사진 곽호 기자

1919년 광주지역 3·1만세운동의 진원지였던 분당 장티 지역에는 양명고교와 양명중학교가 들어서 있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까지 - 파고다공원의 열기를 달아

1919년 2월 고통왕제가 승하하자 백성들은 망국의 한에 뿔뿔을 실어 서울로 서울로 상경하면서 비몽함과 함께 빼앗긴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함일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때 율리에서 15대를 살며 고향을 지켜오던 한백봉 선생 일행은 고통왕제의 인산에 참석해 한운, 순병, 권병대, 오희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과 만나 만세운동에 적극 찬동하고 3월1일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3월1일 정오 약속시간이 넘도록 33인의 민족대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밀고자가 있어 33인 모두가 중요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파고다공원 만세소리로 뒤덮였다.

충동한 일본 헌병의 총칼에 시위대는 강제 해산되고 같은 고장에서 상경한 사람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납하기로 맹세했다.

한백봉 선생을 비롯해 광주군에서 상경한 유지들도 따로 모여 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 율리(현재의 율동)에서의 만세운동

한백봉 선생을 비롯한 유지들은 3월27일 분당 장남을 만세일로 정하고 주민들을 만나 서울의 소식을 전하며 독립만세운동의 필요성을 주지시킨 다음,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유창식, 한순희, 남찬희, 방준옥 선생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고 당시 낙생면장이었던 남태희 선생과 만나 돌아, 낙생, 대왕면이 함께 연합시위를 하기로 계획을 확정했다.

1919년 3월26일 오후8시경 이들은 율동 모란봉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27일 날이 밝자마자 마을 앞에 모여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분당리의 장티로 향했다.

분당의 장티에는 구름처럼 모여든 군중이 1000여명이나 되고 태극기 불결이 파도를 이뤘다. 한백봉 선생의 선장으로 만세는 시작되고 시위 군중들은 울릴 듯이 돌아면 서현리, 이매리, 여수리, 하대원리 등을 돌며 만세시위 운동에 돌입했다. 오후2시경에는 남태희 선생이 이끈 낙생면민과 결합하여 시위군중이 무려 3000여명에 달했다. 광주군 전역이 독립을 원하는 민족자존의 함성으로 울려퍼진 것이다. 날이 저물자 시위대는 준비한 촛불을 밝혀 시위를 계속하고 28일까지 분당에서 낙생, 돌아, 대왕을 오가며 목이 터져라 힘차게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남남산성 헌병대 1개 소대가 출동해 시위군중을 제책과 끈봉으로 미구잡기로 구타하다가 마침내는 충칼로 진압에 나섰다. 맨손투인 시위대가 괴물 풀리며 쓰러지고 한백봉 선생을 비롯한 지도부는 체포되었다.

민회부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한춘섭 회장

## “분당을 민족자존의 도시로 알려 나갈 것입니다”



2011년 3월 성남 향토문화연구원 주최,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1운동기념사업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을 민족자존의 도시로 알려 나갑시다’를 다룬다.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성남 향토문화연구회를 연구하다보니 82년 전 분당에 3·1만세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민족자존을 되찾기 위한 우리 지역의 민세운동이 분당 개발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열념

으로 3년 전 율동 3·1만세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로 정식 출범했다.

-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행사와 기념식을 진행하고 또 분당에서의 3·1운동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통해 이곳을 민족자존의 도시로 알려 나갈 것이다. 또 82년 전 3·1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분당 장티, 지금의 율동공원에 기념탑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성남향토문화연구회에 대한 관심이 बढ़은 것 같은데

시조를 쓰는 사람이다보니 옛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풍성고 국어교사로 있으면서 성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향토문화유산이 전혀 발굴·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아무도 하지 않는 향토유적을 발굴하고 계승

하는 일, 글을 쓰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남을 뒤져 연구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성남에도 훌륭한 선조들과 유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정일당, 문은 이집, 송산 조계, 분당의 3·1운동 등,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논문을 쓰고 후로사업 등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나의 작은 노력으로 그분들의 업적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성남사에서는 김정일당, 문은 이집, 송산 조계 선생 묘를 향토유적 1, 2, 3호로 지정하기도 했다.

향토유산 찾는 일을 개인적으로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남군 학원에 향토문화연구소를 만들어 뜻이 있는 사람이 함께 모였다. 지역에 있는 교수, 교사, 사업가 등이 모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글 사진 조규림 기자

님, 사랑, 침묵의 예술혼 (전보삼 교수)



분당의 민세운동을 주도한 한백봉 선생과 한순희 선생이 살았던 울리는 지금의 분당구 율동이다.



율동공원 안에 있는 창주 현씨 집안의 묘소. 울리가 창주 현씨의 집성촌이었음을 알리듯 나뉘어 있었다.

현병대의 총칼 아래 뿔뿔이 흩어진 시위 군중은 분을 삭이지 못해 뺨볼을 들고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고 29일에도 도처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으나 지도 부 없는 분당의 민세운동은 서서히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한산성 현병대로 끌려간 분당 민세운동의 지도부는 조선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며 더욱 당당히 맞섰다. 특히 한백봉 선생은 시위를 권유한 것도 시위를 주도한 것도 모두 내가 한 일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백봉 선생은 13개월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신간회 광주지회의 결성과 울산정려운동으로 이어진 조선독립운동 이때부터 분당지역의 항일정신, 독립을 요구하는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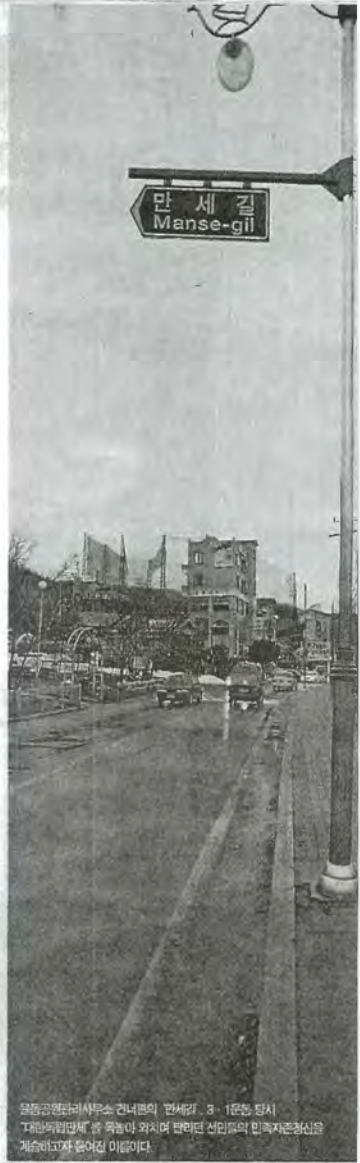
원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1927년 항일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자 한백봉, 한순희, 한용희, 한백호 선생이 주축을 이뤄 광주지회를 만들기도 했으며 울산정려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분당에서의 독립운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3월1일, 율동공원에서 82주년 추모식 열려

분당지역의 3·1만세운동이 알려지면서 1999년 3월 1일부터 율동공원에서는 추모식이 열린다.

조선독립을 요구하며 분연히 일어난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해 개최하고 있는 것. 민족자존과 고귀한 애국혼을 불태운 분당의 선열들을 추모하는 행사는 올해도 어김 없이 3월1일 율동공원에서 진행됐다. ●

글 조광항 기자 · 사진 고영호 기자



율동공원관리사무소 건너편의 만세길. 3·1운동 당시 '대한청년민세'를 목숨이 위기에 몰리던 성민동의 민족자존정신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이름이다.

2세기 -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 님, 사랑, 침묵의 예술혼

분당의 3.1운동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찾아갈만한 곳, 남한산성 수 어짐대 아래 자리한 만해기념관. 이곳에는 일제치하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굳세게 싸웠던 만해 한용운의 흔이 살아 숨낸다.

520평의 대지에 전통 한옥 건축미를 살려 지상2층 120평 규모로 지어진 만해기념관은 기획전시실, 교육관, 자료실을 갖추고 있다. 만해기념관에 들어서 나뭇배와 행인 울음이어 발걸음을 옮기면 민족진 조각가 작품인 만해의 흉상 이 일제 감장기를 살았던 그의 고뇌를 전한다.

전시실에는 일제 감장기물인 금서였던 '율령실문집' '영한지책' '월남양곡사' 등 그가 즐겨보았던 수백권이 전시되어 그의 저항정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또 '님의 침묵' 초간본과 100여 종의 판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체코어로 번역된 시집 등이 전시되어 그의 예술 혼을 접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조선불교유신론' '정선강의 채근담' 등 그의 저서 초간본과 친필유묵, 3.1운동으로 옥중에 갇힌 그의 옥중 저항을 보여주는 신문 자료, 만해 관련 연구논문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2층 교육관에서는 만해학교를 개설해 남한산성의 역사와 만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만해기념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신구대 전보삼(53) 교수는 '남한산성은 백제시대에는 하늘에 천재를 올렸던 성스러운 땅이며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와 끝까지 싸웠던 호국정신의 현상이었다'며 '일제에 끝까지 저항해 민족자존을 세운 만해기념관을 이곳에 세운 것은 민족자존의 역사, 호국정신의 성지를 빛내고 님의 예술 혼을 송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40년 이상을 한용운 연구에 바쳐온 그는 "그의 예술혼, 조국애를 기르기 위해 만해기념관을 세웠고, 이 기념관을 통해 민족을 사랑했던 만해의 정신이 이 땅에 피어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만해기념관은 주말에는 무료 개방하며, 평일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다. ●

관람문의 031-744-3100  
 글 · 사진 조광항 기자





남한산성에 들어선 만해기념관. 3·1만세 운동에 앞장선 한용운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광복절 애국선열 묘소 참배 추념사 (한준섭 초대 회장)

### 광복절 애국 선열 묘소 참배 추념사

이제의 강탈 만행으로 빼앗겼던 한 민족 독립을 위해 기미년 즉, 1919년 3월에 분연히 총 걸기하셨던 훈훈한 성남지역 위국충절의 선조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완전한 국가로서 독립되지 못한 채 각양각색 이념의 깃발들에 의해 분열이 심각하며, 분단하의 조국운영에는 아직껏 한 민족 평화통일이 먼 데서 서성거릴 뿐입니다.

오늘, 성남3.1운동 기념사업회 몇 사람 후예들이 영면하고 계신 큰 어른 유택 참배를 위해 모였습니다만, 그 누구도 자신있게 이 땅의 사암노릇을 한다고 차마, 양심적으로 말 하기 리면적을 따흠입니다.

허나, 84년 전의 선조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한 정당했던 민족적 자유정신이 끊임없이 후대에게 계승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진한 여건을 무릅쓰고, 집진적인 발전에 손발을 맞추어 매년 3.1절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는 <성남3.1운동 기념사업회>가 좀더 순국선열의 위업달성 지사정신을 훈모하는 사업은 지금껏 미약할 뿐 의례적 행사에 그쳤습니다. 이에 볼 광복절부터 조출한 헌작임배른서 정당했던 옛 위인 발자취를 되새기고자 하여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셨던 큰 어른 당신들' 재천 영정앞에 한 차례 더 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영면 중에 계신 당신들이여! 백절불굴하신 의기, 지순지경하신 고조, 언아무간하신 성신, 웅맹탁특하신 용개를 온 국민들과 후대인들이 존치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국가의 태평스러운 평화의 함성이 온 누리에 펼쳐등게 읊우해 주옵소서.

2003년 8월 15일

기념사업회 회장 한 준 섭



## 2. 성남 3·1운동에 관한 논설, 제안

소중한 문화유산 재창조돼야 (남선우/ 발언대)

지역발언대

# 소중한 문화유산 재창조 돼야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지난달 21일 향토 사학자 몇 분과 같이 마침 안성시 양성 성은리교개 3·1만세 운동 항쟁지에 43억을 들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당시 희생된 위패 봉안식이 있다고 하여 참배차 다녀왔다.

안성은 인구 14만의 년 1800억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 작은 시에 불과 하다.

작은 정원형 도시임에도 안성시는 그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단순한 보존과 계승을 넘어서 지역적 특성과 전통성을 지닌 채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창조하고 있다는 열정을 엿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안성시민은 그 지역이 호국정신의 요람지요 남사당패 놀이에 안성맞춤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 자부심을 지키고 승화시키기 위해 3·1만세 기념관 외에 유기 박물관, 남사당패놀이 전수관(6억5천)을 건립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문화 축제의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시책으로 주목받는 대목이다.

물론 문화축제는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자체가 시작되기전에 100개 미만의 문화 축제가 불과 몇년 사이에 6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충분한 검토와 기반 조성 없이 난립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축제는 명목뿐인 행사에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일회성 행사 뒤에 남는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때 안성시의 지역 특성과 전통성에 기반한 문화 시책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에도 자랑스럽고, 크나큰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다.

97년도에 성남문화원은 삼학사의 총절과 우리 나라 근대화의 여명을 연 실학사상의 집대성된 곳이 남한산성이라는 한,중,일 국제 학술회의를 갖은바 있다.

따라서 역사를 후세에게 밝게 조명하여 줄 시책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울동공원이 3·1만세 항쟁지이다. 그곳이 놀이 공원화 되고 있다. 그 울동공원을 민족의식이 숨쉬는 공원으로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원에 기념관을 지어 전시실, 체험 학습, 입체영상실들을 갖추고 항일 구국운동을 상징하는 청년작가 초대 조각공원, 3.1절 노래 작곡가 박태연선생 흉상들을 세운다면 공원을 거니는 시민에게 이 지역에 사는 자국이 될 것이다.

새시대는 이미지가 나라의 명암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그 이미지가 곧 문화인 것이다.

성남시는 디자인, 문화, 벤처도시로의 이미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다만, 문화 부분에서 전무한 전통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시 문화발전 환경조성에 시책이 따라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한다.

■ 본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울동공원에 3·1독립만세 기념탑을 세우자 (조병로)

내 일 정 론

울동공원에 3·1독립만세 기념탑을 세우자



조병로 교수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매년 2,3월 이맘 때가 되면 자유와 독립 그리고 조국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생각된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념과 종교 및 민족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새 천년 첫 번째 맞이할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조국 땅에서 난 신도밭이 음식을 먹으며 산다는 행복쯤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싶다. 정의로운 조상이 있고, 내가 있으며, 또 후손이 이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19년 2월 8일은 동경유학생들이 일본 땅에서 독립선언을 외치며 태극기를 드높인 날, 그 함성이 3월 1일에는 요원의 불길처럼 조국과 세계만방에 떨친 역사적인 날이다.

터졌고나 터졌고나 조선독립의 성(聲)/심연을 참고 참아 인제 터졌네/삼천리 금수강산 이전만 민족/사랏고나 사랏고나 아 한소리에/만세 만세 독립인 만만세/만만세 조선 만만세! 일제의 처하에서 얼마나 외치고 싶었던 절규요 희망이요 꿈이었으랴, 이러한 함성이 이곳 성남.분당벌에서 울려 퍼진지도 어언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세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울동공원(당시 돌마면 울리,분당리)에 시민의 뜻을 모아 3.1독립기념만세탑을 세우자고 제안하고 싶다. 당시의 3.1독립만세운동은 중부면 단대리,탄리,수전리와 대왕면의 수서리,울현리 및 돌마면 울리,분당리 그리고 낙생면 판교리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돌마면 울리와 낙생면 판교리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한백봉,한순회,남태희 등이었다.

한백봉,한순회는 1919년 2월 말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차 상경하였다가 3.1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돌마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지역유지 및 낙생면장 남태희와 함께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거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한백봉 등은 울리주민을 인솔,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며, 낙생면 판교리,백현리,운중리,공내리 주민들과 합세할 때는 거의 1천 명에 육박하는 군중이 가담하여 29일까지 3일간의 평화적인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판교현병주재소의 일본 헌병들은 주동자를 검거,고문을 가하였다.

그 결과 한백봉은 치안질서 방해를 이유로 보안법과 조선형사령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1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한순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어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 활약하면서 독립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것이다. 이와 같은 3.1운동은 을사보호조약에 의한 한일합병이후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자존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제의 총칼 앞에서 일으킨 거족적인 만세운동이요,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기개와 투혼을 높이 평가하고 되새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론을 통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조국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자유와 독립정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제아무리 세계화와 사이버상의 국경없는 시대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자주독립과 조국이 없으면 모래밭에 집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자기존재의 자각으로부터 시작하여 멀리는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여 멸사봉공의 공동체적 공의정신으로 성남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다같이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러한 표상으로서 울동공원에 3.1운동기념 만세탑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

3·1운동 기념사 사업회 창립기사

2000년 7월 4일 [화요일]

리빙타임즈

#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준비

## 분당 율동의 만세사건, 시민운동으로 계승

2년째 3.1절 추모식을 주도해 온 뜻 있는 이들에 의해 (가칭)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율동에서 발기인 첫 준비 모임을 가지며 회칙을 수정, 보완하였고 뒤이어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와 더불어 추진위원장에 한춘섭 향토사학자를 추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준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오는 8월 15일(광복절) 오후 3시에 성남문화의 집(신흥1동, 구 성남교육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광주군 3.1만세 운동'(발표자·백남옥 교수), '율동의 만세 운동 경위'(발표자·한동여 간사) 발표회도 함께 갖기로 합의되었다.

이처럼 81년 전의 성남시 역사적 사건 현장을 후세에 계승시키며, 지역문화 유산의 참 의미를 순수민간 단체에 의해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어 돌아오는 8월 15일의 창립총회에 관심있는 각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

당시는 경기도 광주군 율미면 율리로서 현 분당구 율동공원 일원의 조용한 한 마을에 살았던 한백봉, 한순희와 낙생면장을 지냈던 남태희 등에 의해 1919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하여 만세 시위운동은 있었다. 3월 26일, 율리 뒷산에서 마을주민 50여명이 봉화를 올리고, 27일의 분당리 장날을 택해 인근 지역주민 100여명이 일제히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 시위에 가담한 향토사의 숨겨졌던 애국선열들의 이야기 자료가 발굴되어 현창되어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사 제2편과 3.1운동사 기록에는 '관교 현병주재소 소속의 마쓰시마라는 일본 현병은 함



께 만세까지 부르고...'라는 글귀가 전한다. 오늘의 성남 지역 옛 만세시위 운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화적 시위였으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시위에 가담했던 인근의 마을 주민이 수백명에서 마지막 날에는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한백봉은 검거되어 1년의 옥고를 치렀으며, 유창석, 남태희, 방춘옥 선생들은 혹독한 고문까지 받은 것으로 기록에 전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백봉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추서, 한순희선생은 대통령표

창을 추서받기에 이르렀다. 본지 296호(금년 2. 22차 참조)에 특별기고로 발표된 한동여 성남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의 '기미년 3.1독립만세 운동(성남 율동편)'에는 '이 지역에서의 3.1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백만 시민들이 하나되어 민족자존의 정의로 운 기개와 독립정신을 일깨워 찬란한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정확하게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역사의 왜곡을 막아야 하겠다'라는 글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식에 성남시민 모두가 동참합시다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성남 3·1운동 기념 사업회에서는 성남문화의 집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본지(리빙타임즈)는 성남향토 역사를 올바로 계승·발전 시키려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 <5면 참조>

- 일 시 : 8월15일(광복절) 오후3시~5시30분  
 장 소 : 성남문화의 집, 제1강의실(2층)  
 학술발표 : 광주지역 3·1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백남욱-동서울대학 역사학교수>  
 울동의 3·1만세운동 경위  
 <한동익-향토연구원>  
 주 최 :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주 관 : (주) 리빙타임즈  
 협 찬 : 성남농협, 낙생농협동조합,  
 청주한씨 청련공파 중종

리빙타임즈

# '성남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 총회 개최

## 본사 주관 순수민간사업 추진 예정



기미년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 난지 81년여만에 순수 민간단체인 성남3·1운동 기념사업회가 탄생되었다. 지난 8월15일 오후3시에 성남문화회관에서 본사 관내 유관 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 성남3·1운동 기념사업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1부 창립총회는 김대진 지인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사에 이어 국민이례와 참석 내외빈 소개 및 시

장, 의회의장, 교육장 축하, 경과보고, 정관 심의 통과, 회장 및 임원 선출 등의 절차를 마쳤다. 참석자 모두가 경건하고 숙연한 가운데 선열들의 민족자존 독립정신을 새삼 되새기고 그 높은 뜻을 기리어 후손만대에 영원히 전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빛나는 조국광복을 이룩한 거룩한 민족 사람 정신을 가슴속 깊이 아로새겼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한준업 회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조상들의 뼈 아왔던 구

국 합참 이야기를 저손들에게 알리고, 민족 수호 정신을 천주하여 기억시키기 위해 성남시 순수민간 사업회를 발족시켰다"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1부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2부 행사로는 지교헌 박사(전 정신문화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학술발표회는 백남옥 박사(동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광주지역 3·1 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1910년대 광주지역의 애국운동과 외법전쟁, 광주지역의 신헌암성운동, 식민지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투쟁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광주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어 한동여 연구원(성남향토문화연구소)은 '운동의 3·1운동 경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운동에서 구정되어 왔거나

실제로 '독립운동사', '한민족독립운동사', '경기도독립운동사' 중 3·1운동기록', '광주군지', '성남지역의 역사 공간·현대의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등 기록으로 전해오는 사실들을 대조하여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 모두를 감동케 했다.

특히 1910년대의 국내외 사정과 고종황제의 승하소식에 집안 필요감산에 유익을 비롯한 전체 지식층이 상경하여 고종황제의 승하를 비통해 했으며, 33인 등과 만나서 대한독립의 당위성과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맹세하는 사태로 비화된 사실,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의 주도자인 한백봉선생 등은 성남지역인 읍마면·낙생면만이 연합해 독립만세운동을 펼쳐서 해서 그 군중의 수가 3천여명에 이르렀다는 사실, 3월26일~29일까지 열렬하고 끈기있게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층의 높은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논리 정연한 이론과 고매한 인품에

설파하였다고 설명하고 특히 운동의 유창성, 남산회, 만춘독선생 등은 끝까지 누구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내 나라 독립을 위해 자진해서 독립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실로 밝혀졌다.

3천여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이고도 한백봉선생 한 분만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록이라는 설명과 이같은 사실은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 사랑 정신의 극치라고 본다고 설명하자 참석자 모두는 뜨거운 감명과 각오를 새로이 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이제까지 발견되지 못한 기록이나 정황들을 조사해 재정리함으로써 확실한 기록을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열들의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계화 국제화를 의지는 내실해 한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이어 대화회 석상에서도



서 나오는 심오한 설득력이 전 주임을 설득받은 물론, 일본 헌병주재소장까지도 설득시켜 시위대와 함께 만세를 부르고 다녔다는 기록이 전해오는 사실과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의 당위성을

품은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으며 이를 계기로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는 헌장 제출을 내리게 되었다.

이 사업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리빙 타임즈사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702-9011)

# 성남 3.1독립운동 추념식 가져

## 울동공원, 역사 숨결 기릴 기념탑 등 사업 추진돼야

제83주년 3.1절을 맞아 분당 울동공원에서 추념식을 가졌다.

성남 문화원(원장 남선우) 주최, 3.1독립기념사업회(회장 한춘섭) 주관으로 치뤄진 이 행사는 올해로 4번째로 김병량 성남시장과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고흥길, 임태희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숭고한 선혈들의 뜻을 기렸다.

남선우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1919년 3월 26일부터 분당울동공원에서 한백봉,한순회,남태희 낙생면장 등 주변 1000여명이 만세 운동을 벌였다"며 "울동공원에 3.1절 기념탑과 역사 박물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3.1독립기념사업회 회장인 한춘섭씨는 "98년 당시 미발굴된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남에서의 만세 운동을 알게되어 오늘날 이



제83회 3.1절을 맞이하여 성남문화원 주최로 분당울동공원에서 추념식을 가졌다./사진 만세 삼창을 부르고 있는 참가자들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며 후세에 선혈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행사 참가자가 함께 부른 3.1절 노래에 이어 독립유공자인 이용삼씨의 선창으로 만

세 삼창을 부른뒤 추념식이 끝났다.

이날 식후 풍물굿패와 춤사랑 무용단의 '혼의소리' 등 추모공연이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 울동 3.1독립만세 기념사업회 창립식

## 본사 주관, 5차례 준비모임으로 학술발표회 병행

올아오는 8월15일 오후 3시 '성남문화의 집' 11강의실(2층)에서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제1부 창립총회와 이어 학술발표회를 준비한 후 2부인물은 지선도의 규년의 3.1절 추모식을 주관하면서 고교들로 성남 향토역사를 돌아보게 해줌·발간시키려면 순수 주민들에 의한 연례적인 행사가 기획되어 한다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을 비롯하여 고교자, 문화 예술인 및 성

년 각계각층의 동향이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3.1절 애국선열 추모식을 순수·주관한 이틀은 앞으로 3.1절 및 8.15 광복회 국경일을 기념 경기적인 문화행사와 함께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키워나갈 지역문화의 구성적 역할을 해보려는 데 있다. 성남지역에서 1989년 즉, 11년 전의 광주군 불미연 읍민에서와 조선독립만세 자건 등 당시 불미연 인근의 다성

고물로 진파되어 3천여명 천 주민들이 한일 국조 민족은 등을 '발했다'는 '선조들의 공 고한 나라사랑 의정'이었음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몇 사람의 위대한 불만이 기억되는 발로 자취 하면, 들여보낸 성남역사 의 문화유산이었던 일이다. 그러나 역년도의 기미년 80 주년을 맞으면서 성남문화원 회 합춘협(당시 향토문화원 구소장)을 위시하여 남산우 (성남문화원)와장 및 안평역 (향토문화원 구장) 이수영

대 추모식을 들뜬자언공민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지 역내 행사로는 최초로 거행 하게 이르렀다. 후대 안에 임규회 드물었던 전국 각 지 역의 조선독립정신이 우리 성남지역에서도 이 지역 또 지않게 불기하므로써 지평외 분담구 들뜬공민 마을의 그 당시 합성 의정'이었음도 오 늘날 성남시 전 시민을 하나 또 정치적 하는 성남사 발전 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데 기념사업회 창립의 의미나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창립식과 함께 그 당시 주 민들의 한때를들 경의를 소 상하게 증언할 들뜬 위주인 이면서 성남문화원 부설의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이기 도 한 사업회 2차 합동회의 발표, 한 향토문화연구소 부 소장이며 풍서물래학 역사학 교수 박남욱박사의 연구논문 발표는 자못,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업회 추진위원장을 맡아 해리하는 의정'있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호를 바라고 있다.

연, 대원, 중부권 권역 각 해 문화유산 바로 세우기의 사업은 여러가지 역사문화 사업과 각 시·도·자치단체의 후대 한 향토인물들이 품어있는 상태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우관상의 소출함에 의의 해 도음이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열충진과 정계사, 문림산, 남한산 각 고물과 산 지방에는 이 고장 정성온 가주의 신래 묘소가 그날 광 치원 재 아무런 추모사업 전 개를 생각하지 않고 개발, 조성의 논리에 따라 사주 그 지혜가 과용하거나 인됨되는 상태라고 해야 물론 표형있 것이다. 식정'있는 시민도 의 민회고, 행정논리에안 급극 한 고위 관리자를 조차 성남 의 역사와 문화유산 계승사 업에는 아주, 인색할 지경이 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러한 성남시 정책의 본 위키에서 지역사를 먼저 나 가고자 하려는 성남 3.1운 동 기념사업회' 창립식' 외다 는 관두고 하지 않을 수 없 고, 이 사업추진에 뜻을 한 해리하는 의정'있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호를 바라고 있다.

분양과요신문 / 2003년 3월 12일 ~ 19일 11

# 울동공원, 3.1운동 추념식 열려



지난 1일 열린 제84주년 성남 3.1운동 추념식 행사 사진. -김상현 시의장 회고사 장면-

지난 1일 울동공원에서 '제84주년 3.1 독립운동 추념식'이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회장 한춘섭)' 주관으로 개최됐다. 초·중·고교생 일반시민 대상으로 3행시 짓기도 처음 선보인 이날 행사는 1919년 3월26일부터 3일간 울동공원(당시 돌마면 윤리)에서 광주군(송파) 하남 광주 성남)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 동한 한백봉 한순회 남태희 선생을 비롯, 1천여명의 당시 독립운동가들 을 추모하기 위해 이 곳에서 열린 것

이다. 이 추념식은 시작 전 이대엽 시 장이 박태현(삼일절노래 작곡자)선 생 묘소지(남서울공원)에서 참배를 하는 것을 비롯, 남선우 성남문화원 장 추념사 및 김상현 시의회의장 회 고사도 있었다. 이날 참가한 많은 시민들은 그 당 시 겨레의 모습을 생각하며 애국선 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 졌고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 길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 과서 왜곡,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성

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회고 사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경계심 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 한 회장(62)은 "돌마면 윤리에서 의 독립운동은 그 당시 서울에서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을 광주군으로 확산시킨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 하며 "이 행사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시작됐고 애국정신 고취, 애향 심 발휘를 취지로 개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후년까지 '8월15 일 광복절' 및 '11월17일 순국순열 추념일' 시당송회 또는 학술발표회 개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3.1운동 추모달 및 3.1운동 기념 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성남 시에 이 계획안에 대해 율고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 안 성의 3.1운동 추모탑이 잘 건립되었 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표본으로 삼 고 있었다. 그러나 안성과 같이 잘 건 립하려면 몇 십억 예산이 필요함을 전하면서 한꺼번에 육십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순익 기자

**社 告**

## 3·1절 기념식 거행

성남지역의 3·1 독립만세 운동 발상지인 현 분당구 울동(당시 돌마면 율리-분당장날)에서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성남문화원 및 향토문화연구소 주최로 '제82주년, 3·1 독립운동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3월 1일(목) 11시~12시 반
- ▲장소: 울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
- ▲참석인: 성남시민
- ▲주최: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 ▲후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 성남교육청
- ▲협찬: 리빙타임즈/ 성남농협
- ▲추모식순: 개식-국민의례-묵념-기미독립선언서 낭독-기념사-추모사-만세사건 회고-3·1절 노래 부르기-만세삼창-내빈소개-추모노래가락-도로행렬-폐식

리빙 타임즈

2001. 2. 29 (358호) 리빙타임즈 1층

## 3.1절 독립운동 추모식

울동공원, 350여명 참가 광장 돌며 만세 재현

지난 1일 울동공원의 관리소 앞 광장에서 (2001년) 제82주년 3·1절 독립운동 추모식이 개최되었다.

달달 11시(목)를 시작하면서 울동(당시 돌마면 율리-분당장날)에서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성남문화원 및 향토문화연구소 주최로 '제82주년, 3·1 독립운동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도 고종익(분당구), 임태희(분당구)와 최 의환(분당구) 시의원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공서, 구청장 등 국민유공자 700여 명이 30여 명이 참석하여 울동공원에 울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에 모여 만세 재현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명기 상을 받으며 이준열 부장관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도 고종익(분당구), 임태희(분당구)와 최 의환(분당구) 시의원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공서, 구청장 등 국민유공자 700여 명이 30여 명이 참석하여 울동공원에 울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에 모여 만세 재현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명기 상을 받으며 이준열 부장관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도 고종익(분당구), 임태희(분당구)와 최 의환(분당구) 시의원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공서, 구청장 등 국민유공자 700여 명이 30여 명이 참석하여 울동공원에 울동공원 관리소 앞 광장에 모여 만세 재현을 시작했다.



오늘 같은 날이라면 (358호) 리빙타임즈 1층

**社 告**

## 3·1절 추념식 거행

성남지역 독립만세 운동 발상지인 분당구 울동(당시 돌마면 율리-분당리 정터)공원에서 3.1절, 독립만세운동 추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국하신 독립선열의 고귀한 '나라 사랑'을 영원히 계승시키고자 이 행사를 성남시와 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성남교육청 후원에 의해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3월 1일(목) 11시~12시
- ▲장소: 울동공원 관리소 광장
- ▲주최: 성남문화원
- ▲주관: 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 ▲후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리빙타임즈, 경기농협
- ▲추모식순: 개회-국민의례-선열에 묵념-독립선언서 낭독-문화원장 추념사-시정 시의정 회고사-추모예배(당공연 풍물팀-풍물굿패 실배(강술호외 20명) 판곡, 무용팀-춤사령 무용단(신미경외 8명) '후의 소리, 민요팀-윤금심 관소리(연영 외 20명) '관소리 창작, 명성황후, 수장군 실배국악 예술단(김영자 외 14명) 경기민요 부

리빙 타임즈

80주년 3·1절 기념식 열려

지난 1일 울동공원에서 제80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성남 역사상 최초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김병량 시장을 비롯하여 임동준 시의회 의장, 남선우 문화원장 등 각계각층 인사와 양정중학교 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 등 3·1운동을 재현해 그날의 민족혼을 되새겼다.

기호일보 제6226호

# 김포에 '3·1만세운동 기념관' 세운다

양곡택지 근린공원내... 이달 중 주민설명회  
40여 원 들여 내년 초 착공·2011년 완공계획  
기념탑·영상관 등 지어 '역사교육의 장' 활용

## 김포

독립운동기  
념관 조성사업  
은 3·1운동 기

념사업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달 안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설계와 설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유자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2011년 환경발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입지를 통해 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기자

yksw@kpo100.co.kr

김포시 양촌면 양곡택지개발지구 내에 3·1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독립운동기념관이 들어선다. 시는 김포시역 3·1만세운동이 도화선이 된 근대리(일국면)와 오르니 정리(영종면)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양촌면 양곡리 신 1단지 일대 2천

여의 부지에 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양곡택지지구 근린공원 내에 조성될 독립운동기념관은 기념탑과 전시실, 역사체험관, 다목적 영상관, 세미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총 40여 명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박지현 이사께서 새! 건강하세요~

**최첨단 성형외과**

■ 상담문의: (0342)714-0357  
http://www.dr-choi.co.kr  
이금의 2번출구 한양대학교 B/D 5층2호

# 리빙 타임즈

14층동 수문과 10층동과 10층동 10층 동양대 10층 동양대

**연세안과**

0342)702-7582 / 705-7582

코코플라자(금강할인대상)3층

1994년 6월 8일 창간 제 299 호 2000년 3월 3일(금) "바른 정보의 생활 소식" 전화: 0342)702-9011 FAX: 0342)701-0786

# '벤처타운 건설' 한 목소리

## 분당 출마 후보자 인터뷰, 정치 소신 등 6개 항목

분당 갑 을 두지역의 제16대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분당의 '지속가능발전'으로 '벤처타운'을 건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분당 두개지역의 출마 예정자들에게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개 분야에 걸쳐 시·군 인터뷰를 취합한 결과 나타났다(관련기사 4, 5, 6, 7면).

본지는 예상후보자들이 ▲정치에 대한 소신은 ▲분당구의 현안과 그에 대한 방안은 ▲분당에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면 ▲지역기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 프로젝트 등 6가지 항목의 질문을 요청했다.



다시외쳐 보는 "대한독립만세" 87주년 3.1절을 맞아 민족 지존의 가치를 높였던 분당 출동공원에 애국운동 재현 행사가 지난 1일 열렸다. 사진: 율동리연합회

후보자들은 정치에 대한 소신으로 대체적으로 화합과 상생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서비스경제를 내세운 후보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분당을 발전하게 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백중분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고, 디지털시대 대비 인프라를 구축, 독립시, 판교IC동행로 문제 해결 등을 절안으로 들었다.

신남 구축을 내세웠고, 다른 후보들은 분당 주민들의 교육수준 등에 걸맞는 문화·육구 층속에 초점을 맞췄다.

분당이 스스로 번거리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은 후보자 모두가 판교나 백중일대에 벤처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 후보는 이를 계기로 '서울을 쳐다보는 분당'이 아니라 '서울이 쳐다보는 분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꿈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문항에 있어서는 분당 지역 자부심 대변, 새로운 정치 열망, 지역대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지방대 졸업생 공무원 특채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지방대외 추천을 받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대 졸업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송고한 낚 기리며 김시장 참석 못해

지난 1일 자주독립을 외치며 희생한 선인들의 송고한 낚을 기리는 3.1절 기념식이 율동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1만세정신을 후대에 고취·계승시켜 나가자 당시 주민 1천여명이 기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성남시 독립운동의 발발지인 현 율동에서 선인들의 고귀한 애국혼을 추모식으로 더욱 선양코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2백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치는 만세소리로 선인들의 희생을 보답했다.

또 초대발자 못해도 참석 한 4.13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축하를 외쳤고, 시의원들도, 교육장도, 문화원장과 말지는 않았지만 시민들도 연속하면서도 경건하게 만세를 외쳤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한 낚에 성난지 실망을 받고 있는 김병환시장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었다. '오호나루 밑에서는 갓근도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듯이 김시장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지단체장 회의 제안을 준수해 참석을 못했다고 해서 해석이 된다.

## 치열교정 전문

교정전문회의 / 도송희 779-3793



루아지과

SAMSUNG PLAZA

리빙 타임즈는 주2회(화·금요일) 발행됩니다

1919. 3·1<주체, 문화, 기억>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토론회

3.1 운동 90주년 기념 국내 전문가 집중 토론회

# 1919. 3. 1

---

## 주 체 · 문 화 · 기 억

- 일 시 : 2009년 3월 20일(금)~21일(토) 오전 10시~오후 18시 30분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제2세미나실
- 주 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 사업단

## ● 일 정

○ 첫 째 날 : 3월 20일 (금) 오전 10시 ~ 오후 18시 20분

\* 등록 : 오전 10:00~10:20

\* 개 회 : 10:20 ----- 사 회 : 박헌호 (성균관대)

### ■ 제 1 부 (오전 10:20~12:00)

01. 장인성(서울대) : '정의'와 '평화' - 3.1운동기 정치사상에 나타난 지역과 세계

02. 김동택(성균관대) : 한국 근대국가형성과 3.1운동

※ 점 심 식 사 (12:00~13:30)

### ■ 제 2 부 (오후 13:30~15:40) ----- 사 회 : 이해령 (고려대)

03. 장석만(한국종교문화연구소) : 삼일운동의 '민족대표'와 종교의 의미

04. 이진구(호남신학대) : 식민지 근대성과 한국 개신교 그리고 미국

05. 이민용(영남대) : 불교의 근대적 전환 - 이능화의 문화론적 시각과 민족주의

※ 휴 식 (오후 15:40~16:00)

### ■ 제 3 부 (오후 16:00~18:20) ----- 사 회 : 박지영 (성균관대)

06. 권정환(성균관대) : 所聞 · 訪問 · 新聞 · 檄文 -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네트워킹

07. 소영현(연세대) : 3.1운동과 '학생'의 등장

08. 허영란(울산대) : 3.1운동의 지역적 성격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 둘 째 날 : 3월 21일 (토) 오전 10시 ~ 오후 18시 30분

\* 등록 : 오전 10:00~10:20

\* 개 회 : 10:20 ----- 사 회 : 류준필 (성균관대)

### ■ 제 4 부 (오전 10:20~12:30)

09. 박헌호(성균관대) : 3.1운동과 '남만'의 조우

10. 한기형(성균관대) : 3.1운동, '법정서사'의 탈환 -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11. 이해령(고려대) : 3.1운동 - 正史와 情史 사이 혹은 후일담의 기원

※ 점 심 식 사 (12:30~14:00)

### ■ 제 5 부 (오후 14:00~16:10) ----- 사 회 : 이봉범 (동국대)

12. 양근애(서울대) : 해방기 연극, 기념과 기억의 정치적 퍼포먼스 - 3.1운동 관련 연극을 중심으로

13. 정중현(동국대) :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 - 해방 이후 제작된 '유관순' 영화를 중심으로

14. 권명아(동아대) : 냉전의 신체 조형술과 1919. 3.1

※ 휴 식 (오후 16:10~16:30)

### ■ 제 6 부 (오후 16:30~18:30) ----- 사 회 : 박헌호 (성균관대)

※ 뒤 풀 이 (오후 18:30~)

## ● 목 차

01. '정의'와 '평화' - 3.1운동기 정치사상에 나타난 지역과 세계	장인성(서울대)
	- 1
02. 한국 근대국가형성과 3.1운동	김동택(성균관대)
	- 22
03. 삼일운동의 '민족대표'와 종교의 의미	장석만(한국종교문화연구소)
	- 33
04. 식민지 근대성과 한국 개신교 그리고 미국	이진구(호남신학대)
	- 41
05. 불교의 근대적 전환 - 이능화의 문화론적 시각과 민족주의	이민용(영남대)
	- 48
06. 所聞·訪問·新聞·檄文 -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네트워크	천정환(성균관대)
	- 61
07. 3.1운동과 '학생'의 등장	소영현(연세대)
	- 별지참조
08. 3.1운동의 지역적 성격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허영란(울산대)
	- 82
09. 3.1운동과 '남만'의 조우	박현호(성균관대)
	- 94
10. 3.1운동, '법정서사'의 탈환 -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한기형(성균관대)
	- 108
11. 3.1운동 - 正史와 情史 사이 혹은 후일담의 기원	이혜령(고려대)
	- 128
12. 해방기 연극, 기념과 기억의 정치적 퍼포먼스 - 3.1운동 관련 연극을 중심으로 양근애(서울대)	
	- 148
13.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 - 해방 이후 제작된 '유관순' 영화를 중심으로 정종현(동국대)	
	- 163
14. 냉전의 신체 조형술과 1919. 3.1	권명아(동아대)
	- 185

3·1독립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 천도교

제90주년 3·1독립운동기념 학술회의

## 3·1독립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일시 : 2009년 2월 28일 (토) 오후 2시

장소 : 용산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천도교종학대학원

## 목 차

식 순 .....	3
개회사 .....	4
격려사 .....	9
발표문	
1. 3·1독립운동과 의암 손병희/박성수 .....	6
2. 3·1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황선희 .....	51
3. 3·1독립운동의 영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현희 .....	71
토론문	
1. 『3·1독립운동과 의암 손병희』에 대한 논평.....	101
2. 『3·1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에 대한 논평.....	103
3. 『3·1독립운동의 영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평.....	106
부록	
1900년~1920년대 천도교활동 .....	108



## 개회사

이 정 희 / 천도교종학대학원장

천도교종학대학원에서 3·1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3·1독립운동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독립운동이야말로 우리민족 5천년 역사를 통하여 가장 고귀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3·1독립운동의 역사가 흐려지거나 잘못 알려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한 미래 창조의 살아있는 정신적 교훈이자 소중한 민족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던 3·1운동의 역사가 다시 우리들의 손에 의해 왜곡되어 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흔드는 망국적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을 바로 알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 90주년을 맞이하는 3·1독립운동에 대하여 그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을 올바르게 잡고 민족정신의 상징이요 조국의 독립에 불을 붙인 3·1독립운동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3·1독립운동과 의암 손병희, 3·1독립운동의 전개과정, 3·1독립운동의 영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을 중심으로 3·1독립운동에 대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신 박성수 교수님과 상명대학 명예교수이신 황선희 교수님, 성신여대 명예교수이신 이현희 교수님, 동국대 명예교수이신 김창수 교수님, 부천대 성주현 교수님, 국립경찰청 양성숙

박사님 등 국내 사학계의 석학과 신진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3·1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재조명하는 매우 소중한 학술회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3·1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오늘의 학술회의가 단순한 일회성 학술적 행사로 그치지 않고 온 국민이 3·1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학술대회 사회와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 그리고 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천도교 김동환 교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회의가 3·1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3·1독립운동의 정당한 자리매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뭇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28일

## 격려사

김동환 / 천도교 교령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별 없이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뭉쳤을 때가 있었다면 오직 3.1독립운동때 뿐이요, 그래서 끊어질 뻔했던 역사를 이을 수 있는 거족적인 힘의 발휘가 또한 3.1 독립운동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했으면서도 한민족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으며,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한국의 독립정신을 부러워하였던 것입니다.

90년 전 3.1독립운동으로 희생된 선열들의 영령 앞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명복을 빌고 앞으로도 그러한 민족적 위기를 당하여도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목숨 받쳐 조국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90년의 짧은 역사에 3.1독립운동의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되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요, 선열들에게 차마 머리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앞을 가리고 겨레의 장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과정이 있어 결과를 만들어 내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3.1독립운동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이날을 위하여 계획하고 힘을 쌓아온 어떤 힘이 필경 있었 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이 날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한다면 3.1독립운동의 정확한 실체에 대하여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똑똑히 알고 그날의 비통한 현실을 상기해야 애

국애족의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민족의 혼이 담긴 3.1독립운동의 역사는 한치도 왜곡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의 하나 자기 조상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종단을 앞세우기 위하여 3.1독립운동의 실체를 오용(誤用)한다면 그것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도 역사를 아는 분들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혹 위정자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역사를 그르치는 예가 있으니, 이 문제만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독립운동사에 정통하신 학자님 세분을 모시고 또한 예리한 시각의 토론에 응하실 박사님 세분을 모시고, 온 국민 앞에 3.1독립운동의 실체를 낱알이 밝히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으니 3.1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분들은 냉정히 판단하시고, 발표자들의 말씀에 한 치라도 잘못이 있다면 서슴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표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자라나는 2세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지 마시고 순수한 민족의 혼에 흠집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겨레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역사로 민족의 산정신이 우러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3월 1일에 어떤 TV방송이 서슴없이 유관순열사가 3.1독립만세를 선창하여 3.1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유관순열사는 3.1독립운동의 꽃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3.1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일 손병희선생을 중심으로 천도교, 기독교, 불교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탑골공원에서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힘이 지방으로 번지고 유관순열사는 한 달 후인 4월 1일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사실을 3월 1일 유관순이 만세를 처음으로 불렀다고 한다면 크나큰 역사적 오류입니다.

며칠 전 모방송국에 유관순의 재판기록을 가지고 작년 3월 1일 모아나운서가 보도한 내용을 지적하여 공개사과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세미나는 어떤 누구를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올바르게 알리자는 것과 앞으로도 어떤 정치의 힘이나 이기적(利己的)인 관점에서 역사를 그르치지 말자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발표자께서는 온 민족이 지켜보고 있다는 위치에서 민족(民族)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성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물론 양심적인 학자님들 그리고 대중을 지도하는 사명을 가진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들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오용하지 마시고, 3.1독립운동의 민족정신과 실체를 정확히 분석 장려해주시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포덕 150년(2009) 2월 28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 동북아역사재단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방에서도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멀리 미국에서 오신 서던 메소디스트대학의 토마스 존 녹(Thomas John KNOCK) 교수님, 중국 사회과학원의 경원즈(耿云志) 교수님, 일본 교토대학의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兪)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3·1운동 9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19년이 갖는 오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해석과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3·1운동 90주년을 뜻있게 기념하고 3·1운동을 거시적 시야에서 논의해보고자 하여 형식을 국제학술강연회로 하였습니다.

3·1운동은 계층·지역·성별·종교의 벽을 허무는 첫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제적 연계 속에서, 국제적 안목을 갖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3·1운동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제적 시야에서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919년은 세계 제1차대전이 종결된 직후로 베르사이유조약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가 성립되는 해였습니다. 더욱이 한국인들의 대규모 3·1독립운동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중국의 5·4운동과 일본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등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격한 변동을 치렀습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는 당시 하나의 이념적 지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3·1운동 90주년을 기념하는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를 논의하는 학술강연회를 열게 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현대시기에 들어와 한국과 중국, 일본은 침략과 저항, 지배와 피지배의 주체가 되어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1운동 90주년에 즈음하여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전 인류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90년 전의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를 검토하면서 당시 상황이 시사하는 오늘의 의미 등을 거시적 시야에서 반추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자양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오늘의 이 학술강연회가 오래 오래 기억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국제학술강연회 일정

09:30~09:50 등록

09:50~10:00 개회

개회사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오전 사회 이훈(동북아역사재단 제1연구실장)

10:00~10:5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父親張

- 김희곤(안동대 교수,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계사적 의의
- 토론 : 박찬승(한양대 교수)

10:50~11:4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경원즈(耿雲志,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 중국근대사에서의 5·4운동의 의의
- 토론 : 백영서(연세대 교수)

11:40~12:3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壽兪,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 :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와 3·1 독립운동
- 토론 : 최덕수(고려대 교수)

12:30~14:00 점심식사

\* 오후 사회 차웅환(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장)

14:00~14:50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 토마스 녹(Thomas KNOCK,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대학 교수) : 우드로 윌슨의 국제주의 : 과거와 현재(1919~2009)
- 토론 : 권용립(경성대 교수)

14:50~15:40 제5주제 발표 및 토론

- 김용구(한림대 한림과학원장) :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
- 토론 : 이근욱(서강대 교수)

15:40~16:00 휴식

16:00~17:30 종합토론 사회 :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여 백

제 6 편  
부 록

여 백

## 제6편 부록

### 1. 타 지역 만세운동 기념사업 자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안성 만세운동 기념관



화성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건국기념관에 전시된 독립운동가 수형기록카드



2. 자료편  
선언서



이 선언서는 남한산성 민족기념관(관장:전보성교수) 소장본으로 1919년 2월 1일 오후 2시 대회의장 및 탑골공원에서 최초로 배포된 독립선언서인. 이 선언서의 국문은 '吾等은 吾에 韓國의 獨立을 圖하고'로 되었으나, '韓國' 이 '朝鮮'로 잘못 인쇄되어 그것이 급박한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조선 소요사건 일람표

五 日	三 月	四三 日月	三三 日月	二 日	三 月	一 日	三 月	月 日
龍江面孔德里	(3) 開城郡開城府	(2) 同	同	開城郡開城府	(2) 京城府	延禧面楊花津	開城郡開城府 高陽郡 龍江面東幕	騷擾地名
								暴行
								行 無暴
								防正 未然
								人員 騷擾
高學	同	同	同	同	同	同	同	檢査 同上
								人員 檢査
								騷擾 檢査
								死 暴兵
								死 軍隊
								死 憲兵
								死 警察
								死 其他
								官公署民家數

朝鮮騷擾事件一覽表

京畿道之部

一九一九年四月六日作成



## 자료조사 위원

- 위 원 장 : 한 춘 섭(성남문화원장)  
          김 대 진(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장)  
위   원 : 한 동 역(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박 형 원(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성남시 지회장)  
          박 만 장(자료조사 연구위원)  
          윤 중 준(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표지사진 : 성남3·1운동기념탑

## 성남지역 3·1운동 연구 자료집

---

발행인 : 한 춘 섭 · 김 대 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발행일 : 2009년 8월 15일  
연락처 : 성남문화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26번지  
          tel. 756-1082  
          fax. 756-1065  
          e-mail. [culture1082@hanmail.net](mailto:culture1082@hanmail.net)

---

이 자료집은 성남시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비매품)



문의처

---

성남문화원 TEL : (031)756-1082, 1028